차 례

소설집 《개선》에 대하여

소설집 《개선》에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에 창작발표된 9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다.

소설집에서는 이 시기 발표된 작품들중에서 이미 조선단편집에 실린 소설작품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될수록 제한하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에 우리 문학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력사적환경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우리 민족에게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새 사회, 새생활을 건설하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실현하시고 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기지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미제가 38도선 이남의 조국땅을 강점하고 식민지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남반부인민들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고 그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창조적로동속에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였으며 우리 문학은 이 벅찬 현실을 터전으로 하여 새로운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 문학이 진정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발전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빚어낸 모든 후과를 철저히 가시고 인민에게 복무하며 새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건설하여야 할 문화는 철저하게 민주주의적민족문화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고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전선에서 싸우는 투사들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그들이 새 조국건설에서 자신들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크나큰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문학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건설의 길을 따라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다.

이 소설집에는 우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과 해방된 조국땅에서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맞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과 감격을 감동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개선》(한설야)이 실려있다.

해방후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을 격동시킨것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방된 조국땅에서 맞이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감격과 흥분, 흠모와 충정은 뜨거운 열정을 낳았으며 격랑과도 같은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작가들은 시대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과 수령을 맞이한 인민의 감격과 기쁨을 형상화하는데 힘을 넣었으며 그 과정에 창작된 대표적작품이 작가 한설야가 창작한 단편소설 《개선》이다.

작가 한설야는 해방전 《카프》작가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 《과도기》(1929)와 《씨름》(1929) 등 진보적인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그는 해방전 프로레타리아소설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인 장편소설 《황혼》(1936)을 창작한데 이어 장편소설 《청춘기》(1937), 《초향》(1939)을 련이어 발표하였으며 자서전적인 장편소설 《탑》(1940)을 창작하였다. 해방후 그는 새로운 현실속에서 자유로운 창작의 길을 걸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조국개선과 항일무장투쟁의 불멸의 력사를 반영한 단편소설 《개선》

(1948), 《혈로》(1946)와 장편소설 《력사》(1951) 등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해방후 수령형상문학을 개척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남기였다. 그는 또한 새 조국건설의 나날 뜨겁게 달아오른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의 열정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형상한 단편소설 《탄갱촌》(1946), 《얼굴》(1948), 《자라는 마을》(1949) 등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3부작 장편소설 《대동강》(1955)을 창작하였으며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담아 지난날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인민에게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미제선교사놈의 죄행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한 단편소설 《승냥이》(1951)를 그리고 1960년대초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인정륜리세계를 그린 중편소설 《형제》를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개선》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는 감동적인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과 수령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방방곡곡으로 퍼져 온 나라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던 그때 이 소식을 뒤늦게야 알게 된 만경대의 숙모님은 군중대회가 열리는 평양공설운동장으로 달려가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석단에 높이 모신 공설운동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아 주석단뒤에 이른 숙모님은 뒤설레는 심정을 안고 해방전에 겪은 가지가지의 가슴쓰라린 사연들을 더듬으신다. 바로 그 순간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확성기를 통하여 울려퍼진다.

작품은 이 위대한 력사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군중들은 물을 빨아들이는 해면처럼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장군님의 목소리는 소음을 잡아젖히면서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렸

다. 그것이 확성기를 통하여 온 장내에 찌렁찌렁 울리고 모란봉등어리에 부딪쳐 산울림까지 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만사람의 심장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충격을 남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만군중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연설을 마치고 주석단에서 내려오신다. 바로 그 순간 위대한 수령님과 주석단뒤에서 흥분된 심정을 억제 못하며 기다리시던 숙모님과의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진다. 뜨거운 포옹, 감격의 눈물…

그가운데 정겹게 울리는 《오늘은 작은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대립니다.》라는 수령님의 뜨거운 음성…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숙모님과 함께 차에 오르시여 차창밖으로 흐르는 정다운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장차 새 조국을 일떠세울 가지가지의 생각을 펼치시며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다.

소설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개선과 고향 만경대의 옛집방문에 대한 력사적화폭을 감동깊은 예술적형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면서 수령님께서는 14살되시던 해에 조국땅을 떠나시면서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던 굳은 맹세를 기어이 실현하시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시였음을 강조하고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민족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은 감동적인 력사적사실을 재현하는데 맞게 간결하고 격동적인 문체와 격조높은 묘사, 밝고 약동적인 양상을 보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주고있다.

단편소설 《개선》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초시기 소설작품으로서 새 조국건설시기 수령형상문학의 첫 기슭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소설집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천지개벽한 해방직후 우리 조국의 현실을 그린 많은 작품들이 실려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숨막혀 시들어가

던 우리 인민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참된 삶을 누려가는 새로운 변혁은 그대로 우리 문학의 풍만한 형상원천으로 되였으며 소설가들은 이 토양우에서 새 시대의 맥박으로 숨쉬며 해방의 현실을 반영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소설집에는 새 삶이 약동하는 해방직후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우선 해방후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새롭게 탄생한 로동자,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있게 그려낸 단편소설 《전기는 흐른다》, 《개벽》이 실려있다.

단편소설 《전기는 흐른다》(1945)를 창작한 소설가 리북명은 주체28(1939)년부터 장진강수력발전소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이곳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작가는 해방을 맞이한 그 당시의 실재한 체험에 기초하여 이 소설을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전기는 흐른다》는 해방직후 일제의 파괴책동으로부터 발전소를 사수하기 위한 장진강수력발전소 로동계급의 투쟁을 통하여 해방직후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애국적건국열의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특히 발전소에 《조그마한 파괴나 고의의 고장이라도 생긴다면 우리 종업원들은 삼천만동포들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을것》이라고 웨치는 부하계대표자 조영일, 동양에서 두번째로 큰 장진강수력발전소를 우리의 기술과 정열로써 기어이 훌륭하게 운전해나갈것을 결심하는 전기기술자 김창화, 보기만 해도 눈에서 불이 일던 왜놈들의 신주가 들어있는 집을 이제는 공원까지 달린 종업원들의 휴식소로 개변시킬 생각을 하는 토목계대표자 문석호, 해방의 열파속에 왜놈들이 각 공장에서 쫓겨나고 여러 공장들이 멎게 되면 발전소가 부하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극복방도까지 다 찾아내여 제기하는 전기기능공 박동수 등 발전소를 자기의 재산, 나라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며 이곳에서 건국사업에 헌신하고 새생활을 창조하면서 보람찬 삶을 꽃피우려는 인물들의 새로운 지향과 열의를 다각적으로 파고들어 그려내였다. 하여 일제에게 피땀을 빨리우던 산업기지를 해방된 조국땅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여 나라와 인민의 번영을 이룩하는 보람차고 행복한 삶의 믿음직한 터전으로 만들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새로운 모습을 뚜렷이 부각하였다.

단편소설 《개벽》은 작가 리기영이 해방직후에 창작한 농촌주제의 우수한 작품이다. 이미 해방전부터 농촌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농민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리기영은 나라없는 그 세월에 식민지노예살이와 가난과 천대속에 시들어가는 농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려고 모대겼지만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붓을 꺾고 강원도 금강군의 궁벽한 산골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리기영은 끓어오르는 감격을 안고 격동적인 현실에 뛰여들었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의 거대한 사변을 직접 체험하고 그를 소재로 하여 농촌주제의 작품으로 단편소설 《개벽》을 창작하였다.

작품에서 작가는 해방전에는 억눌리고 천대받고 굶주리던 농민들이 해방후 토지개혁으로 하여 어떻게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는가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주인공 원첨지의 형상이다. 원첨지는 소작을 할 땅도 못 가진 순박한 농민으로서 착취와 압박, 가난과 천대속에 5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가정을 가지고 자식도 넷이나 되였지만 땅이 없는탓에 살아나갈수 없어 자신과 가족들의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왔었다. 전해 겨울에는 당장 굶어죽을지경에 처하여 지주에게 사정사정하여 돈 50원을 빚내여 겨우 목숨을 부지한것이 가난한 원첨지일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원첨지에게 있어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준다는 토지개혁법령의 발포는 그가 땅의 주인이 되여 가난을 털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예고하는 큰 사변이였다. 그러나 원첨지는 너무도 억눌려살아온탓에, 정치적각성이 미약한탓에 이 거대한 운명전환의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여 그는 서울에 《중앙정부》가 서면 평양의 림시정부가 깨지고 북반부

의 민주개혁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주놈의 악설에 넘어가 토지개혁법령발포를 지지하는 군중시위에 온 가족이 떨쳐나설 때에도 나서지 않고 집구석에 박혀 짚신만 삼는다. 또한 지주놈이 집에 찾아오자 빚독촉을 온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해하며 지주놈이 토지개혁법령발포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마을사람들에 대해 마구 험담을 퍼부을 때도 묵묵히 듣고만 있는다. 지어 지주놈이 땅을 몰수당하기 전에 빚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려는 속심으로 리자를 빼고 본전만 닷새안으로 물어달라고 했을 때는 깍쟁이 황주사가 변리돈을 탕감해준다는것이 참 별일이라고 의아해하면서 리자를 받지 않을 때 빨리 빚을 갚으려고 한다.

소설은 지난날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멍이 든 원첨지의 사고인식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면서 그의 세계관의 변화와 성격장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집에 찾아온 농민위원장이 토지개혁의 엄연한 실시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상을 일떠세우는 놀라운 변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어서야 원첨지는 자신과 같은 가난한 농민이 땅의 주인이 되여 행복하게 사는 거대한 운명전환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였음을 깨닫고 《개벽이야!… 이거야말로 천지개벽이야!》 하고 격정을 터친다.

그후 원첨지는 마을에 조직되는 농촌위원회의 위원으로 천거되여 지난날 땅이 없어 천대받고 억압받던 가난한 마을사람들에게 땅을 분여하는 사업에 앞장선다.

소설은 가난한 생활과 봉건적질곡속에서 굳어졌던 원첨지의 미숙한 사상의식과 그의 개변과정, 농촌위원회 위원이 된 그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면서 토지개혁으로 하여 우리 농민들은 땅의 노예로부터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원첨지의 형상과 함께 김령감, 동준, 원첨지의 안해와 딸 등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대하여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토지개혁법령으로 많은 산림과 땅을 빼앗기게 된 황주사놈이 눈이 뒤집혀 반동요언을 퍼뜨리고 교활하게 책동하다가 남반부로 도망치는 형상을 통하여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성은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 악랄한 형태로 표현되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며 놈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전진하는 력사의 흐름은 결코 돌려세울수 없다는 진리를 강조하였다.

작품은 천지개벽의 거대한 력사적사실을 요란한 사건이나 이야기로가 아니라 평범한 농민일가—원첨지일가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 소박하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하여 시대의 거세찬 화폭을 느끼게 하는 작가의 예술적전형화의 솜씨를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개벽》은 토지개혁의 결과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게 된 농민들의 감격과 기쁨, 환희를 격동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운명과 사상의식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을 심오하게 반영한 작품으로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소설집에는 해방직후의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보람찬 창조적로동과 애국적헌신으로 조국을 받들고 참된 삶을 꽃피워가는 로동자,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한 단편소설 《애국자》(리북명, 1948), 《목축기》(황건, 1947), 《땅의 서곡》(천세봉, 1948), 《5월》(천세봉, 1947), 《이앙》(윤시철, 1949)이 실려있다.

단편소설 《애국자》는 작가 리북명이 단편소설 《로동일가》에 뒤이어 창작한 작품으로서 역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흥남로동계급의 투쟁을 그리고있다.

소설은 1947년말에 이르러 첫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날을 맞게 된 흥남로동계급의 감격과 흥분을 펼쳐보이고있다. 솔대문과 군중연예장, 프랑카드와 펄럭이는 기발들로 경축일색으로 단장된 공장과 주택지구, 여느때보다 더 일찍 출근하여 계획완수의 시간을 예측해보며 설레이는 로동자들, 긴장하게 기대를 돌리며 비료의 마지막생산을 다그치는 덕보, 드디여 년간계획을 완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고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

는 흥남의 로동계급.

소설은 년간계획완수의 장쾌한 순간을 감동깊게 펼쳐보이는것과 함께 주인공 덕보의 형상을 통하여 승리의 날을 안아오기까지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단편적으로 펼쳐보이면서 흥남의 로동계급이 높이 세워진 첫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은 힘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소설은 첫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로동계급의 장한 투쟁모습을 인상깊게 보여주고 들끓는 애국의 열정과 창조적로동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밝혀낸것으로 하여 의의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소설집에는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아글타글 노력하여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는 한 목부의 생활과 투쟁을 감명깊게 형상한 황건의 단편소설 《목축기》(1947)도 들어있다.

작가 황건은 중학시절부터 문학을 동경하여 많은 책을 읽고 습작도 하였으나 그의 문학활동은 8.15해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는 평양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들인 《산곡》(1947)과 《목축기》(1947), 《남아의 양》(1949) 등의 작품들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생활창조에 떨쳐나선 산간마을사람들의 감정과 정서, 그들의 생활과 념원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그 후 그는 탄광에서의 현실체험에 기초하여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수행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북부지구 탄광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한 단편소설 《탄맥》(1949)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 《안해》(1951), 《그가 돌아온 길》(1951), 《불타는 섬》(1952), 중편소설 《행복》(1952)을 창작하였다. 전후시기에 작가는 자기의 고향인 개마고원사람들의 생활을 생동한 서사적화폭으로 그려낸 장편소설 《개마고원》(1956)과 중편소설 《새벽길》(1960)을 창작하였다. 그후 그는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들인 《아들딸》(1965)과 《자라는 대오》

(1971)를 창작하였으며 1980년에는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목축기》에서 중요한것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창조적로동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인간들의 새로운 지향과 성격적특성을 잘 그려낸것이다.

작품의 주인공 형우는 양을 키우고 생산을 늘이는 자신의 일이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는 보람찬 창조적로동이라는 자각을 지니고 고마운 내 나라를 위해 더 힘껏 일하려는 열렬한 지향을 지닌 인간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형우가 해방전에는 개인목장을 운영하는 김학수의 밑에서 머슴과도 같이 고역에 시달려왔지만 해방후에는 당당한 국영목장의 책임자가 되여 생산에서도 개인목장을 앞서고 김학수의 완강한 반대에도 끄떡없이 그의 조카딸과 자신의 혼사를 실현시켜나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새 제도하에서 인간의 참된 삶과 권리를 찾고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근로자들의 새 모습을 인상깊게 보여주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창조적로동속에 값높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가는 근로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한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작품은 견인력과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단편소설 《땅의 서곡》, 《오월》, 《이앙》은 창조적로동속에 참되고 행복한 삶을 꽃피우는 농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이다.

여기서 《땅의 서곡》, 《오월》은 작가 천세봉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천세봉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여나 아버지의 손때묻은 호미자루를 물려받고 23살까지 농사를 지으며 최하층의 생활을 강요당하여온 농민이였다. 그의 유년, 소년, 청년시절은 오로지 땅과 굳게 련결된 고향마을에서 흘러갔다. 농민다운 소박한 기질, 농촌과 농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체험은 오직 그의 고향인 농촌과 농민이 길러준것이였다. 풍부한 농촌생활체험은 천세봉의 창작활동에서 귀중한 밑

천으로 되였다.

해방이 되여 자유로운 창작의 길이 열리자 천세봉은 농민생활의 체험에 기초하여 땅의 주인된 농민들의 창조적로동생활을 반영한 여러편의 소설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땅의 서곡》은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그리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막동이는 세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다섯살때 아버지가 만저우(만주)로 떠난 후 소식이 없어 삼촌네 집에 있다가 10년동안 왜놈지주의 심복인 정달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아온 청년이다. 그는 해방을 맞아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이 실시되는 전변된 새로운 현실을 목격하게 되고 동네처녀 남분이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서 점차 정치적으로 각성되여간다. 그는 사십리벌의 농토를 개간하는 관개공사가 농업생산을 늘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알고 어렵고 벅찬 이 공사의 앞장에 선다. 일부 사람들이 관개공사를 제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잘 동원되지 않자 그들을 일깨워주어 공사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여러 동네가 힘을 합쳐 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기도록 선전사업을 벌린다. 막동이자신은 밤잠을 잊고 매일이다싶이 공사장에 붙어있으며 홍수에 물이 불어나 공사중이던 뚝이 터지자 희생성을 발휘하여 동네사람들과 함께 뚝을 막는다. 막동이와 마을농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는 한주일이나 앞당겨 끝난다.

주인공 막동이의 형상에는 해방후 참된 삶과 보람을 안겨주시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이 시기 농민들의 높은 충정의 열도와 농업생산의 주인다운 태도, 높은 책임성이 반영되여있다.

작품은 새 조국건설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형상하면서 이 과정에 발현되는 농민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 그들이 로동속에서 새 사회건설의 보람찬 주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단편소설 《오월》은 농촌건설을 위한 창조적로동과정에 농민들속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인간관계, 새롭게 형성되는 정신도덕적풍모를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특히 두 농민인 형추와 치서를 그들의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의 생활과 대조시켜 땅의 주인이 된 한없는 기쁨을 안고 알곡생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는 우리 나라 농민들의 전형으로 그림으로써 농민들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제도가 가져다주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땅의 주인된 농민들의 창조적로동생활을 새로운 각도에서 그려낸것으로 하여 이채를 띤다.

소설집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이앙》은 작가 윤시철이 창작한 작품이다.

작가 윤시철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함께 작품창작을 시작하여 단편소설 《이앙》(1949)을 창작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그는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단편소설 《나팔수의 공훈》(1952)을 창작하였으며 그후 현지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장진강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친 우리 시대 청춘들의 끝없는 랑만과 열정, 자랑찬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한 장편소설 《거센 흐름》(1964)과 혁명전통주제의 장편소설 《태양의 아들》(1974)을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이앙》은 농민들이 분여받은 땅에서 더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하여 선진농법인 랭상모를 도입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하에서 형성된 우리 나라 농민들의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공동으로 랭상모를 하자고 적극 주장하던 삼봉령감이 그만 잘못하여 랭상모들이 죽어가고 이에 놀란 일부 농민들이 랭상모도입을 반대해나섰으나 랭상모에 대한 경험을 쌓은 기호가 살아남은 모를 가지고 랭상모도입을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결국은 공동으로 모내기를 흥겹게 하는 이야기를 실감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해방후 얼마 안되는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농촌의 새로운 발전면모와 농민들의 사상의식변화과정을 생동하게 그려낸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이처럼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은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여 창조적로동과 희열속에 새삶을 꽃피워가는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그리고 그들의 사상정신적성장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으며 새로운 현실속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이 시기 소설문학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집에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단편소설 《격랑》(김영석, 1948)도 실려있다.

당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괴뢰들의 반민족적책동으로 하여 국토분렬의 위기가 날로 커감에 따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높아갔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반민족적책동을 반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작가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우리 인민의 통일지향을 반영하여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여기서 대표적작품이 단편소설 《격랑》이다.

작품은 작가가 남조선에서 직접 체험한 생활에 기초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1948년 서울에서 《조선중앙일보》에 련재되였던 이 소설을 1950년 인민군대의 서울해방과 함께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다시 가필하여 발표하였다.

소설은 미제와 반동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적들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고 세차도 인민들의 기세앞에서는 거꾸러지고 말것이며 격랑처럼 밀려드는 분노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운영을 비롯한 긍정적인물들이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조국의 통일을 꿈꾸는 모습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진행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에 대한 동경, 조

국이 통일되여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행복하게 살게 될 래일에 대한 억센 믿음이 그들의 심장속에 굳게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격랑》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이 소설집 《개선》에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에 창작한 다양한 주제의 대표적인 소설작품들이 실려있으며 작품들은 환희롭고 벅찬 현실속에서 새롭게 발전한 우리 소설문학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은 이처럼 해방직후의 격동적현실을 반영한 참신한 소재와 형상의 소박성과 진실성, 다각적인물, 환경묘사와 풍부하고 세련된 어휘구사 등 문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많은 긍정면을 가지고있는것과 함께 일부 작품들에서 형상이 일면적이고 구상이 단조로우며 사건조직, 감정조직이 치밀하게 맞물리지 못한것과 같은 부족점들도 나타나고있다.

또한 해방직후 작가들의 세계관이 아직 미숙하고 사회주의사실주의 창작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한 조건에서 형상에서 전형화와 사상성이 미숙한것과 같은 아쉬운 점들도 내포하고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소설집에서 우리 문학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한 해방직후의 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될것이며 반만년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게 다지며 대혁신, 대비약의 거세찬 보폭으로 2012년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더욱 보무당당히 달려나가게 될것이다.

개 선

한 설 야

1

해방된지 거의 두달이 가까와오는데 날이 갈수록 날마다 날마다 감격이 새로와지는 력사의 도시 평양시가의 집집에서는 오늘도 기발들이 소슬한 가을바람에 펄럭거리고있다. 높고낮은 집집의 기와골이 유난히 번쩍거리며 쨰지는 가을해빛을 열심히 빨아들이고있다. 오고가는 사람의 생기있는 얼굴, 력사의 새 줄기를 찾아 밟는 그 발걸음에도 이 땅을 울리는 호흡소리 높다.

창주 어머니는 오늘도 사람이 모여선 곳마다 기웃거리고있었다. 아무리 해도 오늘은 자기 가슴에 풍겨진 커다란 의문을 품고가야 할 참이였다. 그 의문은 자나깨나 그의 가슴에서 홰불처럼 펄럭거리고있었다.

《**김일성**장군이 돌아왔다!》 하는 지나가는 소문을 들은지 이미 이틀이 되여도 그 적실한 사실은 알길이 없었던것이다. 아무와 물어보아도 처음은 저도 아는체 말을 하나 다가서서 따지면 그저 저도 들은 소문이라고 생게망게(생스럽고 터무니없음.) 대답할뿐이다.

그러나 례사롭게 그런가고 넘겨버릴수 없는 삼촌어머니였다.

장군은 모든 조선사람의 태양이지만 삼촌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더한층 밝고 따가운 존재였다. 장군은 바로 그의 남편의 조카니까 짜장 자기의 조카다. 사실 장군이 돌아왔을 말이면 집에다 알리지 않았을것 같지 않았다. 집에는 아직도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나 삼촌어머니는 좀더 널리 생각할수 있었다.

장군은 매사에 여느 사람과 다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딴 료량이 있어 그러거니 넘겨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것으로 견디여 참기 어려웠다. 비록 지나가는 소문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밑바닥까지 갈라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저 흐지부지하고말수는 없었다.

창주 어머니는 거리 길가에 모여선 사람중에서 그럼직한 사람을 골라가며 《여보십시오. **김일성**장군이 돌아왔다는 말이 사실이웨까?》 하고 물었다.

그런즉 거개 다 《글쎄,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합데다만 우리는 보지 못했쉐다.》 하고 대답하는것이다. 사람마다 소문을 들은것은 사실이니 때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 날리 없다고 생각되여 창주 어머니의 심장은 바짝 더 죄였다.

《그래, 나이는 얼마나 됐답데까?》 하고 물은즉 어떤 사람은 《글쎄, 아직 새파란 젊은이랍데다.》 하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어림짐작으로 《아마 한 40가까왔을거웨다. 벌써 우리 소문 들은지가 몇해요. 벌써 20년이나 되니까 그렇게 안됐겠소.》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창주 어머니는 그 말이 모두 근사하다고 생각하였다. 장군은 자기보다 열네살이 아래니까 바로 올해에 서른네살, 게다가 본시 기골이 뛰여난터이니까 파랗게 젊어보일 법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에 쌓은 탑이 만리성같으니 조선사람 가슴에 20년도 더 넘어 생각될 법도 하였다.

창주 어머니 얼굴에는 유난히 광채가 돌았다. 기쁨이 넘치는 가슴에서 심장이 높게 뛰며 손은 약간 떨렸다.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창주 어머니의 감격넘친 얼굴에 휩쓸리듯이 역시 반가운 얼굴로 《래일 오후 한시에 시민대회를 여니까 그때는 보게 될거웨다. 우리도 그때나 그 얼굴을 볼가 꼬바기 기다리고있는 길이웨다.》 하고 나이먹은 한 사나이가 상냥스럽게 일러주었다.

《래일 한시예요?》 하는 창주 어머니는 어쩐지 더욱 속이 후들후들 떨렸다.

《예, 래일 한시에 기림리 운동장에서 시민대회를 엽네다.》

《저 모란봉뒤 말이지요?》

《그런데 운동장이 좁아서 아마 터지게 될것 같소. 일찌가니 오지 않다가는 보지 못하리다.》

《그래 얼굴은 어떻게 생겼답데까?》

창주 어머니는 아직도 좀더 분명히 알아가지고 돌아가고싶어서 물

은것이다. 그러나 모여선 사람들도 역시 보지 못한터이라 그저 듣던 소문대로 《참, 듣던 소문같이 영웅기골이랍데다. 기골은 헌헌장부고 얼굴은…》 하고 그이상 말할 재간이 없다는듯이 그저 이렇게 대답하였다. 돌아서 만경대집으로 걸어나가는 창주 어머니의 눈에는 어린시절의 장군의 모습이 대보름달덩이처럼 떠올랐다.

그 잘 웃는 얼굴, 웃을 때마다 두볼에 파지는 인정머리있고 아름다와보이던 보조개와 류달리 애티있게 보이던 덧이, 억실억실하고 무한히 슬기있어보이는 눈… 이런것이 어제인듯 력력히 머리속에 다시금 그려졌다. 장군 아버님이 자작 지어 장군을 안고 부르던 자장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리맞춰 부르던 자장가를 창주 어머니는 지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외워가지고있었다. 창주 어머니는 입속으로 가만히 그것을 불러보았다. 그때 벌써 장군 아버님이 지은 노래에는 영웅동이 되여라 하는 구절이 있었고 맨나중 구절은 《우리 나라 광복사업 능할하자장》 하는것이였다. 사실 장군은 오늘 그 노래그대로 되여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창주 어머니의 발걸음은 마냥 빨랐다. 어서 집에 돌아가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또 한마당 펴야 속이 후련할것 같았다.

그날 밤에 창주 어머니가 오늘 평양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남편되는 장군의 삼촌도 이제까지 비밀을 지켜오던 사정을 대강 실토하였다. 장군은 벌써 숙부를 비밀히 청해서 잠시 만나보았었다. 그러나 워낙 나라의 몸이요 또 민족의 영웅으로서 우선 인민들앞에 개선의 첫소리를 올리고 사사로운 볼일을 찾는것이 순서일것이여서 래일 시민대회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리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숙부는 장군의 당부도 있고 해서 할머니에게만 장군을 만나본 사실을 이야기하고 부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던것이다.

《그래 나와 실속 못할건 뭬나요. 내가 어디 남이란 말이요.》

창주 어머니는 일변 반갑고 일변 토심스러웠다. 자기가 먼저 알아다가 온 가족을 한번 뗬다곶게 해야 할것인데 이제 듣고보니 알 사람은 먼저 알고도 아닌보살하고있은것이다.

《아니 글쎄 장군이 그러라는걸 내가 어기면 되오? 래일은 장군이 꼭 나올테니 기다리고있소.》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오. 그런 때 가만히 일러줌 내 얼마나 고맙겠소. 글쎄 남들이 다 아는걸 숙모가 모르고있으니 체면이 무어웨까.》

사실 숙모는 마음이 후련하지 못했다. 왜놈들한테 그 갖은 고초를 받으면서도 해달같이 기다리던 장군을 20리안짝에 두고 여직 못 만나보았다는것은 사정이야 어쨌든 너무 야속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2

그 이튿날 창주 아버지는 평양시내로 들어가면서 부인에게 일렀다.

《오늘 오후에 장군과 함께 나올테니 집도 치고 무얼 좀 준비하오. 나 다녀오리다.》 하고 역시 자기와는 가잔 말이 없어서 창주 어머니는 또 조금 부아가 날사 했으나 장군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집을 아니 칠수 없었다. 그래서 며느리를 데리고 먼지를 쓸고 거미줄도 치고 집안을 온통 쓸어냈다. 그러고보니 오래도록 왜놈과 지주한테 쪼들려살던 그 집이나 그래도 새로운 빛이 비쳐오는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웃방에서 노끈을 비비다가 이따금 뜰에 펴놓은 널개멍석에 내리는 새떼를 휘여— 하고 몰아버리고있었다. 뜰에 내린 해볕이 점점 널려졌다. 서쪽으로 돌아앉은 집안이 환하게 밝아질수록 숙모의 마음은 죄여났다. 일손도 잡히지 않아 심드렁해 앉았으려니 일생에 두번없을 아까운 기회를 속절없이 놓쳐버리는것 같아서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또 그것은 가라앉을줄 모르고 점점 더 머리를 들었다.

《에라. 장군은 어머니도 없고 숙모도 없다더냐. 어머니 안계신 장군이니 숙모가 어머니를 대신하면 못쓴다는 법 대정통편에도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온 조선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 장군이 왜놈과 땅임자놈들에게 한평생 구박받고 살아온 숙모를 괄시할 까닭이 없는것이다. 하물며 오늘은 온 평양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장군을 보러 가는데 내가 어찌 못 간단 말이냐.》 하고 주눅좋은 숙모는 기

어이 성수를 참지 못해서 머리를 새로 빗고 새옷을 꺼내입고 집을 나서 20리길을 단숨에 조여걸어 바로 시내에 들어가 기림리로 가는 전차를 잡아탔다. 전차에도 사람이 그득했다. 운동장 들어가는 어귀에 내리는 사람들이 회장으로 들어가다가 못해서 꾸역꾸역 몰려서있었다. 길가 좌우 소나무아래에도 사람이 들어차고 저 먼 모란봉 뒤산에도 희슥희슥한 사람의 그림자가 기수없이 어른거린다. 그렇건만 숙모는 기쓰고 이리저리 사람을 비집고 걸어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운동장부근 집집마다 지붕에 사람이 올라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나무에 올라가 앉아있기도 하였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아래서 기발들이 휘날리고 사람의 물결이 쉴새없이 늠실거리고있었다.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앞이 질리면 발뒤축을 들고 끼웃이 운동장편을 들여다보고있는데 그렇건말건 숙모는 그런것 다 아랑곳 할것없이 사람들사이로 부지런히 꾸지르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간신히 운동장정문에 이르렀다. 한즉 장내를 정돈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못 들어가리라는듯이 앞에 탁 가로막아서면서 뒤로 내밀었다.

《여보, 내가 장군의 숙모요. 그래 장군의 숙모가 못 들어가야 옳단 말이요.》 하고 이래저래 쌓여오던 앙심이 터지면서 한번 되게 먹이니까 그제사 길을 비켜주었다.

운동장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지나간 20년가까운 동안 목을 늘이고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저편을 바라보던 조선사람들이 오늘 그 그리던 장군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려고 너나없이 발돋움하고있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을것인가.

숙모는 한번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주석단쪽을 바라보았다. 키가 후리후리한 숙모였지만 아무의 얼굴도 분명히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조그만씩한 얼굴들이 가을 쨰지는 해별에 아물아물할뿐이다. 그래서 숙모는 다시 사람틈새기를 헤치고 들어갔다. 여러번 장내를 정리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나 끝내 연단앞까지 용하게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장내 경비원들이 더 들어갈수 없게 가로막고있었다.

《여보, 나 장군의 숙모요. 나 좀 들여놓아주소.》 하고 숙모가 간곡히 말하니까 한사람이 한참 아래우로 훑어보다가 《참말이요?》 하고 묻는데 노상 밀막지 않는 곰살궂은 말씨였다.

《참말 아니고,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소?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리 오시오.》 하고 높다란 연단아래로 숙모를 인도하였다.
숙모는 어찌 고마운지 몰랐다. 참말 해방된 새 조선의 경비원이 옳구나싶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허전히 차린 농촌부인을 드솟는 태양처럼 빛나는 장군의 숙모라고 곧이 믿을수 없을것이다. 숙모는 숨이 하아 나갔다. 새 조선의 감격이 다시금 가슴에 벅차올랐다.

3

이윽고 숙모는 연단우에 모여선 으리으리한 사람들중에서 장군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숙모는 부지불각에 제 손벽을 한번 크게 쳤다. 마침내 오매에 그리던 그 얼굴을 발견한것이다. 열네살에 만저우로 들어간 후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마음에 새긴 그 모습을 하마 잊을리 없었다.
《옳다, 꼭 옳다!》
숙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을 불끈 쥐고 쳐다보고있었다. 그 끌밋한 풍신, 둥그스름한 얼굴, 잘 웃는 얼굴, 쩍 벌어진 가슴, 겁낼줄 모르고 락망할줄 모르는 그 기상… 분명히 옛날의 어린 장군 그대로다. 모습뿐아니라 몸동작도 꼭 그 인상이다. 장군은 본시 어릴적부터도 그랬지만 언제든지 몸을 가만히 가지고있지 않았다. 새 무엇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몸속에서 움직여 몸의 동작으로 나타나는것이였다. 그러므로 그몸 전체에서는 늘 무엇이 생동하고 발기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래서 몸은 늙은 나무처럼 꽛꽛하지 않고 언제나 푸른 잎, 새싹처럼 부드럽고 자유스럽게 움직이였다. 거기에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는것 같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장군의 몸속에서 흘러넘치는 창조력의 표현일것이다. 이 몸동작도 숙모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었다.
《여보, 나 좀 장군을 만나게 해주구려. 내 급해서 그러오.》 하고 숙모는 싹싹히 구는 경비원에게 애걸하듯 당부하였다. 그런즉 《잠시 기다리시오. 함부로 올라오면 안되오.》 하고 경비원은 단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이리 오시오. 여게 앉아서 잠시 기다리시오.

지금 곧 연설하셔야겠으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장군의 자동차에 앉아 기다리라 하였다.

좀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당당한 장군의 숙모다. 그리하여 숙모는 북석북석한 자동차좌석에 앉으며 (아! 이날이 있을줄을 내 알았다. 장군은 기어이 돌아오고야 말았다. 조선이 독립하는 날에라야 돌아온다더니 정말 돌아왔구나. 자동차 타는것도 장군덕이야.)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뻐근하였다. 숙모는 그제야 자기 남편을 그 사람들속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 근방에는 아무데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녕 어데든지 있기는 있을것이니 그렇다면 아마 저 근감하게 둘러선 군중들속에 섞여있을것이다.

(흥, 나를 따돌리고 오더니… 나와 함께 왔으면 이 좋다는 장군 자동차 타보지.) 하고 숙모는 일변으로 괘씸한 생각이 나고 일변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연단우에서는 류량한 음악소리가 뒤를 이어나고 이따금 군중속에서 무너지는듯 박수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 모르면 몰라도 10만명은 될것이니 력사의 도시 평양으로서도 아마 첫 일일것이다.

각 공장의 로동자들, 멀리 농촌에서 온 농민들, 각 학교 학생과 단체원들이 표어와 기발을 들고 섰는데 어편데서는 뒤에서 잘 보이지 않을가 하여 기발들을 번쩍 높이 들어주고있었다. 일반시민들중에는 부인들도 굉장히 많았다. 장군의 얼굴을 보고 연설을 들으려고 이따금 황새목처럼 사람들의 머리가 쭈욱 올려밀기도 하고 어편데서는 장군을 손짓하며 무어라고 곁사람과 수군거리기도 한다.

이윽고 그 언제나 쉬인듯 한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하여 그 많은 군중의 가슴에 일시에 콱 안겨졌다. 군중들은 물을 빨아들이는 해면처럼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장군의 목소리는 소음을 잡아젖히면서 점점 더 우렁차게 울렸다. 그것이 확성기를 통하여 온 장내에 찌렁찌렁 울리고 모란봉등어리에 부딪쳐 산울림까지 내였다. 군중들의 요란한 박수소리가 이따금 장군의 말끝을 빼앗아갔다.

숙모는 장군의 말을 캐여듣기에는 아직 너무 흥분되여있었다. 아무

리 뛰는 가슴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좀체 달래여지지 않고 그저 자꾸 까닭없이 뛰기만 하였다.

(가만히, 가만히… 장군의 숙모가 어찌 이 모양일가.) 하고 숙모는 가슴을 만지며 힘써 돋우밟으려 하나 온몸은 자꾸 떨리기만 하였다. 숙모는 바싹 귀를 기울이고 장군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새겨볼수는 없으나 그 소리를 듣는 사이에 우리 군대가 들어오자 왜놈들이 거미새끼 흩어지듯 뿔뿔이 쫓겨가던 광경이 다시금 선히 보이고 그 광경가운데서 번개같이 휘날리는 장군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새까만 어둠속에 둥그런 해발이 솟아올라 오만천지가 모조리 휘황해지는 광경이 또 눈앞에 나타나고 뒤이어 수없는 사람들이 손에다 각각 새 연장을 들고 그리고도 발은 한결같이 한길로 물결처럼 내달리는 광경이 또 눈앞으로 방불히 지나갔다.

그때 만세, 만세, 만세… 하는 무서운 10만의 합창소리가 하늘로 퍼져올라가는 가운데서 장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 그림자는 숙모의 눈망울속에 마치 큰 바다 파도우에 솟은 태양처럼 두둥실 떠올랐다. 숙모는 무언지 모르게 기운이 나고 가슴이 안정되여갔다. 가슴에 매달려 종년 떨어질것 같지 않던 가지가지의 검은 기억이 휘황찬란한 해살에 불벼락을 맞고 물러가는것이 방불히 눈에 보였다.

왜놈들이 날마다 총칼을 내대고 협박하며 가택수색하던 일, 한번은 항일유격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제놈들이 일부러 던지고 가서 동네에서 몰래 부의(상가에 보내는 부조)를 가져오고 온 집안이 애통해하던 일, 놈들이 할머니를 만저우로 끌고가던 일, 자기의 아들 원주가 조국해방단을 무어가지고 장군과 련락을 취하려다가 놈들에게 붙들려가던 일, 붙들려가서 매맞던 일, 원주가 감추어둔 권총을 내놓으라고 놈들이 집에 뛰여들어 온 식구 가슴에 총을 들이대던 일, 경찰서에 원주의 밥을 이고갔다가 쫓겨나던 일, 원주가 장군의 사촌이라고 해서 해방되던 날 놈들이 맨처음으로 내놓았으나 거의다 죽게 되였던 일…

이런 검은 기억을 뿌려준 악마들이 금시 불벼락을 맞고 나가떨어지는것이다. 지금 머리우에 들리는 장군의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불벼락이였다. 대가리를 짜르면 꼬리로라도 사람을 물

어뜯으려던 왜놈들이 그 불빛속에서 속시원하게 천토막, 만토막으로 산산 토막이 나서 피를 물고 자빠지는것이 방불히 보였다. 이제는 숙모자신의 가슴에 생겨진 톱과 낫과 도끼로 이놈들의 산산 토막을 또 깨강정 두드리듯 해서 깡그리 없애버릴수 있을것 같았다. 꼭 그러리라고 숙모는 강심을 먹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자취 가슴에서 영영 사라지지 않을것이였다.

무너질듯 한 만세소리와 우뢰같은 박수소리에 싸여 장군은 그 널직한 가슴을 쑥 내밀고 우선우선하며 연단을 내려왔다.

《작은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장군은 웃으며 숙모의 손을 잡았다.

《아니 장군, 나를 알겠소?!》 하는 순간 숙모는 하마트면 눈물이 쏟아질번 하였다. 숙모야 분명 숙모가 옳지만 이렇듯 옛날의 그 인정 그대로 불러줄줄은 차마 몰랐다. 오늘은 옛날 만경대의 증손이 아니요, 전조선 3천만의 태양이요, 어버이요, 스승이다.

《아니, 내가 웨 작은어머닐 모르겠어요. 저한테 수태 애를 받았지요.》 하고 장군은 그 잘 웃는 웃음을 대판으로 터쳐놓았다. 그러나 숙모는 마침내 울음을 터치고말았다.

《옳쇠다. 장군은 온 조선의 장군이 옳쇠다. 이 나라 한풀, 한나무도 하해같은 장군의 은혜를 입을것이웨다.》

숙모의 눈물어린 눈에는 장군의 얼굴이 더한층 만화경처럼 빛나보였다.

《작은어머니, 집으로 갑시다.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작은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대립니다.》 하고 장군은 숙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향하여 달렸다. 기발 휘날리는 거리에는 사람의 물결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날을 위하여 장군은 인민의 앞에 서서 싸웠고 인민은 장군을 따라 싸웠다. 그리고 또 오늘 장군은 왜놈이 짓밟은 페허의 조국을 이끌어 선두에서 싸울것을 맹세하였다. 자기들의 령도자를 에워싼 이 땅의 물결은 곧 조국을 사랑하는 인민의 마음! 그 마음 밑창에서 불려나오는 열화만이 새 조국을 쌓아올릴것이다.

4

정작 장군의 집에 가놓고보니 숙모는 무슨 말부터 꺼냈으면 좋

을지 또는 20년 풍파속에 쌓인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잠시 갈피를 추지 못하고있었다. 그럴판에 곁방에 있던 장군의 숙부가 복도로 나오다가 의외에 자기 안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님자는 어떻게 왔습마?》 하고 물어서 숙모는 대뜸 기가 나서 보란듯이 웨쳤다.

《아니, 난 못 온답데까. 온 조선사람이 누구나 다 장군의 연설을 들을 권리가 있고 들으려고 모여오는데 작은어머니가 못 올게 뭐란 말이웨까. 나를 따돌리고 오더니 연설도 못 듣고 뭘 했소?》

《난 장군이 나오지 말래서 안 나갔소만 그래, 님자 정말 구경 갔댔습마?》

《말마소. 보아도 이만저만일줄 아오. 장군 자동차 타고 봤다우.》 하고 말하다가 별안간 생각난듯이 장군을 향하여 말하였다.

《아니, 나 장군한테 질문 좀 해야겠소. 그래 할머니, 삼촌 다 알리면서 심봉사 잔치처럼 나만 어째 따돌렸쇠까. 내가 장군 아버님이 장군을 안고 부르던 자장가를 지금도 한마디 안 빼고 고스란히 외고있는 백성이웨다. 세상이 넓어도 그것을 알 사람이 누구웨까. 그러니 누구니누구니 해도 내가 장군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웨다. 작은어머니라도 류만부동이지요. 내가 비록 농토에 묻혀 이제 반백이 되여가오만 오늘까지 장군 아버님과 장군의 뜻을 꼭 잊지 않고 지켜온 백성이웨다.》

《아니, 내가 오늘 밤에 만경대로 가려던 참입니다. 그러니 우정 들어올거 있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알려주는거야 상관있쇠까. 그런데 장군이 말을 내지 말래서 저 고집쟁이 량반이 끝내 내게도 알려주지 않았다우. 그래 나만 따돌리는 리유 좀 알읍시다.》

그러자 장군의 숙부가 《님자 알면 또 다른 사람도 알게 되지 않습마.》 하고 웃었다.

《아니, 저 소리 좀 들어보지. 해방된 오늘에도 그래 또 녀자를 무시하고 따돌려놀 심이오. 여보소 장군, 말 좀 하시소. 그래 또 남자들끼리만 나라 만들잔 말이요.》

《아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인제 다 알게 되지요. 내 방으로 갑시다. 어머님이 안계신 오늘에는 작은어머니가 내 어머니니까 오늘은 내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만경대로 나가십시다.》하고 장군은 여전히 웃으며 숙모를 자기 방으로 인도했으나 그 얼굴에는 어느덧 한가닥 서글픔이 떠도는것 같았다.

《아무렴 그렇지요. 인제 장군이 바른말 했쇠다. 내가 장군 어머니 되여서 안될 리유 없지요. 날더러 장군 어릴적 일을 물어보시오, 하나나 잊은것이 있나.》

《내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진작 알리지 못한것도 내가 나가뵈워야지 들어오라 할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불러주시오. 장군의 말이면 내 무슨 소리든지 다 듣겠쇠다. 아니, 온 조선강토를 거느릴 장군의 말에 누가 거역하겠쇠까. 그때는 나도 작은어머니가 아니라 조선 백성의 한사람이니까 안 들으면 내가 옳지 않은 백성이지요. 그러나 나는 충실한 장군의 백성이웨다. 그러기 지금도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쇠까. 내가 왜 증손이란 아명을 잊은줄 알우.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장군이라고 부르는것이 제일 좋아요. 조선의 장군이면 어떤 조선의 장군입네까. 그러나 장군! 내가 혹시 실수하는 때가 있더라도 용서하시오. 나는 남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랑이 앞서서 탈입네다. 그래서 혹시 일부러 우리 **김일성**이라고도 불러보지요. 장군님, 용서하시오.》

장군도 숙모의 막힐줄 모르는 말솜씨에 탄복하였다. 왜놈들이 녀성들의 입을 틀어막고 지식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조선인민들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동등한 지식을 배우고 자유로 발전할수 있게 하면 앞으로 놀랄만큼 발전할것이라싶었다. 장군은 새로운 숙모를 발견하는것 같았고 새로운 인민을 발견하는것 같았다.

장군은 왜놈들이 짓밟아놓은 조선사람의 지능을 빨리 열어주어야 하리라 생각하였다. 농민들에게 옳은 사상을 주고 학문을 속히 주어야 하리라 하였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놀라운 지혜가 다시 살아날것이였다. 농촌의 남자들과 아낙네들의 《가갸거겨》 읽는 모양, 아들, 손자들에게서 글배우는 늙은이들의 혀꼬분 소리가 탐탐히 보이고 들리는듯 해서 장군은 부지중 웃었다.

《작은어머니, 이제 농촌선전대의 일을 보십시오. 조선농촌은 이제

아주 좋아집니다. 왜놈과 지주한테 압박과 설음받던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장군은 사실 벌써부터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있었다.

조선인민의 열의 여덟은 농민이다. 로동자들의 생활과 아울러 이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지 않고는 조선현실의 개변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장군은 항일투쟁중에도 항상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을 짜고있었다. 장군이 지금 생각하고있는 새 조선의 기본강령에 있어서 토지문제는 가장 중요한것이며 맨 급한 문제의 하나이였다.

우리 나라 농촌이 왜놈들아래에서의 그 추악한 꼴을 털어버리고 날로 새로운 락원으로 변하여가서 땅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을 노래하게 될 그 즐거운 전경을 장군은 벌써 머리에 그리고있었다. 남편과 안해와 어린이들 뒤로 강아지까지 꼬리를 저으며 따라나서는 농촌풍경을 상상하는것은 즐거운 일이였다. 살진 논밭에 무르익은 오곡은 헐일없는 농촌의 그림폭이요, 곡식 자라는 소리는 다름아닌 농촌의 음악일것이다. 이것은 오직 땅이 발갈이하는 사람의것으로 될 때에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즉 땅가는 사람이 땅임자로 되는 때에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장군은 또 말하였다.

《조선은 인제 잘됩니다. 모든 인민이 다같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량반도 상놈도 없고 남자와 녀자의 차별도 있을수 없습니다. 며칠동안 잠시 조선형편을 살펴보아도 인민들의 희망과 열성은 확실히 불타고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새 조선을 만들어내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장군은 잠시 말없이 10월의 따사로운 볕이 내린 앞뜰을 눈부신듯 내다보고있었다.

5

숙모는 분명 장군의 얼굴에서 오래도록 그리던 조선의 모습을 보았다.

《아무렴, 그렇게 돼야지요. 장군이 누구를 위해 싸웠습네까. 또 조

선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장군을 우러러보고 싸웠습네까. 백성은 어리석은것 같아도 제일 령리한 사람들입네다. 어린애와도 같습네다. 속일래야 속일수 없습네다. 진정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야 따라갑네다.》

《그래 내가 싸우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때문에 싸우는줄 알았습니까?》

《아다뿐입네까. 섧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또 기쁜 소식이 있어도 강건너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김일성**장군이 어서 건너오지 않나, 어서 와서 이 땅에 있는 저 아귀같은 왜놈들을 당장 박살을 내주지 못하나 하고 기다렸습네다.》

《그래 내가 보천보에 들어온 소식도 이내 알았습니까?》

《알구말구요. 조선은 꼭 독립된다구 술렁거렸습네다. 장군이 그해 가을 9월에는 꼭 서울 와서 왜놈을 쳐부시고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했습네다. 어디서 불만 나도 에구, 김장군이 들어와서 왜놈들에게 불을 질렀구나 하고 기뻐했습네다. 보천보 치던 그 전해에 또 국경 어딘가 친 일이 있지 않습네까. 그날 밤 그 만저우 어느 거리가 밤새도록 탔답네다. 그래서 이편 조선사람들이 밤새도록 원근에서 자지 않고 바라보았답네다. 빨리 조선안의 왜놈들도 저렇게 싹 불질러 없애달라고 축원했습네다.》

사실 그때 조선안에서는 별별 소문이 다 돌았다. 조선사람들은 장군을 바로 자기 눈앞에 본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래서 바로 장군을 자기곁에 느낀 조선사람들사이에서 생긴 소문이 이구전파(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퍼짐.)해서 장군이 지금 혜산에 왔느니 아니, 단천 왔느니, 금시 서울로 쳐들어가느니 하고 참답게 수군덕거렸다. 숙모는 어찌하면 그때 정경을 떠온듯이 그릴지 몰라서 답답한듯이 몸을 바시대고있었다.

《남만 바라서 말고 자기들도 싸워야지요. 가만히 앉아서 흰쌀밥 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야 그렇구말구요. 우리 집의 원주 말입네다. 그 애가 소학을 마치고 중학으로 들어갈라니까 장군의 동생이래서 안 들여주었쇠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로동했지요. 그러니 글이야 무얼 배웠겠쇠까. 그래도 그 애가 조국해방단을 만들어 무기까지 준비해가지고 장군있

는데로 명령받으러 가자다가 그만 붙잡혔습네다. 그때 내가 경찰서에 가보니까 숱한 청년들이 갇혀있어요. 그게 다 제 살일이나 제 집일 하다 들어갔겠습니까. 어떤 청년은 저놈들이 두드려패고 코로 물을 먹인다, 고추가루를 부어넣는다 하는통에 세멘바닥을 손톱으로 긁어서 죄다 뒤로 젖혀졌는데도 점심 먹을 때 끼웃이 들여다보니까 그도 나를 내다보고 빙긋 웃으면서 눈인사를 합데다. 아마 저희들과 같은 청년의 어머닌줄 알았던가봐요. 그래 나는 그때부터 기운이 납데다. 오! 내 아들도 외롭지 않구나, 동무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뒤를 이어 자꾸 있을것이라 생각했쇠다. 온 조선사람이 모두 떠들고 일어나주기를 바랐쇠다. 아니, 나부터도 그까짓 놈들이 무어 무서울것 있으랴, 내 아들이 죽는데 낸들 무어 죽는게 그리 겁나랴싶었쇠다. 내가 죽느라면 내 뒤에도 사람이 있을테지. 아니, 첫째 우리 장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배심이 생겨서 그담부터는 경찰에 밥을 가지고가서 내 아들께 먹이겠다고 떼를 썼쇠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간이 커집데다레.》

《하하하, 작은어머니. 그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조선사람 살아나는 공붑니다.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는거고 싸워야 이기는거지요.》하고 장군이 말해서 숙모는 버쩍 더 신이 나고 말문이 열려졌다.

《그리고 어디 경찰서뿐인가요. 감옥에 잡아넣은 숱한 사람들이 거지반 그런 일로 들어간거지요. 다리갱이 물려날 놈들이 그런 사람때문에 밤낮 눈에 쌍심지를 달고 개처럼 싸댔지 어디 조선사람 살리려 다녔습네까?》

《만경대집에도 여러번 나갔었지요, 그놈들이?…》

《여러번이라니, 밤마다 앞뒤문에 와 섰다가는 한놈이 호각을 호로로 불면 일시에 문을 잡아채며 무기를 들고 들이닥치는데 맨처음은 정말 간이 뒤집혀질번 했습네다. 어른도 어른이지만 첫째 어린이들이 경풍날 지경이였쇠다. 놈들이 들어와서는 총끝, 칼끝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가슴을 콱콱 냅다 지릅네다레. 그리고 까딱 말고 여기 숨은 사람을 내놓으랍네다. 장군을 찾아보다가, 영주를 찾아보다가, 괜히 이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집자리를 날구자는 심사였지요. 그러나 하도 여러번 당하니까 차차 악심이 나더군요. 그담에는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원주덕에 경찰서 다니게 됐지요. 내가 그통에 간이 버쩍 커졌쇠다.》

《하하하… 됐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또 싸움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많이 싸워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선은 빨리 행복한 생활을 찾을수 있습니다.》

《나뿐 아닙네다. 할아버지는 안 싸운줄 압네까. 할아버지 정말 대단합네다. 그러기 놈들이 그렇게 갖은 위협을 다 했어도 할아버지는 그놈들이 우리를 왜놈의 성으로 고치랄 때 기어이 안 고쳤습네다. 승냥이들 성보고 사람 안 물어갈줄 아느냐, 성을 고쳤대서 놈들이 조선사람은 안 잡아갈줄 아느냐 하고 놈들이 별 위협 다 해도 막무가내였습네다. 장군집이래서 놈들이 더했지요. 그래도 안 들었습네다. 할머니를 만저우로 끌어가려고 찾아온 놈들이 돈뭉치를 내놓는걸 할아버지는 뒤집어 팽개쳤습네다. 늙어도 **김일성**할애비다, 돈과 손줄 바꾸겠느냐… 하고 호령했습네다.》

《참, 그때 할머니 무던히 고생하셨지요.》

《가을사과 익을 때에 가신 할머니가 그 이듬해 봄이 되여도 안 오시지요. 그래 우리는 꼭 왜놈한테 잘못된줄 알았다우. 그래 장군도 할머니 만저우 가신 소식 들었습네까.》

그때 왜놈들은 할머니를 인질로 만저우에 잡아다두고 장군을 귀순시키려고 오만너스레를 부렸고 나중엔 귀순 안하면 할머니를 죽인다고 떠벌였다.

《그럼요. 어느날 어느 촌에 다녀가신것까지 첩경으로 다 알고있었지요. 그러나 왜놈의 술책인줄 아는데 내가 넘어갑니까.》 하는 장군도 그윽히 그때의 감회가 다시금 새로와졌다. 그때 장군은 늙은 할머니가 또 왜놈의 총에 꼭 잘못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더욱 단단히 가졌다. 죽일테면 죽여봐라 하고 버틴 장군의 마음도 물론 괴롭지 않을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선강토와 조선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가운데서 그 원쑤를 갚으리라 하였고 또 그렇게 싸우는데서만 놈들은 질겁해서 할머니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장군은 생각하였다. 그 생각은 적중하였다.

《실상 장군이 끝까지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눈 한번 끔쩍 안하고 피로써 싸웠기때문에 저놈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손을 마음대로 못 댔

지요. 저놈들이 참말 장군을 무서워했습네다. 이 근방 주재소 순사놈들이 모여앉으면 **김일성**이 나오면 맨먼저 우리 목부터 벨것이라고 하면서 걱정했답네다. 그러기 우리 원주도 그놈들이 그 숱한 사람들중에서 제일먼저 내놓으면서 이러더래요. 〈애, 너의 형님 나오거던 내나 너를 놓아주더라고 그래라. …〉 하고 애교를 부리더래요.》

《그놈들이 죽을판이니까 별소리 다 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작은어머니 말이 구수합니다. 살려고 애쓴 사람의 가슴에는 늘 진정한 말이 살아있는 법입니다.》

장군은 농촌에서 압박받던 숙모를 통해서 조선인민들의 마음을 읽는것이 기뻤다. 배우지 못하고 돈없고 권리없던 한개 농촌부인에게서 조선의 앞길에 비치는 무한한 희망과 광명을 장군은 이제 다시금 느끼였다. 그것은 남의 말에서 배운 재주나 말로써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한개 조선사람의 육신으로써 하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적라라한 조선의 산 현실이요, 아무것도 단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였다.

《그래 장군! 고향생각 더러 납데까?》

《나구말구요. 이 땅이 나를 낳아 길러주지 않았습니까. 또 일가친척이 있고 나와 같은 수다한 동족이 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때문에 싸웠겠습니까. 동족들이 사는 이 조국을 찾으려는것이였지요. 이 땅은 우리 조선동포가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일하기 좋고 오랜 우리의 피줄이 흘러온 우리의 향토가 아닙니까. 세계 어디보다도 조선사람에게는 이 땅이 좋습니다. 헐어도 내 땅이 락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두 함께 나올수 있었더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버지는 나의 존경하는 스승이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지요. 내가 왜놈들과 싸우려고 집을 나갈 때 어머니는 무거운 병석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잘 아시기때문에 멀지 않은 자기의 앞길을 내다보면서도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인제 아버님, 어머님 모셔오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꼭 나를 앞세우고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내 싸우는걸 보고 내가 조국으로 개선하는걸 보시겠다고 안투 맨 높은 산에 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놈과 싸우는 때에 어머님무덤으로 찾아가서 일제를 기어이 쳐부시고 조선이 독립되는 날 어머니소원대로 꼭 조선으로 모셔드린다고 맹세했습니다. 고향산천이 보고싶습니다. 작은어머니, 인제 우리 만경대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이윽고 장군은 오매 그리던 향리 만경대로 자동차를 몰았다.

6

보통강 언덕배기에는 초라한 오막살이 움집과 달개집들이 지저분하게 딱지딱지 이마를 맞물고 둘러앉아있다. 이것은 다름아닌 왜놈들의 학정에 고달프던 조선인민의 생활을 여실히 말하는 산 재료였다.

그것들이 모두 수이 없어지고 말쑥한 새 살림집들이 제자리에 깃들이고 앉아야 할것이라고 장군은 생각하였다.

왜놈들로 하여 부스럼투성이로 된 금수강산을 이 나라 사람들의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로 수놓고 꽃피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사람들을 이 길에로 불러주며 그들을 한맘한뜻으로 묶어세우는 정권이 서야 할것이였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제 맘과 제 손으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새살림을 꾸리고 늘구고 높이고 아름답게 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였다. 평양 서쪽 교외의 산들도 굵은 나무 한대 없는 발가숭이다. 그래도 아직 이처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거든 여기에 만일 푸른 옷을 입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랴. 조선은 이르는 곳마다 공원이다. 이제 이 강산 무한경을 찾아서 온 세계 사람들이 목을 늘이고 부러워하도록 훌륭하게 만들어놓아야 이 강산을 찾기 위하여 싸운 보람이 날것이다.

장군은 왜놈과 싸우던 그 시절의 고단한 꿈속에서도 이 강산이 눈에 선히 보여 자던 잠을 놀라 깨기 몇번이였는지 모른다. 전투에 시달린 몸을 만저우 깊은 산 고목등걸에 쉬일 때나 마상에 높이 앉아

서 잠시 눈감고 이제 올 앞일을 생각할 때나 자주 장군의 눈속에는 뜻하지 않고 꽃피고 새 노래하는 이 강산과 휘파람 불며 오르내리던 만경대의 산봉우리들이 방불히 눈속에 뛰여들어 놀라 눈을 뜨고 보면 역시 오늘도 래일도 피비린 바람속에 싸워야 할 험산준령 만리전장이 장군을 휩싸고있을뿐이였다. 고국산천이 한없이 그리웠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장군은 《싸움! 싸움터다!》 하고 속으로 뇌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하여 돌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 돌진하였다. 그것은 오직 조국만이 줄수 있는 힘이였다. 그 힘과 용기를 보여주던 조국산천이 바로 눈앞에 있는것이다. 길옆 조그마한 초가집들에서도 기발이 휘날리고있었다. 40여년동안 왜놈의 자동차만 굴러다니던 이 길에 오늘은 꽃과 사랑을 실은 민족의 영웅의 자동차가 달리고있었다. 동네 앞길옆에 놀고있던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웨친다.

《만세 만세 만세…》

아이들이 지나가는 장군 자동차에 만세를 불러주다가 나중은 자동차를 따라볼듯이 짧은 다리를 길게 뜯으며 쫓아왔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기차나 자동차가 달려가는걸 보면 돌을 던지든지 하다못해 빈주먹질이라도 해주어야 속이 후련하였다.

장군이 창덕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린 학생들이 길로 지나가는 자동차를 운동장에서 내다보며 그 먼곳에서나마 돌팔매질을 해서 때려주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오늘은 누가 시킨것도 아니건만 이 버릇이 말끔 가시여졌다.

어느덧 장군의 외가집 마을 칠골이 바른편 밋밋한 언덕배기에 올려다보였다. 장군은 잠시동안이나마 이 동네에 있는 창덕학교로 다녔다. 그때 동무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어제런듯 새로와졌다.

장군의 우선우선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면 숙모는 문득 노래하고 춤추고싶었다.

《장군, 칠골이 생각나오?》

《나구말구요. 내가 있던 외가도 기억하고있지요. 아마 지금 다 찌그러졌겠지요?》

《아니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네다. 창송록죽이 바람이 분들 쓰러질가… 하는 조선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뉘집이라고, 뉘 계시던 집이라고 소홀히 거두겠습니까. 외가에서 명념해 잘 거두고있쇠다.》

차창밖에 달리는 고국산천은 너무도 아름다왔다. 장군의 가슴에서는 만감이 오고갔다. 이 강산을 도로 찾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이제는 이 강산과 이 강산을 지킬 부강한 나라를 꾸미기 위하여 싸워야 할것이였다.

큰길에서 만경대 들어가는 왼편 길로 꺾이면서부터 낮고 아담한 산들이 첩첩히 주름잡힌 사이길로 자동차는 오르며내리며 달렸다. 이 산들이 영웅을 낳은 승지 만경대의 울타리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산과 산이 초간히 떨어진 그사이에 있는 조금 너른 평전을 지나 장군 아버님이 세우신 학교 뒤고개에 올라서니 단풍이 들기 시작한 마치 꽃송이같이 아름다운 수다한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어떤데는 옹기종기 또 어떤데는 펑퍼짐히 들어앉은 그 저어편에 높은 뽀뿌라나무들이 들어선 조그마한 마을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장군의 옛마을 만경대였다.

그 마을앞 왼편으로 대동강가에 제일 높게 도독이 솟은 운치있는 다복솔봉우리가 바로 이름높은 만경대봉우리다.

이 산과 봉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집집에서 장군이 돌아온다는 꿈같은 사실에 놀란듯 반기며 너도나도 뛰여나와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고있었다. 어린애들은 장군의 얼굴을 혹시 놓칠가보아 눈에 초롱을 달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로 부르고 달리고 야단법석이였다.

《아이구, 네가 참말 오는구나!》하고 장군을 붙들자 눈물부터 앞서는 할머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촘촘 둘러섰다. 장군은 누구누구를 아잘것없이 또 아이, 어른 할것없이 골고루 손을 잡고 흔들며 무너지는 웃음으로 인사하였다. 사람도 반갑고 산천도 반가왔다. 이 백성들앞에 언제나 웃음을 주고싶던 장군이다.

열네살 잡힌 해 이 강산을 떠나며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장군은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언제 이 땅을 다시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

덤이 있는 이 땅에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비장한 맹세를 다지는 장군의 어린 가슴은 못내 아팠다. 그러나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반드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며 그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과 결심에서였다. 어린 장군은 벌써 그때에 그것을 이 강산에 맹세하였고 이 앞강물에 약속하였던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 약속과 그 맹세를 리행하고 돌아오는 날이였다. 장군은 기발이 나붓기는 옛집 조그마한 대문으로 들어섰다.

1948. 3.

개 벽

리 기 영

1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지 며칠뒤 어느날이다. 그날 읍내에서는 예정한대로 시위행렬의 기념행사를 거행하려고 이른아침부터 지휘부가 총출동하여 모든 준비사업을 세밀히 검토하고 집행자들에게 지시를 주었다.

미리 지령을 받은 각 동네들에서는 농민대중이 인솔자의 지휘밑에 조수물이 밀려오듯 들어왔다.

그들은 제각기 농구— 낫, 호미, 괭이, 삽 등을 한개씩 들었다.

남녀로소의 농민이란 농민은 죄다 나온 모양인지 정각까지 모인 군중은 무려 수만명이다.

어떻든지 그 넓은 시장의 벌판이 가득 찼고 장거리가 비좁게 군중이 모였는데 그것은 이 고을 읍내가 생긴 후에 처음보는 굉장한 사람의 사태를 내였다.

그런데 각 면, 리, 동네들에서는 저마다 특색을 내려고 별난것들을 다 꾸며내였다. 어떤 농민조합에서는 가마니를 길게 쳐서 거기다가 표어를 썼는데 《오직 밭갈이를 하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질수 있다》고 한 큰 기발을 들고나왔다. 또 어떤 동네에서는 명주천바탕에다 글자를 새겨 큰 기대를 만든것이 아름다운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여있다.

《우리 조선인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 만세!》

11시 정각이 되자 총지휘자는 연단우에 가설된 마이크를 통하여 행렬의 순서대로 선발대부터 출발을 명령했다.

그때까지 군중은 공지에 밀집해서서 가지각색 프랑카드를 들고 가지각색의 수많은 기발을 날리고있다가 갑자기 패패로 아래장거리를 향하여 풀려나가며 다시 왁자해진다.

날씨는 청명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쌀쌀한 바람이 살을 에이는듯 춥다.

단체행렬이 풀려나가는대로 군중은 열광하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농악을 울리는— 징, 꽹과리, 새납, 북, 장구소리가 천지를 뒤집는듯 귀청을 때렸다.

그런데 행렬을 지어가는 군중들은 너나할것없이 곡괭이, 삽, 쇠스랑, 종가래, 호미, 낫, 지게 등속은 물론이요, 심지어 도리깨까지 둘러메고는 가지각색 법석구니를 놀았다. 지휘자는 행렬을 정돈하기 위하여 요소요소마다에서 그들을 지키고있었다. 녀자들도 두손을 높이 쳐들고 기운차게 만세를 드립다 불렀다.

그들은 만세를 불러도 그저 부르지 않는다.

《우리들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신 **김일성**장군 만세!》

선두에서 이렇게 부를라치면 군중은 일제히 합창으로 만세의 환성을 울리였다.

《조선자주독립 만세!》

그들은 이런 만세를 수없이 불렀다.

모두들 목이 터지도록 구호를 부르고있었다. 사실 오늘의 만세는 그전 어느때의 만세보다 의미가 깊은것이였다. 그것은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웨침이였다. 오래동안 토지에 주렸던 농민들은 지주한테 매여서 갖은 압박과 무제한한 착취를 받아왔다. 그들중에는 억울하게도 지주한테 제땅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다.

절박한 사정으로 고리대금을 지주한테 얻어쓰고 강제집행을 만나서 파산을 당한 소작농도 많았다. 그들은 해마다 농사를 짓건만 점점 살기가 곤난하였다. 그래서 이역으로 떠나간 농민은 얼마나 많으며 농촌의 급격한 황페화는 그들을 도회지와 광산 등지로 내몰았다. 또한 그들중에는 남부녀대로 정처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전까지 일제의 발악은 침략전쟁중에 더더욱 극심하였다. 왜놈들은 온갖 공출을 강제하고 소위 보국대니, 징용이니, 징병이니 하는 등의 명목으로 농촌청년들을 깡그리 붙들어갔었다.

참으로 그때는 3천리강산을 인민의 지옥으로 만들었건만 누구하나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았다. 친일파와 지주놈들은 도리여 왜놈들의 앞잡이로 나서서 그들을 박해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의 통치에서 조국을 해방하신지 불과 반년밖에 안되는 오늘 북조선에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개혁법령이 채택되였다.

이런 희한한 일이 어데 또 있는가! 이에 농민들은 너무도 크나큰 기쁨을 참을수 없어 열광적으로 뛰놀았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한데 어울려 즐기고 기뻐하는듯 하다. 오죽 좋았으면야 부녀자들까지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었을가!

군인민위원회앞에는 높은 연단을 만들어놓았다. 그우에 군인민위원장이 올라서서 행진하는 농민들을 일일이 환영하며 그들과 같이 만세를 불렀다. 렬을 지어나가는 사람마다 모두들 기쁜 낯을 보인다. 아니, 그들은 누구나 감격한 표정으로 긴장해서 질서정연히 행진하였다.

근감하게 표어를 쓴 기발들이 바람에 펄펄 나붓긴다. 여기저기서 요란히 울리는 농악소리와 그뒤에 늘어선 군중들이 열광에 걸뛰여서 춤들을 추는 광경은 자못 장관이였다. 그런가하면 여러가지 모양으로 탈들을 해쓰고 가장행렬을 하는양이 볼만 한데다가 거기에 이따금 폭발탄같이 터지는 만세소리는 별안간 천지를 뒤눕히는듯! 그런데 한편에서는 춤과 노래와 풍악이 한창인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제를 저주하는 함성과 노호하는 의기가 충천의 기세를 울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똑같이 용솟음치는 감격의 불덩이를 안고 한곳으로 돌진하고있는것 같았다.

그것은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요, 적들을 전률과 공포에 몰아넣는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한 일대 시위운동이였다.

군중행렬의 좌우에는 읍내 주민들이 겹겹으로 둘러서서 이 어마어마한 행진을 눈이 둥그래서 보고있었다.

그들은 어떤 긴박감에 눌리워서 공연히 가슴을 울렁거리였다.

—도무지 웬 영문을 모르겠다. 토지를 농민들에게 값없이 노나준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가? 실로 이것은 고금에 처음 듣는 말이다—

하건만 사실이 그렇다는데야 어찌하랴! 그것도 래년이나 그 후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실행을 하여서 올해농사부터 짓도록 한다니 더욱 희한한 노릇이다. 이게 과연 정말인가. 참으로 그들은 황홀한 심정을 걷잡을수 없었다.

2

빈농민들이 이와 같이 열광을 하는 반면에 지주들은 어느 구석에 가끼웠는지 존재조차 알수 없었다. 그들은 거개 침통한 기색으로 만세의 아우성이 일어날 때마다 움찔움찔 가슴을 죄였다.

이놈들, 어디 보자! 이렇게 악을 쓰는 지주도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이불을 쓰고 활개짓하는 격이였다. 그들은 화김에 술을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 기껏해야 땅바닥을 치며 애고지고 저 혼자 비통할뿐이였다.

그런데 황주사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서 거리로 뛰여나왔다. 하긴 그도 처음에는 방속에 처박혀서 도무지 그 꼴을 안 볼 작정을 하였었는데 이날 시위군중의 함성에 그만 열이 벌컥 솟아올라서 정말 참을수가 없었다. 그는 견디다 못하여 문을 박차고 뛰쳐나온것이다, 어디 이놈들 얼마나 기세를 피우는가 끄락서니나 한번 보자고.

그는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 감투우로 통양갓을 받쳐쓰고 방문을 나섰다. 옥색두루마기를 입은 옷깃밑으로 은실같은 긴 수염을 늘이고 한손으로는 단장을 짚었다. 황주사는 점잔을 빼고 골목밖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뒤집 담모퉁이에 찰싹 붙어있었다. 시위군중은 여전히 열광에 뛰여서 조수와 같이 밀려나갔다. 그들이 갖은 법석구니를 다하며 행렬을 지어나가는 광경은 마치 옛말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판처럼 보였다.

과연 그들은 낮에 난 도깨비가 아닐가?… 도깨비감투를 쓰면 남의 눈에도 안 보이고 물건을 가져가도 모른다던가. 그렇다니 말이지 지금 저자들은 제각기 도깨비감투를 썼나부다. 그러기에 자기는 어느 틈에 땅을 뺏겼는지도 모르게 빼앗기지 않았는가?… 황주사는 일순간 이런 생각이 들자 다시금 몸이 떨리였다. 그것은 참으로 자기가 도깨비에 들렸는가?… 그전에는 아니, 어제까지도 소인을 개올리던 놈들이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도 무서워졌느냐 말이다. 한데 황주사는 금시에 딴 생각이 갈마든다. 그것은 누가 도깨비인지 모른다는 생각이였다. 아니, 정말 도깨비는 자기가 아니냐는 그것이다. 자기야말로 도깨비에게 홀려서 이제까지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것이 아닐가?

웬일인지 그는 이런 별난 생각이 자꾸만 든다.

(이거 내가 미치지 않았는가?…)

그는 과연 오래동안 도깨비에 홀려서 살아왔다.

황금도깨비에 홀려서 살아온셈이다!

황주사집이 오늘날 부자소리를 듣게 된 반면에는 갖은 일화를 많이 빚어낸중에도 특히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인가 한번은 늙은 어머니가 소증이 나서 견딜수 없기때문에 큰손자를 시켜서 소고기 한근을 사오게 하였다. 그것을 아들 황주사가 알았다. 그때 황주사는 열이 벌컥 나서 자기 아들이 사온 고기를 빼앗아다가 그만 오줌통에 처넣어 버렸다.

《집안 망할 놈의 새끼같으니… 고기 안 먹으면 누가 죽는다드냐!》

이 고기는 오줌통속에서 썩고 구데기가 들끓었다. 그 오줌으로 그 이듬해에 논거름을 주었더니 과연 그 자리는 벼가 잘되였다.

《여봐라! 그까짓 고기 한근은 안 먹어두 살었지… 이 벼된것을 봐라!…》

황주사는 이와 같이 그 아들에게 훈계를 했다던가.

하나 그의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도 먹고싶은 고기를 끝내 못 얻어먹고 영영 추서지 못하고말았다. 그래 남들은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굶어죽었다고 지금도 황주사집 말이 나면 수군거렸다.

황주사가 이렇게 지독했다면 치부를 어떻게 했는지 누구나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과연 그는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살게 굴면서 악으로 모은 재산이다. 이것이 정말 도깨비에게 홀린게 아니면 무엇일가? 그는 여적 도깨비에 홀려서 살았다.

지금도 그는 도깨비가 들린 사람처럼 한곳을 멍하니 바라보고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저놈들 봐라. 아니, 저것들이 원첨지 자식들 안야?… 그 계집년두 나왔구나… 어린 새끼를 업고서까지… 아니, 저년놈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연장을 한개씩 들구… 흥! 이놈들, 어디 보자… 하지만 별일은 별일이다. 제일 간구하고 못나디못난 원첨지네 식구들까지 어데서 저런 용기가 나왔을가?… 몇달전만 해도 굶어죽겠으니 돈 50원만 빚을 달라고 사정하던 그 원첨지네가…》

이때 별안간 지척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났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만세!》

그 바람에 황주사는 그만 깜짝 놀라서 뒤걸음을 치다가 하마트면 나자빠질번 하였다. 원첨지네 식구들도 두주먹을 쳐들고 드립다 만세를 부르며 지나간다.

황주사는 그만 얼이 빠졌다. 그는 그 자리에 더 서있을수가 없어서 돌아섰다. 그는 그길로 힝하니 집으로 들어갔다. 식구들이 마치 넋잃은 사람처럼 경황이 없이 몰켜섰다가 황주사를 보고 수인사를 한다. 하나 황주사는 골이 잔뜩 나서 소리를 벌컥 질렀다.

《일들은 않구 왜들 넋놓고 섰는거야? 아니, 구경을 하구프면 연장을 한개씩 들고나가서 늬들두 만세를 부르려무나!》

사실 나가나 들어오나 그는 속상하는 꼴뿐이였다. 그래 그는 만만한 식구들한테만 애꿎은 분풀이를 하였다.

《원, 별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구경을 가구퍼 누가 그러우, 하두 바깥이 소란하기에 송구스러워 그러지요.》

까닭없는 책망에 고까운 생각이 들어간 그의 마누라가 손아래식구들을 대신해서 변명하는 대꾸를 하였다. 그는 사실 억울하였다.

남들은 부자라고 자기 집을 부러워하지만 린색한 령감의 등쌀에 그는 여적 기를 못 펴고 살아왔다. 젊어서는 오줌동이를 이게 하였으니 인젠 그만 남과 같이 먹고 입어도 좋지 않는가.

황주사는 사랑으로 나갔다가 다시 의관을 차리고 나섰다. 그는 화가 치받쳐서 도무지 견딜수가 없는 모양이다.

어데로 갈가?… 그는 속으로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갈만 한 곳이 없다. 친구를 찾아가자니 자기와 같은 처지일것이라 그 꼴이 보기 싫고 술집에 혼자 가기도 짓적어서 그만두었다.

《에라! 촌으로나 나가보자. 저놈들이 발광하는 꼴 보기 싫다.》

황주사는 그길로 나서서 원첨지를 찾아갔다.

아까 시위행렬속에는 원첨지가 보이지 않았다. 원첨지가 사는 골안만은 읍내에서 불과 10리밖에 안된다.

3

이날 원첨지는 짚신을 삼는다는 핑게로 집에 혼자 남아있었다. 아

이들은 식전부터 시위행렬에 참가하겠다고 한바탕 짝자꿍을 놀았다. 그들은 저마다 삽을 가지겠다고 서로들 다투었다. 삽은 한자루뿐인데 동생이 제해라고 날뛴다. 결국은 억지손이 세인 동생놈에게 형은 할수없이 삽을 뺏기고말았다.

그래서 동식은 괭이를, 언년이는 호미를 제각기 맡기로 락착을 지었다.

아이들이 졸라서 어머니도 가기로 하였다. 그가 막내동이를 업고 나설 때에《아버지두 같이 가십시다. 그럼 삽은 아버지한테 드리구 난 낫을 가지고 가겠소.》 하니까《싫다. 늬들이나 어서 가거라. 난 짚신을 삼아야겠다.》 하고 원첨지는 동준의 말을 거절했다. 안해는 그 말을 듣자마자《당신은 그저 죽을 때까지 안악군수로 살다말거야. 내 그렇게도 주변없는이는 처음 본다니께!》하며 혀를 차고 돌아선다. 그래도 원첨지는 바보같이 웃기만 하면서《집은 비우구 모두들 가면 되는가, 아무리 가져갈건 없더라두.》 하였다.

《서발막대 휘둘러야 가루 걸칠것 없고 새앙쥐 볼가심할 벼 한되박 없는 놈의 집안에서 도적맞힐가 무서워서 당신은 못 가겠소? 아이구, 귀구녕이 막혀라…》

안해는 또 한바탕 례의 수다로 넉두리를 한다. 열살이나 손아래인 그 안해는 아직도 팔팔한 성미가 남아서 부아가 날라치면 늙은 령감도 마구 휘둘렀다.

《내가 뭐랬기에 또 야단인가, 어서들 가라니까!》

《어머니! 그만 가십시다.… 올해부터 논농사를 지으면 우리 집도 잘살텐데 뭘들 그러우!》

작은아들 동준이가 어리광을 치며 등을 내미는 바람에 어머니는 저으기 화가 풀려서 웃는 낯을 지으며《오냐, 네 말대로 인제는 어미두 호강을 좀 하게 되겠나부다. 어서들 가자!》 했다.

그들이 나간 뒤에 원첨지는 빈방에 홀로 앉아서 부시럭부시럭 짚신을 삼기 시작하였다.

하긴 그도 아이들이 가자고 조를 때 아닌게아니라 가고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열적은 생각이 들어서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도 그는 어떤 의심이 없지 않아서 장래사를 두길로 보

려는 조심성으로 안 갔었다. 그것은 더욱 읍내 사는 지주 황주사가 얼마전에 하던 말이 기억되였기때문이다.

《여보게, 자네두 평양림시정부가 오래 갈줄 믿는가? 그리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거저 준다는 그 말을! 흥, 그따위 풍설을 믿다가는 공연히 큰코 다치지. 어떤 놈이든지 그런 말에 속아넘어갔다가는 미구에 복통할 날이 올것이니 두구 보게나. 세상이 또 한번 뒤집힐줄을 모르구… 흥…》

《세상이 또 한번 뒤집히다니요? 아니, 그건 또 어떤 일로 그렇다는것입니까?》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원첨지는 황주사의 말을 정말로 곧이듣고 여간 놀라지 않았다.

《저러니까 사람이 답답하다는거야. 해외림시정부가 벌써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아니, 여적 그것도 모르나? 리승만박사가 지금 대한〈정부〉를 꾸미는데 그 〈정부〉가 중앙〈정부〉로 들어서게만 되면 이까짓 평양정부는 깨지지 않고 배길줄 아느냐 말야? 흥, 모두다 헛일을 하는줄 모르구서… 자네같은 사람두 이건 땅을 준다니까 아마 귀가 솔깃한 모양이지만— 아니, 금쪽같은 남의 땅을 빼앗아 노나줄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림없어, 흥!》

황주사가 성이 날 때는 《흥.》소리를 연신하는 버릇을 가졌다. 그래 그는 코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연신 흥타령을 불렀다.

《누가 믿는답니까. 주사님은 공연히 역증을 내십니다그려.》

그때 원첨지는 대꾸할 말이 없어서 저쪽 말을 이렇게 막았다.

《안야, 자네한테 역증을 내는게 아니라 세상이 하두 뒤죽박죽이여서 분개한 나머지 하는 말일세.》

황주사는 원첨지의 기색을 살피다가 능청스레 이렇게 말휘갑을 치고는 씩 웃는다.

오늘 아침에도 원첨지는 그때 생각이 불현듯 나서 아이들이 가자는데도 짚신을 삼겠다는 핑게로 그만두었던것이다.

×

원첨지가 혼자 짚신을 삼기에 골똘하고있는데 별안간《이 집에 아

무두 없나?》하고 방문을 펄쩍 열어보는 사람은 의외에도 황주사였다.
원첨지는 삼고있던 짚신짝을 허리바에 찬채로 벌떡 일어서며 맞인사를 하였다.
《주사님이 웬일이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원첨지는 마치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당황한 기색을 띠웠다, 작년에 쓴 빚을 받으러 나온게 아니냐고…
《다—들 어딜 갔는가? 옳지, 읍내로 시위운동을 하러 갔네그려.》
황주사는 담배대를 한손에 쥐고 방안을 휘휘 둘러보다가 문앞으로 앉으며 원첨지를 노려본다.
《이 아래로 내려앉으십시오. 저… 모두들 가자구 동리사람들이 와서 아마 같이들 갔나봅니다.》
원첨지는 무슨 명령이 내릴는지 몰라서 주저주저하다가 사실을 속일수가 없어서 이렇게 변명하듯 말하였다.
《그럼 자네는 가지 않구 왜 집에 붙어있는가? 흥!》
《제야 늙은 놈이 뭣하러 갑니까. 애들이나 구경삼아 간거지만… 그리고 또 당장 신을것이 없어서… 짚신을 삼는데요, 허허…》
원첨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황주사는 더욱 노기가 등등해서 생트집을 잡기 시작한다.
《짚신보다 땅이 생기지 않는가. 나같으면 맨발로라도 뛰여갔겠네, 흥!》
황주사는 심술궂게 말하면서 담배대를 탁 털더니만 기름에 쩔은 쥘쌈지를 꺼내여 잎담배를 담고있었다. 그전에는 구경도 못하던 엽초다. 해방이 된 뒤로는 엽초도 자유로 살수가 있게 되였다.
《원, 주사님도 그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저를 여태 그런 사람으로 알으셨나요?》
원첨지는 기가 막혀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려는것처럼 황주사를 마주 쳐다보았다.
《허허허… 아니, 자네 말을 들어보자구 한 말일세. 참, 자네는 고지식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니까 설마 그럴리야 있겠냐마는 다른 놈들은 모두다 안 그러냐 말야… 흥, 아니 그래, 이 근처에서 내 땅마

지기와 쌀말, 돈냥을 신세 안진 놈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셈인지 그런 은공은 하나두 생각지 않구 정말 제 세상이나 만난것처럼 우쭐대는 꼬락서니라니 제깐 놈들이 땅을 얻는대야 올 1년두 못 갈거구 또한 설사 그때까지 간다손치더라도 농사군들이 배불리 먹으라구 그냥 둘줄 아는가? 도무지 눈꼴이 틀려서 못보겠단 말야. 흥, 시러베아들놈들 같으니라고. 원첨지! 안 그렇나 말야?》

사실 황주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래 그는 요새 밤잠을 못 자고 구미가 제쳐서 반그릇 밥을 못 먹는다. 여북 갑갑해야 이렇게 촌으로 혼자 나왔을가. 가위는 자다가나 눌린다 하지, 이건 대명천지 밝은 날에 생벼락을 맞은셈이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데 있는가.

황주사가 토지개혁법령의 포고문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 그는 별안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천만길 땅속으로 떨어지는것과 같이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때 그는 두눈이 모로 서고 글자가 거꾸로 박혀서 잘 읽혀지지가 않았다.

그는 마치 살을 맞은 사람처럼 전신이 금시에 새파래졌다. 그때 그는 한동안 마음을 겨우 진정해가지고 다시 읽어보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암만 눈을 닦고 보아야 자기에게 유익한 구절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었다. 마치 그 포고문은 자기만을 상대해서 일부러 써논 선고와 같았다.

그러나 황주사는 자기가 몰수지주에 해당한다는것을 모르고있다. 이 조문은 대지주와 반역자에게만 적용된다. 황주사는 지금도 악덕지주인것은 모르는척 하고 오히려 작인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려드는것이였다.

그는 땅을 빼앗기는것도 분하였지만 그보다도 성명조차 없던 놈들이 이 판에 날뛰는 꼴이 더 분통하다고 갈잖은 앙탈을 했다. 전자에는 그들이 모두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수하와 같이 굽신거렸는데 인제는 처지가 뒤바뀌여서 그들이 새세상을 만난 대신 자기는 그들에게 도리여 쫓겨날판이 되였다. 이게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그는 혼자 미쳐서 날뛰였다.

황주사는 돈만 알고 살아왔다. 일제통치시기에는 돈가진 사람만 알

아주기때문에 황주사를 우러러본것도 그의 재산이였지 황주사란 사람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황주사는 지주라는 재물의 화신이였고 황금의 도깨비였다.

세상이 이렇게 뒤집힐줄 알았더면 그는 토지를 죄다 팔아서 현금을 뭉쳐가지고 이남으로 내뗄것을 잘못하였다고 지금도 후회한다.

그가 각처에서 땅을 내놓을것은 전답간에 무려 백여정보나 된다. 그리고 산림을 가진것도 많았다. 만일 재작년부터 야미(일제때 통제하는 물자를 공정가격이상으로 몰래 파고사는 흥정)쌀을 몰래 팔고 현금을 모으지 않았더면 꼼짝없이 이 판국에 거지가 될번 하였다. 그 생각을 하니 아슬아슬하고 그리한것만은 불행중 다행이랴싶었다.

그는 조선은행권으로 백원짜리만 5만원을 모아서 명주바지저고리에 솜과 함께 받쳐 넣어가지고 옷을 꾸며두었다. 약차하면 그 옷을 입고 피신을 할 심산이다. 그 소문은 벌써 이 근처에 자자하게 퍼졌다. 입이 잰 큰며느리가 비밀을 루설하였던것이다.

그때 황주사가 좀더 궁리를 했다면 땅을 모조리 팔았을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땅덩이가 떠나갈줄은 몰랐다. 천지개벽을 하기 전에야 설마 그런 일이 없을줄 알았었는데 토지개혁이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개벽이 돼서 하루밤사이에 이 세상을 뒤집어엎었다.

4

《자네를 잠간 보러 온것은 다름이 아니라 옹색한 일이 있기에…》 하고 황주사는 비로소 찾아온 용건을 말하는데 《네, 그거 말씀이오니까. 참 여적 돈을 못 올려서 미안하게 되였습니다.》하고 원첨지는 갑자기 기색이 달라지며 황송스레 사과를 한다.

《뭐 자네한테 준 돈이야 무슨 념려가 있겠나. 조만간 가져올줄은 믿네마는 금시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요새 좀 옹색해서 그러네. 보다싶이 자네사정두 딱한줄을 누가 모르겠나. 그러니 변리는 고만두고 본전이나 오늘래일안으로 해주었으면 매우 요긴히 쓰겠는데 어떻게 될수 있겠지?》

이 말을 들은 원첨지는 속으로 은근히 놀래였다. 그전같으면 한푼도 안 깎아줄 위인인데 리자를 전부 탕감하고 본전만 달라는것은 무슨 까닭일가? 자기에게 특별히 선심을 쓰자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토지를 뺏기게 되였으니까 무슨 술책으로 자기를 리용하려 함인지 원첨지는 어쩐 셈속인지를 모르겠다.

《여적 못 갚아드린것두 죄송하온데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 그러오나 나무를 해다 팔아야겠사오니 한참동안만 더 참아주십시오.》

원첨지는 이렇게 진국으로 말하였다.

《그럼 그렇게 하소. 닷새안으로는 꼭 해오겠나? 변리는 고만두고 말야.》

《네, 너무 황감합니다. 변리까지 안 받으신다는데 말씀을 어길수야 있겠습니까. 식구가 굶더라두 그안에는 해다 드리지요.》

두어달전에 원첨지는 황주사한테 5푼변으로 돈 50원을 얻어쓴 일이 있다.

그것은 눈이 많이 쌓여서 나무장사도 할수 없기때문에 량식말을 구해먹느라고 변돈이라도 안 쓸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럼 난 그만 가겠네. 어데 술이나 있으면 한잔 사겠네마는 요새는 술을 해 파는 집두 없는가부지.》

《웨 좀더 쉬여가시지… 글쎄요, 아마 이 근처는 술이 없을겝니다.》

황주사를 문밖까지 배웅하고 들어온 원첨지는 다시 신짝을 차고 앉았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황주사의 태도가 수상하였다.

《참, 별일두 많다… 황주사가 변리돈을 탕감해준다니…》

전같으면 그가 자기 집에 올리도 만무하거니와 혹시 지나다가 들린다 하더라도 담배불이나 붙여 물고는 금방 일어섰지 지금처럼 오래 앉았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맥이 풀려서 헐헐하는 꼴이 아무래도 무슨 불길한 조짐이 있는것 같았다.

그러면 지주는 정말 토지를 내놓게 되고 농민은 제땅으로 농토를 얻게 되는것일가? 아니라면 황주사가 저렇게 몸달 일이 무엇이냐고…

사실 지금 황주사는 등이 달았다. 그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며 곰곰히 생각해본다. 그는 마을사람들이 먼빛으로 바라볼가 두려워서 길

을 일부러 돌아갔다. 누구 아는 사람이 전과 같이 인사를 하여도 마치 자기를 비웃는것 같아서 공연히 창피한 생각이 들게 한다. 모든것이 일조에 정반대로 변해진것만 같다. 푸른 하늘도 전같이 명랑해보이지 않고 산천초목도 그전처럼 아름답지 않다.

더우기 그것은 자기의 논과 발옆을 지나갈 때 그러하였다. 이 기름진 논밭이 남의 소유로 넘어가다니― 골안말 열섬지기 논은 한구레로 내리박혔다. 한마지기가 거진 한섬지기나 되는 큰 자리에서는 해마다 풍흉이 없이 삼배출씩 낟알이 난다. 그 논에서 도지를 쌀로 2백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런 논을 몽땅 내놓다니! 황주사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자 정말 미칠듯 하였다. 그래 그는 일부러 그 논자리를 피해갔다. 하나 그는 이렇게 제 욕심만 따져보았지 정작 소작인이 자기한테 그만큼 피땀을 빨린것은 생각을 못하였다. 많은 사람을 피하고 자기의 논밭도 안 보려니 그는 부득이 빼빼 돌아서 숲속으로 내가를 헤매다싶이 내려갔다.

지금 그는 술취한 사람이 길을 못 찾고 헤맬 때와 같이 가다가는 돌쳐서고 딴 방향으로 들어서군 하였다. 그러다가 멍―하니 먼산을 바라보고 한숨을 길게 쉬고서는 또다시 힘없는 발길을 떼놓는것이였다.

《이놈들, 어디 보자!》

그는 다시금 심술이 나서 혼자 악을 써보았다. 입맛이 소태같이 쓰고 입술이 바작바작 타들어간다.

황주사는 그길로 자기 집 사랑으로 들어갔다. 문갑을 열고 토지개혁포고문을 또 한번 펴보았다. 역시 아무리 해석해보아야 지주에게 유리한 대목은 한구절도 찾아낼수 없었다.

《유지신사다… 정말 지주야말로 유지신사다. 어떤 놈이 이런 요언을 만들어냈을가!》

해방전부터 이런 말이 항간에 떠돌더니만 과연 그 말이 맞았구나 하였다.

황주사는 이날도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지주를 유지신사라 한다면 자본가도 유지신사다! 땅을 가졌는데 몸은 죽었단 말이지…)

그는 마치 물귀신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쌍룡이 여의주를 다투는

소라반자의 무늬를 쳐다보았다.
일순간 황주사는 어떤 환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두 유지신사가 반자주무늬에 그린 두마리 룡이 되여서 여의주와 같은 황금을 뺏으려고 서로 싸우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만 땅우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룡 하나는 자기자신이였다.

5

저녁때 원첨지가 짚신 한컬레를 더 삼아서 꾸며놓고 방을 쓸어내려니까 그제야 식구들이 우 몰려온다.
《아버지!…》
엄마등에 업힌 꼬맹이가 반겨라고 손을 쳐들며 알은체를 한다.
《오— 인제들 오냐. 그래 구경이 좋던가?》
《당신두 가시자니까. 그런 구경이 또 어데 있겠소!》
안해가 전에없이 좋아하며 희색이 만면해서 들어온다.
《좋지 않으면… 땅이 생기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작은아들 동준이가 말참네를 하였다.
《아니, 정말로 땅을 준다드냐?》
원첨지는 반신반의해서 그들에게 다시 묻는다.
《그럼 정말 아니구요. 평양정부에서 위원님이 내려와서 그렇게 연설을 하던데요!》
《아이구 좋아라, 아버지! 인젠 우리 집두 올해부터는 쌀밥을 먹게 된다오.》
언년이가 좋아라고 덩달아 나서는데
《저 계집애는 밤낮 먹는 타령이야.》
동준이가 눈을 흘기며 냅다 핀잔을 준다.
《그럼 오빠는 쌀밥이 싫어서 안 먹겠구만.》
언년이는 입이 뾰족해서 돌아선다.
《이것아, 주둥이 닥혀라. 난 쌀밥보다도 논농사를 한번 힘껏 지어봤으면 하는게 평생소원이였다.》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동준이를 어머니가 얼른 가로막으며 눙친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가! 쌀밥을 먹구싶다는거나 논농사를 짓고 싶다는거나… 호호호.》
《어째 같아요?… 남들은 논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리는 남의 논일에 품팔이만 다니는게… 그것이 쌀밥 한그릇과 같단 말이여요?》
《건 네 말이 옳다. 나두 너처럼 남의 논일을 갈 때마다 부아가 나서 그랬단다.》
큰아들 동식이가 아우의 말을 이렇게 치드긴다.
《작은오빠는 내 말이라면 언제든지 야단만 치지. 인제는 녀자두 권리가 있대!》
언년이는 눈찌가 샐쭉해지며 날카롭게 부르짖는다.
《이것아! 계집에게 권리는 무슨 권리야! 건방진 수작 말아!》
동준이는 다시 주먹을 쳐들었다.
《호호호… 왜 없어요. 농민이 토지에서 해방되듯이 녀자는 가정에서 해방돼야지 뭐!》
《그럼 밥은 누가 짓고 빨래는 누가 하나?… 남자가 대신하란 말인가, 하하.》
그 말에 큰오래비가 너털웃음을 친다.
《누가 그런것 말인가! 녀자두 회의때에 참네하구 대의원을 뽑을 때는 표를 써낼수 있는 그런거 말이지.》
언년이는 또다시 샐쭉해서 치마끈을 물고 돌아선다.
《넌 어데서 그런 소릴 다 들었니, 나두 못 들은 말을!》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그들 오뉘가 서로 다투는것을 귀여운듯이 번갈아본다.
《그까진 소리들은 그만두고 아니, 정말 농민에게 땅을 노나준다드냐?》
《아버진, 정말이래두… 있다가 위원장아저씨가 오시거든 물어보셔요. 식구대로 그 동리의 논밭을 골고루 논는다던데요.》
《그럼 우리한테도 황주사집 논이 차례오겠지 뭐!》
아들들의 말을 듣자 원첨지는 무슨 의미인지 두어번 고개를 끄덕인다.
《웨 무슨 일이 있었수?》
눈치빠른 안해가 이렇게 다좇아묻는다.
《아까 황주사가 찾아왔었는데 어째 그전과 다르기에 말야.》

《뭐 달라요?》

《대뜸 하는 말이 나보구서 왜 시위운동에 안 갔느냐구 묻습데… 그러구 땅을 얻는다고 좋아하는 놈들은 모두 미친 놈이라 하면서 화를 내겠지.》

《그래 그 말뿐입데까?》

《응, 그리구 참, 우리가 쓴 돈을 빨리 갚아달라면서 변리는 고만 두라든가…》

《건 또 웬 일이라우?》

《나두 모르지. 전에없이 선심을 쓰더라니. 별일야…》

《그런 선심을 진작 좀 쓰지 않구.》

안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암상궂게 령감의 말을 받아챈다.

《그게 다 등치구 배만져주는 수작이라우. 인제는 전과 같이 제가 세력을 부릴수 없으니까 인심을 좀 얻자는 수단이지 뭐야.》

동준이의 하는 말에《그렇지만 인제 때가 늦었는걸!》 하고 언년이가 또 쑥 나선다.

《넌 좀 나서지 말아!… 어른 말끝에.》

《작은오빠 어른인가 뭐!》

《이것아, 뭣이 어째?》

동준이는 기어코 언년이의 귀퉁바기를 쥐여박아서 울리였다.

《손찌검은 왜 하느냐, 원!》

어머니는 언년이를 달래는데 《참, 모두다 희한한 일이다.》 하고 원첨지는 혼자처럼 중얼거리며 부시럭부시럭 담배를 담는다.

《아저씬 오늘 뭐하셨수, 시위행렬에도 안 나오시구.》

그때 마침 농민위원장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돌리여 집안으로 들어왔다.

《신을게 없어서 짚신 한컬레를 삼느라고 집에 있었지. 좀 방안으로 들어가세.》

원첨지가 앞을 서서 들어가려 하니 《뭐 늦었는데 곧 가야지요.》 하면서도 농민위원장은 뜰팡에 쭈그리고앉는다.

《그래, 시위행렬이 장했다지?… 그런줄 알았더면 나두 나갈것 그랬네.》

《장하다마다요, 아주 굉장했는데요. … 인젠 아저씨도 허리끈을 끌러놓으시게 됐수다.》
《글쎄, 원… 그게 정말인지!…》
《정말 아니면 아저씬 상구도 의심하시나요?》
《의심이 아니라 들리는 말이 하두 구구하니까… 황주사의 말은 어데 그래야지…》
원첨지는 곧이곧대로 말을 옮기였다.
《황주사가 언제 와서 뭐랍디까?》
《요전에두 하는 말이 땅을 노나준다고 곧이듣는 놈들은 모두 미친놈들이라네. 그리고 설사 노나준다 하더라도 서울에 〈중앙정부〉가 생기면 평양정부가 깨질텐데 그런줄을 모르고 날뛰다가는 공연히 큰코 다칠거라구…》
원첨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농민위원장의 눈치를 슬슬 본다.
《그놈의 령감태기가 제 명에 못 죽을라구 상구두 그따위 소리를 하구다니나, 시국이 변한줄 모르고 허튼소리를 하고. 어째 주장질을 못하고 그자를 그냥 두었소? 아저씨도 원…》
《누가 그런 속내를 알았어야지.》
《용해빠진 저런이가 그런 말할 주변이 어데 있어요.》
저녁거리를 꺼내려 웃방으로 들어가던 안해가 비웃는 어조로 농민위원장을 쳐다보며 웃는다.
《아저씨, 너무 순하게 지내셔두 안됩니다. 인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압제를 주는 놈은 누구며 압제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말야요.》
농민위원장은 흥분한 어조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다.
《아까두 저이가 그전처럼 굽신대니까 황주사가 냥냥해서 그따위 말을 했지 뭐야! 그래두 변리는 그만두고 본전만 갚으랬다니 별일이지! 갑자기 웬 선심이 나왔을고?》
안해는 좁쌀을 한되박쯤 떠가지고 나오다가 농민위원장의 말대꾸를 한다. 령감을 제쳐놓고 마치 자기가 대신 말대답을 하려는것처럼…
《아니, 그 령감태기가 인제 보니까 빚을 받으러 나왔었군. 세전에 그 집 돈을 쓰셨다더니만 상구도 안 갚으셨수다그려.》

《안 갚았나, 못 갚았지. 50원을 한몫 갚자니 어데 쉬워야지. 그래 앞으로 닷새기한을 정했는데 큰일났는걸! 변리도 안 받겠다니 이번에는 꼭 기한전에 갚아야 할것 안여.》
원첨지는 금시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름없이 대답을 한다.
《거ー 안 갚기를 잘했수다. 갚았드라면 공연히 50원을 손해보실번 했소, 하하하… 거참, 아저씨 한턱 내시우.》
《아니, 안 갚기를 잘했다니, 빚쓴 돈을 안 갚을수야 있나?》
《허허! 아니, 상구도 모르십니다그려. 소작인이 지주한테 빚으로 쓴것은 갚지 말라는 법률이 났으니까 안 갚는게 당연치 않소. 갚으면 되려 법률위반인데요. 허허, 원!》
《아, 아니… 그런 법이 어데 있단 말인가? 남의 돈을 쓰고서 안 갚아두 좋다는 법률이.》
원첨지는 펄쩍 뛰면서 농민위원장의 말을 부인하려는 태도로 말을 한다. 그바람에 농민위원장은 그만 결이 나서 토지개혁법령을 조끼주머니를 뒤져서 꺼내여보이며 언성을 높인다.
《원, 답답한 말씀 다 듣겠네. 여기에 그렇게 씌여있어요. 아니, 그럴라면 아저씬 왜놈의 법률은 모두 옳다고 믿고있었던가요?》
《그게야 왜놈들의 법은 말할것도 없지 않은가.》
원첨지는 종시 알아듣지 못하는 수작으로 응대한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같은 조선사람끼리 어째서 지주는 땅만 가졌으면 가만히 앉았어도 잘살게 되고 소작인은 그 땅을 힘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못사느냐 말여요. 이것이 지주가 소작인의 피땀을 빨아먹는 까닭이 아니고 뭐냐 말예요?》
《그… 그… 거야 옛날에두 땅임잔 도지를 받지 않었는가…》
원첨지는 농민위원장의 기세에 눌려서 겁을 먹고 간신히 대답한다.
《옛날도지가 어데 지금과 같았답데까? 그리고 법률도 시대를 좇아서 변하는것인데 왜놈들은 조선쌀을 빼어가랴고, 지주는 옹호하고 소작인만 착취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률을 만든것이지… 쉽게 말하면 우리 농민들은 지주한테와 왜놈들한테 소작료와 공출로 뺏기고 각종 세금으로 뜯기기때문에 해마다 헛농사를 지었단 말이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왜놈들이 조선에서 없어졌으니까 인제는 농민이 살수 있는 새 법률을 마련해야 하지 않소.

이 새 법률이 지주를 없이하고 농민에게 땅을 노나준것 아니겠소. 워낙 그래야만 케가 옳거던요!》

《글쎄… 하긴 그런데… 원,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라서 도무지 얼떨떨하단 말야. …》

《얼떨떨할것이 없어요. 농토는 밭갈이를 하는 농민만이 가질수 있는게요.》

《아이, 아버지두. 뭬 얼떨떨하다구 그러시우? 나라에서 어련히 잘 알고 하는 일이라구.》

동준이가 딱한듯이 부친의 말을 타내는데 《그러기에 말이다. 아버지는 너만두 못하시구나. 우리 농민들이 오래동안 못산 대신 인젠 좀 잘살아보란 말이지 뭐야! 그렇지 않소? 호호호.》 안해가 명랑한 웃음을 다시 웃으니 《개벽이야!… 이거야말로 천지개벽이야!》 원첨지는 마치 혼자말처럼 또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무엇을 생각하는지 헤멀건 두눈으로 한곳을 노려보고있었다.

6

며칠뒤에 이 마을에도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였다.

면농민조합에서 지도원이 나오고 본동농민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협의를 하여 미리 준비위원회를 여러차례 열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빈농층을 중심으로 자작농과 고농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원첨지는 첫째가는 빈농일뿐아니라 나이도 중로인축에 드는지라 당연히 위원될 자격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곱사람 위원들중에 한몫을 끼게 되였다.

만일 그가 좀더 똑똑하든지 식자가 있었더면 위원장으로 뽑혔을것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낫놓고 기윽자도 모른다.

그렇지만 원첨지는 농민조합위원장한테서 맨처음 위원추천의 교섭을 받았을 때 여간 질색을 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위원재목이 되는가. 이 사람, 나는 제발 빼여주게. 공

연히 누굴 앨 먹일라구 그래!》

원첨지는 손을 내저으며 마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애걸하듯 벌벌 떨고있었다.

리농민위원장은 그 모양이 하도 우스워서 미처 대답을 못하고 웃기만 하였다.

원첨지의 안해 역시 령감의 비굴한 태도가 옆에서 보기 민망스러워서 《저이의 주변에 뭘 하겠소.》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는 남자가 못된것을 은근히 한탄하였다. 정말 자기가 남편과 바꿔되였다면 저렇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아니, 위원되란게 그렇게 겁나시우? 남들은 벼슬을 못해서 야단인데… 원, 아저씨두, 허허허.》

《이 사람아, 언제 내가 그런걸 해봤어야지… 나같은 사람은 그저 땅이나 파고 농사를 지어먹기나 했지 회하는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는가.》

원첨지는 끝까지 고사하며 어쩔줄을 모르는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뭐, 별일을 하는게 없어요. 회할 때 가서 아저씨는 한편에 가만히 앉아계시구려. 그것도 못하시겠소.》

《당신은 그럼 꾸어다논 보리자루처럼 한구석에 끼워앉았으면 되겠수다그려, 호호호…》

안해가 농민위원장의 말을 받으며 깔깔대고 웃으니까

《저건 남의 속두 모르구 공연히 덩달아서… 이 사람, 제발 나는 빼놔주게!》

원첨지는 안해의 빈정대는 말에 불뚝 성이 나서 더욱 고집을 세운다.

《난 모르겠수다. 어디 제 맘대로 하는겐가요… 이번 농촌위원회는 가난한 농민이나 머슴군에게만 위원될 자격이 있다니까 아저씨같은 사람이 빠지시면 누가 위원이 되겠소.》

농민위원장은 정색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정중한 말로 설명해주었다.

《그럼 떠벌이 김령감도 위원이 되겠수다. 홀아비로 머슴살이 30년을 살았으니… 호－》

《암, 그 령감이야 물론 위원의 자격이 있겠지요. 그래 위원이 되랬더니만 그 령감은 아주 좋아합디다. 응, 되라면 되지, 에헴… 하고. 금방 큰기침을 하면서… 하하하. …》

《호호호… 그 아재는 족히 그런 배심이 있을거야… 환갑이 가까웁건만 지금두 정정해서 못하는 일이 없지 않소.》

《그러니까 아저씨댁도 빠질수 없잖어요. 참, 하…》

《그렇기로 말이면 이 집도 빠질수 없겠지. 둘째가라면 섧다 할만큼 린근동에서 제일 가난한 농민이니까. 김령감은 그래두 홀몸이니 오히려 낫지 않우? 이건 자식새끼는 우그그한데 변변히 농사두 못 짓고 사철 량식걱정을 하여왔으니! 아이구,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에서 신물이 납네다.》

어느덧 안해는 뼈에 사무친 가난살이의 푸념이 자기도 모르게 또 나왔다.

《아주머니, 인제는 그런 말씀 마슈. 그러니까 아저씨두 위원될 자격이 있게 된것 아니예요. 만일 이 집도 지주로 잘살았어보구려. 이번에 땅을 죄다 내놓았을것 아니겠소, 하하…》

농민위원장이 재차 설명하니 《아따, 그럼 내가 대신 가리다. 인제는 녀자두 사람값에 든다니까 대리를 보아두 되지 않어…》 안주인은 이런 말을 하고 다시 간간하게 웃는다.

이 말끝에 원첨지가 《하지만 어떻게 녀편네를 대신 보낼수야 있는가. 내 얼굴은 뭣이 되라구…》 해서 그들은 또 한바탕 웃었다.

마침 이런 판에 떠벌이 김령감이 의외에 들어왔다.

《위원나리 행차하십니까?》

농민위원장이 롱조로 인사를 거는데 《아니, 뭣들을 그리 웃는거야… 아마 내 숭을 본게로군.》하며 김령감은 여러 사람의 눈치를 돌려가며 본다.

《성님, 들어오시유.》

《숭은 무슨 숭이여유. 아재두 참… 위원님이 되셨다니 고맙수다.》

원첨지내외가 마주 인사를 한다.

《위원… 위원은 되거나말거나 이해농사를 한번 잘 지어봐야겠는데 뭐, 집이 있나 사람이 있나…》

령감은 곰방대를 섬돌우에 탁탁 털고 두어번 입김을 부는데 대통속에서는 풀무질소리가 난다.

《이 담배 한대 피워보시우.》

원첨지가 잎담배 한대를 꺼내주니 김령감은 말없이 담배를 받아서

곰방대에 담는다.

《아저씨두 그럼 장가를 드셔야지.》

《글쎄 늙수그레한 할멈이나 하나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네 어디 한자리 중신해주지 못하겠나.》

김령감은 농민위원장한테 바짝 빌붙는다.

《이왕이면 젊은 녀자를 얻지 어째 늙은 할멈을 얻는다시우… 그래서 아들이라도 하나 두셔야지. 안 그러우, 아주머니?》

농민위원장의 하는 말에 《하긴 그러셔야지… 기왕 사람을 얻으실바에야… 어디 과부가 없나. 너무 젊어두 안되구 한 40안팎의 중년과부가 있었으면…》 원첨지의 안해가 대답한다.

김령감은 내심으로 그 말이 고마왔다. 그것은 마치 이 집 내외간과 같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하나 겉으로는《나같은 사람한테 젊은 녀자가 뭘하러 오겠소.》하고 김령감은 부지중 한숨을 내쉰다.

《아저씨두 원… 인제는 아저씨두 이 동리의 어른이신데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위원님을 깔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민위원장이 정색을 하고 말하니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까놓고 말인데 사실 인끔으로 친다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지주만 못한게 무엔가. 단지 돈 한가지가 없어서 절제를 받아온것뿐이지… 여보게, 난 그전에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네. 아니, 〈먹통〉이나 황주사가 그게 사람인가?》 김령감은 평소에 생각하던바를 비로소 토설한다.

《먹통》은 그전 구장의 별명이였다.

《그럼 뭐 더 말할것 없지 않어요. 인제는 우리들 일군의 세상인데.》

《하지만 난 늙어서. 지금 한 50만 되였어두 한번 큰소릴 치겠네마는, 하하… 인젠 할수 없어.》 하고 김령감은 도리질을 한다. 그러나 그의 장대한 골격과 억세인 주먹은 아직도 한 장정을 때려눕힐만 한 기력이 있어보인다.

《뭐, 아저씬 상기두 정정하신데요.》

《그럼, 성님근력은 언제나 마찬가진걸.》

김령감은 그렇게 장골이면서도 일가식솔도 없이 사처를 돌아다니며

30년동안 머슴살이를 하였다 한다.

그래 김충걸은 《떠벌이》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자기 래력에 대한 것은 일체 비밀에 붙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

7

농촌위원회가 조직되는 날 아침, 새로 뽑힌 위원들의 거동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우선 김충걸령감은 세거리주막에다 사처방을 정해놓고 미구에 행차할 차비를 차리였다. 그날 식전에 김령감은 백코칼로 머리를 홀딱 밀고 세면을 한 후에 몇해동안 안 입어보던 낡은 광목 홑두루마기를 떨치고 나섰다. 그리고 길목을 신었던 발에다 새 양말을 신고 새로 맞춘 미투리를 사다신었다.

이렇게 차리고 나서니 아까까지 텁수룩하던 김령감이 금방 딴 몰골로 된것 같다.

《위원나리 벌써 행차하시랍니까, 하하. … 참, 그리고보니 령감님두 위원 같으신걸.》

주막 안주인이 괴나리보짐만 졌으면 흡사히 어사또의 차림같은 김령감을 보고 한바탕 웃어드긴다.

《웨 위원은 무슨 별 사람이라던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에헴—》

김령감은 큰 기침을 하며 한번 뽐낸다. 그러나 그는 매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시각에 원첨지는 자기 집에서 부산을 떨었다. 그는 안해가 있는만큼 갖은 타발을 다하였다.

노닥노닥 기운 양말을 신다가는 《이건 창피해서 어떻게 신느냐》는둥, 회색물을 들인 삼베두루마기가 마치 중의 장삼과 같다는둥 전에 않던 옷투정이 대단하다.

안해는 어이없이 그 꼴을 보다못해서 대꾸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언제는 남과 같이 행세를 하구 다녔소. 그밖에 없는것을 날더러 어떻게 하라구… 옷감을 척척 끊어오시구려. 그럼 비단옷이라도 해드릴테니.》

《누가 비단옷 해달랬어! 이 꼴을 해가지구 위원자리에 어떻게 나가앉느냐 말이지. 제길할— 못하겠단 위원은 웨 자꾸만 하라는거야. 남의 속타는줄 모르구들!》
원첨지는 그대로 짜증이다.
안해는 그의 미시리처럼 구는 꼴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풀에 웃음을 터치고말았다. 아이들도 어이없는듯이 따라웃는다.
《여보, 참 당신두… 위원이라니까 무슨 옛날 감사나 하시는것싶소? 촌사람이 그만했으면 됐지 뭘 변덕스럽게 아이들처럼 옷타발이요. 내 참, 새빠지게!》
그러나 원첨지는 종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징징댄다.
《남들이 중이라고 놀릴테니까 그렇지.》
《그럼 두루마긴 입지 마시우다그려.》
《아니, 위원인 명색이 동저고리바람으로 회의에 가란 말야?》
원첨지는 소리를 꽥 지른다.
《엥— 화나! 그놈의 위원 집어칠란다.》
《집어치든지 발길로 차든지 맘대로 하시구려!》
안해도 화가 나서 말대꾸를 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문답이 조금만 더 계속되였더라면 원첨지내외간에는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을것인데 때마침 위급을 구하느라고 김령감이 지나가다가 소리를 쳐서 그들은 언쟁을 중지할수 있었다.
《여보게! 위원회 안 가려나!》
《아, 성님 벌써 가시우? 같이 가십시다.》
원첨지는 그렇지 않아도 혼자 가기가 열적어서 안 갈수도 없고 속으로 켕기던차에 잘 만났다고 얼른 뛰여나간다.
그런데 중대가리바람에 홑두루마기를 입고 앞장을 선 김령감의 뒤에 원첨지가 회색삼베두루마기에 큰 갓을 쓰고 따라가는 모양은 정말로 처사행렬과 같은 진풍경을 이루었다.
그 꼴을 보고 원첨지의 안해는 아이들과 같이 요절을 하도록 웃어댔다.
《어머니, 웃지 좀 말우… 아버지가 안 간다구 도루 오시면 어쩔라우.》
동준이가 민망해서 어머니를 만류했다.

《설마 가시다가 도루야 오시겠니.》
《위원은 가난한 농민들이 꼭 해야만 된다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토지분배에 협잡이 붙어서 우리같은 집에는 좋은 땅이 안 돌아올텐데 어쩔라구…》
《그럼, 저희끼리만 좋은 땅을 노나갖고 찌꺽지만 돌릴것 안야.》
동식이형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말을 주고받는데
《어머니, 그럼 아버지를 잘 위합시다. 위원을 또 내놓으신다면 어떡하우?》
언년이가 불안해서 어머니를 권고한다.
《위하긴 뭘로 위하니! 쥐뿔도 없는 놈의 집안에서.》
《아이, 어머닌… 인젠 가난타령 좀 작작하슈.》
《작작하지 않으면 사실이 그런걸 뭐!》
어머니는 웃으며 딸의 말을 받는다.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수… 왜놈도 쫓겨가고 지주도 없어지고 인제는 가난한 농민이나 로동자들이 잘살게 되였다는데 어머니! 그러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잘 위하셔요… 생전 안해보시던 위원노릇 하시기에 아버지도 힘드시지 않겠어 뭐.》
《그래 늬나 실컨 위해드려라! 난 쥐뿔이나 위할것이 뭐 있어야지.》
《어머닌 늘쌍 쥐뿔밖에 모르시나봐! 쥐가 무슨 뿔이 있다구…》
언년이가 샐쭉해서 돌아선다.
《옛날에는 쥐도 뿔이 있었단다. 그런데 땅위에는 큰 짐승들이 많은데다가 고양이는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기때문에 쥐들은 무서워서 땅속으로 굴을 뚫고들어가서 숨어살기 시작했단다. 그때 쥐들은 뿔로 땅을 파들어갔는데 그때 땅을 파느라고 뿔이 다 닳아서 종당은 뿔이 없어지고말았단다, 호호호…》
농촌위원회는 농민의 새싹을 틔우는 온상이 되고 토대가 될수 있었다. 그러나 쌀 한되가 없는 집안에서 정말 무엇으로 그를 위하느냐 말이다.
《큰오빠, 읍내 가서 술 한병 받아올라우? 내 돈 드릴게!》
언년이가 말을 이렇게 꺼내니 《넌 돈이 어데서 났니?》 눈이 둥그래서 동식이가 묻는다.

《요새 더덕을 캐서 판거라우.》

언년이는 괴춤을 흠척하더니만 똘똘 뭉친 5원짜리 지전 두장을 꺼내여놓는다.

《그럼 그래라. 동준이 너두 같이 가자.》

동식이가 선뜻 대답을 하고나선다.

《난 나무하러 갈테야.》

《작은오빠, 그럼 나하구 같이 가요. 난 더덕을 캐러 갈테야, 응?》

《그래라덜… 큰아들은 술받아오고 작은아들은 나무해다가 불 많이 때구 딸년은 술안주로 더덕을 캐오구… 그만했으면 아버지를 잘 위하겠구나.》

어머니는 웃으면서 세 아이를 돌아본다.

《그럼 어머니는 뭘로 위해드릴랴우?》

동준이가 묻는 말에 언년이가 대신했다.

《뭐어… 어머닌 있다가 아버지 안주 잡수실 때 무릎꿇고 앉아서 술이나 한잔 따라드리시라요, 호호호.》

《망할년같으니… 술은 네가 따라드리랴무나.》

그러나 어머니는 성을 내지 않고 그들과 같이 웃었다.

《왜놈의 시대에는 가난뱅이가 천덕꾸러기였지만 해방된 지금에는 우리들도 버젓한 조선의 아들딸이라우. 그렇지 않우, 큰오빠…호…》

《듣기 싫다.》

동준이가 주먹을 둘러메는 바람에 언년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길로 동식이가 읍내로 술을 받으러 빈병을 들고 나가고 동준이는 나무를 하러 간다고 지게를 걸머지는데 언년이가 빈 보구미를 들고 그 뒤를 따라선다.

봄, 봄! 눈서리와 싸우는 봄! 며칠전에는 청명한 일기가 제법 봄빛을 느끼게 하더니만 어제 오늘의 기후는 돌변하여 봄이 다시 뒤걸음질을 치는것 같다.

그러나 봄은 확실히 봄이다. 푸른빛이 서린 강변의 버들숲에도, 보라빛노을이 하늘가를 물들인 저녁별에도 봄은 깃들어있고 봄은 스며든다.

이렇게 하루이틀 봄은 물러가는듯 하면서도 실상은 닥쳐오고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서도 그러하였다. 대세는 어길수 없고 어기다가는 멸망만 당할뿐이다. 오는 봄을 막아낼자 그 누구냐? 도이췰란드의 히틀러를 보라! 일본의 군벌들을 보라! 놈들은 파시즘의 부패한 반동사상으로 대세를 거역하다가 전진하는 력사의 수레바퀴에 참혹히 부서지지 않았던가.

봄은 해마다 돌아오건만 해방후 처음 맞는 이 봄은 유별나게 다르다.

작년 봄에 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봄다운 봄을 얼마나 그리였는가. 인간의 자유를 여지없이 속박당하였던 그들은 어서 기를 펴고 살고싶었다.

사람마다 그리던 그 봄은 오고야말았다.

그렇다! 대지의 새봄이 오는것은 마치 정의의 대군이 불시에 몰려들어 적진을 도륙하는것과 같았다.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는 이 땅우에 새봄을 가져왔고 이 봄맞은 대지에 인민의 씨는 뿌려졌다.

인민의 새싹은 결코 잡초가 아니다. 그것은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이 근로대중의 각 직장에서 일상적실천, 창조적로동을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날것이다.

오! 위대한 봄, 인간의 새봄이여! 인민의 새봄도 자연계의 이 봄과 같이 새싹이 터오려 한다.

그리하여 산과 들의 초목처럼 인민의 꽃을 피우고 인민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동준이는 장터앞다리를 건너서 산잔등으로 올라갔다. 그뒤를 따라 언년이는 더덕덩굴을 찾으며 바위틈을 뒤지고있다.

강가에 늘어선 버들숲은 나날이 푸른빛을 더해오는데 멀리 물아래로 트인 넓은 들안은 참으로 해방의 기쁨을 펼쳐안은듯, 그윽한 강물소리도 마치 토지개혁의 찬가를 부르는것 같았다.

동준이는 전에없이 마음이 유쾌하였다. 오래동안 무형한 속박에 눌렸던 가슴이 탁 틔우며 전에 없던 새 기운이 용솟음친다.

(어떤 논이 우리 집에도 차례오랴는가… 올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

자!)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앞일을 뼈물러보았다.

동준이는 산중턱에 지게를 벗어놓고 낫을 빼들었다. 황주사의 이 산도 국유로 몰수되였다 한다. 따라서 이 산은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될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인민의 재산이요, 동유림과 마찬가지의 공동소유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종래와 같은 사유의 관념을 버리고 일초일목이라도 소중히 알아서 이 국가의 재산, 인민의 재산인 산림을 애호하여야 된다는 말을 들은 동준이는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생나무는 한그루도 찍지 않고 고자빼기와 삭정이만 따고있었다.

그동안에 언년이는 약삭바르게 더덕을 캐였다.

해가 한낮이 기울어서 그들은 집으로 내려왔다.

동준이는 등걸나무를 한짐 잔뜩 걸머지고 언년이는 더덕을 한보구미 실하게 캐였다.

그들이 돌아와보니 동식이는 벌써 술을 한병 사다놓고 어머니는 저녁먹을 콩끓이를 갈고있다.

위원회를 여적 하는지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황주사는 간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남으로 솔가도주를 했다 한다. 그 소식은 술을 받으러 갔던 동식이가 듣고와서 전하였다.

(그럼 아마 그 령감태기가 지전옷을 입구 갔겠지. 이남에 가면 무슨 별수가 있겠다구.)

그들은 황주사를 이렇게 비웃으며 아버지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었다.

1947.

전기는 흐른다

리 북 명

도대체 이게 꿈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만사는 늘쌍 이렇게 구체적이래야만 한다. 우리 삼천만인민은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눈빠지게 기다렸던것이냐. 오늘은 당연히 오고야말 력사의 판결날이다.

아— 통쾌하구나, 오만가지 감정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팔월 십오일!

팔월 십오일!

미친 개, 일본제국주의의 미친 개는 정의의 철퇴에 엉치가 부서져서 혀를 가로 물고 나가번져졌다.

잔인무도하던 강탈자 일본제국주의자들!

우리의 피와 기름을 여지없이 빨아먹던 비게 낀 이리, 일본제국주의강도들.

김창화는 오늘 대낮 왕성하게 작열한 태양아래 발전소뒤산 잔등에 올라 네거리로 뻗어내린 철관로를 무연탄가루와 세멘트로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강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것을 일본《천황》이 울면서 방송했다는 특보를 얻어듣고 작업이고 난장이고 모두 집어치고 고래고래 소리질러 철관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척 하면서 늘 짬수만 보는 동무들에게 알리고나서 맨 앞서서 허둥지둥 산을 내려왔던것이다.

그러나 창화의 타고난 성격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오늘 저녁 각계 대표자회의 석상에서까지 그를 흥분과 감루(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에 젖게 했다. 희비의 감정이 용솟음쳐서 가슴은 두방망이질하고 추억과 회고, 의분과 통쾌— 이런 착잡한 감정때문에 머리는 된몽치에 얻어맞은듯이 얼떨떨했다.

때때로 동생 창구의 얼굴이 눈앞에 번개불처럼 지나친다. 그럴 때마다 창화는 입속으로 중얼거려본다.

—창구야, 돌을 깨물구라두 살아와다구— 창구는 바로 8월 초하루날 일본병정으로 끌려나간 후 남행차를 탔다는 소식까지는 얻어들었으나 그 목적지가 어딘지 창화는 오늘까지 알지 못한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선 흥분을 버리고 랭정해지자. 오늘 저녁회의야말로 어떻게 하면 장진강발전소를 파괴에서 사수하겠는가 하는 중대한 모임이 아니냐. 일분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험이 가증된다.

창화는 연송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의 용광로같은 마음을 고요히 달랜다.

넓지 않은 회의실내에는 담배연기가 뽀얗다. 아홉시가 조금 넘었으니 여느때 같으면 공습싸이렌이 울고 아이새끼들과 물건을 안고, 업고 이고 방공호로 뛰여들어갈 시간이다.

창화는 전기시계를 흘끔 쳐다보고 담배를 재털이에 찌르고나서 주먹으로 테블을 탁 쳤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어느때요. 중대한 순간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태도를 신중히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겠소. 해방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발전소시설일체에 대한 완전확보가 있을뿐이요. 사소한 개인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우리 전기부문의 기술자들은 장진강발전소에 부과된 긴급한 당면문제를 이 자리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랭정한 태도로 해결짓는 동시에 행동에 옮겨야 옳지 않겠소?》

창화는 일본놈들중에서도 류달리 사람차별 심히 하던 몇몇놈에게 맵쌀한 주먹맛을 보여주어야 가슴의 체증이 풀리겠다는 서무계의 최창모와 회계계의 김덕무의 강경론에 대해서 자중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면서도 창화자신 역시 덕무와 창모의 주장에 대해서 내심 찬동의 손을 들지 않은것은 아니다. 사실 툭 털어놓고 말한다면 조선사람종업원치고도 놈들한테 가장 푸대접 받아온 사람은 창모와 덕무다.

창모는 5년제중학을, 덕무는 3년제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수전(《수력전기》의 준말)회사에 입사한지 착실히 4년철이 되나 아직 사원은 커녕 고원일급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창모는 사상적으로 불순한데다가 지금도 틈만 있으면 좌익서적을 많이 읽고 그것을 선량한 종업원들에게 선전한다는 리유로 또 덕무는 몸집이 육중하고 성미가 괄

괄한데다가 주둥이가 말대꾸 잘한다는 리유로 일본녀석들사이에서는 후레자식으로 눈에 가시로 도장찍혀있었던것이다.

《정 그렇다면 나 개인으루두 그놈 땀 좀 내줘야지 그냥 참지는 못하겠네.》

덕무는 노기가 등등하여 와이샤쯔소매를 부르걷어올린다.

기무라라는 계장녀석의 그 조선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으며 지어 조선사람의것은 닭알까지도 일본닭알보다 맛없다고 트집잡던 주제넘은 태도에는 증오와 의분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아니네, 자네 말에두 일리는 있네. 하지만 너무 덤비지 말게. 지금은 개인적감정보다두 발전소사수를 위해서 그리로 우리 총력량을 집결할 때가 아닌가. 자네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우물의 물을 들구 마시지 않아도 자네 가슴이 삼복더위에 아이스크림 먹은듯이 시원해질 날이 멀잖아 어련히 오지 않으리. 또 벌써 오지 않았나. 참게, 참아.》

덕무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는 토목계대표자 문석호의 당부다. 평시에는 벙어리처럼 눈치만 살피고 혼자서만 우물거리다가도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영영 딴 사람처럼 유모아의 웅변을 토하는 재간을 가지고있는 친구다.

《옳네, 옳아.》

동치미국처럼 찡하고 정신이 나는 석호의 말에 모여앉은 대표들은 찬성하여나섰다.

《그러면 내 말은 보류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주오.》

덕무의 부풀어진 성이 어느 정도 풀린것만 사실이다.

가장 엄숙한 토의와 정밀한 계획을 속히 결정지어야 할 회의는 개인감정때문에 정당한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덕무가 다소 수그러지는 바람에 겨우 본론의 어구를 찾아들었다. 여름저녁으로서는 모기떼와 하루살이떼가 적은편이다.

앵앵 울기는 하나 부채없이 견딜만 하다.

전기시계가 아홉시반을 가리킨다.

《아까도 창화씨가 말했지만 우리들은 지금 발전소시설전부를 완전히 확보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만일 여기에 조그만 파괴나 고의의 고장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우리 종업원들은 삼천만동포들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을것이요. 그러니까…》

부하계의 대표자 조영일은 그 타고난 늘어진 침착성도 잃고 만감(여러가지의 느낌)이 가슴에 북받쳐 그것을 억누를 길이 없이 도리여 화가 동한 사람처럼 목대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술을 단결해가지구 결사대가 되여서 발전소시설전부를 사수해야겠소. 나는 무엇보다두 이것이 제일 긴급한 당면문제라구 생각하오.》

영일의 말은 불덩이같은 열은 있으나 그 제안에는 아무런 구체성도 진전도 없다.

《그러니까…》

목을 황새목처럼 빼들고 앉았던 창화는 영일의 말이 끝나기도 바쁘게 테블을 탁 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선 우리의 최고책임자를 선정해야겠소. 그래가지구 그 책임자를 보좌하면서 일치단결하여 우리들에게 부과된 당면문제를 착착 해결지어가는것이 우리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알뜰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아닐가구 생각하오.》

문석호의 둥글둥글한 목소리다.

《찬성이요.》

《좋소.》

대표자들은 맺혔던 진리나 찾은듯이 비로소 얼굴에 명랑한 빛을 띠운다.

《그럼 그전에 림시의장과 서기를 선출해가지구 회의를 진행하는것이 어떻겠소?》

창모의 제의다. 이 모임에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조직활동을 해본 사람은 창모 한사람뿐이다.

그다음 친구들은 백지다.

《그럼 제의한 창모로부터 의장 한명, 서기 한명을 지명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오.》

덕무의 말에 모두가 찬성의 손을 들었다.

《그럼 내가 지명하지요. 림시의장에 김창화, 서기에는 리종칠.》

박수가 일어났다. 찬동의 박수다.

《그럼 내가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할줄은 모르지만 림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시키겠소. 그럼 누굴 우리 장진강발전부의 책임자로 선

출하겠소? 그 선출하는 방법을 말해주오.》

창화는 대표자들 얼굴을 휘몰아본다. 종칠은 재빠른 솜씨로 회의록을 쓴다.

《의장, 내게다 한마디 말을 시켜주시오.》

창모는 잠간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고나서 천근같이 무겁게 입을 연다.

《전 장진강 수전종업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 이상 여기서 우리들이 가장 엄격하고 랭정한 립장에서 최고책임자를 선정하는것은 잘못이 아니라구 생각하오. 그럼 제 의견 하나를 내겠소. 이앞으로는 여러가지 강력한 조직체가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들의 당면과업인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자면 전기기술자가 이 부문의 책임자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적야심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정형위원제나 투표제같은것을 모두 집어치구 우수한 전기기술자요 동시에 인망이 높은 김창화형을 책임자로 모시는것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하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최창모의 쿡쿡 쥐여박는듯 한 굵은 목소리에는 웅변가를 련상케 하는 매력이 있다.

로동자의 립장에서 가장 옳은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창모는 이 근래 일본놈들의 탄압과 감시밑에서 그 길을 너무나 외로이 걸어가고있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천근의 무게로 자기의 량어깨를 짓누르는 과업과 책임을 느끼고 그는 너무나 큰 변화에 랭정을 잃고 은근히 몸부림을 쳤다.

세상물정에 관심이 적은 전기기술자들을 어떻게 길들이며 어떤 방법으로 손잡고나가야 할지 갈앉았던 잠재의식이 불쑥 머리를 쳐들기는 했으나 너무나 갑작스런 격동에 정신이 얼떨떨했다.

창모의 말은 날이 섰다.

《나는 두말없이 찬성이요.》

회계계의 김덕무가 팔을 번쩍 들자 마치 그 흉내나 내듯이 다른 대표자들도 선뜻선뜻 팔을 들었다. 그들의 머리속에도 제일후보자로서 김창화가 떠올라있었던것만은 사실이다.

잠간 침묵이 계속된 후 창화는 의자를 뒤로 밀어젖히면서 일어섰다. 그러자 한바탕 박수가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구싶어 말을 끄집어낸것 같소. 아무것도 모르는 김창화를 책임자로 선거해주니 다만 부끄러운 생각뿐이요. 우리는 다같이 발전소를 사수하는 결사대가 됩시다. 결사대의 정신과 책임감이 있다면 발전소를 사수못할 일이 없을것이요. 마흔해동안 생각하면 참으로…》

창화의 목소리는 어느덧 눈물로 흐렸다. 창화는 땀밴 손수건에다 두눈과 코를 닦고나서 랭수 한고뿌를 쭉 들여마신다.

《40여년동안 강도같은 일본놈들은 우리 조선과 조선사람에게서 기름과 피와 알뜰한 청년들까지 그밖에 모든것을 강탈해갔습니다. 이런 뻔뻔하고도 간악한 도적놈이 어데 있습니까. 그놈들은 우리 부모에게서, 우리에게서 또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서 이름을 빼앗고 말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좋은 자기 선조와 자기의것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우리는 왜놈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져 죽을 일뿐이였지요. 그러나 기나긴 력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민족이 영원히 멸망할리야 있겠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것이며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력사는 도리여 1945년 8월 15일이란 오늘 가장 정당하구두 가장 준엄한 판결을 일본에 내려준것입니다.》

창화는 또 한번 두눈과 코를 닦고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라는 관념부터 버립시다. 발전기와 함께 살구 발전기옆에서 죽을 각오를 가져주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부탁은 일본이 무조건항복은 했다구 하지만 아직 그놈들 손에 무기가 있고 그놈들 속통에 발악성이 남아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오. 우리 장진강지구에도 이십명의 일본놈병정과 왜놈의 헌병과 왜놈의 순사가 무장한채로 남아있다는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놈들의 파괴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만단의 자위적수단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럼 거기 대한 복안을 가지고있습니까?》

덕무가 묻는 말에 창화는 《있소.》하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책임지고 행동에 옮겨줘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아니, 명령하겠소. 좋겠습니까?》
《좋소.》
일동은 순간 긴장한 빛을 얼굴에 나타냈다.
《그럼…》
창화는 공장복 바지주머니에 손을 찔러 부스럭거리더니 한장의 종이쪽지를 끄집어 내들었다.
《에, 나의 이 간곡한 부탁을 여러분은 일개 김창화의 부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조선 삼천만동포의 부탁인줄 알아주시고 절대로 책임져줘야겠소.》
창화의 불붙는 눈동자, 심각한 얼굴표정. 총알이 무서우랴, 비수가 겁나랴. 자그만치 40여년동안 억압에 울고 착취에 허덕이고 심신이 찢기운 애국의 감정이 맹렬한 반발력을 가지고 불꽃을 날리기 시작했던것이다. 각 계 대표자들은 쥐죽은듯이 앉아서 자기에게 떨어질 중대한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토목계대표자 문석호.》
드디여 명령을 내렸다.
《네!》
뾰족뾰족 내민 수염을 뽑기 시작하던 석호는 불의의 호명에 약간 가슴이 뜨끔했으나 눌러 태연한 태도를 보인다.
《당신은 각 현장에 산재한 기재류와 철재와 세멘트를 영구창고에 모을 계획을 세워주오. 그리고 각 건물과 도로, 교량의 보수와 설계도면의 소개와 이동방지를 책임져주오. 방화의 경우를 생각하고 가소린뽐프를 잘 수리해주오. 그리고 비상경비대원을 여덟명 선출해서 래일 아침 여덟시까지 보고해주오.》
《책임지리다.》
석호는 목책에다 일일이 적으면서 자신만만히 대답을 한다.
《다음 발전소대표자 박동수, 동수군은 지금 병중이므로 내가 대신해서 발전소시설전반에 대한 확보 특히 변압기와 발전기 그리구 옥외변전소와 철관로를 사수하리다.》
《다음 부하계대표자 조영일, 당신은 중요한 통계표와 서류의 이동방지와 소각을 절대 감시해주오. 부하계의 서류는 우리 장진강발전계통의 생명이라구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요. 비상경비대원 다섯명, 부

탁하오.》
《잘 알았소.》
《다음 선로계대표자 리종칠, 당신은 반송전화(전기 반송파를 리용하는 전화)실과 유선전화실 즉 다시말한다면 통신망을 절대 책임져주오. 그리구 흥남, 경성, 평양, 청진 송전선을 고장없도록 잘 보수해주오. 우리 부락의 전등을 래일안으로 종래대로 복구시켜주오, 범죄는 늘쌍 어둠을 리용하니까. 그리구 전용품창고를 잘 간수해주오. 비상경비대원 일곱명.》
《예.》
회의실안은 중대한 결정서를 발표하는 의사당처럼 정숙하고 엄엄한 공기가 떠돈다.
숨막힌듯 한 심각한 표정, 꽉 다문 입술, 벽이라도 뚫고말 눈살, 이 무언의 표정을 보고 창모는 속으로 이렇게 따져본다.
―이날을 하루바삐 우리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 백두의 준령을 넘나들면서 왜적을 무찌른 조선의 거룩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많은 목숨을 바쳤던것이냐.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은 우리는 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해 발전소를 목숨으로써 사수해야 한다. 어떤놈이 우리의 발전소를 침해하려느냐. 피비린 투쟁, 여기서 우리는 그놈에게 죽음을 주리라―
창화는 침묵을 깨뜨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회계계대표자 김덕무, 당신은 특히 현금의 류출과 전표의 소개를 엄중감시해주오. 유령전표도 있을것 같으니 특히 잘 부탁하오. 그리구 현재 현금재고와 각 은행 예금액을 래일 오후 4시까지 조사해서 보고해주오. 이 돈이 우리 수중에 있어야 우리는 생활에 대해서 안심하고 일할수 있겠소. 시급한 문제니만큼 래일안으로는 바쁘리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감히 부탁하는바요. 그걸 잘 량해해주오.》
《하루로써는 과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불을 켜가지구서래두 조사해서 보고하리다.》
열책이 넘는 회계장부와 가불과 지불전표를 조사하여 현금과 대조하는것은 3～4명의 회계원으로써도 하루에는 남는 일이다. 이것을 단 한사람인 조선사람회계원 덕무가 래일 하루에 해내겠다는것이다.
《다음 서무계대표자 최창모, 당신은 부분적으로나마 있을수 있는

종업원들의 자유이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전체 종업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사소한 동요도 없도록 대책을 속히 강구해주오.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인간들의 단결이 제일이요. 개인주의적행동은 도시 용서할수 없는 죄악일것이요. 우리 발전소에서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적재라구 믿소. 그리구 흥남, 본궁, 송흥에 직공장하구두 시시로 긴밀히 련락을 취해주오. 또 한가지는 자동차운전사 문제요. 자동차 두대와 운전사 두사람은 명령일하 언제든지 운전할수 있게 대기시켜두오. 비상경비대원 열명을 내주오.》

《잘 알겠소. 그런데 래일 아침 전종업원대회를 여는것이 어떻겠소?》

창모의 제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그럼 래일 아침 여덟시에 전종업원대회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밤 우리들의 결의사항을 전달하고 비상경비대결성식까지 거행할 작정이요.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는 제1, 제3, 제4발전소의 대표들로 하여금 래일안으로 경비대를 조직해야겠소. 조직지도원을 파견해야겠는데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주시오.》

장진강 수전에는 제1로부터 제4까지 4개의 발전소가 있다. 그중에서 제2발전소의 경비대를 우선 오늘 밤 결성하기로 되여있었다. 이는 장진강 수전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되는것이다.

《그 방법두 의장에게 일임시키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석호의 제의에 모두가 찬동했다.

《그럼 내가 지명하지요. 제1발전소경비대 조직지도원에는 문석호, 제3발전소에는 리종칠, 제4발전소에는 조영일, 이분들은 래일 아침 종업원대회가 끝나자 자동차로 출발해주시오. 래일안으로 꼭 돌아와야 하오. 나는 래일안으로 제1, 제2발전소 배전반에 조선인전기기술자를 배치하는 문제를 세워야겠소.》

소낙비처럼 퍼붓는 일, 일, 일. 각 계 대표자들의 머리는 얼떨떨했다. 대표자들에게는 그들의 대상인 발전시설이 여느때보다 너무나 크게 확대되여보였다. 조수처럼 밀려드는 일과 책임감에 누구나없이 몸부림을 쳤다.

《축하행사는 언제쯤 할 작정이요?》

종칠은 붉은기를 높이 들고 목구멍이 커서 심장이 튀여나오도록 만

세를 불러보고싶었다.

《그것은 래일 저녁에 부락측하구 협의해가지구 성대히 거행하기루 합시다. 돌아온 조국을 맞이하는 축하행사를 훌훌히 해서 되겠습니까.》

창화의 머리속에서는 축하행사에 대한 찬란한 프로그람이 제작되고 있었다.

창모는 내심 만족하였다. 지금까지의 회의를 보더라도 창화의 태도가 자기가 상상한바와 그리 어그러지지 않았기때문이다. 기술자 특히 전기기술자중에는 괴벽자가 많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자가 많은데 창화만은 그런 종류의 기술자는 아닌상싶었다.

창모는 고민과 랭정한 비판끝에 자기 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지었다.

해방에 대한 환희와 무질서한 자유행동은 당분간 계속될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다음순간을 꽉 붙잡아야겠다. 단순한 머리를 가진 400명이 아니냐. 처음부터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발전소운전접수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그아래에다 400명 종업원을 뭉치자. 이것이 성공하는 날 그날부터 나의 할일은 시작될것이다.

창모는 이 궁리를 하느라고 도리여 우울증에 빠졌다.

《잘 부탁하오.》

창화는 한사람씩 손을 우지끈 잡아흔들어준다. 대표자들은 비로소 긴장속에서 벗어난듯이 담배 한대씩 피워물고 작업을 시작할 잡도리들이다.

창화는 이마의 땀을 씻고나자 피울줄 모르는 담배를 뻑뻑 빨아가지고는 멋적게 푸 하고 내뿜는다.

창화는 또 오늘의 감격을 되풀이해본다. 이것은 참으로 꿈같은 사실이로구나— 창화는 꼬불꼬불한 곡선을 그리면서 천장으로 기여올라가는 담배연기를 쳐다보면서 생각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가지가지 일을 생각할 때 창화는 자기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평가했으면 좋을는지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우리의 힘으로 전동양에서 둘째가는 장진강발전소를 무난히 운전해나갈수 있을가?

아니다, 아니다. 창화는 머리를 내흔들어 자기 생각을 약한자의 비명이라고 좋게 부정해버린다. 내 힘이, 힘이 그렇게 약할소냐. 비록 그 힘이 40여년동안 일본제국주의의 툭하고도 강력한 철쇄에 꼼짝달싹 못하게 얽매이고 커다란 착취의 바위밑에 눌리기는 했을망정 놈들은 우리의 힘과 슬기를 빼앗지는 못하였다. 왜놈들이 배울 길을 막았기때문에 우리의 기술은 아직 어리지만 우리는 어떠한 곤난과 싸우면서도 능히 이 발전소를 운전해나가고야말것이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연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정열로써 발전소를 운전해보일테다—

창화는 테블을 툭 치면서 한바탕 기세좋게 웃어댄다.

《참, 일본귀신이 대성통곡할 일이군.》

모두 통쾌하게 웃어댄다.

《지금부터래두 우리들끼리 당번을 서야지요.》

문석호는 당장 화약창고로 뛰여갈듯 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그는 다른 친구들이 동치 않는것을 보자 다소 뚝해진 기분으로 맥없이 앉는다.

《화약고의 열쇠만 찾아오문 될거 아니야.》

영일은 자기가 가장 뾰족한 제안을 했다는듯이 들창코를 높인다.

《시기상조네. 괜히 자는 범을 때려 깨게 하는게지. 지금 가서 열쇠를 내놓으라구 해보게. 그놈들이 줄것 같으나.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하루밤이요. 래일 비상경비대가 조직되면 화약고경비대도 나올것이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밤 자지 맙시다. 그리고 림시비상경비대원이 되여서 화약고와 발전소일대를 경계합시다.》

덕무의 제의는 석호의 제안과 그 내용이 같았으나 말이 조리있고 순서를 세웠기때문에 각 계 대표자들의 찬동을 얻었다.

《그 말이 그 말이군. 그런데 어째서 아까 내 말은 찬동 안했소?》

문석호의 무뚝뚝한 표정을 보고 모두가 한바탕 웃어댄다. 그통에 석호자신도 껄껄 웃는다.

창화는 가슴속에 뭉쳤던 한숨을 후위—하고 내뿜고 다시 또 랭수를

단모금에 들이마신다.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누구요?》
《저 개울건너 홍이올시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낮으나마 점잖은 목소리다.
《들어오시오.》
육중한 문이 삐하고 열리면서 얼굴을 들이민 사람은 홍영삼이다.
《아, 홍선생, 어서 들어오시오.》
대표자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자나 만난듯이 홍영삼의 래방을 진심으로 반가와한다.
《더운데 수고들 하십니다.》
홍영삼은 겸손한 태도로 인사하고나서 권하는대로 의자에 앉는다.
홍영삼은 ○○야학교 선생으로서 동네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온다. 그는 《보국대》에 끌려갔다가 얼마전에 돌아왔다.
그는 록피(사슴가죽)처럼 부들부들하고 참배맛나는 온건한 성품의 소유자면서도 한편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청년이다.
홍영삼은 실내의 공기를 은근히 살펴본다.
자기가 가지고온 사명을 전달할 좋은 기회를 얻으려는듯이.
《홍선생, 찾아오신 용건을 말씀하시지요.》
창화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부락측의 절대적협력을 요청해야 할 복안을 가지고있었다.
《예, 그럼 말씀드리겠소. 오늘은 우리 조선사람에게는 다함없는 영광의 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력사가 중대한 시련을 우리에게 준 날입니다. 우리는 기뻐 날뛰기 전에 우선 당면한 긴급문제부터 해결지어야겠소. 여러분의 오늘 밤 모임도 그런 취지에서라구 생각됩니다. 그래 오늘 밤 우리 부락에서두 우선 할일은 해놓구 나중 기쁨을 나누자— 이런 취지밑에서 긴급부락민대회를 가졌는데 조금전에 원만히 끝마쳤습니다.》
홍영삼은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나서 낮으나마 열찬 소리로 차근차근 경과보고를 한다.
《대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와 부락측은 일치단결해가지고 발전소, 기타 중요시설을 완전방위하기로 함. 둘째,

부락중견청년 30명으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즉시 부서에 당도케 함. 셋째, 회사와 부락의 공동축하행사거행에 관한 건. 대개 중요한 결의사항은 이 세가지올시다.》

홍영삼은 쭉 한번 대표자들 얼굴을 돌아다본다. 무슨 중대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대표자들의 긴장한 시선이 홍영삼에게로 쏠린다.

《그래, 그 30명 자위대원은 어데다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작정입니까?》

창화는 거의 상반신을 책상우에다 실으면서 성급하게 재촉한다.

《그런데 그 30명의 자위대원을 저의 독단으로 다음같이 부서에 배치시켜놓구 여러분을 찾아오는 길입니다.》

홍영삼은 배치도를 끄집어내들고 설명한다. 실내는 밀림속처럼 엄숙하고 정적하다.

《발전소부근에 열세명, 흑림교에 네명, 화약고부근에 여덟명, 련락원 두명, 정보수집원 세명, 합 30명이올시다. 대원들은 길이 석자가량 되는 곤봉과 저마다 50개이상의 돌을 준비하고 위급시에는 철판을 두들기게 되여있습니다.》

영삼은 각 부서의 책임자와 련락장소들을 적은 종이쪽지를 창화에게 내준다.

대표자들은 누구나 그의 갸륵한 행동에 감탄하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커다란 감격과 말할수 없는 감사에 못이겨 대표자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다.

난관에 부닥쳤던 화약고문제를 홍구장이 해결지어주었다.

《홍선생님!》

창화는 영삼의 손목을 덥석 움켜잡았다.

《여보, 고맙소. 뭐라구 말할수 없소.》

창화의 가슴에서는 감격의 피가 끓어번졌다. 그의 눈에는 영삼의 네모진 얼굴이 넷도 되고 여덟도 되여보였다.

앞산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멋적게 들려온다. 전기시계가 바로 11시 반을 가리킨다.

대표자들의 열탕같은 가슴에 사나운 물결도 차츰 밀림속에 잠든 호수처럼 잠잠해져갔다. 누가 이 감격의 침묵을 먼저 깨뜨릴것인가. 어

디 보자는듯이 서로 말을 끄집어내기를 망설이고있을 때 책상을 치는 소리에 모두들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창모였다.

《여러분, 홍동무는 진정한 우리의 협력자요.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백만언의 찬사도 소용없을것이요. 그 빈틈없는 조직과 민활한 행동은 우리들에게 좋은 방조를 주었소. 그러나 오늘 밤 이 감사와 감격은 이만 막을 닫아버리기로 하고 지금부터 행동으로 나갑시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일초일초가 행동의 순간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될것이요. 우리들은 지금부터 중책을 짊어지고 경비의 임무를 담당하고있는 자위대동무들을 찾아가서 전체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는것이 어떻겠소.》

창모의 말에서는 불꽃이 튀여나오는것 같다.

《좋소.》

어느 누가 이 제안에 싫다고 하랴!

창모를 선두로 대표자들은 회의실문을 나섰다. 시원한 바람이 긴장과 흥분에 상기된 그들의 얼굴에 확 풍긴다.

목에 피줄이 터지도록 고함을 질러보고싶고 날개가 있었으면 무한대의 공간을 마음껏 날아보고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가슴이 활짝 트이는 감격의 밤이다.

오늘 오후 2시 바로 지금 창모가 서있는 사무실앞 일본인소학교 운동장에서 전종업원을 모아세우고 수등소장녀석이 그 밤낮 자랑하던 《전통》에 결별을 짓는 비장한 연설을 하였다.

《조선인여러분, 여러분이 일본사람과 함께 〈대동아전쟁〉완수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개새끼, 개소리 말아!》

수등의 연설을 가로막고 조선말로 누가 이렇게 되게 내쏘았다. 수등은 천동에 놀란 사람처럼 잠시동안 벙어리가 된채 어쩔줄을 몰랐다. 그와 동시에 창모의 산적한 울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만약 그때 일본놈가운데서 한마디의 대꾸라도 있었다면 창모의 와들와들 떨리는 주먹이 일을 저지르고야말았을것이다. 그러나 일본놈들은 뿔 빠진 황소처럼 죽은듯이 서있다가 조선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고 비온날 소똥처럼 흩어져갔다.

《바루 수등이란 놈이 섰던데가 여기지.》

덕무는 거기다 오줌을 싸고 떠났다.

여섯명의 대표자와 홍영삼은 흑림교에 배치된 자위대원에게 굳은 포옹과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게딱지같은 오막살이가 쥐여뿌린듯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곳의 사이길을 요리조리 빠져 산기슭을 올라갔다.

《누구야?》

거먼 바위뒤에서 곤봉을 든 자위대원 넷이 비호같이 뛰여나왔다.

홍영삼이 앞에 나서면서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여러분, 수고를 하십니다.》

대표자들은 번갈아가면서 대원들의 손목을 꽉 잡아흔든다. 굳게 믿어지는 마음과 마음!

창화는 모기떼가 앵앵거리는 풀숲을 헤치고들어가 화약고자물쇠를 힘껏 잡아당겨보았다. 둥그런 자물쇠는 튼튼히 잠겨있다.

대표자들은 다시한번 대원들의 손목을 쥐여 흔들어주고 발전소로 갔다.

여기서도 역시 풀숲에서 자위대원들이 곤봉을 들고 뛰여나왔다. 감격에 넘치는 인사가 전달이 되고 손과 손이 굳게 쥐여졌다.

발전소곁 전용품창고앞에서 내려다보니 개건너 게딱지부락에서는 차광막을 집어치운 명랑한 불빛이 몇해만에 환하게 새여나온다.

인제야 기다리던 평화는 왔구나— 창화는 그 불빛이 무척 탐나는듯이 내려다보고 섰다. 돈에만 환장한 우차군의 소리처럼 날마다 끌려다니면서 뼈빠지는 로동을 하던 생각을 하니 슬며시 분기가 치밀었다.

창화는 팔을 목덜미에 넘겨가지고 어깨를 어루만져본다. 목도채에 팅팅 부은 량어깨는 약간 어루만지기만 해도 띠끔띠끔 쏜다.

20리나 떨어져있는 은신동 깊은 골에 소개창고를 짓느라고 열나흘동안이나 목재를 운반했고 그것이 필하자 도로수리를 했고 길이 400메터나 되는 철관로를 폭격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해서 세멘트와 무연탄을 가파로운 산등으로 련 사흘동안 혀를 가로물면서 목도를 해서 올렸던것이다. 창화는 눈을 돌려 일본놈들이 사는 전기문화주택을 건너다본다. 100프로 전기화된 그 주택들은 어제 금사 그대로 엄격한 등화관제를 그냥 실시하고있다. 물론 이것은 매일밤처럼 있던 폭격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께서 학대와 주림을 받아오던 조선사람이라면 응당 취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보복수단에 대한 공포심때

문이였다.
《래일 저놈의 건물부터 불질러버려야겠네.》
창모의 성난 목소리다. 발전소 앞산 거먼 숲속을 차근히 보면 콩크리트로 만든 층층대가 광목을 펴놓은듯이 어렴풋이 보이고 그우에 늘보아 눈에 익은 집형체가 보인다. 《하기천신사》다.
《그러지 말구 래일 우선 귀신당에 가 그안에 있는 일본놈신주부터 들어치우세.》
토목건축설계에 재간을 가지고있는 석호의 머리속에는 오늘 낮에 벌써 그 건물을 어떻게 쓸가에 대한 설계도가 그려져있었다.
《미지근한 소리 말게. 아, 글쎄 저걸 그냥 둔단 말인가.》
덕무가 퉁명스런 소리로 핀잔을 준다. 하루에도 몇번씩 굽석굽석 허리를 굽히던 생각을 하면 싱겁기짝이 없다.
그뿐인가. 아침출근때에 신사를 향해서 요배를 안했다고 수등이한테 불려서 비국민이니, 불온사상을 가지고있느니해가지고 톡톡히 책망을 듣던 일을 생각하면 당장 도끼를 들고 뛰여올라가서 기둥을 찍어번지고싶었다.
《내 말을 그렇게 오해로 듣지 말게. 나는 그 집을 태워버리기보다두 그 좋은 재목으로 종업원의 휴식소를 지어보자는거네. 즉 우리들이 산보할수 있는 조그만 공원에…》
석호는 자기 진심을 몰라주는 여러 동무들에게 도리여 불쾌한 얼굴표정을 보인다.
《글쎄 그렇다면 또 몰라두…》
창모는 비로소 석호의 마음을 깨달았다.
대표자들은 자위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발전소로 들어갔다. 창화를 선두로 대표자일동은 여덟대의 변압기와 유입차단기를 한바퀴씩 돌아보았다. 변압기와 유입차단기는 콩크리트담으로 둘러치여있다. 비상시에는 이 정면을 전주로 가로막게 되여있다. 이리하여 공습시에 폭풍에서 변압기를 살리자는것이다. 련속적음향으로 으릉으릉 전류가 흐르는 소리는 무탈하게 잘 자라는 어린애의 숨소리처럼 한결같이 순조롭다.
창화는 기술자의 본능으로 변압기 한대한대에다 한참씩 손을 대여본다. 변압기의 온도는 어느것이나 평온이다. 온도가 없어서는 안된

다. 온도가 없다는것은 변압기가 병들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대표자들과 홍구장은 동선과 동대가 거미줄처럼 있는 철탑밑에 우두커니 서서 조선과 조선사람의 생활의 저수지가 되고 전국의 공업의 부흥과 조선문화의 숨주머니가 되여줄 반송전시설을 기쁨에 넘치는 눈으로 언제까지든지 쳐다보고 섰다.
오늘부터 네 주인은 조선사람이다— 창화는 이렇게 중얼거려본다.
그 순간 창화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자기가 중얼거린 말에 자기스스로가 깊이 감격했던것이다. 동시에 무량한 감개가 창화의 육신을 잔침질해주었다.
이때 어떤 녀인 하나가 이불을 이고 발전소문을 들어오다가 자위대한테 걸려서 가도오도 못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서있었다.
앓는 남편이 죽어도 발전소에서 죽겠다고 아까 발전소로 멍석을 옮겨왔기에 그 이부자리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린것이라는것이다.
대표자들은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라 일제히 내달아 그 녀인을 둘러쌌다.
《앗!》
그 사람은 틀림없는 발전소책임자 박동수의 안해다.
박동수.
그는 위장병으로 두달전부터 발전소를 쉬고있다. 명예욕도 없고 지위도 가리지 않고 그저 고지식하게 일만 할줄 아는 전기기술자다. 딱한 사정에 허덕이는 동무가 있다면 끝까지 싸안아주고 자기 일이든, 남의 일이든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기 뼈를 아끼지 않고 그 일과 생사를 같이하는 아릿다운 성미를 가진 청년이다.
그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동수는 병든 어떤 동무의 교대근무를 대신하여 일흔시간이상의 연장작업을 하여 그 장렬한 책임감과 경이적정력을 일본사람에게 보여준 일이 있다.
그러나 동수의 그 정력과 책임감도 그때 일본놈책임자의 말을 빌어본다면 조선사람은 그만큼씩 일을 내야만 영예스러운 《황국신민》이 속히 될수 있다는것이였다.
과로와 식량부족이 원인이 되여 6월에 잡아들자부터 위장을 상해가지고 (동수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것까지 먹고 살아왔던것

이다.) 양약, 고려약으로 치병하였으나 병세는 일진일퇴로 결국 장기전에 들어갔다.

그러던중 7월 중순부터 왜놈들 운명은 가장 엄중한 위기에 빠져갔다.

마초 24관의 공출명령을 받았을 때 동수는 생각하다못해 뒤집 희수령감을 불러 건초 24관을 얼마에 해올수 있겠느냐고 말을 건네보았다. 희수령감은 눈을 감고 한참 주먹궁리를 하다가 150원만 주시오 하고 갈퀴같은 손을 내밀었다. 동수는 150원 하고 놀라면서 희수령감을 돌려보냈다. 월급타는 동수에게는 그때 150원은커녕 단돈 50원도 없었던것이다. 그는 기진맥진한 몸을 안해에게 부축당하면서 뒤산에 올라갔다. 금년은 새(마초)가 잘 돋지 않은데다가 동수는 이미 늦게 시작을 했던것이다.

동수는 앉은뱅이걸음을 하면서 초벌 베여간 뒤를 한대두대 낫에 걸어당겼다. 석양에 동수와 안해의것을 합쳐보니 그래도 여섯관은 착실히 되였다. 그것을 해별에다 바짝 말리면 무게가 반감된다니 겨우 세관이 되나마나하겠다.

이제 얼마만 고생하면 된다— 동수는 비맞은 자기 몸도 생각지 않고 일주일후의 성공을 내심 기뻐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던 날 저녁때였다. 동수는 새를 베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만 까무라쳐 산에서 뒹굴었다. 피투성이가 된 동수는 어떤 나무군에게 업혀 집으로 돌아왔던것이다.

병석에서 영영 일지 못하면서도 어느 한날 발전소를 잊어본 일이 없는 전기기능공 동수다. 어서 기계에다 기름을 줘라— 스위치를 단단히 찔러라, 빨리빨리— 이런 잠꼬대는 거의 날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어리석게도 왜놈들이 이 땅을 빼앗은 때부터 동수는 비오듯 하는 온갖 고생과 압박 그리고 갖은 착취를 각오하면서도 내심 웃음집이 흔들거렸던것이다.

옳지, 이젠즉 일은 바로 됐다. 흥, 친구들, 별의별짓을 다해봐라. 안된다, 안돼. 몇해후면 이 발전소도 우리의것이란 말이야— 동수는 창화나 창모, 그밖에 믿음성있는 친구들에게 늘쌍 이런 롱담을 해왔다.

이 동수의 롱담은 다시말하자면 장진강발전소 조선인종업원전체의 소원이였다.

동수는 오늘 오후 늦게야 인류력사상에 전무후무한 기쁜 소식을 발전소기계실 근무자 용팔이한테서 얻어듣고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었던것이다.

내가 못난 녀석이지, 지금이 어느때라구 누워서 앓다니— 동수는 자신을 꾸짖었다.

제기, 이놈, 죽는바에는 발전기옆에서 죽어야지— 동수는 안해와 이웃의 늙은이들이 한사코 말리는것도 굳게 뿌리치고 희수령감의 손달구지에 앉아 발전소기계실곁 휴계실 안구석에다 병석을 옮겨왔던것이다.

창화는 부인의 머리에서 이불을 빼앗듯 해가지고 앞서 휴계실로 들어갔다.

동수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알뜰한 친구들의 얼굴이 나타나자 앓는 사람 같지 않게 홀쩍 일어나앉는다. 감격과 흥분때문인지 동수의 수척한 얼굴에는 웃음대신 쓸쓸한 빛이 그늘지고있다.

《가만히 누워계시오.》

창화는 동수의 허리를 안아 도로 자리에 눕히자고 하니 동수는 끝내 듣지 않는다.

《래일 아침 일찌기 통지하자구 했는데 밤늦은데두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주니 감사하오.》

동수는 가늘게 눈을 감았다.

《글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말 좀 하오.》

창화는 동수곁에 가까이 나선다. 실내의 공기는 감격에 잠겨졌다.

《형들, 오늘이야 정말루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제 책임두 다하지 못하고 이 모양된 이놈을 용서해주시오.》

동수는 창화의 손을 꽉 잡아흔든다. 그의 움푹 파진 두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괴였다.

《여보 동수, 그런 말 마오. 당신의 마음이야 우리가 잘 아는것이 아니겠소. 아예 잡념은 버리오. 오늘이야 우리 조선은 당신 롱담대루 바루 되였소.》

동수의 이마에다 손을 얹고 그 여위고 파리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창모의 눈에서는 눈물방울 하나가 굴러 동수의 베개에 떨어졌다. 창모

는 그것을 재빠르게 닦고 얼른 뒤로 물러섰다.

《동수, 당신만은 꼭 기술에 살고 기술에 죽을 사람이라는것을 우리는 뼈가 저리도록 잘 알았소. 우리는 오늘 밤에 중대한 회의를 가졌소.》

창화는 이불을 펴서 동수의 허리에 둘러주고나서 회의의 결과를 대충 이야기해주고 동수가 제2발전소책임자라는것을 알려주었다.

《형들, 대단 수고했소. 나는 이 발전소에서 죽을 작정이요. 장진강발전소의 중대한 사명을 생각하면 할수록 무거운 책임감에 찔려 제 집 방에 누워있을수가 없었소.》

동수는 한바탕 잔기침을 하고나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말을 계속한다.

《나는 내 일생을 발전기와 함께 살고 발전소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요. 이 생각은 일본놈을 위함이 아니요. 꼭 조선이 해방된다는것을 자신했기때문이요. 창화형, 그밖에 여러 형들, 나는 이 방에서 발전기를 보수하다가 기력이 쇠진하면 그때는 조선독립만세를 힘차게 불러보고 만족히 죽어갈 정신이요.》

아— 이 얼마나 참된 기능공의 비장하면서도 숭고한 고백이냐! 동수 안해가 치마자락에다 눈을 가리고 흐느껴운다. 동수는 얼굴을 벽쪽으로 돌렸다.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 베개에 떨어졌다. 창화도 창모도 덕무도 그밖에 모두가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면서 두눈을 닦았다. 기침소리만 요란히 들려온다.

《동무, 너무 흥분하지 마오. 병을 고치는것이 지금의 당신의 사명이요. 그외에는 아무것두 생각하지 마오. 할일은 앞으로 있지 않소.》

덕무는 동수의 뼈만 남은 손등을 어루만져준다. 수차 돌아가는 소리에 말소리는 동간동간 끊어진다.

《고맙네. 그러나 초목조차 좋다구 춤을 추는 오늘 이놈의 이 꼴이 어떤가.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네.》

동수는 기침을 되게 한다. 덕무는 싫다는 동수를 억지로 자리에 눕힌다.

《동수형!》

홍영삼이 낮은 목소리로 동수를 부르면서 그의 손목을 슬며시 쥐여주었다. 동수는 가늘게 눈을 떠보고 그것이 영삼인줄 알자 놀란듯이

영삼의 두팔을 부등켜안았다.
《홍형, 형한테는 뭐라구 말할수 없소. 형의 원조로써 이만큼이래두 살아났소. 내가 살아나면 머리를 비여 신을 삼아디리리다.》
동수는 다시 눈을 감고 꿀떡하고 침을 삼킨다.
《동수형, 그런 말은 다시 입밖에 내지 마시오. 너무 흥분하면 안되오. 발전소의 기계조차 형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다리고있지 않소. 얼른 나아서 전보다두 갑절 일을 해주셔야 하오.》
영삼의 말에 동수는 눈을 감은채 머리만 크게 끄덕거린다.
사실 동수는 영삼의 신세가 많았다. 쌀, 약, 돈… 영삼은 자기 친형의 병을 위하듯 진심으로 동수의 병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써준다.
아— 기쁘다, 정말 기쁘다.
동수는 잠꼬대 비슷이 중얼거리고나서 창화를 찾았다.
동수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연다. 대표자들의 시선은 동수의 파리한 입술로 모두 쏠린다.
《형도 아시다싶이 이 제2발전소에는 가장 중요한 배전반에 우리 기술자가 한사람도 없지 않소. 저 찢어죽일 일본놈들은 의식적으로 조선인기술자를 배전반에 두지 않았던것이요. 나는 이것이 자나깨나 제일 걱정되는 점이요.》
《동감이요.》
창화자신도 이 문제를 제일 뜨겁게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불원에 일본놈들이 각 공장과 직장에서 쫓겨갈것은 결정적사실이 아니요? 그렇다면 특히 흥남과 본궁 그러구 각 공장의 운전기능은 어느 시기까지 정지상태에 들어가고말것만은 충분히 각오해야 할것이요. 그다음에 오는 결과를 곰곰히 생각해볼 때 나는 내 가슴의 초조를 억제할수 없소.》
동수의 지적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의 방법은 과연 정당하다. 장차 발전기능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는것이 얼마나 큰것일가? 이런 기술문제를 생각할 때 창화자신 역시 마음이 캄캄한 골목을 달리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30만키로와트시의 전력은 도저히 소화시킬수가 없게 될것이요. 아마 내 생각같애서는 전력소비량이 5분의 1 내지 6분

의 1로 감해지지 않을가고 생각되오. 그러니까 제1, 제2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3, 제4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그쪽 배전반에 근무하는 동무들을 제1, 제2발전소에 언제든지 배치시키도록 만단의 준비와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이 아니겠소. 그래 나는 병석에서 배치도를 이렇게 꾸며보았소.》

동수는 베개밑에서 한장의 봉투를 끄집어내서 창화에게 내준다. 창화는 아무말없이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간직한다.

동수는 과연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을만 한 사람이로구나! 창화는 내심깊이 감복했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면서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빠득빠득 애쓰는 동수의 성스러운 마음에 모여선 친구들은 다시한번 눈물을 삼키면서 감격하지 않을수 없었다.

《동수형, 형의 그 굳은 결심과 강철같은 책임성은 우리들께 크나큰 교훈을 주었소. 날이 밝으면 우리들은 종업원대회를 열고 이 극적사실을 동무들에게 보고할테요. 그럼 우리는 다음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만 실례하겠소.》

대표자들은 동수의 손을 꽉꽉 쥐여주고 2층배전반으로 올라갔다.

배전반에서는 일본녀석들끼리 기계는 갈데로 가라고 내버려두고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서 한창 쑥덕공론중이였다.

이래서는 안되겠다—창화의 머리속을 불길한 예감이 번개같이 지나쳤다.

《여러분, 먼저 가시오. 나는 아침까지 여기 남아있겠소.》

대표자들은 창화에게 격려의 말을 보내주고 기계실을 돌아 발전소문을 나섰다.

그때는 3시 반이 조금 넘었다.

커다란 집채같은 변압기는 으릉으릉으릉 순조로운 음향을 내면서 콩크리트토대우에 태연히 서있다.

대표자들과 영삼은 모기떼가 앵앵거리는 숲지의 어둑컴컴한 산길을 한줄로 서서 묵묵히 올라간다. 그들의 보조는 약속이나 한듯이 앞서 올라가는 창모의 발에 맞추어졌다.

그들은 지금 발전소심장부의 하나인 철관로로 올라가는 길이다. 풀숲에서 시름없이 울던 벌레들은 발자취가 가까이 닿으면 울음을 딱 멈췄다가 지나치기만 하면 또다시 합주를 시작한다.

장대한 철관로가 꾸불꾸불 산잔등에 누워있다. 네줄의 툭한 철관이다.

직경이 여섯자나 되는 이 철관목을 매 시간에 몇천톤의 물이 커다란 압력을 가지고서 쏜살같이 지나 발전소지하실 수차를 내려치는것이다.

철관은 금시 터질듯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있다. 그뿐아니라 육중한 철관은 거센 물살에 몸서리를 치면서 찬땀을 솟구고있다.

흥남과 청진의 대공업지대도 그 운명은 산간벽지에 있는 장진강발전소에 달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것이다.

세기의 심장부, 문화의 원천지인 장진강발전소의 수차나 발전기는 밤이나 낮이나 규칙적음향을 내면서 회전을 계속하고있다.

이 발전기가 한시각의 정지도 없이 계속 돌아감으로 해서 모든 공장에서 제품이 쏟아져나올것이며 문화는 향훈을 풍기면서 찬란히 꽃피리라. 대표자들은 제6호 고정대우에 올라앉았다. 새벽이 가까운 밤공기는 시원하기는 하나 축축하다.

대공을 쳐다보고 앉았는 창모의 머리속을 분망의 추억과 복잡한 공상이 번개치고있다. 앞으로 닥쳐올 조직문제와 선전문제 해설사업…생각하면 할수록 일은 꼬리를 물고 련달아나왔다. 문득 문호와 홍철의 얼굴이 눈앞에 아롱아롱 나타났다. 창모의 가장 알뜰한 동무들이다. 1941년 9월 화학로조사건에 걸려 4년언도를 받고 흥남감옥에서 복역하는 동무들이다.

오늘 낮에 철창에서 나왔을테지. 문호야, 홍철아, 미안하구나. 18일에는 동무들을 만나러 꼭 함흥 가겠다. 부디 건강을 주의해다구—창모는 잊지 못할 청춘의 추억을 되살려보고 앉았다. 창모자신이 문호, 홍철이들과 함께 화학로조사건에 관계했으나 문호와 홍철이가 창모를 사건에서 빼주었던것이다. 똑바로 말하자면 문호와 홍철은 아무모로 보든지 창모의 선배였다.

창모는 순간 책자가 그리워났다. 애지중지하던 시계를 팔고 양복까지 잡혀서 근근히 장만한 좋은 사회과학서적들은 화학로조사건때 농촌으로, 산촌으로 피신해다니는 동안에 어머니가 땅에 파묻은것이 모두 썩어버렸던것이다.

《뭘 그리 생각하오. 이 좋은 날에 즐겁게 놀지 않구…》

석호가 어깨를 탁 치는 바람에 창모는 추억에서 깨여났다.
《아니, 우리는 세상에 났던 보람이 있소.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앉았소. 동무들, 이밤은 영광스러운 새 력사의 밤이요. 이 기쁜 밤에 노래 한마디 하리다.》
대표자들은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손벽부터 치기 시작한다.
창모는 만감을 가슴에 품고 노래를 부른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

창모는 몇해만에 오늘 밤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높이 불러보는것이다.
잊었을상싶던 가사는 1절, 2절, 3절 제 배운 글처럼 똑똑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랜지 알면선지 모르면선지 대표자들은 좋다소리를 련발하면서 손벽으로 맞추어준다.
어느새 먼동이 터왔다. 노래는 여전히 계속된다. 공청가, 인터나쇼날…
이 노래는 영광스러운 조선의 새 력사가 창조되려는 깨끗한 첫아침의 청년전주곡이였다.

1945. 8.

목 축 기

황 건

점심건초를 준지 두시간이 가까운 제1양사안은 살림방처럼 안온하였다.

봄이 가까운 따스한 해볕이 숨쉬듯 조용히 유리창에 밀려들고있었다.

안벽에 의지하여 세운 분만책 (새끼낳이를 위해 말뚝으로 둘러막은 울타리)속이나 그앞 넓은 공동간이나 약한 새끼들과 쌍둥이를 가두는 그 저쪽간이나 아무간에고 초가 (풀이 든 먹이통)에 아직도 주둥이를 박고 섰는 큰 양들은 몇마리밖에 없고 모두 초가에서 물러나와 포근한 깔개풀우에 제멋대로 드러누워 눈이 뜨부럭뜨부럭해 먹은것을 새김질하고있었다.

하얀 털이 토실토실한 새끼양들은 기둥옆에 모룩이 드러누워 배를 포룩포룩 일으켜가며 자기도 하고 해빛속에 들어서 서로 매닥질도 하고 그런가하면 큰 양과 나란히 서 건초 먹는 시늉도 하고 먹은것을 새김질하는 어미양의 등에 올라서 앞뒤발로 제 어미의 깊은 등털을 뚜지기도 하였다.

먹은것을 새김질하는 소리와 부스럭부스럭 건초뚜지는 소리가 계속되였다.

분만실 널문이 열렸다.

스물두셋에 나보이는 머리 더부룩한 목부장이며 목장장대리 형우가 나타났다.

솜을 두툼하게 놓은 광목 큰 저고리를 삼노끈으로 질끈 동여매고 회색바지아래에 검정 큰버선을 신은 형우는 천연나무군차림이다. 체대도 듬직하거니와 한 일 자로 쭉 찢어진 눈이며 지그시 다문 입술이며 얼굴 역시 굵지게 생겼다. 분만기에 들어 잠을 못 자는지라 그 얼굴은 부석부석하였다.

형우는 양사안을 쭉 돌아보며 앞으로 나오자 운동장으로 통하는 큰 문을 열어젖혔다. 형우는 공동간에 있는 양들을 어미, 새끼 가릴것 없

이 운동장에 몰아낸 다음 큰 문을 도로 닫아버렸다. 그리고 형우는 분만실로 건너갔다. 운동장에서는 새끼를 찾는 어미의 탁한 울음소리와 어미를 찾는 새끼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형우는 분만실에서 씰로스와 무우를 썬것을 담은 참대통을 들고 나왔다. 그뒤로 역시 참대통을 든 열예닐곱 되여보이는 누른 잠바를 입은 소년이 따라나왔다.

《너는 분만책속에 줘라.》

형우는 참대통을 든채 쌍둥이간이며 약한 새끼들간이며 그앞 큰간을 돌아다니며 초가밀 구유들에 사료를 펴주었다. 그런 다음 형우는 운동장으로 통하는 큰문을 다시 열어젖혔다.

운동장에서 요란하던 양들의 함성은 일시에 멎었다. 양들은 물동 터진 물처럼 양사안에 쏟아져들어왔다. 입구가까이에 놓인것들부터 구유들은 좌우에 몰켜서는 양대가리들로 금시에 가리워버렸다. 양들은 구유를 사이에 두고 마늘꾸레미처럼 고정되였다.

호무와 강냉대 씹는 소리가 부산하게 들려왔다.

어미양들을 따라 들어온 새끼양들도 공연히 신이 나 어미들이 늘어선 뒤에서 줄달음을 쳤다. 한놈이 선잡이를 하면 나머지놈들도 덩달아 달려갔다. 그래 저쪽구석에 몰켜서서는 떠받는 시늉도 하고 옆의 놈의 엉뎅이에 매여달리기도 하고 제혼자 깡충깡충 뛰여보기도 하고 서로 매닥질을 했다. 그러다 또 어느 한놈이 이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놈들도 일제히 장난을 버리고 함께 달려왔다.

마치 유치원 운동회를 보는것 같았다.

연약한 깔개풀은 그들의 굳은 쪽발밑에서 시시로 부서져갔다.

《그것들이 바짝 기운이 나는 모양이네…》

량팔을 장군처럼 허리에 짚은 삼룡이는 익살스런 얼굴로 형우를 쳐다보았다.

형우 역시 흥겨운 얼굴로 삼룡이를 바라보았다.

날마다 새 기운이 깃드는듯 부쩍부쩍 탐스럽게 자라는 귀여운 새끼들을 바라보는 이 일처럼 목장에서 즐거운 일은 없었다.

분만이 시작된지 벌써 일주여일을 날마다 밤을 새우다싶이 그 잔시중을 들면서도 저마다 무사히 나서 무사히 자라는 그 재미에 끌내는 모든 피로도 잊게 되는것이였다.

어미양이나 새끼양이나 이대로만 가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형우는 여전히 얼굴에 익살스런 웃음을 지우지 않고 섰는 삼룡에게 참대통을 맡긴 다음 물지게가 걸려있는 유리창가로 갔다.

형우는 눈이 가는대로 유리창밖을 내다보며 물지게 멜바를 어깨에 걸었다.

마을너머 얼어붙은 개울 저쪽에 눈에 덮인 가파로운 산이 하얗게 내다보였다. 그 꼭대기에는 그와 대조되여 하늘이 새파랗게 바라보였다.

저 눈마저 녹는 날이면— 하고 형우는 생각했다. 분만이 이대로 순조롭게 계속되고 거기다 날씨마저 푹 떨어져준다면 금년 분만성적은 문제없이 달성될것이였다.

형우는 김학수네 개인목장에서 7년째 목부노릇을 하였었다. 그러나 김학수네 목장과 린접해있는 이 목장의 본래 경영주인 관선 도평의원 최만섭이가 해방이 되자 서울로 뛰고 목장이 인민위원회에 접수된 뒤 이 목장으로 자원해 옮겨왔다. 국영으로 된 목장을 지키고 추켜세우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형우는 새로 들어온 삼룡이, 덕률이들, 어린 목부들을 격려해가며 목장을 일떠세우기에 갖은 정력을 다 기울이였다. 꾸준한 방목은 물론 건초를 치느라 작년 팔구월은 꼬박 두달이나 산속에 들어가있었고 가을은 농후 사료구입에, 겨울은 눈길에 건초 반입으로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목부된 이후 양들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해본적은 없었다.

작년(1946년)성적은 해방되던 해의 사양관리가 좋지 못했던 관계로 그 고심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못했다. 그러나 금년은 하나 탓할데없이 진행되고있다. 이대로만 간다면 조국이라는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이고 인민의 나라라는것이 얼마나 고마운것인지 비로소 안것 같은 오늘 민청동무들이며 군내 목장동무들앞에서 년간계획의 초과완수를 맹세했고 동무들에게 또한 같은 맹세를 요구한 민청원으로서 나라의 선진계급인 로동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할수 있을것 같았다.

귀엽고 귀중한 양들도 지난날은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결박하는 쇠사슬의 매듭들을 더 튼튼히 하는 군수품의 역할을 놀았다. 우가끼란 놈은 《남면북양》의 구호를 내여걸고 조선의 부원략탈에 날뛰였다. 그러나 해방된 오늘 면양은 인민생활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되였다. 지난날은 남들이 돌아도 안 보던 목부 자기와 같은 인간도 나

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인간으로 되였다는 생각이 형우에게는 가도록 새삼스러웠다. 따라서 그 생각들은 그러한 내 나라에 감사를 드리고 내 나라를 위해 헌신분투하리라는 결의로 바뀌여졌다.

뿐만아니라 높은 개마고원의 한끝을 이루며 여기서 멀지 않은 희새봉밑에는 무연히 뻗어져나간 5천정보의 새발이 있다. 면양보호에 관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그곳에서는 이 목장 양과 군종양장 양과 일제때에 부락에 나눠 맡긴 예탁양들까지 합하여 천마리이상의 국유양에 군내 개인목장에서 사들인 양들을 수용할 새 큰 국영목장이 건립중에 있었다. 거기에는 광활한 방목지가 있고 거리가 가까운 건초채취장이 있고 사료를 재배할 충분한 기지가 있었다.

양사건축이 끝나는 가을이면 형우도 같이 일하는 동무들과 함께 금년에 생산한 양들까지 합하여 250마리의 양을 몰고 개인목장의 허울이 그대로 남아있는 불편하고 협소한 이 목장을 떠나 새 목장으로 가게 되여있다.

거기에서 형우는 수많은 동무들과 함께 그리고 불어만 가는 양들과 함께 더욱 벅찬 생활을 건설해갈것이였다.

《희새봉밑에 건설하는 새 목장은 나라의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다 크고 밝은 생활을 위하여 세워지는것입니다. 양새끼 한마리, 양털 한오리도 이제는 나라의 부원이며 여러분이 이룩한 새살림의 원천입니다. 희새봉밑에 가 새살림을 시작하기 전 가을까지 여러분은 현재 일하고있는 목장에서 그 새살림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입니다. 그 준비를 누가 가장 열성적으로 하며 빛나게 하는가? 누가 새 목장을 가장 부유하게 하며 조국의 부강을 위해 가장 많이 분투노력하겠는가?…》

군내 국영목장 종업원대회에서 한 군인민위원장의 말이였다.

형우는 그뒤를 이어 연단에 나가자 《단연 저는 여러분에게 경쟁을 호소합니다.》하고 말했던것이다.

《분만(새끼를 낳음) 130%에 고기생산은 120%, 양모(양털)는 평균 4키로이상 생산할것, 각자 책임량을 초과완수함으로써 새 목장을 가장 선진적인 목장으로 꾸려나갑시다. …》

장내에는 박수가 터지고 경쟁에 참가하는 동무들의 열렬한 토론이 계속되였다.

물통가름대에 지게고리를 걸던 형우는 쌍둥이간쪽에서 나는 문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수직실문으로 김학수의 조카딸, 올해 열아홉에 난 성화가 나타났다. 나이에 어울리는 탄력있는 몸매의 성화는 아래우에 같은 색갈의 검정치마저고리를 입었는데 물이 날아 희슥희슥했다. 큰아버지 김학수네 동자질을 도맡아하는지라 치마앞자락은 노상 구겨져있었다.

성화는 무엇인가 근심스러운 예리한 눈초리를 형우에게 겨누며 쌍둥이간 막사앞까지 오더니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마을에 내려갔다 오는 길인듯 얼굴살이 불그레 얼었다.

형우는 삐걱삐걱 지게소리를 내며 성화의 앞까지 다가갔다.

성화는 어째 그러는지 잠간은 말을 못하고 눈만 반짝거렸다. 이쪽얼굴을 살피는것이 아니라며 기가 막혀 말을 하지 못하는것도 같았다.

《왜?》하고 먼저 형우가 물었다.

형우는 무표정한 얼굴이였다.

《모르오?》

《뭘?》

《그것들이 또 와…》

《그것들이랑이?》

형우는 선잠깬 사람모양이였다.

《아―니, 요먼저 읍에서 오재이였음…》

성화는 김빠진 공과도 같은 형우가 짜증이 나는듯 눈살을 찌프렸다.

《아―》하고 형우는 그제사 알아차린 얼굴로 성화의 얼굴에서 시선을 옮겼다.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량미간을 찌프렸다. 전전번 공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넘었다.

저녁녘이였다. 곧 시작될 분만때문에 양사의 똥을 쳐내기에 사흘이나 뼈골이 나게 일하고 이날은 분만실과 제1양사에 분만책을 거는 참이였다.

성화가 눈이 둥그래 1양사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손님온걸 아오?》

《몰라.》

성화의 둥그스름한 얼굴은 근심으로 금시에 어두워졌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게?》
《나한테 약혼말을 내러 왔다오…》
《…》
형우는 말을 못했다.
성화 역시 더 말은 없고 눈만 멀뚝해졌다. 둘은 마치 몹쓸 장난을 하다가 들킨 아이들처럼 오래도록 서로 바라만 보았다.
얼마동안 그 모양 벙벙해섰던 형우는 《일있나? 백사람이라두 오라지…》하고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러나 성화는 《이번 구혼자리는 큰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래…》하고 여전한 근심스런 얼굴로 중얼거린다.
사람들은 처음 와도 구혼말은 벌써 전에 돌았던것이다.
형우는 다시 일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큰아버지 마음에두 들구 성화의 마음에두 든다는 말인가?》
《아이 참…》
성화의 눈은 흘겨졌다.
《그렇재이문 근심을 할게 있는가?》
《…》
그날은 이것으로 끝났었다.
밤에 김학수네 집에서는 학수의 고함소리와 성화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내 분만에 눈코뜰 사이 없게 된 형우는 더 그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것 참! 바빠죽겠는데 별것들이 다 와 성화를 시키네…》
형우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였다.
《두구 보자구. … 일이 저희 맘대루는 아이될게니까…》
형우는 성화의 결의라도 살피듯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물지게를 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 문쪽으로 가버렸다.
형우는 양사마당을 지나 막사밖에 나섰다. 양사운동장 오른쪽 100메터가량 저켠에 떨어져 방금 구혼자들이 김학수와 이야기를 하고있을 학수네 집 웃방이 바라다보였다.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량미간을 찌프린채 그쪽을 넌지시 바라보다 새라도 몰듯 《훅… 훅…》하고 휘파람소리를 냈다.

성화는 유리창너머로 형우가 우물가에 물통을 내려놓고 우물에 드레박을 넣노라 어깨끝에서 지게고리가 노는것이며 들어올린 드레박에서 물이 쏟아지는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냥 한자리에 서있었다.

량부모를 다 잃은 성화는 열한살때에 큰아버지 학수네 집에 양녀로 들어갔었다. 형우가 학수네 목장에 들어온것은 훨씬 그 이전일로 형우와 성화는 학수네 집에서 5～6년이나 한가족처럼 지내왔다.

성화는 양녀라고는 하지만 학수네 집에서는 성화가 오던 그날부터 자기 집 심부름군이상 부려먹었다. 일찌기 홀로 된 어머니와 어렵게 지내다 잘사는 집에 오고보니 사는 형편이 다른지라 성화는 일을 잘 못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욕을 먹고 매를 맞기도 일쑤였다. 성화는 곧잘 울타리굽에 나와 울었으며 마루끝에 나서 먼산을 바라보고 섰었다.

그런 성화를 보면 나이 세살우인 지꿎은 형우는 픽 웃어보였고 한쪽눈을 찡그리며 놀려주었다. 심한 때에는 《또 한대 얻어맞았구나… 내 속이 씨원하다…》하고 말했다.

그럴라치면 성화는 또 성화대로 울던것도 멈추고 혀끝을 내여 밀어보이며 《니 무슨 상관이야? 곱쌀한게… 싱겁기두 하다…》하고 응수해나섰다.

가난하게는 살았으나 외딸로 어머니의 온갖 사랑을 받아오며 구김살없이 자란 기승한 성화였다. 명랑하면서도 성미가 페로운 성화였다.

그러면 형우는 형우대로 또 한쪽눈을 찌프리며 입을 비죽 내여미는것이여서 둘은 끝내 서로 웃고말았다.

그러나 성화는 명색이 그래도 학수네 가족이여서 형우를 대하는데 큰아버지나 큰어머니대신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나무를 패란다.》

《물을 길어오란다.》

《양들을 인제는 양사에 가두란다.》

이런 때에도 어른다운 수걱수걱한 형우는 《일이 바빠서 나무는 못패겠다구 그러드라구 그래라.》

《물은 내 길을게 아니라 너더러 길으라구 그러드라고 해라.》로 성화를 놀려만 주었다.

그러나 성화에게는 그 형우가 큰아버지네 집에서는 제일 좋았다. 늘

쌍 놀려는 주면서도 《이리 줘…》하고 비자루를 빼앗아 마당을 대신 쓸어주고 패여놓은 나무를 부엌까지 안아주고 쌀을 지여다주고 하는 것도 형우였으며 자기 사정을 제일 잘 알아주는것도 형우였다. 성화를 그처럼 놀려주는것도 남달리 어른답고 지꿎은 성미 까닭에도 있지만 내심은 학대를 받는 성화를 동정해서였다. 같은 김학수에게 부리우고 학대받는 점에서 본다면 형우도 성화와 마찬가지여서 어린 성화의 마음에도 형우를 동정하는 심정이 이미 자리잡고있는것이였다. 성화에게 형우는 언덕이였으며 친형제마냥 오빠와도 같이 친근하게 생각되였다. 그러매 성화는 언제나 찌프린 얼굴인 큰아버지가 별일 아닌것 같은데 형우를 자꾸 꾸짖고 흘겨보는 일이 항상 가슴아프고 미안했다.

꾸중을 듣고 부어나 상대방을 쳐다보는 일도 없이 나무를 패는 형우의 옆에 발 시린줄도 모르고 멍해섰다가 《추운데 저년은 무엇하려 거기 서있어…》하는 큰아버지의 꾸중을 듣고서야 고개를 숙이고 집안에 들어가기도 했다.

큰아버지가 시키던대로 무심히 말은 전하고도 《지금두 양들을 가두재이쿠 무스거 그렇게 꾸물꾸물하는거야!》하는 큰아버지의 꾸중이 형우에게 다시 떨어지게 되면 성화는 자기자신 큰아버지 편역인것 같아 형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없어지면 자기도 양사마당에 달려들어가 양을 함께 몰아넣어주기도 했다.

성화는 큰아버지네 양녀라면서 어디까지나 마음속으로는 큰아버지가 부리는 형우의 편이였다.

해방이 되기까지 둘의 정의는 가긍하게 자라왔다.

해방후 형우가 큰아버지네 목장에서 이 국영목장으로 옮겨온것이 형우에게는 다행스럽게 생각되였으나 성화자신에게는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였다. 비록 린접해있는 목장이고 날마다 만나기는 하되 한집에서 조석으로 대하기와 같을 수는 없었다. 자기 집을 나간 형우를 큰아버지가 못마땅해하듯이 자기도 그들이 보는데서 형우를 친근하게 대해서는 안되였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둘다 나이도 들어 서로 대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앞서는데 일부러라야 만날수 있으니 남의 눈이 살펴졌다.

그러나 성화는 몸은 비록 큰아버지네 집에 매여있으되 마음은 줄곧

형우있는데로 달려갔으며 보다 더 집밖으로만 달려나갔다. 성화는 이렇게 저렇게 구실과 기회만 있으면 형우네 목장으로 갔으며 형우의 권고를 따라 민청에도 가입했다. 회합이 있을제면 집에는 흔히 말도 안하고 가만히 빠져나가 참가하였으며 그러나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발견되는 때에는 큰아버지에게는 못해도 큰어머니에게는 말대꾸를 해서까지 거기 참가했다.

《못된년…》이라는 말을 듣고 조석으로 갈구리눈을 대하기 일쑤이지만 밖으로 달리는 성화의 마음은 그 모욕보다 몇배 더 간절하고 큰것이였다. 그러며 성화가 마음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것은 형우였다.

뿐만아니라 해방이 되면서 성화에게는 형우에 대한 존경과 감탄의 마음이 날로 커갔다. 민청회합에는 대개 같이 나가게 되였지만 거기서의 형우의 발전은 출중했다.

형우는 보통때에는 점점 침중한 기색으로 말도 적어갔으나 그 반면에 회합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였다. 밤이면 책들과 늦도록 씨름을 한다고들 했다.

성화로서는 도저히 따를바 아니였다.

형우는 해방후의 3개월동안은 면당에서 조직한 야간정치학교에도 다니고 민청회관을 제 집처럼 출입하며 사람이 부족될 때에는 부락에 선전사업도 나갔다.

뿐만아니라 형우는 새 목장에서 면양사양에 전에 없던 열성을 냈다.

깊은 동정과 오빠와도 같은 친근감을 가지고 보면서도 남들이 하치않게 생각해왔듯이 자기도 한갖 애인으로만 생각해왔던 형우에 대한 성화의 이전 관념은 죄 전도되여버렸다. 그 존경과 경탄의 마음은 나아가 성화에게 그를 향한 더한 존경의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는 일이 없으면 밤낮 책을 들구있단다.》

《그는 한번 성내는 일두 없구 성질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하고 성화는 동무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는 가운데 형우는 류달리 성화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였다. 형우는 자기 누이나 안해에게라도 하듯 성화를 마구다지로 꾸짖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랬다.

《왜 학습회에는 빠졌어? 민청을 무슨 놀음턴줄 아는가?》
《이 책은 두번이상 읽으라구…》
성화는 형우의 말에 때아닌 멋적은 마음도 들었으나 그의 태도가 너무도 극진한데는 어떻게든 따라가야겠다는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그가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는것이였다.
성화는 과제를 더 열심히 하고 용기를 내여 차츰 토론에도 참가했다. 형우에 대한 믿음과 정의는 계속 더욱 깊어갈뿐이였다. 그것은 차츰 아무도 끊지 못할 그런것으로 되여가는것 같았다.
물지게를 지고 다시 삐걱삐걱소리를 내며 양사에 돌아온 형우는 그사이 여전히 한자리에 서있는 성화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아무 말도 없이 물지게를 내리자 큰간과 쌍둥이간 참대통에 물을 가득가득 부어넣었다. 농후사료를 다먹은 양들이 한마리, 두마리 물통가까이에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형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물통을 선반에 얹은 다음 지게를 벽에 걸어놓고 성화가 섰는 쌍둥이간에 들어갔다.
형우는 구석에서 놀고있는 양새끼무리에서 비슷하게 생긴 새끼 두마리를 손쉽게 골라들더니 하나하나 꼬리를 들어 변을 검사한 다음 분만책 가까이에서 새김질을 하고있는 큰양의 앞에 다가가 새끼를 가지런히 보이며 깔개풀우에 놓아주었다.
새끼들은 형우의 량손에서 떨어지기 바쁘게 큰 양의 좌우 젖통에 가붙었다. 새끼양은 어느덧 앞발을 꿇고 어미양이 두다리를 추켜들도록 젖통을 두세번 모질게 받은 다음 쪽쪽 젖꼭지를 빨아당겼다.
어미양은 좌우에 고개를 꺾어 새끼양들의 꼬리밑에 번갈아 코를 대고 냄새를 두세번 맡은 다음 안심한듯 눈이 머룽머룽해 형우를 쳐다보았다.
형우는 또 딴 두 새끼를 잡아들었다. 한시 쉴사이없는 형우였다.
힘에 부치는 일이 있는것은 아니여도 숱한 생명을 거느리고 아침, 점심, 저녁의 건초와 농후사료 주는것에서부터 갓난 새끼양의 태를 끊어주고 물기를 쳐주고 젖먹는것을 보아주고 젖이 부족한 새끼에게 산양의 젖과 딴 양의 젖을 얻어먹이고 병을 치료해주고 일은 끝이 없었다.
형우는 셋째번 쌍둥이를 붙여주며 《어째 그러구만 섰어? 불을 쬐던지…》하고 그제사 성화에게 말을 걸었다.

형우는 성화의 불안한 마음을 모른바 아니였지만 쓸데없이 근심하고싶지는 않았다. 자신이 불쾌한것쯤은 씹어삼키기도 하고 성화에게도 위로의 말을 주기보다 무언중에 서로 이겨갈것을 바라고싶었다. 뿐만아니라 형우는 성화가 그 집 양녀라고 하나 딸도 아니고 또 평소의 성화로 보아 그자신 모든것을 능히 이겨나갈 녀자임을 믿는것이였다.

형우가 그리고보니 성화도 더 할말이 없었다. 하기는 성화는 형우의 곁에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근심이 풀리였다. 아까의 막막하던 심사도 어느덧 가슴속에 가라앉아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성화는 비록 주고받은 말은 없더라도 될수록 그의 곁을 떠나고싶지 않았고 듬직한 몸움직임에서 눈을 떼고싶지 않았다.

형우를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된것은 어디까지나 다행스럽고도 잘한 일이였으며 그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 이기고 나가리라는 마음을 성화는 다시금 새삼스럽게 다지게 되는것이였다.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발표된 지난 1월이였다.

성화는 처음으로 선전사업에 동원되여 나갔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찡찡했으나 일을 맡긴 민청동무들도 듣지 않았고 성화자신도 굴복하지 않았다.

성화는 형우가 맡은 부락과 린접한 부락을 맡게 되였었다. 둘이 바로 옆집에 사는것을 아는 동무들은 녀자가 밤길을 혼자 걸을 일을 걱정해서 그렇게 정한 모양이였다. 7리가량 올라가있는 마을이 성화가 맡은 마을이고 십리가량 올라가있는 마을이 형우 담당이였다.

형우는 그날의 건초운반과 방목을 필하면 소를 외양간에 몰아넣고 양들에게 건초와 물을 주어 가둔 다음 성화와 함께 떠났다.

형우는 올라가던 길에 성화의 담당인 첫마을에 성화를 떨궈두었다가 공작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에 그 마을에 들려 성화와 같이 내려왔다. 실한 남정들에게 대답하는 일이 성화에게는 힘에 겨운 때가 많았다. 형우는 일찍 내려와 성화의 옆에서 성화의 선전해설을 듣다가는 밖에 나오며 《먹—보, 그건 이렇게 말하는거야…》하고 손가락으로 성화의 머리를 퉁겨놓으며 모자라고 잘못된 대목을 열심히 시정해주었다. 그리고는 성화가 다닌 집을 찾아다니며 한사람한사람 붙잡고 성화의 공작을 검열하고 시정하고 보충하고 그리고 성화자신을 다시 훈

련주는것이였다.

한사람한사람 붙잡고 형우는 선거이야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농사이야기를 하고 평화적조국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정이월의 산속 밤은 무서웁게 찼다. 바람이 자지 않고 눈보라가 불어치는 밤은 숨이 확확 막히고 다리가 허청허청하였다. 두꺼운 버선을 신고 장갑을 끼고 외투를 입었어도 아래다리가 시려오고 발과 손이 달각달각 얼어들었다.

《큰 저고리를 벗어줄가?》

《일없음…》

《나는 일없어. 외투두 있는데…》

《나두 일없음…》

《그래두 입는게 해롭재일걸…》

그러다가는 미끄러운 눈우에 넘어지는 성화를 붙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길가집에 데리고 들어가 발과 손을 녹이게도 하고 앞서며 뒤서며 나란히 밤 열한시, 열두시의 하얀 언 길을 달반이나 꼬박꼬박 함께 다녔다.

성화는 저녁마다 그 추운 길에도 마음이 그처럼 흐뭇하던 때는 없었다. 얼굴을 뒤덮는 모진 바람에 흐느끼고 눈우에 넘어져 무릎이 깨여지는것 같다가도 이내 코노래라도 나올것 같은 그런 마음이였다.

길우에 푸근히 눈이 덮이는 선거의 날도 며칠 안 남은 어느날 밤 오늘 과업을 마친 형우와 성화는 약속한 일도 없는 천천한 걸음으로 눈길을 나란히 걸어 마을로 내려가고있었다.

달은 없어도 길이 희미하게 내다보였다.

형우나 성화나 자기들이 맡은 부락은 백프로를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성화는 오늘 저녁따라 무엇이고 형우에게 말하고싶었으나 형우는 어쩐지 말이 없었다.

성화는 시시로 가슴에 차고넘는 이름못할 안타까운 마음을 참다못하여 《어째 아무 이야기두 아이함? 야… 싱겁게…》하고 형우를 흘겨보았다.

그리고도 형우는 얼마동안 계속 멍멍해 걷더니 《싱거운거야 성화지 낸가? 이야기를 하구싶으면 먼저 할게지…》하였다.

《나두 없게 그러는게지비…》

서로 피슥피슥 웃기만 하고 말은 도로 끊어져버렸다.

성화를 항상 먼저 건드리지 못해하고 놀리지 못해하던 이전 형우를 생각하면 성화는 무슨 생각에 잠기기 쉬운 지금의 형우가 원망스러웁기까지 하였다.

얼마후 성화는 다시금 말을 걸었다.

《내 양… 하나 물어볼게 있음… 대답을 하겠음?…》

성화는 제 무안에 취한 사람처럼 어두운 속에도 얼굴을 화끈화끈 달구며 자기도 모를 힘에 끌려 두손으로 형우의 팔을 잡자 그에게 몸을 의지하듯 하며 걸어갔다.

그러면서 형우는 나한테 꼭 할말이 있는데도 대범한지라 또는 남들처럼 허술허술하지 않은지라 그냥 안하고 지내는것이라고 성화는 생각했다.

남다른 형우는 자신이 성화에 대해 생각하고 성화에게서 느끼는대로 마음속에 혼자 정해버리고 아주 그 말은 하지 않고 말는지도 모를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대답을 할만 하면 하구 못할만 하면 못하구…》

《꼭 대답을 해야 하오. …》

《자기 말부터 하구 볼게지…》

《그럼 내 말을 할게 꼭 대답을 해야 하오. …》

그리고도 성화는 오래 머뭇거리던 뒤에야 혀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처럼, 장난을 펴는 아이들처럼 《이담에 양… 장가들적에 양… 어떤 색시한테 장가를 가구싶슴?》하고 겨우 말을 마친 성화는 얼굴도 못 들고 마치 벼랑에서라도 떨어지는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걸어갔다.

《그건 모르겠는데… 성화 마음에는 나한테 어떤 색시 좋을것 같애?》

《아이 참… 남이 묻는건 대답을 아이하구…》

《나두 대답을 하자니까 성화생각부터 묻는게 애인가?》

성화는 가슴이 꽉 막히면서 더 말이 나오지 않는대로 뾰로통한 얼굴을 지어버렸다. 성화는 집에 다달을 때까지도 정말 성난 사람처럼 입을 계속 열지 못했다.

그 이튿날 밤이였다. 하늘에는 달이 떠있었다.

온통 눈에 덮인 산이며 길이며 들은 대낮처럼 먼데까지 후련히 내다보였다. 전선주가 비껴선 가까운 밭들은 산그늘이 끝나는데서부

터 달빛에 눈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렸다.
　바람소리 하나, 먼 승냥이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밤은 온통 둘의것인가싶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머리를 숙이기 쉬운 성화는 형우의 뒤에 자꾸 떨어져 걷기만 했다. 지난 밤을 새우다십이 보내고 종일 피로웠던 성화는 형우의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했다.
　공작나간 마을에서 떠나 집까지 절반이나 왔을가 했을 때 서너발작 앞에서 가던 형우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돌아서 성화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성화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로 옆까지 다가갔을 때 형우는 한발 성화쪽에 다가서 성화의 팔을 불끈 잡더니 당황한 성화의 얼굴을 찌를듯이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이윽고 형우는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 아이 오겠어?》 하고 뭉틀진 어조로 묻는것이였다.
　성화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응, 대답을 하라구…》
　전신이 땅에 꺼지는것 같은 허전한 속에 성화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실로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도 확실히 그것은 내가 원하고있는것이며 민청이 또 일깨워주고 전체 사회가 가르쳐주는것이라고 생각하며 떨리는 입술을 끝내 열었다.
　《가겠음…》
　《정말…》
　《정말…》
　《양몰이군이래두?》
　《나는 큰아버지네 심부름군이 아니요?…》
　《내가 일생 양몰이군으루 지나두?》
　《그래두 좋지 뭐…》
　《같이 양똥을 만지겠어?》
　《같이면 무에든지…》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반대를 해두?》
　《정 반대를 하면 그 집을 뛰쳐나오지 뭐…》
　형우는 성화의 연약한 팔을 분지를듯이 다시 잡아흔든 다음 충동적

인 동작으로 손을 성화의 어깨로 가져오더니 그우를 의미도 없이 자꾸 쓰다듬는것이였다.

쌍둥이간 새끼들이 젖먹는것을 다 본 형우는 막새를 도로 나가 이번은 약한 새끼들간에 들어섰다.

그 간에서도 형우는 새끼를 골라 계속 어미에게 붙여주었다.

새끼와 어미를 분간하는 형우의 눈은 틀림이 없었다.

어미에게 대여준 새끼가 젖먹는것을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고섰던 형우는 분만책 가생이에 몸을 의지하며 《어서 집에 들어가라구. 필요없는 근심은 말기루 하구… 성화, 큰아버지 암만 고집을 쓴단터루 끝까지 응낙만 아이하면 될게 아닌가?…》하고 더욱 씁쓸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성화는 형우가 꾸짖듯 지금껏 그 근심에서 섰는것은 아니지만 조금후 수긋하고 좋아서 집으로 나갔다.

×

어슬어슬 어둡기 시작하는 분만실 난로옆에 삼룡이는 호무를 썰던 칼자루를 쥔채 석유궤짝우에 걸터앉았고 금방 밖에서 들어온 덕률이는 난로에 손을 벌리고선채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밖에서는 이따금 회오리바람소리가 쇄액쇄액 들려왔다. 양사뒤쪽 지붕에서는 눈이 날려내려와 창살을 두드렸다.

그러나 소년들은 바람이 불고 눈이 날리는것쯤은 해가 돋고 달이 뜨는것쯤으로 알았다.

《…그래 오라구 해 나가니까…》

삼룡이는 작은 눈을 깜빡거리며 너부죽한 덕률의 얼굴을 흥미있게 쳐다보고있었다.

《그래 나가니까…》하고 덕률이 역시 흥분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가끔 발음이 똑똑치 못하여지는 덕률은 말을 본때있게는 내려펴지 못했다.

덕률은 오늘 양들을 양사에 가둬두고 우차를 몰고 읍에 대두박 가지러 갔다가 군인민위원회 종양장에서 축산과장을 만났던것이다.

《첫말이 양이 새끼를 몇마리나 낳았느냐는거야…》

《그래서…》
《그래 사십마리나마 났다구 그러니까 실수된건 없느냐는거야…》
《그래서…》
《그래 아직 한마리두 없다구 그러니까 〈사십마리에 한마리두 없어?〉 하구 깜짝 놀래재이니…》
《그래서…》
삼룡이는 자기도 모르게 칼자루를 도마우에 놓았다.
《그리구 하는 말이 군내에서 제일이라는거야… 어느 목장이구 벌써 세네마리 죽이재인 목장이 없다는거야!》
《김학수네는 다섯마리나 죽었다는데…》
《그럼 또 한마리 죽었게?》
《오늘 낮에 죽었단다.》
《잘은 죽는다. 아무튼 우리 목장은 종양장보다두 낫다는거야…》
《정말 작년같으면 우리 목장두 이맘때쯤 다섯마리이상 죽었을거야, 응?》
《그렇재이구.》
《그러구는…》
둘은 다시 흥분에 찬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구 하는 말이 콩깨묵은 또 공급이 있을터이니까 사료걱정은 말구 관리를 잘하라는거야. 그래서 그 성적을 그대루 끌구 나가라는거야…》
《…》
《그래 새루 건설하는 목장에 합칠적에 동무들은 꼭 표창을 받을게라구 또 우대를 받을게라구 그러는거야…》
삼룡이는 말대신 코등을 모두켜올리며 익살궂은 얼굴을 지었다. 원래 잘게 생긴 얼굴이다. 삼룡은 코고 눈이고 죄 한데 붙어버리는것 같았다.
《어쩐 말이냐? 승리는 우리들의것!》 하며 석유궤짝에서 일어선 삼룡이는 선반에서 카바이드등을 내려 불을 켠 다음 난로연통을 벽에 비껴맨 철사에 걸어놓았다.
작은 구멍으로 뿜어나오는 가스는 휘황하게 타올랐다. 교실 반만 한 분만실안이 환해진 대신에 유리창은 일시에 어둑어둑해졌다.
삼룡이는 이어 난로앞에 돌아와 그안에 나무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나무는 잘 타는데 종시 달아나재이네…》
삼룡이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날이 추워 그러재이니… 내 아까 올라올적에 혼이 났다. 해질무렵부터 갑자기 찬바람이 부는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삼룡이가 칼자루를 들려는데 운동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더니 개가죽 큰 저고리에 양털모자를 쓴 윤돌이가 들어섰다.
《에 춥다!》
윤돌은 몸을 웅크리며 난로옆에 다가오더니 손을 거의 난로에 닿도록 가까이 대고 얼굴을 찡그렸다.
삼십이 넘은 윤돌의 터덕터덕한 얼굴은 시퍼렇게 얼었다.
《빌어먹을 놈의 날씨, 또 강추위야!》
여전히 얼굴을 찡그린채 손등을 쓰다듬으며 윤돌은 창자까지 게워놓는 소리를 냈다. 읍에 갔다온 덕률이에 대해서는 힐끗 한번 바라보았을뿐 인사말도 없었다.
삼룡이와 덕률은 그러한 윤돌이를 잠간 괴이쩍은 눈으로 바라보다 얼굴을 제자리에 돌려버렸다.
《그래 새 목장 짓기 시작했다데?》
다시 흥미에 찬 눈으로 삼룡이가 먼저 물었다.
《눈두 녹재이였는데 집을 어떻게 짓니?》
《참 그렇구나…》
《재목은 다 실어내렸다더라…》
《그럼 눈만 녹으면 이내 시작할게다, 응?》
《시작할게야…》
《숱한 양하구 사람하구 모이면 굉장할게야…》
삼룡이는 다시 칼자루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돌은 두 소년을 어쩐지 못마땅한듯이 바라보다 얼굴을 뒤벽쪽으로 돌려버렸다.
밖에서는 구유에 콩 뿌려주는 소리가 나고 이어 울컥울컥 양들이 뛰여다니는 소리가 났다.
윤돌이가 몰고 돌아온 붙임양(나어린 암양과 수양)들에게 형우가 농후사료를 주는 모양이였다.
《빌어먹을… 늦게 온다, 일쯕 온다… 그 놀음을 정 못해먹겠네…》

투덜투덜 혼자 뇌까리며 윤돌은 깔개풀우에 털썩 앉더니 큰버선에 초신을 신은 발을 난로에 댔다.
아마 형우한테 꾸지람을 들은 모양이였다.
삼룡이는 눈두덩을 내려깐 윤돌의 험상궂은 얼굴을 두세번 노려보다 《기간을 맞춰 댕기재이니까 그러지비…》하고 받아놓았다.
윤돌은 그 호무를 써는 삼룡이를 다시금 험상한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이놈아, 늦게 왔으면 양이 그만큼 더 먹었을게 아니냐?》
《어두워져서 양을 잊어버리는건 어떡허구… 그리구 지금 풀을 그렇게 많이 먹여 좋을건 뭐이구… 잘 먹였다가 못 먹였다가 그러는건 좋가디?》
《이놈아, 그러면 나한테 시계라두 채워 내여놓지…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맞춘다는 말이냐?》
《그래 해지는것두 모르오? 남은 시계를 차서 시간을 꼭꼭 맞추가디?》
《먼데루 갔으면 늦어지구 가까운데루 갔으면 일러지구 그러는게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똑똑 맞춘단 말이냐?》
《먼데루?》 하고 윤돌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던 삼룡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인가에 들어가 놀다가는 양을 찾노라 늦어지는 윤돌이를 삼룡이는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이놈아! 흥이 뭐냐! 그래 먼데루 가재이였다는 말이냐?》 하고 윤돌은 금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길로 차기라도 할 형세였다.
그러나 삼룡이가 들은척만척하자 윤돌은 《놈의 새끼 똑 삽살개같은게… 보자보자하니까…》 하고 중얼거리며 험상궂은 그 눈길을 마지못해 제자리로 돌려버렸다.
형우가 장작을 한아름 안고 들어왔다.
난로옆에 장작을 내려놓는 형우는 윤돌의 쪽을 저으기 침울한 얼굴로 바라본다.
《자, 박동무(윤돌)하구 덕률이는 들어가 저녁들을 먹으라구. 박동무는 새벽당번에 나오구. 누구든지 난로를 쉬워서는 아이돼… 박동무 특히 주의를 하라구. 새벽녘에 더 차질테니까…》
그런 다음 형우는 덕률이쪽에 돌아섰다.
《너는 저녁을 먹구 나오는 길에 1양사에 장작을 미리 댓아름 메여다놓아라.》

형우는 선반에서 카바이드등을 내려 불을 켜가지고 미분만양들이 있는 제2양사로 넘어갔다.
자리에서 일어선 윤돌은 《빌어먹을… 밤잠이나 편안히 잘수 있는가…》 하고 다시금 투덜거리며 어슬렁어슬렁 문쪽으로 나갔다.
삼룡이는 계속 칼을 놀리며《이재 며칠새벽 일어나 본게다…》 하고 들어도 좋다는듯이 높게 중얼거렸다.
윤돌은 문을 열다말고 삼룡이의 뒤등을 또 한번 노려보다 그만 나가버렸다.
덕률은 삼룡이와 마주 피슥피슥 웃다 윤돌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분만실안에는 칼도마에 부지런히 칼날 부딪치는 소리와 난로에서 툭툭 잘 마른 장작튀는 소리만 남았다.
밖에서는 《쇄―액》, 《쇄―액》 회오리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 뙤창이 덜커덕덜커덕 울렸다.
2양사로 나온 형우는 카바이드등을 높이 들고 양사안을 구석구석 살폈다.
배가 등을 넘을듯 한 50여마리의 새끼밴 양들이 이쪽 불빛에 일어도 서고 깔개풀우에 드러누운채 눈이 뜨부럭뜨부럭해 새김질도 하고 목을 풀우에 늘여붙이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먹은 양 한마리가 저쪽구석에 떨어져나가 앞뒤발로 깔개풀을 파헤치고있었다.
형우는 더 없는가 불을 더 쳐들고 구석구석 살핀 다음 그 양을 분만실에 끌어냈다.
낯선 방에 들어온 양은 잠간 불안한 눈초리로 섰다가 다시 구석을 찾아가더니 깔개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먼저와 같은 불안한 눈초리로 또 일어섰다.
새끼를 낳으려면 아직도 한시간나마 걸릴것이였다.
형우는 다시 1양사로 건너와 새끼들을 삑 돌아보았다.
따로 가둔 약한 새끼들과 쌍둥이들은 섰는 놈이나 누웠는 놈이나 대개 허리를 꾸부리고있었다. 날이 차진 까닭이였다.
형우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은 다음 선반에서 포유병(젖병)을 내려 낮에 짜둔 염소젖그릇과 함께 난로우 물을 담은 대야에 넣었다.
이윽고 형우는 젖에 손가락을 넣어본 다음 포유병에 옮겨들고 약한 새끼들간에 들어섰다. 새끼를 붙잡아안고 포유병고무꼭지를 입에

넣어주었다. 한마리를 마치면 또 딴새끼로 옮아갔다.
장작을 안아들인 덕률이가 막새옆에 와섰다.
《분만책속에서부터 쭉 젖을 먹여라… 그게 끝나면 쌍둥이들을 들어다가 젖이 많은 양한테 대줘라. 교대할 때까지 세번만 해라.》
덕률은 이내 분만책속에 들어섰다.
한시간가까이 지나 형우가 다시 분만실에 돌아왔을제 먼저 양은 벌써 새끼를 낳았다. 끊임없이 입안소리를 내며 어미양이 새끼몸을 핥고있는 옆에서 삼룡이가 헝겊으로 그 새끼의 물기를 치고있었다. 그런데 그뒤에 엄지양 한마리가 또 끌려들어와있었다. 이놈은 벌써 벽에 기대누워 앞뒤발을 양사바닥에 벋디디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부등부등 이를 갈고있었다. 눈알이 희뜩희뜩 번져지고 아래배가 꿈틀꿈틀했다.
낮에 한마리밖에 낳지 않더니 밤에 많이 낳을 모양이였다.
《새끼 과연 크오!》하며 삼룡이는 기쁜듯이 형우를 쳐다보았다.
어미배속에서 금방 떨어진 희여멀쑥한 새끼양은 코와 입을 벌름대며 몸을 시시로 푸들거렸다.
형우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은 다음 새로 분만한 양을 가둘 작정으로 분만책속에 있는 먼저 난 양들을 1양사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형우는 밤에도 좀해 쉴사이가 없었다.
꾀를 쓰려면 얼마든지 쓰게 되고 하려면 얼마든지 일이 있는것이 분만기의 일이요, 목장일이였다. 그리고 그 모든 태만과 로력은 분만과 육성성적에 그대로 반영되는것이다.
형우를 비롯한 모든 동무들의 짐승들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시중 또한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여 새생명이 불고 커가는 보람찬 기쁨은 이들로 하여금 일이 고됨도, 시간이 가는줄도 매양 잊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저녁도 분만을 넷이나 치르는 사이에 형우는 자기가 자야 하는 시간인 열두시까지를 여전한 시중에 보내다 같이 남아 동무를 하겠다는 삼룡이도 내여보내고 그럭저럭 세시가 가까왔다.
형우는 바쁜 때면 이내 그렇게 되듯이 잠은 래일 낮에라도 잠간 틈을 타서 잘수 있겠거니 생각했고 이제는 단련이 되여 눈 내려앉는것도 모르게 되였다.
그런데 형우는 오늘 저녁 쉴사이없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종내 가벼워지지 못했다. 불쾌한 일들이 일시에 겹쳐온것도 같았다. 자기와

성화와의 약속은 어떻게 됐든 읍에서 온 사람들과의 사이에 성화의 약혼이 성립되여버렸다는것이고 갔거니 한 추위가 저녁무렵부터 다시 나기 시작하고 그런중에 또 윤돌이와 말다툼까지 하여버렸다. 말다툼한 그것이 불쾌해서라기보다 목장에서 제일 어려운 이 시기에 같이 일하는 한사람의 태공도 클수가 있는것이였다.

윤돌은 들어온지 한달밖에 안되고 원래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달래여만 온 사람이였다. 그 어떤 결정적인 병집이 들여다보이는것 같으며 긴 분만기를 끝까지 함께 뚫고 나갈수 있을지 근심이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모두를 다시 생각해보면 첫째 성화의 약혼은 성화의 마음이 단단한바 하고는 그의 큰아버지 김학수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더라도 일을 못칠것은 빤했다. 그 틈사귀에서 성화가 일시 괴로울것이 마음아프나 성화자신 그만한것은 이겨나가야 사람구실을 할것이였다. 추위역시 양새끼들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고 어느 정도의 실내온도만 보존하면 더우기 금년같이 충실한 양새끼들을 두고 근심하는것은 부질없는 일일는지 몰랐다. 윤돌의 일 또한 오래 지내보지 못한 사람을 한두번 실수로 단정하는것은 잘못일는지 몰랐다.

형우는 계속 침울해지는 속에도 애써 마음을 가볍게 가지며 자신에게 타이르듯 생각하는것이였다.

《그까짓… 벽이면 밀고나가지 못해, 벽이면?…》

형우는 분만실에서 1양사로, 1양사에서 분만실로, 또 2양사로 일에 일을 겹쳐하고 쉴사이없이 나들었다.

세시를 친지 얼마 안되여서 분만실에는 옆집에 사는 김학수가 나타났다.

아래우에 밤빛 낡은 고르뎅양복을 입고 몸이 호리호리한 김학수는 한잠 자고난듯이 얼굴이 부석부석했다.

《꽤 추운 날씨로군…》

몸을 떨어가며 어쩐지 일부러 하는 말처럼 성긴 음성으로 중얼거리며 김학수는 난로앞에 두손을 폈다.

헝겊으로 금방 물기를 친 양새끼쌍둥이를 량손에 가지런히 들고 난로앞에 쪼그리고앉아 그것들을 말리고있던 형우는 김학수를 흘깃 한번 쳐다본 다음 무관심한 태도로 난로앞만 바라보았다.

《밤사이에 몇마리나 낳았는가?》 하는 김학수의 얼굴은 환했다.

오늘따라 김학수는 흥겨운 심정을 억제 못하는 그런 얼굴이였다.
그러나 형우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네마리 났수다.》 하고 말했다.
《젖들은 풍부한가?》
《예…》
《또 쌍둥이를 낳았는가?》
《…》
학수 자신 보아 알 일이므로 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목장은 금년에 대성적이두군… 우리 양들은 도모지…》
그리고 이야기는 끊어져버렸다.
얼마뒤 형우는 눈을 내려깐채 무뚝뚝한 어조로 《댁의 양을 몰구댕기는 아이놈을 욕을 해놓수다. 말을 아이듣는다구 새끼밴 양을 그렇게 두드려놓면 양이 쓰게 되우다?》 하고 마치 김학수가 그 당장에서 그자신을 꾸짖기라도 하듯 말했다.
《이앞에서 주의를 시켰는데두 그놈의 새끼 또 그러던가?》
형우는 그 말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둘의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계속되였다.
김학수로서는 평상시와 같이 태연한 얼굴로 이야기하려는것이나 형우편은 그럴수 없었다.
그리고보면 김학수는 성화를 약혼시킨 일도 마음이 찔리는것이 없지 않았다. 또 그리고보면 그 까닭에 젊은 사람에게서 당치 않은 핀잔을 받은것도 같았다. 따라서 이제는 나가려던 말도 움츠러들기마련이였다.
김학수는 《만년 수석훈도》에 싫증이 나 교편을 던진 후 푼푼이 모아온 얼마의 돈과 아이들 교육에 쓰리라고 첫아들 돌잔치에 사들여 남에게 주었던 암송아지에게서 불어난 세마리의 소를 판 돈에 빚도 내고 하여 스무마리의 양으로 목장을 시작했었다.
목장규모에 있어서든지 양마리수에 있어서든지 두 목장이 이웃에 병립하는 처음부터 김학수는 자력이 많고 유력하던 관선 도평의원 최만섭의 목장을 도저히 따를수 없었다. 김학수는 그간 불쿠며 팔며 9년이 되는 오늘에도 70마리를 넘을가말가한 정도밖에 가지고있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기력이 부족한 그로서는 형우를 자신의 팔이나 다리처럼 알아왔었다. 그러던 형우가 해방이 되자 자기 집

에서 나갔을뿐만아니라 옮겨온 이 국영목장에서는 자기 목장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대열성을 내는데는 슬그머니 질투가 일지 않을수 없었다.

형우는 자기만이 그러는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무들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기나 다름없는 열성을 내게 하였다. 김학수네 목부는 도저히 이들에게 비할수 없었다. 국영이더라도 모두 제 양이 아닌 점은 다름이 없겠는데 조화라고 김학수는 생각는것이였다.

그들의 열성은 이내 사업성적에 나타났다.

재력이나 규모는 어떻든 내우고 키우는 성적에 들어서는 해마다 자기네 목장에 떨어지던 최만섭이네 목장이 인민위원회에 접수된 작년부터는 학수네 목장성적을 바싹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금년은 작년 비례도 아니였다.

바로 이웃인 관계도 있지만 질투가 치미는지라 분만기에 들어서며부터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하루에 한두번은 꼭 와보아야 마음이 씨원한데 돌아갈 때면 의례히 패배자의 섭섭한 심사를 가지게마련이였다.

김학수는 무료한 가운데 말을 더 건네지 못하고 난로앞에서 비스듬히 돌아서자 손을 뒤로 가져갔다.

밖에서는 쇄액쇄액 세찬 회오리바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얼마후 형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 성화를 약혼시켰다지우다?》

뻐젓한 무뚝뚝한 어조였다.

김학수는 이내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김학수는 조심스레 간다는것이 그만 덫에 걸린 짐승모양으로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형우는 어느때까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그렇지 않아도 만나려던터고 만난바하고는 단단히 족쳐놓고싶었다.

《약혼했네.》

어딘가 뒤힘이 없는 대답이였다.

《성화는 싫다구 그랬다면서우다?》

다우쳐묻는 여전한 뭉툭한 말투에 김학수는 대답을 하지도 안하지도 못하다 여전한 몸살뒤끝에야 《그게 철이 없어 그러는게지…》하고 아까보다는 가시돋힌 어조로 말했다.

《그래 혼주는 언제 쓰우다?》
《모레 쓰네.》
형우는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사실은 더 일찌기 말씀드려야 하겠던게 늦었수다만…》하고 침착한 어조로 서두를 놓았다.
《이번 약혼은 그만두우다.》
《그만두다니?》
《성화는 사실은 벌써 약혼한 녀자우다.》
《야… 약혼해?…》
분이 치미는 때에는 의례히 말을 더듬는 김학수였다.
《예…》
《뉘… 뉘… 뉘하구?》
《저하구우다.》
형우는 끝까지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학수는 눈앞이 더욱 뿌예오는것을 어찌하는수 없었다.
형우와 성화사이의 기미를 모르고있는 김학수는 아니였다. 그러나 당자로부터 자기에게 감히 그럴수 있는 처지가 아닌 이 보잘것 없는 젊은 놈으로부터 이렇게 단정을 받고보면 중추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세상이 바뀌여서 양몰이군같은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인격을 존중히 해야 한다지만서도 (이렇게 김학수는 생각했다) 제 어미와 시집간 누이밖에 혈붙이도 없고 가난하고 무지막지한 양몰이군녀석에게 내 집에서 일이나 시켜오던 조카딸일망정 무엇을 바라고 주랴!
《저하구라니… 대 대체 약혼을 누가 허락했단 말이냐?》
김학수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형우의 더벅머리를 거칠게 내려다보았다.
어깨며 앉은 몸집이 오늘따라 어쩐지 류달리 굵져보였다.
《본인들끼리 먼저 정했지우다.》
형우는 계속 일손을 놓지 않는데 큰 양의 배밑으로 팔을 벌려 쓰러진 저쪽새끼를 일으켜세우자 한손으로 그 새끼양의 가슴을 받치고 한손으로는 그 턱을 들어 주둥이에 젖꼭지를 물린 다음 다시 이쪽새끼를 일으켜 이쪽젖꼭지에 대여주는 동작이 이 시간에도 밥뜨는 동작처럼 정확했다.
나이 이제 스물에서 셋밖에 못 넘은 인간에게 어디서 저런 힘과 담

이 생겼는가싶었다. 본시 좀 우직한데는 있었으나 해방직후까지도 헤실헤실해 지내던 아이라고 김학수는 생각했었다.

목장을 경영하는 9년동안에 숱한 아이, 어른을 목부로 써보아 알지만 형우는 고생스러운걸 일일이 탓하지 않는것과 짐승들을 좋아해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사양관리도 학리도 알려는것이 그래도 남달리 사람구실을 할 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던것이 민청에 든다, 강습회에 갔다온다, 선전사업에 동원된다 하더니 헤실헤실하던 빛은 없어지고 바위처럼 버티여서기 시작했다.

김학수는 성화의 일때문에 그런지 형우를 대하면 겁부터 앞서는것이였다.

《본인들끼리? 흥! 본인들끼리…》

김학수는 다시 난로를 향하여 돌아서더니 양복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담배를 찾는것이였다. 웃양복에서부터 아래양복까지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도 다시 웃양복주머니를 뒤지고난 다음에야 김학수는 빈손을 떨어뜨리며 노성을 질렀다.

《아모리 해방이 됐기루… 원, 머리에 피두 마르재인것들이 주제넘게… 저희… 맘대루… 원, 마즈막엔 별꼴을 다 보겠군.》

김학수는 침을 택택 뱉었다.

《다시 이년들이 그따우 수작을 해봐라, 동리안에두 못있게 할터이니!》

그러나 이 말에는 어쩐지 힘이 없었다.

김학수는 이미 마음 한구석을 앓고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형우는 김학수의 말이 끊어진 기회에 《하여간 긴말은 필요없을게우다만 이건 알아두셔야 하우다. 저를 욕하시는건 좋수다만 파혼은 기어코 하셔야 되우다. 성화 큰아버지나 성화 큰어머니 장가를 가구 시집을 가시는게 아닌 이상 우리 마음을 꺾지는 못하실게우다. 생각해보우다. 성화나 저나 댁에서 7∼8년을 어떻게 지내온 사이며 그렇게 지나온 우리사이에 사랑이 맺어졌다면 이만저만한게 아닐게우다. 아무두 우리를 간섭할 권리는 없수다. 이걸 똑똑히 알아두셔야 하겠수다.》

말을 마친 형우는 그다음에 하는 김학수의 발악하듯 하는 노성들은 들으나마나 새로 분만한 양과 양새끼를 분만책에 가두어버리자 카바이드등에 불을 달아가지고 다시 2양사로 넘어갔다.

2양사에서 아무 이상도 발견치 못한 형우는 얼마후 도로 분만실에 나왔다.

그때였다.
불현듯 1양사쪽에서 울커덕울커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우는 의아한 마음에서 다급히 1양사문을 열었다.
가스등불이 금시에 꺼질것 같고 난로까지 까만 어둑어둑한 속에 양들은 어쩐지 모두 이켠 분만실쪽 구석에 몰켜와있었다.
그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형우는 가슴이 선뜩 내려앉는것을 느끼며 한발두발 양사안으로 들어갔다.
약한 새끼와 쌍둥이들이 있는 저쪽간에서는 아직도 양들이 뛰고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개가 뼈다귀 뜯어먹는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무엇이 들었다.
형우는 앞이 아찔해오는것을 느끼며 소리나는 쪽으로 내달았다.
그러자 이쪽기미를 알아차렸는지 약한 새끼들 간에서는 또 울커덕 소리가 나더니 뒤벽 뙤창쪽으로 꺼먼것이 뛰여올랐다. 승냥이였다.
형우는 그쪽으로 쓰러질듯이 뛰여갔다. 승냥이는 부러진 뙤창살에 걸려 몸을 비비대더니 형우가 미처 뙤창가에 가닿기도 전에 궁둥이에 꼬리까지 사라지고말았다.
형우는 구멍만 남은 뙤창을 향하여 어쩔줄 모르고 섰는데 이번은 쌍둥이간쪽에서 울커덕소리가 나더니 또 한마리가 거진 형우의 몸에 덮칠듯 한 형세로 허공을 날아왔다.
얼결에 손을 들기는 했으나 맞받아 어쩌지도 못하고 승냥이의 몸뚱이가 눈앞을 지나게 되자 형우는 꺼먼 몸뚱이를 향하여 아무 돌볼것도 없이 덮쳐갔다.
벌써 승냥이의 대가리와 앞발은 뙤창구멍밖으로 빠지고 허리가 금방 미끄러나가고있었다.
형우는 그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안기는대로 허리를 덮쳐 껴안자 전힘을 두팔에 모두었다.
승냥이는 나가려 버둥거리고 형우는 뒤에서 안아당기고 잠간은 그 모양 아무럴 수도 없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갔다.
그제사 형우는 펀뜩 생각나 《모두 나오너라— 승냥이다—》하고 소

리를 쳤다.
승냥이는 더욱 몸을 버둥거리며 죽을둥살둥 했다.
팔안에서는 미끄는 품이 조금만 더 하면 빠질것 같았다.
형우는 《나오너라—》소리를 계속치며 아무래도 놓치고말것 같아 뒤일은 어떻든 발을 옮겨 벽을 힘껏 번디디자 팔을 분지르듯 당겼다. 우직! 소리와 함께 퇴창과 승냥이와 형우는 한꺼번에 깔개풀우에 넘어졌다.
어둠속에서 사람과 짐승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었다.
승냥이몸뚱이와 함께 뒹구는 퇴창살 부러지는 소리가 우직우직 들렸다. 그때까지도 형우는 승냥이의 허리를 놓지 않고있었다.
어디선가 윤돌이가 나타났다.
옆에서 잠간 어쩔줄을 모르던 윤돌은 금방 되부서져 나갈것 같은 퇴창대를 승냥이대가리우에 눌러 엎디더니 그우에 무릎을 꿇고 승냥이 앞다리를 두손에 틀어쥐였다. 그리고 그사이에 계속 분만실에 있었던 김학수가 나타나 뒤다리를 쥐고 샤쯔바람에 나온 두 소년중 삼룡이가 뛰여가 칼을 들고왔다.
죽어넘어진 승냥이몸에서 기진맥진해 일어선 형우는 자기 얼굴을 멍청하니 바라보고섰는 윤돌의 얼굴을 기막힌듯 노려보며 입술만 떨다 승냥이가 든 약한 새끼들 간에 들어섰다.
모두 달라붙어 퇴창에 거적을 댄 다음 난로불을 일으키고 가스불을 새로 달았다.
큰 양 세마리에 새끼양 한마리는 부상을 당하고 또 새끼양 한마리는 죽어넘어졌다. 털이 깊은 큰 양들은 가죽이 좀 벗어진 정도나 죽은 새끼양은 대가리뼈가 반이나 바사지고 부상당한것은 앞다리죽지가 드러났다.
형우는 부상당한 양들에게 곧 소독을 하고 약을 붙여놓은 다음 다시 윤돌의 앞에 나와섰다.
한참 윤돌의 얼굴을 무섭게 바라보고섰던 형우는 갑자기 입술을 떨며 《잤지? 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 형우는 윤돌이를 삼키기라도 할듯이 그앞에 바싹 다가섰다.
《응, 잤지? 말해봐!》

그제사 윤돌은 형우의 얼굴에서 눈을 떨어뜨리며 《잤소…》하고 힘없이 대답했다.
잤으니 불은 카바이드가 없었든, 물이 없었든 꺼지는대로 둔것이고 그리고보면 신신히 당부한 새끼의 젖은 먹이나마나 했을것이였다. 추운 밤에 난로까지 꺼졌으니 배고픈 새끼는 등을 구부리고 울었을것이고 지나가던 승냥이가 난지 오랜 양새끼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뛰여들밖에 없는것이였다.
쌍둥이의 몸뚱이를 말리느라 김학수와 이야기를 하노라 그사이 못나와본것도 분하다면 분하지만 이 방에 있는 윤돌이가 퇴창살 부러지는 소리도 못 들었다는것은 고단도 했겠지만 얼마나 방심하고 잤는가 알수 있었다.
《양은 다 죽어도 좋아? 응, 죽어두?》 하고 형우는 분기 치미는대로 계속 고함을 질렀다.
《…》
《그래두 이내 알았으니 다행이지 전연 몰랐으면 양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자는 사이에 난로에서 불이나 튀여나왔더면 숱한 건초무지는 어떻게 되겠어?》
《…》
《내게 아이라구 아무렇게 되든지 일없단 말이냐? 이게 모두 우리 전부의 재산이 되는줄은 몰라? 낫살이나 처먹구두…》
형우는 입술을 얼마동안 더 들먹들먹하다 그만 돌아서버렸다.
삼룡이와 덕률이를 두 양사에 나눠둔 다음 톱과 못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놓쳐버린 승냥이는 필시 또 올것이다.
새벽이 가까운 하늘에는 쇄액쇄액 회오리바람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

점심참에 삼룡이, 덕률이들과 함께 양들에게 콩깨묵을 준 형우는 소년들이 둘다 있는 틈을 타서 분만실난로옆 깔개풀우에 드러누웠다. 형우는 드러눕자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누운지 한시간이 되였을가 말았을가 한데 형우는 삼룡이가 흔드는

바람에 그만 깨고말았다.

《그 사람들이 올라오오! 무스거 우차에다가 잔뜩 싣구오오!》

《그 사람들》이란 학수네 집에 혼주 쓰러 오는 사람들이였다.

삼룡이는 은근한 속에 마치 자기의 공을 자랑이나 하듯 대견한 얼굴을 지었다.

형우는 깔개풀우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갔다. 운동장에 드러누운 새끼밴 양들을 쭉 돌아본 다음 어슬렁어슬렁 학수네 집앞까지 나온 형우는 울타리밖 아래마을로 내려가는 길 한가운데 뻗치고 섰다.

김학수네 양사에서는 양새끼울음소리가 성하게 들려왔다.

형우는 그 양새끼울음소리에 주의가 끌리여 눈을 길가로 던졌다.

보위색방한모에 흰 큰저고리를 입은 우차군의 뒤에 무얼 잔뜩 실은 우차 그리고 두어발자국 떨어져 밤색중절모자에 흰색두루마기의 키 큰 늙은이에 캡이며 외투며 모두 검정빛인 신랑차림의 젊은 청년이 방금 신작로에서 구부러져 양사로 오는 길에 들어서고있었다.

사람들은 말이 없고 빼각빼각 언 땅을 굴러오는 우차바퀴소리만 높았다.

이윽고 우차는 울타리저쪽 나무를 쌓아놓은 옆에 다달았다.

《소를 풀어서 아무데나 매여놓게.》 하고 늙은이는 발을 멈췄다.

오는 길에 형우를 보기는 하였겠지만 형우쪽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우차쪽만 바라보는 늙은이는 어딘가 애써 위풍을 보이려는데가 있었다.

남의 양복을 얻어입었는지 깃에 목이 파묻히우면서 어쩐지 자라목을 련상시키는 애된 얼굴의 젊은이도 늙은이를 따라 그뒤에 발을 멈췄는데 형우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바라만 보고섰는것이 게면쩍은듯 형우쪽에 한두번 시선을 겨누다가 도로 목을 움츠려버렸다.

형우는 큼직한 발을 옮겨 우차앞까지 다가갔다.

《혼주 쓰러 오신이들이요?》

형우는 친절한것도 적대하는것도 아닌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소.》 하는것은 말뒤에 헛기침이라도 할것 같은 령감이였다.

《좀 그냥있소… 소를 벳기지 마오.》 하고 소에게서 멍에를 벗기는 우차몰이군을 정지시킨 다음 형우는 《돌아가시오. 잘못 오셨소.》 하고 령감에게 말했다.

령감은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손을 검은 수염으로 가져가며 주름잡

힌 눈시울을 가늘게 떴다. 웃수염이 가냘피 떨었다.
《잘못 오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이 집 김학수선생 조카딸은 벌써 딴 사람하구 약혼을 했습니다.》
《벌써 딴 사람하구 약혼을 했어?》
《예, 했수다.》
《대체 누구하구 했는데?》
《누구하구든지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게구 어서 일찌감치 돌아가시우다. 숱한 물품을 쓸데없이 버릴게 있수다?》
《…》
《돌아가시우다. 물건은 아직 그냥 있는게구 지금두 늦지는 않수다. 공연히 남좋은 일만 해주구 웃음만 살 필요 없지 않수다?》
모멸감과 분노에 떠는 령감의 얼굴은 까맣게 변했다.
그사이 울타리안에서는 문여는 소리가 두어번 들렸다.
《대체 자네는 누군가? 자네는?… 그래 이 집 주인이 그렇게 말하라구 자네한테 시키던가?》
《이 집 주인이 시킨건 아니요. 그렇게 궁금하시거든 말해드리리다. 나는 김씨 조카딸하구 결혼하기루 언약된 사람입니다.》
《자네가?》
《…》
이때 울타리안에서는 다시 문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신발끄는 소리가 나더니 얼굴이 푸르뎅뎅해진 김학수가 형우의 앞에 와 막아섰다.
《자네 무무… 무슨 까닭에 우리 집에 왔는가? 응? 자자… 자네 무슨 까닭에…》
독기에 찬 두 눈길이 마주쳤다.
《제 일에 나왔수다.》
《제 일이라니…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자네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째 상관이 없수다? 내 안해될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내한테 상관이 없단 말이우다?》
《네 안해? 누누… 누가 네 안해란 말이냐? 응? 이 뻐뻐… 뻔뻔한 놈아! 너한테 누가 딸을 준다구 했더냐? 이 뻔뻔한 놈아!》
《그럼 성화 큰아버지는 뻔뻔하시재인게 무에우다? 7～8년을 두구

실컷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그 조카딸을 싫다는데 억지루 시집을 보내시자는건 그래 잘하시는 일이우다?》
《이놈아! 남이야 조카딸을 부려먹건말건 … 시집보내건말건 네까짓놈이 삐칠게 무에냐?》
《삐쳐야 할 리유를 자꾸 설명해드려야 아시겠수다? 싫으시겠지만 아시는바엔 저는 끝까지 삐쳐야 하겠수다. 나종에 공연히 후회를 마시구 일찌감치 모두 돌려보내시우다.》
《보내라 말아라… 이놈이 노는 수작을 보지… 그그… 그래 끝까지 삐쳐야겠어? 응? 이놈아, 삐쳐야겠어?》
《삐쳐야겠수다.》
온 얼굴을 불덩어리같이 해가지고 파란 입술을 떨던 김학수는 한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이놈아, 정 삐쳐야겠어? 저… 정 삐쳐야겠어?》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먹까지 쳐들었다.
반대로 형우는 한걸음 물러서며 찌프렸던 얼굴을 저으기 풀었다.
백지장같은 김학수의 얼굴을 잠간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형우는 스스로도 의외인 침착한 목소리로 《삐쳐야겠수다. 내한테 마음을 허락한 성화는 끝까지 내 사람으로 만들구라야 말겠수다.》 하고 말했다.
그런 다음 김학수의 말이 삐칠사이도 없이 구혼자들쪽을 향했다.
《당신들두 잘 알구 덤비시오. 아께두 말했지만 공연히 후회를 하시지 말구…》
그런 다음 형우는 더 볼일이 없다는듯 돌아서버리자 자기 양사쪽을 향하여 발을 옮겼다.
기가 막힌 김학수는 《저런… 저저…》할뿐이였다.
우차옆에서 그 광경을 역시 어이없이 바라보고섰던 령감은 형우의 뒤모습이 집뒤에 사라지는것과 동시에 우차바퀴언저리에 택택 침을 뱉더니 《날래 가자! 원 참, 별꼴을 다 보는군…》 하고 풀이 죽어진 아들에게 꾸짖듯 말한 다음 앞장을 서 바람소리라도 낼듯 내여뺐다. 젊은이가 먼저 돌아서고 그뒤로 달구지가 돌아서고 그들이 멀어져가는 광경을 김학수는 꿈속처럼 바라보고섰었다.
언 땅우를 굴러가는 우차바퀴소리만 빼각빼각 오래도록 섬뜩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일은 형우마음대로만 되지도 않았다. 이날 저녁 김학수는 래

일 떠날것이라던 구혼자들이 든 려관에 내려가 장밤을 지내더니 그 이튿날 우차는 다시 올라오고 밤에 성화네 집에서는 끝내 약혼연회가 벌어졌다. 김학수가 급해진것은 가히 알수 있으나 구혼자들, 그중에도 색시를 눈여겨보아두었던 구혼자의 미련도 컸던것 같다. 다행히 약혼연에는 술이나 좋아하고 지각이 없는 늙은이들이 7~8명 왔을뿐이였다.

그러나저러나 성화가 읍에서 나온 청년에게 형식상으로라도 약혼이 된것만은 사실이였다.

×

양사에서는 분만이 끝나가는 대신 분만된 새끼시중이 날마다 벅차갔다. 마흔에서 쉰으로, 쉰에서 예순으로, 양새끼는 불과 며칠에 부쩍부쩍 늘어갔다. 그리하여 분만실 분만책에서 큰 양사분만책으로, 큰 양사분만책에서 공동간으로 이렇게 어미, 새끼가 쫓겨나오는 수가 늘어가고 거기따라 쌍둥이며 약한 새끼 역시 느는통에 분만책이 모자라 한 분만책에 두패를 가두기로 했다. 공동간이 점점 좁아지기때문에 제일먼저 난 큰 새끼들은 딴 패를 만들어 미분만 새끼밴 양들이 있는 제2양사에 간을 막고 몰아냈다. 이것들은 개별적간호가 없어도 이제는 제멋대로 자랄수 있었다. 늘어만 가는 살림속에서 형우의 피로는 말할나위없었다.

승냥이 든 날 저녁이후 형우는 밤에 잘 생각은 숫제 버리고말았다. 저녁전에나 겨우 어떻게 틈을 얻어 두시간, 세시간정도로 자게 되는 형우의 몸은 점점 파김치처럼 되여갔다.

그러나 형우는 계속되는 왕성한 분만과 분만뒤 좋은 경과에 피로도 거의 잊고지냈다. 얼굴색이 날로 파리해가는 속에도 버티고서는 굵진 체대며 묵직한 눈길이 앞으로도 한두달쯤은 문제없을 사람같았다.

금년은 쌍태가 많은데다가 분만예정에 들어있지 않은 외살짜리의 분만도 여러마리가 되였다. 희귀하게도 외살짜리가 쌍둥이를 낳은것도 있었다.

외살짜리어미는 두 새끼를 키우기에 나어린 어미의 젖은 부족하였다. 자기 젖에 딴 어미젖도 얻어먹이며 사흘을 고생하던끝에 앞서 승냥이에게 물리운 새끼양이 사흘만에 죽은 까닭에 죽은 새끼의 어미에

게 쌍둥이 한마리를 넣었다.

새끼를 죽인 양은 이붓새끼와 함께 또다시 분만책속에 갇히였다.

새끼잃은 어미는 모습이며 우는 소리며 체취가 다른 남의 새끼를 처음 이틀은 종내 가까이하려 안했다. 큰 양을 번번이 붙잡아주어야 새끼는 젖을 먹을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의례히 그러듯이 새끼양의 엉뎅이밑이며 등에 이붓어미의 젖을 흠뻑 발라주었다. 그래도 큰 양은 듣지 않았다. 다음은 큰 양의 똥을 물에 풀어 그걸 발라주었다.

그래도 양은 듣지 않았다.

정 할수없이 이번은 이전에 벗겨두었던 죽은 새끼양의 가죽을 물에 추겨다 이붓새끼의 등에 씌워주었다.

그래도 처음은 이상한 빛이던것이 차츰 새끼의 울음에 응대도 하고 붙잡지 않아도 젖을 주기 시작하였다.

점심때쯤 형우가 분만책옆을 지나려는데 그속에서 익살꾸러기 삼룡이가 일어서며 《해해해…》하고 웃어댔다.

《저 먹보를 보오. 이제는 완전히 속아넘어갔소.》

큰 양의 젖꼭지를 물고 연방 신이 나 빨고있는 새끼양의 등에는 죽은 새끼의 가죽이 없었다.

《벌써 뗐느냐?》

《글쎄 어찌는가 보자구 뗐드니 이제는 아무래두 좋으니 제 새끼루 삼겠다는게요.》

형우는 아무말없이 삼룡이의 머리를 쥐자 바쁜 소리를 치리만큼 흔들어놓았다.

새끼들이 이렇게 실수없이 자라가는 가운데도 추위에 대한 근심은 형우의 머리에서 사라질수 없었다. 어쩐지 금년추위는 더한것 같았고 추위가 그렇게 오래 계속되는 사이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것만 같았다.

동시에 형우는 성화에 대한 근심을 일시도 놓을수 없었다.

약혼은 되였다 하더라도 성화의 마음이 그대로 있고 그가 아직 자기옆에 있는 한 형우는 마음이 든든했다. 형우에게 있어 성화를 남에게 준다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서로 같은 처지, 같은 천

대속에 있는것이 마음이 통하는 시초로 되였지만 그를 동정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위하여 두고두고 마음을 써오는 사이 성화는 형우의 가슴속에 이제는 가장 가까운 어느 혈육과도 같이 잊을수도, 떨어질수도 없는 존재로 못박혀버렸었다. 김학수가 정 고집을 부리고 막부득한 경우에는 그의 비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완력으로라도 빼앗을것이고 함께 달아났다 오는 수도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성화가 괴로워할 일이며 자신의 마음이 불쾌할것은 어쩔수 없었다. 어떻게든 급속한 해결이 있어야겠다는 마음은 마치 음식에 체한것처럼 형우의 가슴에서 종시 내려가지 않았다.

약혼연회가 있은 사흘째되는 날이였다. 김학수가 자기 집 양을 몰고 방목나간 틈을 타 형우가 성화네 집에 갔을 때 마침 큰어머니도 없고 정지에 뛰여나온 성화는 이내 눈물이 그렁해 처음은 입도 벌리지 못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눈에 살기돋쳐서 야단이라오. 집안이 망한다느니, 별년때문에 망신을 했다느니 모두 나를 죽이지 못해 야단이라오. 꺼떡 문밖에만 나서두 비자루를 들구 일어서요.… 7～8년을 곱게 키워준 은혜가 그게냐는거예요. 일만 시켜오구서는 곱게 키워줬다는게요… 흥, 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두 내 그 집에는 죽어두 시집을 아이갈 작정이야. 고양이 쥐 생각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내 모르는줄 아는가봐… 저쪽이 돈푼이 있는 집이니까 나를 거기 주구서는 자기들이 무슨 덕이나 볼가 해 그러는게지 뭐… 내 무슨 남처럼 그까짓 읍이나 돈있는 집을 바라는줄 아나 뭐… 큰아버지가 정 마음을 곤치재이면 나두 그이들을 큰아버지, 큰어머닐루 모시재일만 했지 뭐… 그렇지만 날마다 그 감시속에 있으려니까 내 부모없는 설음만 자꾸 들어서 어제 밤은 이불속에서 장밤을 울었음…》

그러한 성화의 얼굴은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행복감이 력력히 보이면서도 이 며칠동안에 해쓱하게 변했다.

형우는 그렇게 된 성화의 얼굴을 애처로운 마음과 비길데 없는 고마운 마음으로 다함없이 바라보다 《어떻든 근심은 말라구. 아무두 우리를 떼여놓을 사람은 없을테니까. 어디까지나 마음을 든든히 먹구 끝까지 타협을 말라구. 감시를 한다구 그대루 갇혀만 있을 필요 있는가?

민청회합에두 나가구… 양사 조력에야 왜 못 나가?》 하고 나왔던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직도 께름한것은 윤돌의 일이였다. 승냥이가 든 이후 윤돌은 방목에만 내려보냈지만 나가고 돌아오는 시간이 고르지 못한것은 여전하고 대하는 태도 또한 도무지 온당치 않았다.

윤돌은 항상 내심에 무엇을 품고있는 사람같았으며 일을 맡기는 때마다 불안한 마음부터 들게 하였다. 아주 목장에서 내여보낼가고도 생각하였으나 바쁜 때에 한손도 아쉬운데 마땅한 후임도 나지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고쳐질수도 있지 않을가 기대도 가져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벌써 사면이 어둑어둑하여왔었다. 운동장 막새밖에서 한참 길우를 바라보고섰던 형우는 길우에 아직도 양들이 나타나지 않는지라 할일없이 또 돌아서고말았다.

벌써 두번째 나왔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것이였다. 형우는 운동장을 지나 분만실에 도로 들어오자 카바이드등에 물을 넣어놓았다. 그리고 멍하니 섰다가 또다시 밖을 나갔다.

세번째 막새밖을 나선지 10분도 더 지나서야 어두운 길우에는 희슥희슥 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씨물씨물 재게 움직이는품이 양들은 뛰고있는 모양이였다. 한참 그렇게 내려오다 양들이 양사로 들어오는 가름길에 들어설무렵에야 그 뒤에서 《쉬— 쉬—》소리를 내며 양에게 매질하는 윤돌이가 얼찐얼찐 보였다.

형우는 양을 세일양으로 운동장 막새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밖에 나섰다.

양의 선두가 20메터 가까이 당도했을제 형우는 《어째 이렇게 늦었소?》 하고 윤돌에게 물었다.

윤돌은 이쪽을 흘깃 바라보았을뿐 눈을 도로 떨구고 말이 없다.

《어째 이렇게 늦었소?》 하고 형우는 두번째 물었다.

양의 선두는 벌써 막새앞에 다달으고있었다. 그제야 윤돌은 마지못해 눈길을 들었다 떨구며《양이 열여섯마리나 어디루 갔는지 없소.》 하고 힘없이 대답했다.

형우는 양을 세려는것도 그만두고 막새문을 닫아버리자 윤돌이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어디서 잃어버렸소?》
바로 앞에 와선 윤돌은 민망한 얼굴로 머뭇거리기만 했다.
《복골 양지에서 먹였는데… 올적에 셀라니 없길래 그 근방을 다 찾아봤는데두 없소.》
《종일 거기서 먹였소?》
《아침절에는 그아래서 먹였소만 웃마을에 올라갈적에는 다 있었소.》
《웃마을에 올라갈적에 세여봤소?》
《세여봤소. 정말 세여봤소. 오늘은 어디 들어가 불쬔 일두 없는데…》
《묻는게나 대답하오! 저녁편에 복골뒤산에서 잃어버린것만은 틀림없소?》
《그건 틀림이 없어…》
형우는 윤돌의 얼굴을 무거운 눈길로 바라보다 돌아서 막새문을 열어젖히고 양을 세여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틀림없는 열여섯마리가 부족했다.
운동장에 양을 다 들여놓은 형우는 삼룡이를 불러 양들에게 농후 건먹이사료를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덕률이와 둘이서 양사일을 잘 보라고 당부한 다음 저녁 먹을것도 잊어버리고 윤돌이를 앞세우자 신작로를 올리달렸다.
얼마 걸은것 같지 않은데 몸에 벌써 땀이 배였다. 모자를 쓰지 않고 온것을 그제사 깨달았으나 귀는 조금도 시리지 않았다.
둘은 굽이진 길을 10리나 올라가 얼어붙은 개울을 건넌 다음 불이 파뜩파뜩 보이는 마을뒤산에 잡아들었다. 나무를 붙잡고 바위에 의지하며 가파로운 벼랑우에 올라섰다. 설핀 가둑나무밭들을 끼고 묵밭 새밭이 뉘엿이 뻗어져올라간, 윤돌이가 저녁무렵에 방목하였다는 양지는 여기서 시작되였다.
《없어?…》
《없소…》
《저쪽 잔디밭쪽을 봤소?—》

《거기두 없소…》
묻고 대답하며 둘은 산우를 이리저리 헤매였다.
나무그루에 걸려 넘어지고 음달에 쌓인 눈에 미끄러 굴기도 하고 도랑을 건너뛴다, 바위에 무릎도 찧으며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이 홈채기에서 저 홈채기로 둘은 캄캄한 산우를 작정없이 헤매였다.
《없어?…》
《없소…》
《못 찾았어?…》
《못 찾았소. …》
산령을 부르듯 캄캄한 속에 빈 음성만 보람없이 메아리쳤다.
밤이 깊어서인지 어느덧 쪼각달이 떴다. 달은 떴어도 주위는 안개낀것처럼 희미했다. 똑 양처럼 보여 비탈에 미끄러지며 허망짚기를 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눈무데기요, 새풀무데기였다.
《이 산이 틀림없어?》
《틀림없소. 》
《아래마을이 애이구?》
《아이요. 》
《산에 올라올적에 세여봤는가?》
《세여봤다는데두…》
묻고 대답하다 또 둘은 허전한 마음으로 헤여져갔다.
산이라 걸음이 늦다보니 언 손발은 어느덧 감각을 잃었다. 귀는 붙어있는지도 모르게 되였다. 다리가 나무토막처럼 무거웠다. 시야에 막아서는 희미한 밤그대로 모든것이 아득했다.
조국에 바치리라던 감사의 기쁨도 희새봉아래에 펼쳐질 5천정보의 새살림의 기쁨도 이제는 꿈으로 돌아간것만 같았다. 조국이 자기를 버릴것은 아니요 희새봉이 자기를 탓할것은 아니로되 모든 나날의 분투가 오직 그것들에 련결되여있는 고마운 내 조국, 보람찬 새살림을 위한 자기의 승리와 자랑은 열여섯마리의 양이 여지없이 짓밟고만것만 같았다.
양들은 필시 어디서 승냥이의 밥이 되고만것이였다.
날고뛰고 하여도 열여섯마리의 손실을 메꿀수는 없으며 예정수자달성은 깨뜨려지고만것이였다. 양들을 몰고 가을에 희새봉밑 새 목장문

을 들어갈제 자기는 목을 떨어뜨려야 하는것이였다.
날이 밝았다. 눈앞이 뿌열뿐 배고픈줄도 몰랐다. 이제는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다리를 끌고 형우는 다시한번 산발을 삑 돌았다. 그리고 벼랑에 돌아와 기진맥진하여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개울건너 저쪽산에 눈이 갔을제다. 누구네 묘인듯 소나무가 삑 둘러선 솔밭속에 무언가 희슥희슥 모여 서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찬찬히 살펴보니 그속에서 오물오물 움직이는것이 있었다. 먹은것을 새김질해 섰는 양들이 틀림없었다.
형우는 피로도 다 잊어버린듯 자리에서 일어서자 벼랑을 곧장 내리뛰였다. 언 강을 건넌 다음 저쪽산에 올라붙었다.
양들은 소나무밑에서 눈이 머룩머룩해 모여서 주둥이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마리수부터 세여보았다. 두마리가 또 부족이였다. 두번, 세번 세여보았으나 여전히 두마리가 비였다.
형우는 윤돌이를 앞세우고 다시 그쪽산판을 더듬었다. 거진 한시간을 두축이나 돌아다녀도 두마리는 종내 찾지 못했다. 혼자 소나무밑에 돌아와 할일없이 마리수를 다시 세려는데 윤돌이가 양다리 세개와 한줌이나 되는 양털을 들고 나타났다.
《홈채기속에 이것하구 피 잔뜩 널려있습데…》
윤돌은 멀찌감치 떨어져 눈이 뜨부럭해 말하는것이였다. 이쪽 열네마리가 모두 무사한걸 보면 두놈만 딴데 삐여져갔던 모양이였다. 형우는 아무말없이 돌아서자 양을 몰고 신작로에 내려섰다.
신작로를 여라문발자국 내려온 형우는 절로 내려가게 양은 버려두고 갑자기 길 한가운데 돌아섰다.
뒤를 따라 내려오던 윤돌이도 따라 발을 멈추었다. 형우는 윤돌이가 멈춰선 앞까지 되돌아올라가자 침착한 동작으로 윤돌의 멱살을 빽빽이 움켜잡았다. 오른손에 잡은 멱살을 다시 왼손에 바꿔잡았다. 그리고 형우는 얼마동안 윤돌의 얼굴을 족칠듯이 노려보았다.
《이놈아, 너를 여기서 죽여버리라느냐, 응? 이 도적놈아!》 하고 형우는 소리소리 질렀다.
《응? 이놈아, 불쬐러 들어간 일두 없다는게 양이 강을 건너오는것도 못 봤단 말이냐? 이 도적놈아! 그게 모두 어떻게 자래우는 양들인

지 너는 못 봤느냐? 무엇때문에 모두 그렇게 애를 쓰는지 너는 모르느냐? 이 도적놈아, 네놈이 잃어버리기 좋으라구… 네놈이 편하기를 좋으라구 모두 날마다 밤을 새우구 야단인줄 아느냐? 이 도적놈아…》

형우는 윤돌이가 거의 쓰러질 지경으로 잡은 멱살을 이리저리 흔들어놓았다. 그리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응, 이 도적놈아! 정작 너를 죽여버리라느냐, 죽여버려?… 너같은 놈은 하등 살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다! 너는 열번이라두 죽어 좋은 놈이야! 이 도적놈아…》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차마 치지는 못하고 떨기만 하였다.

얼마를 그리고 윤돌의 멱살을 이리저리 흔들며 분을 풀길이 없어하던 형우는 아무런 일이 있든 너하고는 오늘로 하직이라는것을 생각하며 손을 놓고 돌아섰다.

×

저녁무렵에 학수네 집에는 부락민청에서 사람이 왔다. 학습회가 있으니 성화더러 내려오라는것이였다.

구미를 잃은 맛없는 밥을 뜨는둥마는둥 한 다음 뒤설겆이까지 마친 성화는 뒤방에 들어가 망설이다못해 옷을 갈아입자 정지방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없고 정지방에는 큰어머니가 있었으나 회합에 오라는 통지가 집안에서 다 알게 온것만큼 성화는 용기를 내여 큰어머니앞에 나섰다.

읍에서 온 사람들과 약혼이 된 이후 마을에 내려가는것은 고사하고 집안에만 갇혀있는것이 너무 울적해 뜰앞에만 나서도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눈총을 받아온 성화였다. 어느때까지고 이러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였다.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여야 하였다. 아직도 성화에게 께름한 점은 《7～8년을 키워왔는데…》하고도 말하는데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경우와는 달라 일을 잘못 저지름으로써 그들이 자기 까닭에 얼굴을 들지 못하기라도 하면 어찌나 하는 점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망신을 당하고있다고 하는데 조카딸을 못살게 군다는 소문이 마을에 더욱더 퍼질수 있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성화에

게 대해서도 자기를 키워준 은공을 모르는 년이라고 할수 있는 일이였다.

그러나 성화로서는 형우를 내여놓고 딴 사람에게 시집간다는 일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형우는 성화의 마음이며 처지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며 성화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였다. 형우는 성화를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언제나 자신을 잊고 애를 써주는 사람이였다.

뿐만아니라 성화에게는 학수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키워준 은공이니 무어니하는따위의 말보다도 성화네 부모가 살아있을제부터도 가난뱅이라고 업수이 여겨오던 일이며 이 집에 온 이후 집안에서 힘들고 궂은 일은 도맡아 하여오면서 갖은 설음을 다 겪어온 일들이 기억에 더 생생하게 오는것이였다.

사시장철 일에 매여있는것은 놓고라도 3남매중 집에 남아있는 두 친아들딸과 자기의 사이에는 먹고 입는것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양녀라고도 하고 오라비 누이사이라고도 하지만 성화는 언제나 그들과 같이 앉고 평등으로 말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였다. 성화는 언제나 그 모든 사람의 심부름을 드는 사람으로, 한계단 그들의 밑에 서 있는 사람으로 지내왔을뿐이였다. 그들이 오늘도 자기를 생각한다는것은 이런 처지에서며 성화자신을 위해서보다 자기들을 위해서였다. 성화는 형우를 통하여 민청에 다니게 되면서 오늘의 자기의 처지며 큰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똑똑히 알수 있었다. 더우기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오늘까지 그들의 의견을 존중히 할수는 없는 일이였다. 자기가 속없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는것은 어떻든 큰아버지네가 망신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화로서는 어쩌는 수없는 일이였다.

부엌에 내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신발을 끌어오려는데 어느새 방안에서 나왔는지 등뒤에서는 필경 큰아버지의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어디루 가느냐? 어디루?》

성화는 잡았던 신발을 그 자리에 놓고 도로 일어섰다.

《빨리 올라오지 못하겠느냐? 무슨놈의 아이가 그저 나돌아다니지 못해서…》

《자는 원, 오새있는 아갈재이타이까… 우리 말은 귀등에두 담재이 커던…》
큰어머니가 던지는 말이였다.
큰아버지쪽에 등을 겨눈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말없이 섰던 성화는 도로 구들에 올라섰다. 성화는 큰어머니가 앉았는 안구석에도 들어가지 않고 방끝에 돌아서버렸다. 순간 성화는 가슴이 막혀오면서 울음이라도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성화는 이제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이 당도했다는 생각을 했다.
약혼말이 났을제도 그랬지만 더우기 약혼연이 있은 날 저녁 성화는 《싫수다! 싫수다! 나는 거기 시집을 아이 가겠수다. 죽어두 아이 가겠수다.》하던 끝에 《큰아버지나 큰어머니 가실려면 그렇게 정하우다.》 하고까지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대여들었다.
자기 친딸도 아닌데다 어렸을제와는 달라 다 큰 성화에게 손을 못 붙일만 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또 키워준 《공》을 앞세우며 죽일년이니 살릴년이니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
성화는 뒤방에 들어가 울음으로 밤을 새웠다. 이제 와서는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생각는 마음에 악이 치받쳐오기도 하는것이였다. 한집안친척이 아니라 나를 벗겨먹고 갈아먹으려는 사람들로 똑똑히 보였다. 더는 한집안에 있을 사이같이 생각되지 않았다.
성화는 큰아버지, 큰어머니에게 당장 이 집을 내여보내달라는 말을 하고싶었다. 그러나 그 말 먼저 그만 울음이 터져나오고말았다. 성화는 두손을 얼굴로 가져가자 《흑… 흑…》느껴울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사이로 줄줄이 흘러내렸다.
한참 그렇게 어깨만 들먹이고섰던 성화는 홱 그 자리에 돌아서자 울음섞인 목소리로 《큰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구 그러우다! 죽이려구…》 하고 설음이 북받치는대로 털어놓았다. 그런 다음 성화는 얼굴을 싸쥐고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눈에 불이 일 지경이 되여 성화를 노려보고섰던 김학수는 어금이를 맞물기까지 하더니 《이놈의 간나, 무예라네?》 하고 벽력같은 고함을 질렀다.
《내 난 자식이 아니라구 어루만져만 오니까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게냐? 그래, 내 너를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죽이려구 그런단 말이

냐?》
그러나 성화는 지지않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큰아버지는 가기 싫다는 시집을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보내지 못해 야단이우다?… 나는 큰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준다는것이 가두룩 싫수다. 곱게 키워왔다구 그러시지만 그 말을 나는 믿지 않수다. …》
성화는 다잡을 길없이 소리까지 내여 울음을 드러내여놓았다.
어이없게 된 김학수는 미처 말은 안 나가고 입술만 떨다 《무예… 어째? 곱게 키워왔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부려만 먹어왔다는 말이냐?… 아니, 이… 이년아! 당반에 올려앉히고 곱게 모… 모셔만 왔어야 했단 말이냐? 7～8년을 키워준 사람에게 더… 더구나 제 큰아버지에게 하는 말뽄사가 그러냐?》하고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글쎄 저 애 입에서 저 말이 나올줄 알았다니까. … 여보, 날래 저 애를 제 좋아하는 서방을 달아 우리 집에서 내여보내주오. … 감사하다는 말은 고사하구 우리 뒤욕이나 하구 댕길 아이라니까. …》
큰어머니가 또 거들었다.
성화는 다시 입을 열었다.
《좋수다. 모두 아무렇게 생각해두 좋수다. 큰어머니말처럼 나를 이 집에서 내여놔주우다. 이러구서는 정 못살겠수다. 늘 좋게 말하우다만 우리는 서로 남남일뿐이우다.》
《흥, 남남일뿐이라구… 네 말을 잘한다. 네년이 그런 년인줄은 몰랐구나. … 그래 이 집에서 나가서는 네 어디루 갈 작정이냐? 어… 어디루 갈 작정이냐?》
《아무데구 갈데 없겠수다?》
《네 당장 형우네 집으루 갈 작정이구나?!… 네 정 바람난 년이로구나. … 흥… 네 자기를 키워준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은공은 고사하고 부모들의 얼굴을 깎으려구 드는 년이로구나. …》
《마음대루 생각하우다.》
《원, 이… 이년이 마… 말대꾸를 하는 뽄사를 보지. … 네 이년아, 다… 당장 뒤방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망할년이 제 크… 큰아버지를 동네집 아이들만두 크게 여기지 않는구만. … 내 난 자식이 아니라구 내 너를 그래 주… 죽이지는 못할줄 아느냐. … 어서 뒤방에 들어

가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성화는 더 말없이 홱 돌아서 뒤방으로 들어가자 콱 소리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성화가 문안에 사라진 뒤 닫힌 문을 바라보며 계속 분노에 어쩔줄 모르던 김학수는 얼마뒤 그 자리에 돌아서자 《에이, 별걸 다 데려다 키워놓구서는 마지막엔 별꼴을 다 보는군. …》하고 부억에 침을 택택 뱉었다. 그런 다음 김학수는 바깥방 문설주에 가 힘없이 기대여앉았다.

《저게 정말 우리 집 망신을 시키자구 저런다이까. …》 하고 안해가 바느질감을 펴며 중얼대는것이였으나 그 말은 학수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도무지 일을 성사치 못할것만 같다고 김학수는 생각했다. 외딸로 귀엽게 자라오던 아인지라 기 승한데는 있지만 자기가 시키는대로 일을 하여오던 아인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학수였다. 내 조카딸일뿐만아니라 내 집에서 심부름을 들어오던 아이고 처음 혼인말이 났을제 당자가 싫다고 하더라는 소리는 처녀들이 모두 그렇듯 부끄러워하는 소리로만 알고 더 물을 생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정하고 벌려놓은 일이 잘못되였던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뿐만아니라 형우와 성화가 좋아하는 눈치는 차리고있었으나 한집안에서 지내던 사이니까 그럴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구혼자가 돈있는 집 자식이라는 말을 성화자신 들었고 옷도 깨끗이 입고 외형이 반반한 그를 눈앞에 보면 성화의 마음도 그 편을 좋아하겠지 양똥이나 만지는 형우따위를 좋아하랴, 그렇게만 쳐왔던것이다.

그러나저러나 이제 와 파혼을 한다면 이에서 더 망신은 없었다. 화냥년을 키워오면서 사리도 모르고 남과 혼약까지 했다고 모두 웃을것만은 뻔했다. 뿐만아니라 파혼을 한다면 성화는 결국은 형우에게 넘겨주는것으로 되며 그 아니꼽고 미운 녀석을 내 집 사위로 삼게 되는것이였다. 거기다 장사하는 사람인 신랑의 아버지가 돈냥도 있는것만큼 사돈관계를 맺고 앞으로 사업같은것도 같이 하며 그 덕을 보자던 꿈도 허사로 되여버리는것이였다.

김학수는 도무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심을 채택할수가 없었다.

이튿날 새벽이였다.

밤에 양사에 나갔다 들어와 새벽에야 드러누웠는데 이내 눈을 뜬 김학수는 이불을 걷어안고 내의바람에 일어나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김학수는 담배연기너머로 문살을 바라보며 또 성화 혼인문제를 생각하고있으려니까 안해가 눈이 뗑그래서 방안에 들어섰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소? 저년이 글쎄 정말 나가버렸구만. … 원, 이런 망신이라구…》

김학수는 가슴이 쾅 내려앉는것을 느끼며 안해의 얼굴만 살폈다. 학수의 얼굴빛은 금시에 까매져버렸다.

그리고도 30분나마 문살만 바라보고앉았던 김학수는 옷을 주어입자 형우네 목장으로 나갔다. 성화가 내 집을 나간 경로도 모르겠고 형우가 어떻게 대할는지 입안이 쓰거운노릇이였으나 김학수는 형우에게 성화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형우는 《그 집 딸을 그 집에서 아시지 내 아우다?》하고 학수를 상대도 하려 하지 않았다. 분한 생각을 해서는 네놈의 작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도 싶었으나 또 행패를 볼것만 같아 학수는 형우에게 더 말을 못하고말았다.

마을에 내려가 찾아보기도 창피한 일이였다.

김학수는 집에 도로 들어와 아침을 먹은 다음 외출옷을 갈아입었다.

《정 내가 실수를 했나부다. … 이전세상처럼 그래서는 안된다고 매양 생각하면서도 또 이 실수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학수는 후회를 하였다.

학수는 안해에게 《낮에 양사에 좀 나와 도와주게. …》하고 말한 다음 집을 나섰다.

어디에든 성화는 있을것이고 우선 파혼부터 해버릴 작정이였다.

×

계속되는 불면속에, 끊임없는 잔시중속에 목장의 봄은 달음질치듯 지나갔다.

보름가까이 계속되던 추위끝에 사흘이나 불어치던 모진 바람은 훈기를 품고 들과 하늘을 휘몰아치더니 바람이 자기 시작하던 날 아침은 산이며 들이며 내가 온통 무서운 열병이라도 앓고난것처럼 변모해

버렸었다. 밤사이에 눈은 간데없이 되고 활짝 풀려버린 개울에는 누런 흙탕물이 얼음장을 뒤엎으며 넘쳐날듯이 내려가고있었다.

봄은 하루아침에 온것 같았다.

윤돌이 대신에 새 소년목부가 들어오고 십리가량 떨어져있는 이모네 집에 가있다 파혼이 된뒤 학수의 강요에 못이겨 그 집에 되돌아온 성화가 일이 바빠진 큰아버지네 양을 몰고 해쓱하던 얼굴이 환해 길섶에 나선것은 그 먼저 일이였다. 양새끼들 역시 죄 허리를 펴고 달음질이 성해졌다.

날이 더워짐에 따라 양사에서는 똥냄새, 오줌냄새, 곰팡이쓴 건초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였다.

양들은 저마다 새끼를 차고 종일 운동장이 아니면 밖에서 지냈다.

새끼를 갓낳아 분만책을 벗어나지 못한 양들만이 낮에도 분만실과 깔개풀을 새로 깔아준 1양사에 남아있었다.

어미양들이 새 움을 뜯노라 밭고랑이며 강변에 흩어져있는 사이 귀여운 새끼들은 길섶이며 잔디밭으로 몰켜다니며 먹는것보다 뛰놀기에 정신이 없었다.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처음은 가까운 길섶이나 뒤강변에서만 놀며 하루에 두번, 세번정도로 농후사료도 먹고 쉴겸 양사에 들어왔으나 꼬리를 잘리운 다음은 강을 따라 점점 먼데로 옮아가서 양사에도 점심시간에나 한번 들어올뿐이였다.

가까운 길섶이나 뒤강변에서는 대신 그 뒤에 난 어린 새끼패들이 뛰놀았다. 먼데를 도는 새끼들도 방목에 나온지 20일이 넘을 즈음부터는 아침일찌기 목장을 나서면 어슬어슬하여야 돌아왔으며 양사에 돌아와서도 맛있는 콩이나 콩깨묵을 주어도 잘 먹지 않았다.

큰 새끼들은 벌써 젖배아닌 풀배가 도드라져나오고 제법 어미들처럼 먹은것을 새김질하기 시작하고 장난도 치려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자 새끼들은 방목지로만 몰고다니면 이제는 형우가 없어도 좋다는듯이 제멋대로 자라났다.

이와 비슷한 과정은 김학수네 목장에서도 반복되였다.

김학수네 양들은 대개 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형우네 양새끼들처럼 미끈하지 못하고 잘고 약한것들이 많았다. 지난 추위통에는 갓난 새끼들이 열마리도나마 죽었었다.

4월도 보름이 다 간 어느날이였다. 이날로 분만은 마지막이였다. 물기를 거둔 마지막양새끼와 그 어미를 분만책속에 가두어놓고 어미가 먹을 사료를 충분히 준 다음 형우는 분만책옆에 쭈그리고앉아 어미양의 다함없는 애무속에 꼬리를 재게 흔들어가며 젖꼭지를 빨아당기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분만책옆 건초우에 훌쩍 드러누워 팔을 벌린 형우는 잠간뒤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직도 바쁜 때라 큰아버지네 새끼달린 양들을 몰고 오늘도 성수나 아래강변에 갔다 돌아온 성화는 형우를 찾아 형우네 양사로 갔다. 잠이 한창인 형우를 본 그는 그 발치에 우두커니 서버렸다. 성화는 분만책에 가둬놓은 갓난 새끼를 보고 그것이 마지막분만이던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눈을 형우의 얼굴우에 가져갔다.

오늘은 어쩐지 뺨에 불깃불깃 열기까지 보이는 형우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이 까칠해보였다. 새끼로 허리를 동인 큰저고리며 큰 바지, 큰 버선은 지난 2개월의 그 고투와 피로라도 아로새긴듯 피와 양똥과 양모에서 묻은 기름과 분만시의 불결한 액체들이 지덕지덕 붙고 번들번들 얼룩이 져 똑 잘 이기지 못한 가죽처럼 굳어버렸었다.

성화는 깨우려던것도 말고 자기가 입었던 녀자용외투를 벗어 다리우에 가리워준 다음 자기 집에 도로 나와버렸다.

그로부터 4～5일동안 형우의 잠은 다잡을 길이 없었다. 앉기만 해도 눈덕은 지덕지덕 내려앉고 잠만 들면 초저녁에 누웠어도 이튿날 아침해가 떠서야 깨였다.

다시 몸이 개운하여진 형우는 전양사내외의 소제에 들어붙고 양새끼의 나머지 꼬리들마저 자른 다음 이어 털깎기에, 새끼양들의 젖떼기에, 양모납부에 계속 겨를이 없었다.

분만성적과 양모성적은 전도내에 알려졌다. 평소의 사양관리는 분만에도 양모에도 그대로 반영된것이였다.

양모납부를 끝마친 날 군내 면양일군들의 좌담회석상에서 양모납부 상황을 시찰하러 온 도인민위원회 축산과장이 청하는대로 자리에서 일어선 형우는 무거운 눈길을 몇번이고 책상우에 떨어뜨리며 뭉툭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제… 애쓴것을 공개하는것은 쑥스럽기 끝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성적이 아직 만족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남보다 앞서는 성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모멸과 학대속에 살아온 저같은것도 인간값에 들뿐만아니라 나라의 역군으로 일할수 있는 세상을 비로소 만났다는 생각에서 온것입니다. 조국의 통일독립에 기초가 될 경제계획달성에 어떻게 하면 저로서의 최대의 힘을 바칠수 있을가, 이것이 저의 명심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민청이 가르쳐주고 새 제도가 가르쳐준 생각들이였습니다. … 우리 제도를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있는 모든것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 학리와 경험을 존중히 하는 점에서는 가는 털 한오리, 새끼가 빠는 젖 한방울에까지 1년 365일의 어느 하루도 관계되지 않는 날은 없다는 이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했을따름입니다. …》

×

양모를 납부하고 돌아온 며칠후 형우는 학수네 목장에 들렸다가 나오는 길에 성화를 불러 삼룡이가 양을 몰고 나간 가까운 버들밭에 같이 가자고 이끌었다. 형우는 흰샤쯔에 밀짚모자를 쓰고 성화는 베적삼에 검정치마를 입었었다.

8월 15일이 며칠 안 남은 밭에는 곡식들이 무성하였다.

신작로에 나선 둘은 웃쪽을 향하여 시름없는 발을 옮겼다.

형우는 어쩐지 성화와 서로 약혼의 언약이 있은 2월의 그 눈온 이튿날 밤 일이 생각되였다. 그리고 그전 눈오던 날 밤일이 생각되였다. 형우는 흐뭇한 마음이였다.

두어발자국 앞서가던 성화가 길섶에서 돌을 줏자 콩밭속 전선주옆에 행길쪽을 괜히 보고섰는 개에게 던졌다.

돌은 맞지 않았으나 몸을 움쭉거리며 도망가는 개를 재미있는듯이 바라보던 성화는 이윽고 얼굴을 돌리더니 형우에게 어린아이처럼 웃어보였다. 그런 다음 먼 푸른 산을 바라보며 느린 발을 옮기던 성화는 또다시 형우쪽에 얼굴을 돌리더니 《그래 새 목장에는 언제 가게되오?》하고 물었다.

갓 단 새하얀 동정이 유난히 눈에 띄였다. 일기도 좋거니와 성화의

얼굴은 오늘따라 한결 붉었다.

《아마 9월 하순경이나 되겠지…》

그러자 성화는 혼자말처럼 《모두 떠나가면 집이 빈것 갈겠습…》 하고 중얼거렸다.

《성화두 우리를 따라 이내 와야지. …》

형우를 따라 이내 새 목장에 가리라고 자신 늘 생각해온것을 즐겁게 돌이키며 성화는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있다가 《그래 새 목장에서는 양을 얼마나 먹일수 있음?》 하고 여전한 즐거운 얼굴로 물었다.

《3천마리야 먹이겠지. …》

《그러면 양사는 되우 크게 지어야겠구만. …》

《금년에 지은것만 하더래두 우리 양사의 다섯배는 될거야. …》

《그리구 또 짓소?》

《자꾸 짓지. 양사만 짓는게 아니라 주택두 짓구 회관두 짓구 체육장두 짓구 털실을 내는 작은 공장두 짓구…》

《그럼 참 좋겠네. …》

둘은 즐거운 얼굴로 마주바라보았다.

《그것뿐이 아니야. … 신작로를 닦아서 자동차두 다니게 하구, 전기두 가설하구…》

《그러면 도회지같게?》

《도회지 부러울게 없지. …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차츰 할일이구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이지. …》

《그렇지만 얼마나 재미있소?》

《거기서 우리는 봄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양새끼를 내우구 그게 끝나면 양들하구 방목장에 나가구… 그러구 밤이면 공부를 하구 회의를 열구… 배우구 생각하구…》

형우는 성화의 불깃불깃한 탄력있는 얼굴을 다시 돌아보았다.

성화는 취한 사람 모양으로 웃음어린 눈길을 가늘게 떴다. 성화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재게 놀리며《나는 그럼 실뽑는 그 조고맣다는 공장에서 일을 하겠음…》하더니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오무렸다.

《좋지, 그것두 좋지. … 그래 사내들한테 양털을 더럽히지 말라구

공격을 하구…》

둘은 또다시 어린아이들처럼 맞바라보며 웃었다.

언덕우에 다달았다.

둘의 눈앞에는 사방에 흩어져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있는 버들밭과 개울들을 끼고 무연히 뻗어올라간 잔디밭이 펼쳐졌다. 양들은 모두 한자리에 서고있는것 같으면서도 앞서며뒤서며 늠실늠실 저마다 부단히 움직여갔다. 그리고 물레방아가 있는 가까이 버들밭 그늘에는 다리를 쭉 뻗고앉은 삼룡이가 할일없이 나무채로 땅을 치며 양을 바라보고있었다. 둘은 양의 머리에서 눈을 옮기지 못하며 언덕길을 내려오다 버들밭가까이 황철나무그늘에 다달으자 모래불우에 형우는 무릎에 깍지를 끼고앉고 성화는 황철나무밑둥을 붙잡고 섰다.

둘은 그루너머가 보이지 않는 무성한 버들밭속을 새여들고 새여나오는 양들을 시름없이 바라보았다.

얼마후 성화는 생각난듯 《내 개미를 따오겠음…》하고 돌아섰다.

성화가 가버린 다음 형우는 깍지낀 손을 그대로 머리뒤에 넘기며 모래불에 드러누웠다.

구름쪼각이 흩어진 하늘은 시원스럽게 푸르렀다.

심심한 삼룡이녀석이 부는듯 피리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버들밭속을 흐르는 개울물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알수 없는 고마움이 가슴을 흐뭇이 쳐받아왔다.

1947. 2.

오　월

천 세 봉

《이러ㅡ낄낄, 이놈의 소 좀 재우재우 걸어가자ㅡ》

형추는 널직한 손으로 소의 부드러운 엉심을 철썩 때린다. 그러나 소는 그것쯤엔 소파리가 따끔하는것만큼도 자극이 안 간 모양으로 한결같은 보조로 느릿느릿 걸어가고있다. 두엄을 퍼싣느라고 소몸뚱이엔 온통 누른 소똥부스레기가 덮이였다. 항상 소를 아끼고 조석으로 소를 닦아주고 하는 형추이지만 일에 대들면 이런 사소한것엔 일체 무관해지는것이다.

더구나 오늘 아침에 형추는 맘이 무던히 바빠났다. 벌써 치서네가 두엄을 다 내였으리라고 짐작을 하니 그냥 속이 조마조마하게 들쑤시여 조반을 먹듯마듯 두엄을 퍼싣고 떠난 길이다. 식후에 피는 담배도 소를 앞세워놓고야 피워물었다.

《와와ㅡ 이놈의 소가 늘 다니던 길두 몰라ㅡ》

형추는 소고삐를 곁으로 끄당겼다. 소가 논곬으로 가는 길로 들지 않고 갈림길에서 걸음을 빗놓았던것이다. 소는 고삐를 잡아당기는 통에 코구멍이 일그러져 궁둥이를 춧석 들먹거리며 쪽을 비척거린다. 그득 퍼실은 두엄이 기슭으로 부실부실 흘렀다. 형추는 흘러내리는 두엄덩이를 주어올리며 이번에는 들먹들먹 걸음이 재여진 소에게 애걸이나 하듯이 작은 소리로 《와와ㅡ 살금살금 걸어올라가자, 응ㅡ》하고 아이를 타이르듯 뇌이며 뒤꽁무니를 슬슬 문질러준다. 소는 경사를 더벅더벅 올라가며 벌찍하더니 솥뚜껑같은 똥을 싸굴린다. 형추는 얼른 기르마우에서 삽장을 뽑아 김이 물물 풍기는 소똥을 짐바리우에 떠올린다.

논곬에 들어서니 아닌게아니라 형추네 논배미아래 치서네의 휘엿한 논판에는 두덕두덕 묘떼같은 두엄무지가 그득히 들어앉았다. 형추네 논판은 깜깜히 비여보이지만 치서네 논은 속이 그득 들어보인다.

길조라고 하는 까치들까지 푸더덕거리면서 거름무지를 타고앉아 주

절거리고있다. 어느새 아래배미에 두엄을 잔뜩 헤쳐놓고 한귀퉁이에서 치서가 겁신겁신 쇠스랑질을 하고있다.

《허ㅡ 령감은 나보다 한손 빨렀는데.》

형추는 치서를 내려다보며 말을 건넸다.

《아, 인젠 나오?》

치서가 이러는 말이 무슨 악의가 있는 소린 아니지만 어째 형추의 비위를 건드렸다.

《그럼 인제 안 나오구 령감처럼 밤부터 나와 할가?》

형추는 비꼬는투로 이렇게 대답한다.

《일이 바쁘면 밤낮이 없지요. 요샌 달두 좋은데 출분하는것쯤이야.》

치서도 좀 엇가는 소리를 하고는 손바닥에 침을 퉤퉤 뱉고 쇠스랑자루를 감아쥔다.

형추는 소를 채찍질해 몰며 《흥ㅡ 중이 고기맛 들이더니 빈대 잡어 먹드라구. 령감이 심이 피드니 죽을 날두 모르는 모양이군.》하니까 이 말을 맞받아 치서는 크게 하하 웃고 《피차 그렇지. 령감은 지금 나이 몇이우! 불원에 환갑인데 그래두 누구 소리를 할가?》 치서는 이렇게 웃음의 말을 하면서 펑펑 논바닥을 찍어 당긴다.

벌써 치서의 정갱이뒤엔 찍어엎은 흙이 규모있게 줄을 지어 번들거린다.

형추는 논머리에서 넙적다리까지 걷어올리고 소고삐를 지고 논으로 들어갔다. 속이 푹 익어 논판은 부글부글 괴였다.

디디면 발바닥이 근지럽게 물씬거리고 발뒤꿈치를 쪽쪽 빨아당겼다.

형추는 다리를 뽑아옮기며 혼자소리로 《흥ㅡ 땅이 먼저 시절을 아는구나.》하고 중얼거린다.

논에 두엄을 쏟아놓기 바쁘게 간장같은 누런 물이 풀려나간다. 형추는 논머리에 벗어놓았던 고무신을 한손에 들고간다. 방문앞 거적에 진흙발을 문지르고 방으로 들어온 형추는 옆구리에 찼던 안경집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퇴창밑 어둑시근한 선반아래서 무엇을 열심히 찾아보고있다.

거기 벽에는 영농계획표가 붙어있는것이다. 아침에 민청 련락사업으로 읍에 갔다와서 늦조반을 먹던 아들 종세가 아래방에서 멍히 올

려다보다가 《아버지, 뭘 그러우?》하고 물었다.

그래두 형추는 손가락으로 내려짚으며 한참 보고있더니 《허허— 제가 암만 그래두 우리 계획만치는 못했어.》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뭘 그래요?》하고 아들이 재차 물었다.

《치서네 두엄 낸것과 우리 계획한것과 비교해보니까 우리것이 열두바리가 더 많구나.》

벌써 형추는 치서네 논판에서 두엄무지를 죄다 세여보고 내려온것이다.

《그런데 이거 야단났구나. 오늘부터 사흘동안에 논흙을 말짝 실어내야지 그러찮으면 자꾸 계획이 틀려가는구나. 벌써 치서는 오늘부터 논쪼이를 시작했다. 오늘 너는 그걸 가서 마저 파내라. 래일까지 파내면 그건 다 될게다.》

종세는 부친이 떠들며 야단을 하는통에 얼떨떨해서 부친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

《그래, 논흙 내는건 내가 죽고 번져두 사흘동안에 다 파낼라. 걱정을 말아. 조참봉네 텃자리 파내는것두 네가 이틀만 하면 돼— 되구말구.》하면서 형추는 담배대를 뽑아 잔등을 긁었다.

《온 아버지두, 너무 그렇게 서둘지 않아두 돼요. 계획날자에 하루쯤 틀리면 어쨰우? 계획을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다간 페단이 생길지도 몰라요.》

결국 아들은 부친의 건강을 념려해서 했던 말인데 부친은 벼락같이 아들한테 질책이다.

《녀석 댕기며 그렇게밖에 못 배웠니, 응? 계획이란건 계획대루 꼭꼭 제때에 해야 한다. 하루쯤이라고 우습게 알지만 동리사람이 죄다 그래봐라. 동네계획이 틀려지고 그럼 나라의 전체 계획은 어떻게 설가?》

그 말에 종세는 말이 막히였다. 추호도 아버지의 말은 그릇된데가 없는것이다.

종세가 아침상을 물리고 문을 여니까 벌써 부친은 한바리 떠신고 이번에는 자기도 지게에 한짐 가득히 지고 소를 몰고 행길로 나가고있다. 종세는 문을 닫고 영농계획표를 흘끔 바라본다. 큰 먹글씨로 쓴 동네의 영농계획표아래에 서툰 연필글씨로 오불꼬불 써붙인 개인영농

계획표가 붙어있다.
이게 부친의 수서인것이다. 부락농민동맹에서 동네의 일률적인 영농계획표가 정월달에 각 농호에 배부되였다. 그 계획서의 첫머리를 대충 적어보면 첫째 춘기 파종으로 감자밭갈이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잡곡 밭갈이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모판 파종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논갈이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모내기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런 식의 영농계획표가 각 호에 나누어졌던것이다.
형추는 이 계획표를 받아보고 아들한테 이 계획표는 못쓰겠다고 하였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 돼서 있으나없으나 한계라고 하면서 동네 젊은 간부들을 나무라는것이다. 종세가 웃으면서 그것은 동네의 전체적인 계획이기때문에 그렇게 대분해서 추상적이지만 각 농호에서 여기 의거하여 그 정형에 알맞도록 다시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형추는 《옳지, 옳지.》하고 무르팍을 때렸다.
그러더니 그날 밤 형추는 아들의 책상을 차지해놓고 그 계획표를 꼭꼭 짚어가며 무엇을 밤새도록 빡빡 썼다. 지난 겨울 떼여낸 국문으로 연필끝에 침을 발라가며 밤새워 쓰더니 그 이튿날 낮까지 검토하고 고쳐쓰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날 밤 가족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으라고 명령하였다.
식구들을 죄다 모여앉히고 형추는 손수 만들어낸 금년도영농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속에는 금년도에 할일이 너무 자상히 적혀있다. 첫째 밭갈이에 있어서 조, 피, 콩, 수수, 팥 이런 구별로 밭갈이할 날자가 꼭꼭 정해있고 거기다가 여유날자를 이삼일씩 포함시켰다. 그것은 우천(비가 오는 날)을 예상한것이다. 섶동을 치는 일, 논두렁을 뜨는 일, 재를 실어내는것, 두엄을 실어내는것, 심지어 어느 논, 어느 밭엔 소똥두엄을 몇바리, 재가 몇바리, 인분이 얼마 이렇게 치밀하게 짜놓았다. 그리고 조참봉네 터를 파내여 논을 만드는 일, 돼지를 치되 새끼번식을 몇마리, 소, 닭, 개 이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진것이 없다. 형추는 이것을 한가지한가지 읽으면서 이게 어떠냐고 식구들한테 의견을 묻는다. 약간 수전기가 있어 후들후들하는 계획서의

종이발을 지키면서 식구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다 읽고난 형추는 《자, 물을게 있으면 묻구 틀린게 있으면 말해봐라.》하고 휘— 방안을 돌아본다.
《없어요. 정말 박사네. 아반은 농학박사야.》
녀자중학에 다니고있는 막내딸 귀분이가 입빠르게 감탄하였다.
《흐흐— 이년의 계집애, 그럼 한평생 공부한건데 그만치두 몰라.》하고 밥풀을 가져오래더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농계획표 두장을 벽에다 정성스럽게 붙이였다. 그러더니 뒤로 한발 물러서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며 《허— 저걸 금년에 다해야 되는구나. 어디 일심바쳐 해들보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감격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있던 귀분이가 박수를 두드렸다.
다른 식구들도 이 영농계획표를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를 쳤다.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영농계획표를 이들 식구들중에서 어느 한사람 소홀히 생각한적이 있으랴만 누구보다도 형추자신은 이 계획표에서 날자가 하루만 어기여도 안된다고 생각하여오는것이다.
그래서 아들 종세와 이따금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있다.
종세의 주장은 그 계획을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해나갈게 아니라 림기응변해서 다소 계획엔 틀리더라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수 있게 창의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거다. 그러나 형추는 그런게 아니였다. 이 계획에서 한픈만 틀려도 전체 영농계획이 틀린다고 하였다.
종세가 밖으로 나오니까 부친이 파헤쳐놓고 간 두엄더미에 한달전에 분만을 한 돼지새끼들이 모여들어 두엄을 뚜지며 꿀꿀거리고있다. 김이 뭉뭉나는 두엄무지에 등을 가지런히 하고 꿀꿀대는것이 무척 귀여워 한놈 담쑥 들어올렸다. 빳빳하게 족을 바둥거리며 꽥 소리를 지른다. 주둥이와 족에서 두엄의 구린내가 훅 풍긴다. 다른 놈들이 빽빽거리며 울바자밑으로 달아나니까 우리안에 있는 큰놈이 시꺼먼 눈을 살밖으로 내대고 꿀꿀거린다. 종세는 돼지새끼를 놓아주고 우리안에다 짚갈비를 한아름 처넣어주었다.
돼지는 배를 창살에 씩씩 문지르더니 푹신한 짚자리에 몸을 곤지며 씩하며 숨을 톺는다.
《흥, 넌 벌써 올해 헐일 다하구 이젠 상팔자로구나.》
종세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길에서 종세는 부친이 흙

종아리로 소뒤를 따르고있는것을 보고 안된 생각이 들어 일손을 바꿔 하자고 말했다.

《네가 나보다 낫대서 하는 소리냐? 내 걱정을랑 말구 왜 올라올 길에 두엄을 한짐쯤 지고 오면 어떠냐?》 도리여 이런 책망으로 아들의 연장을 얹어놓은 지게를 쏘아보는것이다. 종세는 부친과 갈려서 손골 일터에 올라왔다.

작년 개답한 논결에 있는 조참봉네 터다. 조참봉이 주르르 행랑을 돌리고 종을 부리며 당대를 찡찡 울리며 살았다는 곳이다. 아래쪽 구답논과 함께 이 터전은 형추가 밭으로 분여를 받았던것인데 작년에 한쪽은 논을 만들고 한쪽 변두리가 남아있었다.

안채와 사랑채의 구들굢자리 있는데와 나무뿌리가 엉켜붙은 담장 아래자리를 갑자기 하는 수가 없어 작년은 다소간 밭을 만들고 남새를 심었다.

이것은 금년엔 모조리 논을 만들 작정으로 벌써 여러날째 역사를 들여오는중이다.

종세는 연장을 내려놓고 얼른 돌아왔다. 담배 한대를 피웠다. 그러면서 일감이 얼마나 품을 넣으면 끝을 볼가 하는것을 눈어림으로 두루 짐작해본다.

높은데 흙을 파내는것은 고작해야 오늘 늦도록 힘을 들이면 될것 같고 그담에는 그 육중한 은행나무뿌리를 파내려면 품자리나 단단히 걸릴것 같다.

종세는 궁둥이를 털고 일어나 흙을 파기 시작하였다.

삽모가지가 휘게 흙을 도려서는 낮은 웅뎅이에다 처넣는다. 흙이 때릴 때마다 변두리가 쿵쿵 운다. 구들굢자리에서는 아직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이따금 삽끝에서는 기와장 부스레기며 검은 돌멩이가 걸리여 일어난다. 그런것은 모조리 아래쪽 언덕으로 주어냈다.

언덕우엔 작년부터 이 터전에서 주어낸 돌무지가 살이 썩은 뒤에 우구구 물러앉은 개뼈다귀처럼 여기저기 쌓여있다.

따스하게 한낮이 가까워 종세는 등골로 땀이 흘러내리였다. 웃동에 걸치였던 속적삼까지 벗어던지고 구리빛몸뚱아리로 흙을 파기 시작한다. 그의 팔은 칙근칙근하면서 무쇠뭉치처럼 놀았다.

옆도 안 돌아보고 파내는 동안 부친은 벌써 여러바리째 왔다갔다.

《이 사람, 거 힘들지 않나? 좀 쉬여 허게나.》

종세가 흙속에서 돌을 뽑느라고 엎디여 끙끙거리고있는데 치서가 담배를 피워물고 등뒤에 와선다. 종세는 상기한 얼굴을 힐끈 돌리고 웃으며 《힘들어두 이걸 래일까지는 완수해야 하겠수다.》하니까 《허 이 사람, 꼭 아버지성미를 닮았네. 거 래일까짐나 살구 그댐엔 안 사나? 하하—》하고 웃는다.

《자네 담배 필줄 모르나. 슬금슬금 한대씩 피워가며 해야 일이 푹푹 자리가 나네.》

《전 아즉 담배 못 배웠수다.》

종세는 스물다섯살이나 됐어두 아직 이상어른앞에서 담배를 빼물어 본적이 없다. 피우게마련인건데 버젓이 내놓고 피우면 어떠냐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정작 그렇게 되지 않았다.

치서는 담배를 피워물고앉아 넌지시 미소를 띠고 종세가 굽석거리는것을 바라본다. 붉은 웃통이 징글징글하고 팔뚝의 여기저기가 개구리 삼킨 뱀처럼 근육이 불룩불룩 일어섰다.

《거— 웃도리가 굳건하네. 왼통 구리쇠기둥 같애 보이네. 저쯤하면 무서운게 있겠나?》하더니 치서는 다시 《금년 5.1절에는 씨름판을 한번 막아보게.》하고 느긋이 바라보고있다.

《온 아저씨두, 씨름커녕 샅바를 어느 다리에 끼는줄두 모르우다.》

종세는 빙그레 웃었다. 얼마후 그는 좀 쉬려고 치서의 곁에 가앉았다.

치서는 논배미를 휘— 돌아보더니 《이러나저러나 논 한배미 잘 만들었네.》한다.

《뭐 시원히 안될게우다. 모두 파낸 자리가 돼서요.》

《일없네. 두엄만 많이 넣어보게. 두엄데미우에서야 안되는 곡식이 있나?》

치서는 불쑥 생각이 난 모양으로 《망할 놈!— 억만대를 누릴것처럼 작인을 못살게 굴더니 인제 터가 논밭이 되는군.》하며 중얼거린다.

조참봉의 이야기인것이다. 치서는 금방 눈앞에 원쑤를 보는듯 속이 울떡해진 모양으로 목소리가 조금 흥분해서 《자네 부친과 나와 바로 이 은행나무에 결박이 되여 겨울밤에 꽁꽁 얼어서 초죽음이 됐더랬네. 생각할수록 이가 갈려서.》하고 씩씩거렸다. 이 소리는 종세가 여러번

들은 말이요, 듣는 때마다 관자노리에 고기밸같은 피줄이 동해 올랐다.
종세가 고추를 내놓고 뛰여다니던 때의 일이다. 치서와 형추는 조참봉이 해마다 소작료를 올려대는 일에 분개하여 마을 어느 좌석에서 분김에 몇마디 쏟아놓은 욕지거리가 조참봉의 귀에 들어가 당장 경찰서와 밀통하여 경관을 불러댔던것이다.
너희 두놈이 무고한 동네 사람을 선동한다고 이것저것 죄명을 지워가지고 둘을 한줄에 묶어 우선 은행나무에 찬찬 매여놓고는 나왔던 경관놈들은 그놈의 집에서 술놀음을 폈다. 질탕하게 처먹고 녹초가 되여 경찰서로 호송할것도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날 밤 둘은 윙윙거리는 바람속에서 이를 뿌등뿌등 갈았다.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 모여서서 눈물을 삼키며 쿨적거리고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깨물며 눈물을 좍좍 쏟았다.
《저놈이 해방되자 들고뛰였으니망정이지 내 손에 붙들리기만 했으면 그저!—》
치서는 나무통에 대통을 땅땅 두드리며 목줄엔 부리부리한 피줄이 일어섰다. 묵묵히 머리를 떨어뜨리고앉아 듣고만 있는 종세도 새로운 분노가 목구멍까지 괴여오른다. 실상 조참봉이 달아나고 그놈의 식구가 모두 남쪽으로 내뺀 담에 동네에서 이 집을 공회당으로 옮겨짓자고 먼저 주장을 들고나온게 종세이고 집을 허는 날 먼저 분노의 도끼로 세멘트벽에 벼락을 내린것도 종세이다.
《아저씨, 인제 그만 얘기허우다. 그까짓 소리해야 속이나 자꾸 떨렸지!》
종세는 애써 기분을 돌리려는듯 후닥닥 일어서더니 팔을 제껴 동가슴을 내밀고 큰 기지개를 켜며 돌 하나 집어 씽하니 팔매를 놓았다.
돌이 떨어지는 언덕우 돌무지에선 까마귀가 까왁하더니 비츠락비츠락 날개를 파닥이며 떠오른다.
어느새 보았는지 치서는 얼른 일어서 아래쪽 논에다 대고 소리지른다.
《이리 올라오너라. 거기는 땅이 습해서 앉을 자리가 없다.》
치서의 딸 서분이가 점심을 이고 온것이다. 종세는 얼른 적삼을 걸치고 흙을 파기 시작한다.
점심참까지 예정했던데가 아직 조금 남았다. 부리나케 흙을 파던지려니까 치서가 점심임을 받아놓고 《이 사람, 자네두 이리 와서 함께

하세, 응?》하면서 종세를 부른다. 종세가 돌아다보니까 막 서분이가 다소곳해서 치서의 앞에 음식그릇을 옮겨놓고있다.

《어서 잡수다. 나두 점심을 가지구 왔어요.》

《아따, 그럼 함께 와서 먹지. 거 무슨 진미를 해가지고왔게 혼자 먹겠나?》

《허허, 아저씨두…》

종세도 웃으며 삽가래를 흙속에 꾹 찔러놓고 우선 먹기 전에 시원히 얼굴부터 좀 씻으려구 언덕아래 있는 샘도랑으로 내려갔다.

개울속에 엎디여 한참 푸푸거리며 얼굴을 문대고 허리를 펴는데 어느샌가 언덕우에 서분이가 와서 대접을 들고 망창히 지켜보고있다.

한마을에 살지만 키가 멀쑥해지면서부터 서로 수집어하는 새다. 더구나 시시덕거리는 성미가 아닌 종세인지라 얼른 자리를 피해 한쪽에 나섰다. 서분이는 꼬부라진 언덕길로 치마앞을 휩싸고 조심히 내려오더니 샘가에 사뿐 도사리고앉는다. 그러더니 대접으로 물을 뜨다말고 빤히 물판을 지키며 앉아있다.

개구리란 놈이 요사스레 물판에 덤벙 뛰여들어 흙물을 일궈놓았던 것이다.

물뜨러 내려간 딸이 한참동안이나 감감하니까 치서는 밥숟갈을 든채 엉거주춤히 일어서 뜻있는 웃음을 입에 띠고 언덕아래를 기웃이 엿본다.

딸은 앉았고 종세는 섰다. 치서딴엔 귀결에 분명 소근거리는 얘기소리가 들려진것 같은 감으로 얼른 질겁해서 도로 앉았다. 조금 있더니 서분이가 찰찰 랭수대접을 받들고 둘이 올라온다.

종세의 앞에서 약간 구부정하고 올라오는 서분이는 확실히 다 자란 처녀였다.

가느스름하게 두른 남깃소매와 허리에 기다랗게 감도는 진자주고름이 더 한층 서분이가 다 자란것을 눈에 띠게 한다.

치서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딸과 종세를 흘금흘금 건너다보며 있을듯싶은것을 은근한 마음으로 찾는다.

그날 흙을 파내는것은 끝을 내였으나 나무뿌리를 뽑아내는건 그 이튿날 저녁에도 끝이 못났다. 푹신한 흙밥을 삽으로 짚어들어가면 갈수록 나무뿌리는 아지를 차고 땅속에 꽉 찔렀다.

조참봉네가 6대나 사는 동안 유들유들하게 살찐 조참봉의 송아지만치나 땅기름을 말짱 빨아먹고 싱싱하게 뻗어내린 뿌리다.

웃도리는 작년에 베눕혔는데두 아직 도끼날을 박는대로 물이 질벅거린다.

몇뿌리 작은 놈을 캐내고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친이 마지막뒴바리를 부리우고 소를 논뚝에 매놓고 어슬렁어슬렁 올라왔다.

《야— 그놈에게 품이 조이 걸리는구나. 아무래두 다 못할차부면 인제 내려가자.》

형추는 바지괴춤에 손을 질고 여기저기 두런거리며 살펴본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비로소 유한한 시간인듯 담배를 뻑뻑 피우고섰다. 연장을 걷어지고 논두렁에 내려오니 어느새 들녘에 땅거미 아슬거리며 기고있다.

《인제는 두엄은 다 냈다.》

형추는 논머리에 와서 대견한듯이 논배미들을 돌아본다. 실상 치서네 두엄무지보다 한결 배직이 논에 깔리였는데 이것은 이틀동안 부친이 전부 운반한것이다.

본시 예정은 사흘동안에 하려는 일을 이틀동안에 해내였다.

형추는 오늘과 어제동안 등짐을 지고 소를 몰고 예순번을 오르내리였다.

그것을 펴놓으면 삼백리는 실히 될거다.

종세에겐 도리여 부친의 극성이 걱정스러워 후줄근해진 부친의 어깨팍을 근심스러이 바라본다.

형추는 아직 흙묻은 종아리도 씻지 않은채 맨발로 둔덕에 서있다.

《그런데 저 웃배미는 땅두 본시 좋은데다가 웬 뒴을 저렇게 많이 냈소?》

《그건 그럴 일이 좀 있다. 그게 애국답이다.》 하며 형추는 웃는다.

《애국답이라니?》

《흐흐흐, 모르겠니?》

형추는 대통을 신바닥에 툭툭 털며 말을 잇는다.

《금년엔 저 배미에다 특별히 정성을 들여가지구 나두 내 나라의 농민구실을 좀 해야겠다. 어디 애국미 한가마니 못내고 이게 원, 나라백성이 됐니?》하면서 아무 말이 없는 종세를 빤히 보더니《네 생각

엔 어떠냐? 그게 좋음직 허냐?》 하고 묻는다.
이 순간 종세는 무어라구 대답할지 말이 막혔다. 그게 좋겠다는것쯤의 단순한 말로 이 한가슴의 충격을 전할수 없다.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형추는 약간 노엽이 낀 소리로 다시 묻는다.
《왜 말이 없니? 좋지 못허단 말이냐!》
《급자기 가슴이 억해 말할수 없수다.》
《흐흐, 가슴이 억해 말할수 없다… 야— 그 대답이 그럴 법하다. 본시 맘이 격해지면 말이 안 나가는 법이니까. 아무튼 둘이서 힘껏 해바치자꾸나.》
종세가 소를 앞세우고 부친의 뒤를 따랐다. 부친은 치서네 논을 지나 내려오며 치서가 이틀동안에 쪼아 번진 논을 내려다보고《아무래두 이자가 우리보다 한결 빨랐어. 이제 한배미만 쪼면 구답은 필하잖나?》하고 속으로 무얼 따져보는 모양이더니《어제와 오늘본새로 며칠만 다그치면 따라가지.》 하고 또 중얼거린다.
형추는 동네에서 제일 모범농민이라고 하는 치서와 벌써 작년부터 속줄로는 무슨 일이든지 경쟁하는 습관이 배겼다. 치서네보다 무슨 일이든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만 하면 형추는 등이 달아 못 견디는 성미다.
형추는 종세의 뒤를 따라오다가 코피를 쏟았다. 길옆에 구부리고앉아 한참이나 신고하다가 겨우 종세가 비벼준 마른 쑥으로 코를 막고 집에 돌아왔다.
혹시 누워앓을지 모른다고 종세가 은근히 걱정을 하며 내려왔는데 부친은 오듯마듯 랭수에 얼굴을 와락 씻더니 고대 생기가 나서 저녁을 한그릇이나 굽히였다. 종세가 민청학습회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부친이 보이지 않아 어머니에게 물으니까 마을로 나가신게라고 하였다.
종세가 자리를 보고 누우려는데 바깥마당에서 무엇이 쿵하고 내려지는 소리가 요란히 났다. 무슨 소린가 해서 발맘발맘 종세가 마당으로 나오니 부친이 옷자락을 활활 털며 안마당으로 들어선다.
《엥이, 그놈이 살던 터에서 나무뿌리까지 내 손으로 말짝 뽑아왔다. 어— 시원해.》
부친은 벙글거리며 손을 털었다. 그 무거운걸 어떻게 지고왔는지 사

슴의 뿔같은 은행나무뿌리가 네족을 버둥기고 달빛아래 벌렁 자빠져 있다.

모판손질이 시작되였다.

벌써 콩밭갈이를 내놓고는 갖은 잡곡파종은 다 필했다.

인제 로력은 전부 논일에 들부어 모판손질을 하고 락종을 하고 논을 쫓고 갈고 하여야 할판이다. 형추네 모판은 치서네 모판과 아래웃배미에다 만들었다.

우선 벼뿌리를 말끔히 뽑아내고 가지깊은 쇠스랑으로 절칵절칵 찍어넘기고 번지르 밀었다.

가뜩이나 물기 좋은 흙성에 이겨놓으니까 팥죽가마처럼 흐물거리였다. 작년에 씨가 얼마쯤 삭아서 애를 먹은 경험이 있어 올핸 한알두 실포없게 해야 된다고 갖은 정성과 애를 다 들였다.

모판에 락종을 한 뒤엔 밤에도 거의 논두렁에서 살았다. 모판의 물시중과 본답의 물시중으로 온 신경을 써가며 밤이슬을 맞으며 뛰여다녔다.

그러던 형추는 고된 몸에 신음신음 징후가 좋지 않더니 와짝 신열이 올랐다.

누운 이튿날 아침 형추는 겁에 질려 의원을 불러오라고 야단이다.

《허— 이게 몸살만 갈지 않어. 내가 이거 죽을 병 들지 않었나.》

형추는 욱신거리는 관자노리를 연신 만져보고 손으로 주먹을 만들었다 폈다 야단이다.

정말 죽을것만 같은 예감으로 논배미, 모판, 춤추는 밀밭 이런것이 두서없이 자꾸 몽롱한 정신에 매달린다. 개나리핀 밭뚝이 보이고 졸졸 흐르는 논고물소리가 들리고 이러다가 찬물수건에 정신이 횅해져서는 의원이 안 왔느냐고 무시로 재촉이였다.

《선생님, 이게 무슨 병이요? 죽을 병이요? 살 병이요?》하면서 발갛게 피가 낀 눈으로 바라보며 급급하게 묻는다.

《허허, 그렇게 급급해하시면 못씁니다. 맘을 안정하시오. 뭐 한 이삼일 고생하시문 나어날건데요.》하니까《선생님이 아시는 소리 하는군. 몸살이지요? 그래 꼭 몸살이라니까.》하고는 맘이 푹 놓여서 손길을 펴뜨리고 빙긋이 웃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열은 고비에 올랐다. 약을 달여 마신 뒤에 조

금 있더니 《에— 시원하다. 너 우리 논 귀사리에 있는 샘물을 퍼왔구나. 물맛은 그게 젤이야. 에— 시원해.》하고는 또 조금 있더니 《저놈이 꼭 병증이야. 샘바닥의 엽가재를 떠다가 날 먹였어. 엥이, 구역난다.》하고 형추는 타는 입술을 튀튀하며 자꾸 비벨는다.

식구들은 눈이 둥그래서 둘러앉아 한밤을 꼬박 밝혔다.

그러더니 정말 의원의 말대로 사흘만엔 열이 내리고 미음을 마시고 몸을 편안히 자리에 뉘인다. 그제야 다리 쏘는것을 알게 되여 주물러달라고 하더니 두드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부러져라고 밟으라는거다.

거의 나을무렵에 의원이 또 한번 와서 《이후엔 너무 일을 하지 마시오. 몸이 고되면 병이 자조 납넨다.》 하니까 형추는 《온, 별소리다 하시우. 오늘날같은 세상에 일많이 하는것두 제 분복인데 더러 병두 나야 선생님같은이가 돈벌이 하지요.》 하고 웃었다.

자리에 누웠던 형추는 모자리에 갔다온 안해를 보더니 앓던 사람같지 않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모자리형편이 어때?》

《어떻긴 어때요? 잘 돌아섰지요.》

《거저 덮어놓구 잘 돌아섰대문 아나? 어때, 요만침 자랐어?》 하고 손가락을 쳐들어보인다.

《아마 그만은 허겠지요.》

《그럼 물은 밤엔 얼마씩 대구 낮엔 얼마씩 대두나?》

《애구— 별것 다 묻네. 밤엔 많이 대구 낮엔 적게 대구 그러지요.》

《온 저게 답답한 물귀신이라니까. 물대는것두 모가 자라는 형편 보아가며 꼭꼭 치수가 있는 법이야. 그담엔 뿌리는 다 단단히 박았던가?》

《애구 모르겠수다. 원, 급하문 어서 나가 보우다나. 나두 눈가진 년이 남 본새 보구 모가 자라두룩 했겠지 못쓰게 해놨을가?》

안해가 땡 쏘아붙였다.

《하하하— 그렇겠지. 그 말은 옳아. 그런데 내 말은 일하는데두 격본이 있단거지 다른 말은 아니야. 그러나저러나 로댁이 그동안 논물보느라구 욕을 봤소.》

그제야 안해도 시죽이 웃었다.

저녁에 치서가 문병을 왔다.
들어오는 치서가 말을 꺼낼새없이 형추는 얼른 반색해 일어나며 《아이구, 령감 참 잘 올라왔소. 그런데 모자리들은 어떠우?》 하면서 성급히 묻는다.
치서는 웃목에 엉거주춤히 앉으며《금년엔 실포없이 잘 돌아서지요.》 하니까《그럼 이만치는 됐겠군?》 하고 또 손가락을 들고 마디를 짚어보인다.
《그만하구 말구요. 성님네건 그 이상 될거우다.》
《그럼, 날수를 따지니까 작년 대구는 흠씩 빠르군. 자— 담배피우다.》
형추는 마음이 날을것 같애 베개머리에 있는 담배갑을 치서의 앞에 내놓는다.
《참, 몸이 어떻소? 진작 와본다면서 그럭저럭 못 오구 그거 상이퍽 치웠수다.》
《허, 그놈의 몸살두 만만찮은 병이야. 어제까지 나흘동안을 꼭 죽었다 됐다니까.》
형추는 까칠해진 수염을 배비적거리고앉았다. 담배를 담아서 두어모금 빨더니 이내 땅땅 털어죽이며 입이 쓰다고 하였다.
《며칠 푹 치료를 하우다. 급급하게 일손을 쥐여선 못써요.》
치서가 이러니까 핀잔이나 받은듯 펄쩍 기를 내였다.
《거— 무슨 소리요. 래일부턴 당장 논에 나가야 되겠수다. 거저 일군은 일이 약이지요. 이러다간 계획이 전부 틀려지겠는걸.》
형추는 반사적으로 벽우를 올려다본다.
《아닌게아니라 어제 밤 농맹회의에서 이번 5.1절전으로 본답을 전부 끝내기로 결정이 됐지요.》
《옳지, 옳지. 내 계획표가 맞는다니까. 그전에 다 해야 되구말구.》
형추는 돋보기를 꺼내 쓰더니 계획표를 열심히 조사해보고 도로 앉는다. 치서가 돌아간 다음 형추는 약간 허전거리는 몸으로 뜰에 나와 걸어보았다.
그는 한참이나 걸으면서 뼈마디를 여기저기 눌러본다.
확실히 앓기 전만은 못하다고 생각되였다.

치서가 다녀간 이튿날 아침 치서의 딸 서분이가 음식을 한임 차려이고 올라왔다. 그날 아침 치서생일이라고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도 형추한테 대접해달라는거다.

형추의 처는 부엌에서 음식을 받아놓으며 음식엔 정신이 없이 다소곳해있는 서분이한테만 눈이 팔렸다.

《애구, 색시가 어쩌면 이렇게두 잘 자랐을가.》

형추의 처는 수선을 떤다.

웃방에서 이것을 내려다보고있던 형추는 서분이가 나간 담에 얼른 턱을 추켜들며《아니, 그게 치서의 딸인가?》 하고 물었다.

《령감이 앓구나드니 실성을 했군. 그 애를 인제 첨 보우?》하고 쏘아붙이니까 형추는 한발 문턱으로 다가앉으며《아따, 난 첨 봤어! 글쎄 여직껏 보기야 봤겠지만 누가 그렇게 유심히 봤드랬나?》 한다.

《이 동네에선 인물도 제일이구 맘씨도 젤이라우.》

《허— 그것 참 신통하다. 자라는척없이 자랐거던.》

형추 부처는 음식먹을 생각은 없이 서분이를 두고 입에 침을 발라 감탄이다.

형추가 며칠만에 땅을 디디고 어실거리며 논에 올라오니 벌써 치서가 논에 올라와 두렁가래질을 하고있다.

삽장을 짚고 논두렁으로 내려오던 형추는 논을 휘둘러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이것을 누가 이렇게 쪼아놨을가?》 하며 혼자 중얼거린다. 자기가 앓아누운 동안 종세는 민청공동사업에 나가고 누구하나 집안에선 이 논에 손댈 사람이 없다.

그런데 불과 절반밖에 쪼아엎지 못하였던 논판을 누가 이렇게 전부 쪼아엎었을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섰는데 치서가 이 기미를 채고《성님! 뭘 그렇게 보구만 있소. 그 웃논들은 내가 틈이 좀 있으니 쪼아놨수다. 가환이 있을 땐 서루 도와서 해야지요.》 한다.

《아— 저런 수고가 있나? 허허허, 그런데 우리 로댁은 령감이 그렇게 수고한줄 알았겠는데 도무지 그 댁 말이 없단 말이요.》

《내가 앓는이보군 그런 말 말랬지요. 괜히 그 성미에 고만것 가지구 남의 신세 입었다구 쓸데없이 노염을 부리구 상심이 되면 안되겠다구 해서 말랬지요.》

형추는 치서의 진심에 속이 뜨끔하게 찔리였다. 여태까지 형추가 소심하게 치서와 경쟁했다고 하는게 너무 용렬스러운 일인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경쟁심이 그대로 질투심으로 되는 때가 있었기때문이다.

이튿날부터 치서가 모자리에 나가든 형추가 모자리에 나가든 두 모자리엔 한결같이 손이 가고 정성이 갔다. 며칠 안되여 모는 앞서락뒤서락 물우에 활짝 키를 돋구었다. 하루가 새롭게 진한 록색이 두터워온다.

4월 그믐이 되니까 모는 잎이 펴지고 제법 바람에 흔들릴만큼 되였다.

4월 그믐날 저녁에 형추는 모자리로 올라오다가 민청의 공동경작 모자리에서 종세와 서분이가 돌피를 고르고있는 광경을 띠여보았다.

골안 진펄을 개간한 논에 옮기려는 모자린데 형추가 이 언덕 웃길로 항상 오르내리면서 다른 민청원들이 지나다닐 때에도 무시로 들려서 모자리를 돌아보는것은 여러번 띠여본 일이 있지만 여기서 종세와 서분이를 띠여본것은 처음이다. 형추는 갑자기 야릇한 느낌으로 언덕우에 서서 배직이 서있는 소나무새로 그들을 지켜보고있다.

먼발치에서 호기심으로 지키는 눈이 있는것도 모르고 둘은 이야기까지 종종거리고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처간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는 형추는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띠웠다.

난데없이 두루미란 놈이 너울거리며 날아오더니 맞은편 논두렁우에 멀쑥한 종아리를 세우고 저도 멀끔히 아노라는듯 목을 빼고 기웃이 모자리를 내려다본다.

《흐흐, 키크면 싱겁다드니 그놈 싱거운 놈일세.》

형추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는다. 형추는 여적 어둑서니 같이 모르고있던 일이 눈에 채인감으로 새로운 일의 두서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모자리를 돌아보고 내려오다가 어둑시근한 길에서 담배불을 번쩍거리며 올라오는 치서를 만났다.

형추는 맞받아서 일편 벙글 웃으며 《아— 그만 내려갑시다. 모자리는 내가 다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하면서 형추도 곰방대를 뽑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래두 예까지 왔다가 돌아야 봐야지. 뿌리를 단단히 박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밤엔 물을 좀 알맞추 넣어야겠수다.》
《아따— 그것 다 알구 대봤으니까 념려없대두 그래. 저—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내 긴요한 얘기가 좀 있는데.》 하며 소리를 은근히 낮추었다.
《무슨 얘기요?》
《아— 그건 있다가 천천히 찾아가 해야지. 그럼 논에 갔다 내려와선 꼭 집에 있수다.》
치서는 담배불을 털며《그건 그러지요. 무슨 얘기게?》 하고 되짚어 묻는다.
《아따 령감두 몹신 급하네. 있다가 만납시다.》
형추는 활개를 저으며 도리여 치서가 급하다는 소리를 하고는 언덕길을 들먹들먹 내려간다.
저녁을 먹은 형추는 아들 모르게 자기의 안해를 바깥아래 모퉁이로 불러내였다.
그리고는 안해의 귀에다 대고 은근히《여보, 로댁. 오늘 보니까 우리 종세란 놈이 치서의 딸과 이만저만한새가 아니야.》 하는거다.
《네?》
뜻밖의 소리에 안해가 빤히 쳐다보니까《왜 빤히 쳐다보나? 그런데 임자 생각엔 어떤가? 치서의 딸이 임자 맘에두 있다면 기왕 이렇게 된 바엔 애여 그것들 짝을 무어주지, 응?》 하고 형추는 금방 담판을 낼 것처럼 덤빈다.
《글쎄 그게 맘대루 될 일이요. 떡 사줄 놈은 꿈두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딸임자는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괜히 덤벼요?》
《아따, 그것 임자가 모르는 소리야. 저이두 그렇게 허리가 굽은걸 치워준대면 여북 좋아하겠기에 그러우.》
《호호호, 령감이 미쳤어.》 하고 허리를 꼬부리고 웃는다.
《이러나저러나 누굴 내세워봅시다.》
안해가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정녕 욕심이 나서 이렇게 말하니까《원— 내세우긴 누굴 또 내세워? 오늘 저녁 내가 직접 가보겠소.》 하더니 안해와 여적 의논하고있던 사람같지 않게 힁해서 행길쪽으로

내뺀다.

《혼사라는건 두구볼게 아니야. 단불에 녹여야 돼.》

《아!— 여보, 령감. 아니, 저러다가 무슨 망신을 하겠수다.》

안해는 령감의 거동이 념려스러워 몇발작 따라가며 불렀으나 형추는 아무 대꾸도 없이 동네로 줄곧 내려가고있다.

오늘이 4월 그믐, 벌써 공회당쪽에서는 농악소리가 쿵정거리고 일어났다.

종세도 저녁을 먹고 바삐 공회당으로 나갔다.

래일이 5월 초하루, 명절이다. 벌써 공회당 뜰엔 전등을 환히 내걸고 사람들이 끓는다. 조참봉네 집을 헐어다 고쳐다듬고 날아갈듯이 세워놓은 공회당은 유리문이 으리으리하고 용마루가 드높게 밤하늘에 솟았다.

벌써 강당안에도 사람들이 그득 모이여 마루밟는 소리가 이모저모에서 쿵쿵거린다.

남녀로유가 전부 모이고 아이들은 벌써 래일 입을 새옷을 떨치고 팔랑거리며 뛰였다.

어른들의 얼굴도 모두 불빛에 벙글거린다.

인제 금년일도 한목 죽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농사에 제일 중요한 파종을 치르었다.

1.4분기의 빛나는 성과에서 2.4분기로 넘어왔다. 파종하는 일만 아니라 진펄을 개간하고 수로를 끌어 논을 만들고 제방을 쌓는 일, 수로를 개수하는 일, 도로를 고치는 일, 봄나무를 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성과있게 한물 넘었다. 인제 모를 굳건히 길러서 본답에 옮기는 일이 바로 눈앞에 있는 큰일이다.

벌써 밀보리가 한자나 자라 마디가 들어 너울거리고 감자, 조피 할것없이 땅에 넣은대로 실포없이 립종을 했다.

마을사람들은 한결 기운이 나고 즐거운 고비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다.

수백명이 휘황한 불빛아래 뜰을 메우고 들어서서 래일 5.1절기념 보고대회에 참석할 준비회의를 끝내였다.

회의가 끝나자 종세가 북통을 어깨에 메였다. 북이 둥둥거리고 첫가락을 넘기자 저마끔 흥에 겨워 춤이 시작되였다.

수건으로 고깔을 만들어쓴 사람, 분홍과 남치마로 녀복을 떨치고 새

맵시로 나오는 사람, 꼬챙이로 이틀을 뻗치고 범을 꾸미고 나오는 사람, 잔등에 베개를 괴이고 곱사등으로 나오는 사람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수 없게 마당은 들끓었다.

이렇게 춤이 한창 무르녹았는데 저편 행길쪽으로부터 술이 얼근한 치서와 형추가 《좋다! 좋다!》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마당으로 달려들었다. 종세의 흥이 난 북망치가 제풀에 빼빼 돌아가고 형추와 치서는 말뛰기춤으로 날파람있게 사람들새로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야단이 일어났다. 한쪽에 녀맹원들이 모여서서 웃고 시시닥거리며 있는데서 한 색시가 성을 발칵 내며 불맞은 표범처럼 뛴다.

《누구야, 응? 이게 누구야. 이 망칙스러운 놈, 개같은 놈. 이게 누구야?》 하고 울상이 되여 펄펄 뛴다.

그것은 벼락같이 달려들어서 망칙하게 입을 맞추고 달아난 놈이 있었기때문이다. 색시만 격분한게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그런 모욕이 어디 있느냐고 덤비며 어떤 놈인지 찾아내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고대 박장대소가 일어났다. 형추가 도적을 잡았다고 소리치면서 어떤 사람의 등살을 밀고 복판으로 들어와서 신문지 탈을 활짝 잡아벗겼다.

그 색시의 남편이 빙글빙글 웃고있는거다. 색시는 낯이 빨간 얼굴로 형추를 보며《아바이, 그거 좀 콱 쥐질러놓수다. 미쳤어, 남부끄러운줄두 모르구.》 한다.

그러나 형추는 쥐여질르기보다 그의 두손목을 잡더니 덩실덩실 춤을 춘다.

뜰안엔 웃음이 터지고 또 한바탕 춤이 벌어졌다. 밤이 깊어 놀음은 파했다.

이날 밤 종세는 휘파람을 불며 치서네 뒤개울옆 언덕길을 걸어올라갔다.

그런데 물이 졸졸 구르는 어두운 시내가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걸어오던 종세는 발을 멈추고 먼발치에서 잠간 엿들었다.

《너 왜 말이 없니? 그 사람이 맘에 없니?》

약간 높은 소리지만 다정히 묻고있는것은 분명히 서분이 모친이다.

《엄마— 누가 그렇대요.》

뾰로통하게 쏘는것은 서분이다. 이 바람에 종세는 호기심으로 바짝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가슴이 철렁 무너져내리며 이마에서 땀이 버짝 솟았다.

《그럼 왜— 야밤에 여기 나와 섰니, 응? 잠자리를 펴놔두구 무슨 총을 만나서 여기 나와 섰니?》

그담엔 서분이 모친의 은근히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너 바루 말해봐라.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아이참, 웃어 죽겠네. 몰라요. 누가 뭐 어쨌다게 자꾸 이러우.》

분명 싫지 않다는 서분의 목소리다.

《젤이네라, 이 동네에서 그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 있니?》 하면서 모친은 딸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간다.

종세는 가슴속에서 고임돌이 물러난것처럼 모두가 허전거려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쭉 내배였다. 누구의 앞에 이렇다고 얘기한바는 없어도 종세의 마음은 언제든지 서분이 생각만 하는것으로도 빛나고있었던것이다.

서분이 모친이 제일 똑똑하다는것은 이 동네에서 누구일가? 어느 놈일가?

맥이 풀렸던 맘에서 일편 저주스러운 맘이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그 모를 놈에 대해서 억누를수 없게 증오심이 치민다.

집에 오는것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며 집에 와서도 어두운 울바자밖을 끝없이 서글픈 생각으로 느닷없이 걸었다.

방에 들어오니 부친은 웃방에서 세상모르게 잠이 들었고 모친이 그때껏 눈을 밝히고앉아 아들을 기다린다.

《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종세가 가뜩이나 경황이 없던 참이라 모친이 묻는 소리에 얼떨떨해서 무슨 소리냐고 되짚어 물었다.

《오늘 저녁 아버지가 네 혼사를 뗴왔단다.》

《네?》

종세는 그만 동작을 잃고섰다.

《너두 물론 좋아하겠지만 난 그 애를 보면 홀딱 집어먹고싶게 욕심이 나더니 인젠 소원을 풀었다.》 하며 모친은 기뻐한다.

종세는 아직도 정신이 얼떨떨할 지경이다. 첫째 믿을수 없는 장난인것 같은 말이다.

그러나 확실히 유표스럽던 일이 그제야 깨달아지였다.

우선 치서와 부친이 술이 얼근해서 밤늦어 공회당에 나타났던 일이 생각되였다. 종세는 아까 그 감정이 갑작도로 뒤엎어져서 행복스럽던 밤이 송구한 심경으로 변해온다.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턱 없고 이것저것 머리가 번거로웠다.

서분이가 한 동작, 한 음성, 그중에도 인상적인 일들이 꼬리를 대며 일어난다.

어느것이 사랑스럽지 않고 귀엽지 않은데가 없다.

종세는 가슴속에 화약을 넣은듯 활활거리고 울렁대인다. 귀밑이 달아서 베개를 몇번이고 돌려베다가 못 견디여 달려나왔다.

아까보다 사위가 한껏 다정하고 별이 한결 낮추 내려와 속삭인다.

종세는 훈훈한 공기를 받으며 울바자밖을 몇번이고 돌다가 뒤에서 꼬리를 저으며 따르는 강아지를 담쑥 품에 안아 털에 볼을 비빈다.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5월 초하루!

동구앞 능수버들이 흐느적이고 갖은 깃새가 희망에 겨워 서로 부르며 날아가고 날아온다.

울긋불긋 농민들의 행렬이 읍을 향하여 떠났다. 각가지 엉클어진 기발과 화초 만개한것 같은 새옷들…

종세는 날씬하게 명주겹옷을 뽑아입고 단벌수건을 질끈 동였다.

그는 북통을 메고 가슴을 활짝 제꼈다.

둥둥! 둥둥!

북소린 그냥 가슴에서 나는 소리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드높은 시원한 하늘이 가슴속에도 있는듯싶었다.

농악은 선두에서 잦은 가락을 울리면서 나갔다.

1947. 5.

땅의 서곡

천 세 봉

1

그렇게도 나무가지에 기승부리던 바람이 물러가고 며칠동안 따뜻한 날이 계속되여 인제 이것으로 봄이 되려니 했던 3월 초순 어느날 밤 눈이 푹 빠졌다.

《애구, 세월두 변덕이네. 무슨 눈이 이렇게 왔을가?》

물동이를 끼고 나선 남분이는 진눈이 내린 뜰로 내려서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남분이는 미끄러운 고무신바닥에 새끼를 둘둘 감고 아래모퉁이쪽으로 빠져나왔다. 어느새 남편인 막동이는 우물길을 넓게 헤쳐놓고 지금 우물있는데서 고두치네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우에서 쳐내려오는 고두치와 맞받아 쳐올라가고있다.

《이 사람 그만두게. 내가 어련히 치겠게 그러나…》

고두치가 눈치던 가래자루를 짚고서서 내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친다. 그러나 막동이는 들은체도 않고 가래날을 땅바닥에 벅벅 밀어제끼면서 씩씩 숨이 차게 쳐올라간다.

《온, 저 사람은 비위 틀린 소리는 영 안 들린다더니 무슨 소릴 듣나, 먹나?》

고두치가 후덕후덕 웃는다.

《아바이두 가만 둬둬요. 그 길루 덕원아바이만 댕기겠소? 우리두 댕게야지요.》

우물에서 물푸던 남분이가 낌새에 말을 던진다. 본시 고두치네 가호가 덕원집이래서 덕원아바이라고 부르는것이다.

《허허허, 그렇게 따질 푼수론 예서 읍에 가는 길까지라두 자네네가 말짝 쳐놔야겠네.》

고두치는 웃으며 손바닥에 침을 뱉아 가래자루를 감아쥔다.

어느새 한발앞에 막동이가 왔다.

《이 사람 눈만 치게. 그렇게 죄없는 땅바닥을 죽어라고 빡빡 밀건 무언가?》

《원, 아저씨두 그렇게 입심이 좋으신이가 밤에 잠은 어떻게 자우?》

《왜?》

《잠이 들면 입이 여북 심심하겠소?》

《흐흐흐, 맹랑한 사람…》

둘이 마주 웃으며 눈묻은 가래를 툭툭 털며 허리를 펴니까 어느새 막동이의 뒤에 물동이를 인 남분이가 왔다.

《어서 비켜요. 아이참, 저 바지가랭이 눈 좀 봐요.》

남분이는 남편의 곁을 스치며 사뭇 쌀쌀한 소리로 지청구를 한다.

《이건 식전에 녀자가 길에 싸대며 재수없게 왜 이러나?》

막동이는 웃으면서 안해의 빨간 발뒤꿈치를 쏘아본다.

《여보게, 애어미!》

남분이가 시집온 뒤에 아직 아이는 없어도 고두치가 즐겨부르는 명사이다.

《오늘 아침엔 그만두게. 어제 저녁 길어다 뒀던 물로 밥을 지었네.》

고두치가 남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으나 남분이는 들은체도 않고 미끄러운 언덕길을 꼭꼭 박아디디며 올라간다. 고두치는 남분이의 빨간 발이 얼른 눈에 걸려 이번엔 딱 소리로 《아니, 보선은 없나? 저 발이 좀 시릴가?》 하고 민망스러운듯 혀를 갈긴다. 그리고는 돌아서 내려가는 막동이를 보며 중얼거린다.

《나같은게 이웃에 살다보니 자네네 량주가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하네.》

고두치는 물동이를 이고 방금 자기네 사립문안으로 사라진 남분이가 딸이나 며느리란들 어찌 이에서 더할가싶었다. 지난 삼동설한을 내내 아침마다 저희 물을 먼저 한동이씩 길어다준 남분이의 곰곰한 마음씨가 다시금 고마워진다.

안해와 딸과 단 세 식구가 살던 고두치네는 5년전 고두치가 남분이의 부친 장명서와 함께 일본놈 기꾸모도를 구타했다는 죄명으로 류치장에 갇히워있는 동안 그의 안해는 장질부사에 걸리여 약 한첩 못 쓰고 신음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런 뒤엔 남분이와 동갑인 딸 하나를

데리고 죽지 못해 불성모양으로 살아오다가 해방되였다. 토지분여를 받아 평생에 사무친 원한을 풀고 집안살림이 앞이 트일만 하자 나이찬 딸은 본시 정혼해놓았던데로 출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도 백여리나 먼곳에 딸을 떠나보낸 뒤에는 고두치자신도 집안이 허전하고 쓸쓸하기가 이를데 없었다. 나이 쉰여섯에 혼자 살아가는 그 정상은 막동이가 보기에도 민망했다.

그래서 《아저씨, 그처럼 늘 혼자서 살겠소? 무슨 변통을 내야지요.》하고 권하면《흐흐, 갑자기 무슨 변통인가? 나는 이렇게 혼자 사는 자미가 한결 좋으네.》하며 빙긋이 웃음을 띄우군 하였다.

《아무때구 내가 아저씨 중매를 서겠수다.》

《옳지, 이 사람, 아여 품갚음을 할 작정인가? 흐흐흐, 그래 중이 제손으로 제 머린 못 깎네. 정 그렇거들랑 좋은 자리 하나 소망해보게나.》

《정말 소망해보겠어요.》

《허허허, 안 그런게 아니라 이제 신뿔루 채려놓구 한번 그럼직하게 살아보고도 싶네.》

고두치는 이렇게 자기의 은근한 뜻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남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니 밥가마에서 더운 김이 무럭무럭 올라서 집안이 한껏 덥고 자욱하다. 풍로우 파란 남비우에서는 고기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단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남분이는 여느때나 마찬가지로 물을 다른 동이에 옮겨붓고 밥가마부터 열어본다. 그리고는 두어번 휘저어보다말고 가마굽으로 물 몇방울 굴리였다. 그다음 찌개그릇을 열어보려는데 문밖에서 고두치가 신발을 툭툭 털며 들어온다.

《애어미, 그 신이 발에 맞나 신어보게.》

어제 저녁 일터에서 들어와 그대로 자지 않은듯 방구석에 남은 짚단이 서있고 굵은 새끼가 서리서리 놓인 한옆에 이쁘장한 모개신 한컬레가 금방 신골을 뽑아낸채 가지런히 놓여있다.

《애구, 아바이두 밤에 안 잤네.》

남분이는 반색하는 눈으로 신속에 차분히 발을 넣고 그대로 몇발자국 디뎌본다.

《원, 그 고무신 신구 강파라운데 흙을 이고 오르내리는게 보기에

맘이 뇌여야지. 오늘은 제발 고무신은 벗어두구 그걸 신구 나가게.》
《애구, 아까와서 어떻게 일하는데 신구 나가요?》
《꿰지면 또 삼아놓지 않으리. 그 놀라운걸, 아깝다구 그러나?》
남분이는 외씨같은 신코를 굽어보았다. 그는 얼른 집에 내려가서 신재주가 없는 남편한테 자랑스럽게 보이며 약을 올려줄것을 생각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2

고두치가 조반을 먹고 점심그릇을 들고 일터로 나가노라고 막동이네 집앞에 오니 어느새 막동이는 마을에 나갔다오는 모양으로 건너편 방천길로 눈을 헤치며 들어온다. 그러더니 마주나가는 청년과 맞서서 무어라고 한바탕 잔소리를 한다.
《이 눈에 일을 못 나간다는게 누구요? 우선 동원반장부터 옳은 립장에 서지 못했소.》
마주선 청년이 무어라고 하니까 막동이는 또 몇마디 담차게 나무래놓더니 청년과 갈리여 곧 집으로 들어온다.
《그녀석이 뭐라나?》
《…》
막동이는 아무 대답없이 뿌해서 토지로 올라서서 눈이 안긴 신발을 퉁퉁 구른다. 이런 때엔 알던 정, 보던 정 없이 딴 사람이 되는 막동이다.
《누가 일을 못 나간다나?》
함께 방안에 들어온 고두치는 막동이의 시뻘건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못 나가긴 누가 못 나가요? 안 나가두 좋구 나가두 좋구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요?》
막동이는 듬쑥한 밥그릇을 대번에 헐어내려간다. 그렇게 속대 센 고두치이지만 이런 순간엔 막동이의 압력에 눌리는듯 아무 소리고 허투로 나가지 않는다.
밥 한그릇을 굽히고 물러앉은 막동이는 볼이 불룩하게 물을 물고 양치를 하고나서 그제야 고두치를 보며 말했다.

《안됐어요. 정신들을 채려야지. 이러다간 금년농사가 큰일일것 같수다.》
《그래 참, 농민동맹에서는 무슨 예산이 있나?》
《무슨 예산이요?》
《아니, 이 눈만 녹으면 고대 밭갈일 해야 할판인데 어데 그전에 이 공사가 끝장을 볼것 같은가?》
이번엔 고두치편에서 말소리를 높였다. 이 소리엔 대답하지 않고 막동이는 돌아앉아 담배만 뻑뻑 빨고있다.
《이제 자네 말마따나 정신 챙겨야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네. 파종을 여름에 나가서 하는 수는 없으니까. …》
얼마뒤 담배를 다 태우고난 막동이는 앞이마에 덮인 머리를 쓸어넘기고 돌아앉았다.
《허니까 아저씨 소견엔 공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것 같다는 의견이 있소?》
《의견이 무슨 말라죽은 의견인가? 죽기를 한사쿠 그전에 해야지. 낮에만 하구 밤에 일하면 못쓰나? 야간작업이라두 해야 되네. 온, 식어빠진 녀석들… 공사를 지도한다는게 어떻게 지도하나?》
불쑥 기운이 생긴 고두치는 바로 막동이를 놓고 욕설하듯이 기세를 올린다.
《허허 아저씨, 누구를 그렇게 욕하우?》
《누구는 누구야? 자네두 열성농민이라구 한몫 끼여가지구 앞장서서 일을 보지 않나? 거 어째 한수 죄여댈 묘방이 없단 말인가?》
《이거 아저씨한테 단단히 지적을 받는군.》
《지적받구 가만있으면 되나요? 자기비판을 해야지요.》
남분이가 발씬 웃으며 끼여든다. 이번엔 고두치도 얼마쯤 목소리를 눅이고 《정말 밤엔 잠이 안 오네. 금년엔 해토가 되면 얼마나 할일이 많은가? 우선 개답할 일 생각하니 앞이 아득할세. 논두렁만 잡아놓재두 꼭 스무자리는 가지구야 되겠네.》하였다.
《온, 아저씨두. 그런것까지 다 계산해놨으니까 밤잠이 안 오지요.》
《흐흐흐, 그것만 계산해놨겠나? 벌써 어느 밭은 몇배미루 풀구 퇴비는 얼마를 내구 금비는 얼마를 하구. 예산이야 다 세웠지, 흐흐. 그

리구 참 이 사람, 나는 저 뙈기논은 말짝 한배미루 만들겠네. 그걸 한배미로 만들기만 하면 아마 이 근방에서는 논배미가 그중 클거야.》

《흥, 아바이두. 우리 논배민 어쩌구요? 우리두 그곁에걸 한배미루 한대요.》

남분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첫째는 못 가두 둘째는 가겠지.》

고두치는 한바탕 웃는다. 어느덧 그들의 머리속에는 물을 떠받든 큰 논배미가 떠올라 가슴이 너그러운 바다물결처럼 울렁울렁한다.

《이 사람, 오늘은 눈이 씩씩한데 애어민 그만두라지?》

얼마뒤 고두치는 막동이가 나갈 차비하는것을 넌지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저씨가 지적받을 소리 하시는군. … 금방 지도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구 욕하시다가 그건 무슨 소리요? 옳지 못하군.》

《애구, 관둬요. 덕원아바인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그렇게 뭐요?》

남분이가 입을 비쭉하며 남편을 흘겨본다.

《옳지, 임자두 쉬고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 …》

《피— 이젠 한달 장패두 무섭지 않어요.》

《아주 또 뻐기는군. …》

《흐흐흐…》

고두치는 담배대를 입에 문채 싱갱이를 하는 남분이와 막동이를 번갈아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웃고있다.

징정징정 숫눈구뎅이길을 앞에서 걸어가고있는 막동이의 뒤를 따르며 고두치는 다시금 막동이의 사람됨이 맘에 흐뭇이 들어 저자신이 나서서 남분이와 인연을 맺어준 일이 생각할수록 즐거웠다. 막동이는 너머동네에서 나서 세살되던 해에 제 어머니가 죽고 다섯살적에 부친이 만주로 떠나간채 돌아오지 않아 겨우 제 삼촌의 집에서 오금을 떠가지고는 이 동네로 옮겨왔다. 왜놈의 지주 기꾸모도의 심복인 정달수의 집에서 거의 10여년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다.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소처럼 고생스럽던 머슴살이가 끝난것은 해방되던 날이였다. 해방후 막동이는 넓은 바다우에 내친듯 앞길에 대한 두서를 잡을수 없어 얼마동안 어리둥절해 있을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민청, 농민동맹 이런데 스스로 관계를 지으면서부터 어두운 머리속에 희미하나마 앞길

이 내다보이는것 같아 배우고 알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불타서 이를 악물고 나섰다. 하나둘 깨달음이 많아갈수록 막동이는 자기가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것인가를 치가 떨리게 깨달았다. 토지분여를 받고 막동이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고 무슨 일에든 열심히 나서서 남보다 갑절 일하였다. 그리고 사람됨이 무게가 있어서 한마디를 해도 면바르고 기운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동네에서는 그의 인끔이나 실력을 아무도 숫보질 못하였다.

고두치는 자기의 딸 언년이가 이미 약혼을 안했더라면 막동이를 놓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대신 고두치가 생각해낸것이 그때 한동네 일가집에서 불쌍히 자라온 죽은 친구의 딸 남분이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작년 봄 혼례를 치르자 고두치가 서두르고 나서서 온 동네사람들의 협력으로 불과 한달동안에 그들의 새 살림을 꾸릴 집까지 바로 고두치네 이웃에다가 지어준것이다.

3

벌판 가운데로 내려간 대간선(기본선)의 수로는 량옆에 붕싯한 뚝이 눈속에 들어 길차게 내려다뵈였다. 직경 40리라는 이 벌의 농토를 개답하려고 작년 여름부터 관개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겨울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내친 걸음이 식을세라 서둘러왔다. 인제 공사가 거의 70프로는 진척되였다. 그러나 이제 남은 공사가 기실 어려운 일이였다. 도랑바닥은 파들어갈수록 자갈 박힌 진흙이 고무를 떼여내기보다 더 힘들었다. 괭이를 내려박아야 두어치밖에 들지 않고 괭이날에서 번쩍번쩍 불만 일어난다. 그것만 그런것이 아니라 아직 제1호 잠관의 콩크리트공사도 남아있고 그중 난공사인 강을 건너막는 언제공사가 작년 가을 시작만 해놓은채 그냥 있다.

요사이 십여일동안 일이 진척된 성과로 미루어보아 아무래도 예정기간내에 완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만 이런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맡은 구역도 매한가지 사정이였다.

눈이 덮인 뚝길을 걸어올라오며 막동이는 이자 집에서 하던 고두치의 소리가 더욱 맘을 침질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밤에는 농민동맹에서 이 문제때문에 회의가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막동이의 마

음은 한시간이 바쁘게 조급해지였다.

현장엔 벌써 동네사람들이 여러명 나와서 등결불을 지펴놓고 모여서서 떠들어올리고있다. 그들은 논을 신풀이할 이야기, 모자리를 만들 이야기, 파종할 이야기에 저마끔 신명이 났다.

고두치도 내려가는 길로 사람들속에 성큼 끼여서 농민신문에서 본대로 온상모이야기, 방풍장이야기를 성수가 나서 먹이였다.

막동이는 삽가래를 들고 개울바닥 숫눈구뎅이로 허우적대며 걸어가서 량편으로 눈을 뽀얗게 파서 제꼈다. 그리고는 그가운데서 자갈 박힌 누런 흙을 몇삽 파서 눈우에 활활 쳐올렸다.

《밤새에 조금도 얼지 않었군. …》

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아찔한 량쪽 제방을 휘 올려다본다. 한삽한삽 땀을 들여 쳐올린것이 이만큼이나 되였으니 대견스럽기도 한것이였다. 그러나 이 순간 막동이가 생각하는것은 이런 만족감이 아니라 여기 날마다 모이는 그 귀중한 로력을 어떻게 하면 좀더 능률을 올리게 할가? 어떤 묘방이 없을가? 하는 막동이로서의 늘 연구하고있는 그 생각인것이다. 얼마뒤 막동이는 다시 개바닥으로 몇발 더 올라갔다. 우선 웃옷을 벗어 수레판장우에 놓고 웅뎅이를 푹 파헤쳤다. 어제 저녁 둘이서 목도에 뜨다가 힘이 모자라서 그대로 두었던 바위돌이 있다. 막동이는 바위돌의 눈을 털어놓고 메고 올라갈 비탈의 눈까지 헤쳐놓았다.

《자아, 누구 한분 오우다. 자고난 새 기운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막동이는 돌에 바줄을 감으며 빙글빙글 웃으며 소리친다. 젊은 사람 하나가 달려왔다. 그들은 목도채밑에 우람스런 목덜미들을 디밀었다.

《만만치 않을걸…》

막동이는 차돌같은 흰 이발을 씽긋해보인다.

《흐흐, 저 황소들이 식전에 기운 비교를 하나?》

아무데고 참고서 앉았지 못하는 고두치가 냉큼 일어서 벙글거리며 올라온다. 바위돌이 힝 하고 자리를 떴다. 정말 황소다리같이 굳건한 종아리 넷이 두적거리며 비탈을 짚어 올라간다.

《왼편에서 재진다, 왼편에서 재져!》

고두치가 버쩍 고아올리며 응원이다. 막동이의 어깨는 철뭉어리 같

아보이는데 왼쪽어깨가 힘에 베찬 모양으로 자꾸 앞으로 숙는다.
《고개를 버쩍 들어라, 들어!》
고두치는 안타깝다 못해서 달려올라와 왼편 옆에 붙어서며 채끝을 우쩍 들어준다.
돌을 올려다놓은 고두치는 배를 헐썩거리며 숨이 차서 두어마디 기침까지 톺았다. 그러나 막동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시죽이 웃다말고 시뻘건 손으로 바위를 둥깃거리며 드놀지 않게 자리까지 보아놓는다.
《흐흐, 자넨 여불없는 곰일세. 곰이야. …》
고두치는 막동이를 쳐다보며 다시금 웃는다.
눈이 내린 이튿날 한나절은 별이 유달리 따스하고 대간선바닥은 흡사히 꽃다발을 뉘여놓은것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40리 벌판을 내려가며 군데군데 책임구역을 갈라가지고 십여동네가 동원되였다. 눈이 덮였던 뚝우에는 벌써 흙밥이 덮이여 소잔등처럼 누렇게 되였다. 짝자그르르 떠들어올리는 소리가 연방 아래우에서 들려온다.
동네마다 아낙네들의 일터는 그대로 웃음의 꽃밭이다. 누가 노래를 섬기면 다투어 받아넘기고 생큼한 타령이라도 나오면 그냥 손바닥을 치며 환성을 올린다.
모개신을 갈아신은 남분이는 오늘 일이 한결 빠르다. 둘이 한패씩 짝지어 한참에 쉰함지씩 이여올리던 흙을 예순함지 이상으로 능률을 올리였다. 그바람에 경쟁이 된 다른 패들도 지지 않겠다고 서로 다투어 어제보다 일이 갑절 빨랐다. 아낙네들의 딸기빛같이 상기된 얼굴에서는 땀이 구슬처럼 맺히여 떨어졌다.
막동이와 짝이 되여 수레를 미는 고두치는 연방 고개를 돌리며 《오늘은 내인들 판이로군. …》 하면서 룽지거리라도 하고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
이날 점심참이였다.
동원의 총책임을 진 막동이는 각 반의 동원반장들을 모두 뚝우에 불러내였다. 막동이는 우선 한사람씩 불러서 그 반에서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어서 적고 그 나오지 않은 리유를 일일이 물어서 적었다. 전부 조사하고나니 병고가 세사람, 리유없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네사람이다. 막동이는 수첩을 주머니에 찌르고 인제 자기의 용무를 필했다는듯이 헤지려는 반장들을 다시 불렀다.

《동무들한테 한마디 이야기해야 할것이 있소. 우선 동원반장들 자체가 좀 정신들을 차리우. 가만히 보니까 동무들은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음으로 생각하고있는것 같애요.》
《놀음으로 생각하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
동원반장 하나가 옆에 돌아앉아 담배를 피며 언짢게 대꾸한다.
《뭐요? 동무, 그 자리 좀 바로 앉소. 그럼 동무들이 반장의 책임을 원만히 했다고 생각하우?》
막동이는 반장들을 쏘아보았다.
《동무들은 이 공사에 사고가 없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나한테 보고만 해놓으면 책임이 다 된줄 아우? 전부가 그렇게 사업했는데 이게 잘됐소?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전해주는 기계요, 기계… 그렇게 일할바엔 동원반장이란 있으나마나한게 아니겠소.》
막동이는 사이를 두고나서 다시 높은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렇게 일할것이 아니라 우리는 리유없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나오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들 했소? 오늘 아침만 해두 건넷말 반장이 나보구 뭐라고 했소? 눈이 씩씩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을 목을 매서 끌라는가구… 이런 언사를 동무들 립장에서 옳다구 생각하우? 목을 매서 끌라는건 아닙니다. 왜 설복시켜서 나오도록 만들지 못하는가 말이요. 오늘 이만한 눈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한테 동무들은 할말이 없었소?》
막동이는 반장들을 뚫어지게 한참 보았다. 모두 더수기를 숙인채 잠자코 있다.
《우리 이렇게들 일하지 맙시다. 오늘 밤에 회의두 있겠지만 이 공사를 빨리 준공할수 있는것은 우리들한테 달렸소.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게 우리들이 똑똑한 립장에서 일들 합시다.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때에 잡아내오, 제때에…》
막동이는 주먹을 쥐고 강조했다.
지금 맞은편 뚝우에선 처녀들이 떠들어올린다. 고두치가 처녀애들한테 두팔을 잡히였다. 저마끔 모개신을 삼아내라는거다.
《흐흐흐, 놔라! 이걸 놔라!》

고두치는 손을 못쓰고 담배대를 문 입모서리로 침이 떨어지며 앙당그리고 웃고있다.

《버쩍 쥐여뜯어라! 안 삼아주겠다면 바지저고리라도 벗겨라, 벗겨!》

키 큰 녀인 하나는 곁에서 신이 나서 일어섰다. 그 바람에 뚝우에선 웃음소리가 터졌다.

얼마후 겨우 놓여난 고두치는 담배대를 뽑아들고 한발 물러서 흐덕흐덕 웃는다.

《그래, 한컬레씩 삼아줄테니 하루에 몇합지씩 흙을 더 이겠다고 나한테 다짐을 해라!》

처녀들은 단박 반색을 했다.

《그럼 스무합지!》

《서른합지!》

《마흔합지!》

소녀들은 경매하듯 다투어 내부른다. 그러나 고두치는 웃기만 한다. 소녀들의 셈이 차츰 뛰여올라가 아흔합지, 백합지로 올라가도 고두치는 한손으로 입에 문 담배를 붙들고 눈을 잔조름히 웃으며 그것들의 나불나불하는 모양을 귀엽다는듯이 바라보고만 있다.

《애개, 실루 엉터리없네…》

《정말 싱거와 죽겠네.》

이렇게 처녀들이 뾰로통해졌거나 말거나 고두치는 《흐흐, 조것들이 앞으로 뉘 가문에 시집들 가서 재미나게 살가?》 하며 흐덕흐덕 웃었다.

《애구, 망칙해라!》

성급한 애가 얼굴이 새빨개서 침을 텍 뱉으며 얼른 물러선다. 뚝우에서는 박장대소가 일어났다.

4

춘경기를 앞두고 공사일이 시원스럽게 진척되지 않아서 필시 예정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것과 앞에 올 춘경사업과 개답공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5일간 기간단축운동을 전개하며

이것을 각 동네에 호소해야 되겠다는 농민위원장의 보고가 긴장한 가운데서 끝났다.

《의장,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긴급제의하겠습니다.》

맨 앞줄에 앉았던 막동이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 밤 이때까지 이 관개공사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했던 점들을 모두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이 회의에서 매개 농민들의 출동성적을 검토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이 제의를 옮겨서 가부를 묻자 모두 찬성이였다.

《그러면 동원책임자동무의 동원성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은 막동이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막동이는 주머니속에서 모서리가 헌 수첩을 뽑아들고 불앞에 나섰다. 모두 긴장해서 막동이의 입만 지켜본다. 막동이는 수첩을 한장한장 넘기며 이름을 부른 뒤에는 출동일수와 출동하지 않은 일수를 대비하고 나오지 않은 날중에서 긴급한 사고나 병고를 제하고 순전히 본인의 태만에서 나오지 않은 날자가 누구는 며칠이라는것을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출동성적을 발표해놓고 자리로 들어왔다.

그런 뒤 한참이나 되여도 방안은 쥐죽은듯 잠잠하다. 의장이 토론들을 하라고 두번이나 재촉해도 누구 한사람 나오지 않고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힐것 같아온다. 이렇게 좌중이 긴장한 속에서 돌연 누가 《으흠…》 하고 목이 뿌듯하게 담을 파올린다. 맨 한가운데 앉은 고두치다. 좌석이야 그렇거나말거나 뻣뻣이 장죽을 빼물고 부시를 찍찍 긋는다.

《담배는 그만두시오.》

의장이 이래도 고두치는 못 들은척 뿌듯해 앉아 불이 당긴 담배를 물씬물씬 빨아서 연기가 판을 치고 방안이 뽀얗게 떠돈다. 의장도 그제는 부득이 못 본척 하고 들어앉아 빙긋이 웃는다. 담배를 뻑뻑 빨던 고두치는 앉은대로 좌중을 힐긋 흘기고 《식어빠졌네, 그렇게두 기운들이 없나? 왜 이제 지적받은 공사에 태만한 사람들이 입을 봉하구 앉았나? 임자네들이 먼저 자기비판을 해야 할것 아닌가?》하고 다궃더니 약간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내려쓴다.

《오늘 밤 회의는 이렇게 문란하게 할것이 아니라 좀 엄숙하게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막동이가 불쑥 일어서 이렇게 제의했다.
《아따, 저 사람은 그럼 내가 그릇된 소리를 한단 말인가?》
고두치는 얼굴빛이 표표해서 턱을 추켜들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위원장을 좀 지적하겠네. 웬고하니 이 회의를 벌써 해야 할걸 인제야 한단 말일세. 예정기간이 당박해서 밑구멍에 불을 달아놓으면 그거 견디긴 어떻게 견디구 또 일이 되긴 하나? 이제 눈만 녹으면 벼씨두 부어야 하구 개답두 해야 하구 언제 눈코뜰새 있을줄 아나? 이 공사는 예정기간을 앞당겨다 벌써 준공했어야 될 일이네. 일을 이렇게 해놓구 농민위원장이 자기비판을 안해서야 되겠나?》
이 소리에 방안사람들은 모두들 빙긋빙긋 웃는다. 농민위원장도 기실 찔리는데가 있는 모양으로 약간 낯을 붉히고 웃었다. 그러자 막동이가 다시 벌떡 일어서 준렬한 목소리로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저두 동감입니다. 그리구 동원책임자인 저자신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앞에 자기비판을 하겠습니다.》 하였다. 고대 좌석은 물을 뿌린듯이 정숙해졌다.
이날 밤 회의에서는 고두치의 말대로 농민위원장과 막동이가 진심으로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비판을 내놓자 공사를 태공한 농민들도 다투어 앞에 나와서 자기비판들을 하였다. 그들은 이번 돌격기간에는 남보다 갑절 열성을 기울이겠다고 맹세했다.
회의는 공사기간을 5일간 단축하기 위해서 인제부터 돌격운동을 전개할것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호소문이 작성되고 래일 호소문을 들고 각 동네 공사장으로 파견될 사람들까지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멘트를 운반하여올 우차대도 조직하였다.

5

그 이튿날은 호소문을 들고 각 동네 현장으로 사람들이 파견되였다. 해빛이 따뜻해서 등골이 사물사물 간지러운 날씨다. 쌓일새없이 눈이 녹아 여기저기 검은 바닥이 드러난 밭과 언덕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여오른다. 다양한 산기슭에선 아지랑이가 설렌다.
막동이는 샘골동네의 현장으로 내려갔다.

점심을 치르고는 일터마다 회의가 벌어졌다. 샘골동네 사람들도 모두 뚝우로 모였다. 그들은 삽, 목도채, 곡괭이 같은 연장들을 깔고앉아 모두들 담배를 피운다.

《얘, 남분이 새서방이 꽤나 잘났구나.》

《흥, 그전에 달수의 섶품에선 조마구만 하던게 해방되더니 쎄긴 번졌네. 히…》

처녀들은 서로 귀속에다 대고 킬킬거리며 지금 동네의 지도일군들과 무어라고 상론하고 서있는 막동이를 흘끔흘끔 쳐다들 보았다.

샘골 농민위원장의 회의취지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은 다음 막동이가 나섰다. 먼저 이 관개공사의 진척정형에 대한 보고와 잘못하다가는 춘경사업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고 개답공사를 언제 하게 될는지 모를터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공사에 대하여 비상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력설하고 마지막으로 기다란 종이두루마리를 한옆으로 좔좔 펴흘리며 높은 목소리로 호소문을 랑독하였다.

박수가 일어나고 이 호소문에 호응해야 되겠다는 열렬한 토론들이 시작되였다. 어떤 청년이 내복만 입은 동가슴을 제끼고 나서서 한창 기운이 북받치여 이야기가 계속되는 때였다. 갑자기 머지않은 뚝우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났다. 벌써 이웃동네에서 회의를 필한것이다. 언제나 만세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버릇같이 가슴이 후두두 뛰여 이끌리듯 그쪽을 바라보았다. 뚝우에선 만세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 머리우에서 연장들이 번뜩번뜩 빛난다. 토론하는 청년은 힘이 북받치는듯 주먹을 불끈 쥐여 쳐들었다.

《여러분!》

그는 힘있는 소리로 고쳐 허두를 뗀다.

《우리는 무엇으로써 남조선에 와있는 미제국주의의 군대를 철퇴시키고 그의 앞잡이 망국도당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앞에 나선 사업이 성과적으로 승리하는데서만 그놈들을 쳐부시고 우리 조국의 통일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박수가 일어났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관개공사의 예정기간을 단축해서 준공한다는것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도당들에게 무서운 폭탄이 되

여 떨어진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기간내에 나에게 맡겨진 운토작업을 120프로로 초과실천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청년이 이마의 땀을 문지르자《옳소! 옳소!》하며 박수와 함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법석하는 사람들가운데서 이번엔 로인 한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좁은 자리에서 다리를 뽑으며 후들후들 채머리를 저으며 앞으로 나온다.

《아바얘, 그 감투 좀 바루 쓰라구요.》

너맹원들속에서 쟁그렁하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 바람에 모두들 킬킬거리며 웃음을 삼킨다.

《허허, 그거 아무러면 어떠냐? 감투가 토론하겠니?》

앞에 나온 로인은 벌씬벌씬 웃으며 베감투를 바로 쓴다.

회의는 뜨거운 환성속에서 호응문이 채택되였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들 벙글벙글하면서 막동이에게로 와서 손을 쥐여 흔들어준다.

《동무! 왔던 길에 나 좀 만납시다.》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어 돌아보니 샘골 민청위원장이다. 둘이는 뚝아래 호젓한 곳으로 내려가서 한참 무슨 말인가 나누고 웃어댔다.

《일만 되게 하우. 당자가 아니 하면 나래두 중매애비한테 떡 한바리 해서 실리겠소.》

막동이는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6

이튿날부터 각 동네 일터에서는 맹렬하게 일을 죄이기 시작했다. 날씨는 계속 따스해서 여기저기서 도랑물 녹아내리는 소리가 부산히 들려온다.

일터마다 까르르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황소같은 사내들의 구성진 목도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작년 가을 얼기 전에 하다가 덮어두었던 제1호 잠관의 콩크리트공사준비도 시작되였다. 강변에 쌓여있던 자갈과 모래를 실어들이고 일편 철근을 엮으며 널판을 둘러대고 틀을 짠다. 그리고 동발을 매고 콩크리트를 이길 철판까지 들여놓았다.

일준비를 다 해놓고 50리밖 세멘트공장으로 세멘트를 실러간 우차

들을 기다리고있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미 어슬어슬해진 뚝아래로 누가 허겁지겁 뛰여올라온다. 막동이였다.

《저— 젊은 사람들은 모두 나오시오. 강건너에 세멘트가 도착했는데 물이 불어서 우차에 실은채로는 건너오지 못하겠으니 다리를 메 건너야 하겠소.》

막동이는 다시 뚝으로 몇걸음 뛰여올라가다말고 입술에 손을 말아대고 우차쪽 토일간을 향해 거기 젊은 사람도 모두 내려오라고 소리친다.

《야! 래일부터는 콩크리트를 하겠구나. 자아— 어서들 나가보세.》

젊은이들 먼저 고두치가 앞장을 선다.

《아저씬 그만둬요.》

청년들이 말렸다.

《글쎄 나가세. 들어서 메주는것두 한몫일세.》

고두치는 우기고 나섰다.

작년 가을부터 새로 가설하던 목교가 아직 완성되지 못해 그곁에 림시로 널쪽을 이어놓고 건너다니는 다리가 있다. 그런데 눈석이물이 어제오늘 갑자기 불어서 량편 다리끝에서 여라문발씩이나 물이 잠겨 나갔다. 이미 물빛조차 시꺼멓게 어두워 널판쪽은 희끄무레 보일뿐이다. 량쪽 강변에서는 벌써 집채같은 우등불이 피여올랐다. 우차를 몰고온 사람들은 어느새 신발들을 뽑고 한포대씩 어깨에 메고 시뻘건 불빛을 안고 다리를 우줄우줄 건너온다. 널판밑까지 물이 남실거리여 널판이 사람의 무게를 받고 휘친거릴 때마다 물이 늘름늘름 발등을 핥고 지나간다.

《자아, 어서들 손 모아 번쩍 해봅시다. 그까짓거야 순식간에 옮기지…》

저고리고름까지 떨어진것을 되는대로 이어 우습강스럽게 허리를 동여맨 막동이는 다리를 훌렁 걷어붙이고 선봉을 섰다. 고두치는 힘에 부치여 세멘트포대를 어깨우에 올려놓진 못하고 아이를 업듯 등에 붙이고 건너온다.

《아니, 저 늙은이가 저러다가 무슨 실수를 하겠군. …》

곁사람들이 걱정을 해도 고두치는 들은체도 않는다. 다리에서 떨어져 개바닥으로 나오는 물속에서 해감이 앉은 물돌이 미끄러워 고두치

는 다리를 비척비척하며 떨기도 하였다. 휘이 강바람이 일면 량쪽에서는 산더미같은 불기둥이 치솟으며 우직우직 바스러지는 불가루가 어두운 허공을 날아 잉그르르 강물에 와서 떨어지기도 한다. 물가운데서도 불이 펄펄 타오른다.

막동이는 얼음덩이가 발에 채이는 찬물을 건너다니면서도 가슴속은 불이 그대로 옮아온듯 사뭇 뜨겁기만 하여 징겅징겅 누구보다도 먼저 건너와서는 《자아, 빨리빨리… 땀이 와짝와짝 나는구나!》하면서 사람들의 기운이 식을세라 서두른다. 청년들은 기운이 나서 연방 건너가고 건너온다. 이대로 밤을 밝혀도 좋을것 같이 기운들이 날만 하자 작업은 끝났다.

불앞으로 온 고두치는 이발을 들들 쪼으며 숨이 찬듯 배를 헐썩헐썩한다.

《허허, 이 아저씨 무슨 고장이 나겠군…》

《흐흐흐— 그렇게 거뿐히…》

고두치는 물이 좔좔 흐르는 바지가랭이를 비틀어짠다.

《이랴, 이랴— 곧추 건너가자!》

강가운데서 소를 몰아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빈 달구지들이 강가운데 들어섰고 막동이가 맨 선코에서 왈랑왈랑 물을 휘저으며 소를 타고 건너온다. 그것은 적을 기습하려고 어둔 밤에 강을 건느는 병마같아보이기도 했다.

7

그날 밤 막동이는 저녁을 먹고 고두치네 집으로 올라갔다. 고두치에게 긴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두치가 희뚝한 목침을 베고 누워 코를 드렁드렁 골고있다. 물참봉한 입성은 비틀어짜 홰대에 걸어놓았고 가마목엔 젖은 신발들을 펴널었다. 여벌로 의복이 없는 고두치는 강장하게 중의적삼을 갈아입은채 곽지같은 손을 가마목에 펴뜨리고 피곤한 모양으로 막동이가 들어간것도 모른다.

《허허, 아저씨가 뻗당게 고집을 쓰더니 아주 곯아떨어졌군. …》

막동이가 머리말에 가서며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고두치는 그제야 눈

을 번쩍 뜬다. 그러더니 여적 기운을 바리고 자던 사람같지 않게 냉큼 일어나 앉는다.
《허허, 그거 참…》
고두치는 변스럽게 고개를 떨구며 무얼 생각하고있다.
《왜 그러우?》
《…》
얼마뒤에야 고두치는 막동이를 쳐다보며 《자네 장인이 이제 금시 문을 열고 나갔네.》 하였다.
《아저씨두 못하는 소리 없군. 이제 금시 나갔다면 내가 들어오다가 만났지요, 허허허.》
막동이는 어이없어 커다랗게 웃었다.
《흐흐, 그것 참, 꿈하군 맹랑스럽게 꼭 생시같이 행할세.》
《봄철이 분명하군. 아저씨가 꿈이 많은걸 보니…》
《어쩐걸… 봄철이래서 꿈이겠나? 허허, 저도 혼이 있다면 이 공사에 가만 있진 않을거네. 글쎄 성큼 들어서더니 나더러 책망일세. 콩크리트공사를 벌려놓구 무슨 잠을 그렇게 자는가구, 어서 나가서 둘이 한발판 비벼보자네. 그리고는 바로 여기 앉아 쌈지를 달래서 담배까지 한대 피우고 그럼 나더러 뒤에 나오라고 하며 먼저 일어서 나갔네. 허허, 그거 참 들어왔다 나간게 아주 멀쩡하네.》
고두치는 입을 다신다. 그러더니 문지방에 담배대를 땅땅 털며 《제가 정작 살아있다면야 이 공사에 여북 힘을 쓰겠나? 죽은 넋이래도 그냥 있진 않을거네.》 하였다.
《아저씨, 이젠 꿈얘긴 그만하구… 저, 내가 얘기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막동이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며 고두치곁에 다가앉았다. 고두치는 물씬물씬 담배 빨던것까지 멈추고 뻔히 건너다본다.
《아저씨, 꼭 장가를 들어야겠수다.》
《흐흐, 이 사람. 난 또 무슨 소리라구… 그래, 그것두 무슨 과업으로 나한테 지우는건가? 흐흐흐흐.》
둘이는 한참 마주 웃었다. 얼마뒤 막동이는 짐짓 정숙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아저씨, 저 샘골 사는 강치도의 딸을 아우?》

하니까 고두치는 대번에 입을 딱 벌리며 놀래는것이였다.
《아따 이 사람, 짝을 끌어내두 분수가 있어야지… 그런 소릴 하다간 샘골 강가네한테 매맞겠네.》
《글쎄, 잘 아우?》
《아다뿐인가! 덕골 박면장놈이 빚값에 강제로 끌어다가 아마 두어달 살았지. 그담엔 되밀리여 친정에 와있다던데. 참, 그뒤엔 개가를 안 갔댔나?》
《허허, 고작 그렇게 아시면서 뭘 또 아신다구…》
《흐흐, 그담엔 참 어쨌나?》
일편 어림없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귀맛은 나는 모양이다.
《그담에야 집에 와서 여때 그냥 있었지요. 제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해왔는데 이젠 오랍동생들이 장성해서 부모일은 걱정없이 됐다구 저도 인제는 마큼한 자리가 있으면 옮겨앉겠다구 한대요. 안 그러겠소, 아직 40은 못됐다니까. …》
《흐흐…》
고두치는 바짝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되구안되는건 다음문제구 사람을 내세워 말을 걸어봤지요.》
《흐흐, 내세우긴 그래 누굴 내세웠드랬나?》
《바로 샘골 농민위원장을 내세웠지요. 그런데 그 녀자가 바루 샘골 민청위원장의 사촌누입데다.》
《옳지, 옳지…》
《그래서 민청위원장이 날 보구 자기도 권고를 했노라고 하며 당자가 어지간해한답디다. 그런데 아저씨맘엔 어떻소?》
《흐흐흐, 내가 아나? 난 몰르겠네.》
고두치는 웃기만 한다.
《가만있수다. 이젠 량편에서 당사 의취도 그만했으면 알았으니까 바싹 다우쳐 말을 끊어야겠수다.》
《아따 이 사람, 너무 급히 다그면 되나? 우선 공사나 끝내구야 어쯔지…》
《그야 허혼만 떼면 데려오는거야 아저씨맘이지. …》
얼마후 막동이가 일어서 나와도 고두치는 앉은채 담배만 뻑뻑 빨아

댄다. 울렁거리는 가슴때문에 언제 일어설 경황도 없는것이다.

고두치는 이튿날 아침엔 어느날보다도 더욱 일찌기 일차비를 하고 막동이네 집으로 내려왔다.

《덕원아바얘!》

남분이는 이렇게 불러놓고는 새없이 자꾸 입을 싸고 웃었다.

《에끼, 맹랑한 사람!벌써 방설을 했나!》

고두치는 막동이의 잔등을 철썩 갈기며 웃었다.

8

제1호 잠판에 콩크리트를 다져넣는 공사가 시작되였다. 철판을 둘이나 들여놓고 한쪽에 넷씩 삽군이 늘어섰다. 모래를 운반하는 사람, 자갈을 져올리는 사람, 물을 길어올리는 사람 저마끔 제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노라고 법석 들끓는다. 철판에다 모래를 철썩 부어놓으면 뒤이어 세멘트가루를 뿌옇게 휘덮는다. 그러면 삽날이 재치있게 철판에 귀를 박으면서 비벼넘긴다.

《자아, 물이요, 물…》

《자갈이요, 자갈…》

이런 소리는 일종 노래조로 연방 앞뒤에서 일어난다. 막동이도 그렇지만 이 콩크리트군들은 거의 작년 가을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한 동네청년들이다. 이제는 제법 삽이 손끝에서 장단을 맞춰서 움직였다.

그런데 오늘 막동이는 콩크리트를 비벼 넘기면서 전에없이 말 한마디 없다. 그는 마주선 청년을 흘끔거리며 자주 쏘아본다.

《이 령감 서발 가웃이나 되는 담배대를 물고 뉘기 눈깔 께겠네.》

마주선 청년이 자갈을 지고 올라온 고두치를 나무라는 소리다. 고두치는 입에서 담배대를 쭉 뽑으며 흘끔 청년을 쏘아보고는 언짢은 얼굴로 도로 내려간다.

《동무, 그 투구모자 뉘해요? 도무지 속이 울떡해서 마주서서 일을 못하겠소.》

얼마뒤 막동이는 마주선 청년을 면구스럽게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새 고두치도 자갈을 지고 곁으로 와서 말참견을 했다.

《그게 달수의 모자 아닌가? 그것두 치건(사치스러운 물건)이라

구 쓰구다니나?》

량옆에서 이러는 바람에 청년은 담박 초를 친것 같이 기운이 죽고 얼굴이 붉어진다.

달수… 정달수…

날이 갈수록 더욱 치가 떨리게 미워지는 이름이다. 고두치의 둘도 없는 친구 남분이의 부친 장명서가 죽은것도, 고두치의 안해가 죽은 것도, 이 근방 사람들이 기운을 못 펴고 살게 한것도, 일본놈앞에서 이 근방 사람의 갖은 기름을 뽑아다 제 배를 불린것도 그놈 정달수다. 고두치는 그중에서도 남분 애비가 죽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서 못 견딜 지경이였다.

읍에 살던 기꾸모도란 일본놈의 심복인 정달수란 놈이 이 마을에서 머슴을 4～5명씩 두고 대리지주행세를 하며 권세를 부리던 때이다. 어느해인가 한발이 극심해서 골짜기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소 오줌만한 물줄기를 가지고 저마끔 제 모자리에 끌어가겠다고 논두렁마다 신경이 팽팽해진 삽날을 번뜩이며 뛰여다닐무렵이다. 정달수놈은 다른 사람은 모자리가 말라죽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물을 끌어다가 모내기를 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욕심으로 물을 독판으로 대려다가 남분이의 부친 장명서와 논두렁에서 싸움이 붙었다. 그래 지금 막동이가 그때 달수네 머슴으로 있으면서 달수를 고약스럽게 여기고 밤에 가만히 나와서 장명서네 논에다 물을 대여놓았던것이다. 그러나 구원이 우환이라고 이튿날 아침 멋모르고 논에 나왔던 장명서는 달수의 손에서 뺨 한개를 보기 좋게 얻어맞았다 . 달수는 명서가 잠간 어이없어 섰으니까 대뜸 멱살을 잡아쥔다. 그러나 제 뱀과 권세만 생각한 달수였다. 명서에게 힘이 미치지 못하는 달수는 제풀에 동동 매달려 돌아갔다. 그러다가 장명서가 소처럼 뚝 뻗치고서서 코웃음섞은 소리로 《허허, 지랄하지 말구 산에 올라가 바위돌을 흔들어봐라, 움찍하는가…》 하고 동가슴을 바짝 재끼니까 달수는 참새처럼 홀딱거리며 뛰다가 제 걸음에 논개울로 굴러들어갔다.

그해 가을 장명서는 기꾸모도한테 불려가서 리유없이 논밭을 내놓으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것을 달수의 쪼간이라고 생각한 장명서는 그날 밤 술이 잔뜩 취해서 달수네 앞행길에서 주먹으로 땅을 치며 《어디 보자! 어느놈이 내가 부치던 땅을 부쳐! 달수 이놈아, 네놈 쪼간

이지, 응?》 하면서 호통을 뽑았다.
장명서는 이듬해 봄 섬쩍도 않고 태연스럽게 논발에다 거름을 져날랐다. 마침 달수네 집에 나왔던 기꾸모도란 놈과 거름짐을 지고 발머리에서 맞서게 되였다. 기꾸모도가 장명서의 지게다리를 나꿔채서 장명서는 온몸에 똥거름을 둘러쓰고 넘어졌다. 그 다음순간 그는 불이 펄펄 타는 목구멍에서 무슨 소리가 쓸어나왔는지, 작시미를 쥔 손이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장명서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다.
장명서는 그 이튿날 즉시로 사나운 구두발길을 받으면서 끌리였다. 곁발에 나왔던 고두치도 기꾸모도를 손 못쓰게 허리를 끌어안았다고 하여 같은 구타죄로 함께 끌리여갔다.
둘이 잡혀가서 한류치장속에서 거의 한달이나 졸경을 받다가 하루는 밤중에 술을 처먹은 형사녀석이 비틀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대뜸 장명서의 덜미를 잡아가지고 나갔다. 나간지 얼마 아니하여 장명서의 으악 하는 두어마디 비명소리가 들리고 등골로 송충이 기는 것 같은 징그러운 웃음소리가 뒤따라 들려왔다. 그러더니 얼마뒤엔 드르르 문을 열어제끼는 소리가 나고 형사놈의 끙끙 힘쓰는 소리와 함께 무엇을 마루바닥으로 질질 끌고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고두치는 이 순간 아뜩해지는 정신으로 눈을 감았다. 바로 곁방 문이 열리더니 《쌍간나 요보새끼, 죽어나 보라!》 하고 육중한것을 쿵 메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놈이 나간 다음 몇번 불러보아야 아무 소리 없더니 다음날 새벽녘에 이를 빠그극 갈며 벽을 쿵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님, 성님. 난 죽겠소. 나가거든 우리 남분이를… 흑 흐억…》 하고 가늘고 뼈저린 음성이 들려왔다. 고두치는 벽을 두드리며 아우성을 질렀다.
《여보게, 죽다니? 정신차리게, 응!》
답답하게 막힌 벽을 열손가락으로 할퀴며 제풀에 정신을 잃고 뛰다가 얼마뒤에 다시 불러보니 그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
뚝우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나서 누구인가 아까 그 젊은 사람이 쓴 헬메트(여름철에 쓰는 서양모자의 일종)를 휙 건드려 벗겨갔다. 모자를 벗겨간 사람은 코에 대고 냄새를 후후 맡아보더니 《흥, 그놈의 향수냄새가 아직두 나는구나. 동무, 이거 그자한테서 선사받

았소?》 하고 묻더니 못마땅하게 모자를 청년의 앞에다 덜렁 도로 던졌다.
《옳지 못하우.》
그는 다시 정중한 표정으로 책망한다.
《동무,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만치 일렀는데 여태 쓰구있단 말인가? 그따위 사상 가지구 마땅히 미워할 놈을 미워하겠소?》
이번에는 막동이가 사뭇 범의 기상이 되여 청년을 흘겨본다. 모자는 임자가 집기 전에 다른 사람이 채갔다.
《흥, 말은 어데 가고 안장만 남았구나.》
한사람이 이번엔 이렇게 타령조로 외우며 노느라고 모자를 저편사람가운데다 홀 던졌다.
모자는 한참동안 허공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것 치켜라! 그놈의 손때 묻은것만 보아두 속이 뒤여서 못 견디겠다.》
누가 이렇게 역정을 낸다.
모자는 한참 오고가다가 한편쪽에 언짢게 돌아앉아 담배만 풀풀 피우고있는 고두치의 뒤통수를 갈기며 대그르르 굴렀다. 뒤에서 와아 쏟아지는 웃음을 받으며 고두치는 모자를 걷잡아쥐며 벌떡 일어섰다.
《아니, 이거 아니문 우리 나라에 모자가 없나? 그놈이 도망쳐간 뒤에 그놈의 손때 오른 물건이라군 말짝 내 손으로 내다놓구 불을 질렀는데 글쎄 이건 어느 짬에 도적질을 했나? 원참, 기가 막혀서…》
고두치는 모자에다 침을 텍 뱉고 도로 역정스럽게 던져버린다. 이번엔 모자가 땅에 떨어지기 바쁘게 누구의 발길인가 불쑥 나오더니 와락 밟아 개바닥으로 차굴린다. 모자는 꼭지가 버개져서 디룩디룩 굴러내려가더니 그대로 두르르 틀을 짜놓은 잠관아가리로 떨어져들어간다. 뚝우에선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바로 이때다. 땅이 움씰하는것 같은 우람한 남포소리가 저수지쪽에서 산을 흔들며 일어난다. 강가운데 언제의 기초공사에 쓸 암석을 깨내는 발파다.
모두 저수지쪽으로 머리를 들었다.
쿠왕 쿠왕 쿠왕…
가슴속까지 움씰움씰 흔들어놓는 소리가 련달아 들려온다.

9

군농맹에서 전체 공사에 대한 지도를 하고 면인민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에서도 백방으로 원조를 기울였다. 전체 공사는 급속도로 진척되였다. 수문목 토일간에서는 인민반별로 흙을 나르는 경쟁이 시작되였다. 아침마다 하루에 파올릴 토량의 길이가 책임지워지면 반원들은 모두 땀을 흘리며 그 책임량을 초과하려고 서둘렀다. 소녀아이들은 고두치가 밤도와 삼아준 모개신을 신고 다리에 바람개비라도 달린듯 팔랑팔랑 활개를 저으며 언덕을 오르내렸다. 제1호 잠관공사는 그동안 철판을 다섯번이나 자리를 옮기고 콩크리트를 비벼넣었다. 너무 서두르는 판이라 혼합이 불충분하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두번 비빌것을 세번씩 비벼서 밀어넣었다.

점점 달밝은 밤이 되여 밤일이 더욱 능률이 올랐다. 간혹 들려오던 구구구 하고 깊은 땅속에서 나던 경칩의 소리가 이제는 제법 여문 소리로 개울가나 논뚝 같은데서 수시로 빠그그빠그그 울어댄다. 밤일을 하다가 다리쉼이라도 하는 참이면 그 소리가 사뭇 사람들의 마음을 달뜨게 하였다.

《흥, 시절이 다 됐다구 저것들두 야단이군. …》

막동이는 흥청대는 마음으로 달빛에 뿌옇게 젖은 벌판쪽을 내다본다. 입술에다는 언제 면도를 대봤는지 수염이 자라 구레나룻이 되고 세멘트가루가 뿌옇게 씌웠다.

고두치는 몇밤을 새고나더니 눈에 충혈이 서고 자꾸만 눈곱이 끼였다.

예정보다 하루 빠르게 잠관공사를 끝낸 사람들은 육중한 철판을 목도에 떠가지고 제일 난공사요 마지막공사인 언제를 막는 공사로 옮기여갔다.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문목에 강물을 건너지르고 콩크리트로 뚝을 막는 공사이다. 그것도 작년 얼기 전에 량쪽에서 얼마씩 시작을 해놓고는 이 봄에 들어서도 눈석이강물이 줄기를 기다려서 여태 돌려놓았던 공사이다. 흙을 다져넣은 가마니로 한동강씩 토막을 지어 강물을 돌려 막고는 강바닥에 암석을 석자깊이로 깨내야 했다. 그것은 콩크리트가 바위에 튼튼히 기초를 박게 함이였다.

《자아, 마치군이 못 견디나 삽군이 못 견디나 한번 해보세.》

벌써 량쪽에다 한토막씩 잘라 콩크리트를 비벼넣도록 준비를 해놓고 다음토막을 준비하는 남포군들이 새파란 바위를 타고앉아 고개짓을 해가며 돌구멍을 뚫고있다. 가마니동을 쌓아놓은 그들의 머리우에 선 푸른 물열기가 철썩철썩 부서지고 량쪽에서 죄여들어온 물이 점점 좁아지는 외통으로 세차게 뽑혀나간다.

《동무! 여기는 아직 석자길이가 못되우. 몇구멍 더 뚫어야 되겠소.》

막동이가 마치를 휘두르며 부산스럽게 정질하는 강바닥으로 내려가며 애숭이남포군한테 하는 소리였다.

《온 형님두, 별소릴 다 하우. 그만치 깨구라두 콩크리트를 다져넣어보우. 만년부파지. …》

그 소리가 사뭇 어리광피듯 일편 귀염성스럽게 들리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내버려둘 소리는 못되였다.

《동무 임의로 하는게 아니야. 이건 벌써 과학적으로 석자길이는 돼야 한다구 설계에 있는거란 말이요. 일이 암만 바빠두 우리는 설계에서 한푼 어기게 해두 안되우.》

청년도 벌씬 웃으며 그 소리를 달게 받았다. 고두치도 뒤에 와서 자기 담배불에 맞불을 하자고 앞에 온 기술자에게 《흐흐흐, 망한 녀석들, 여기 선생이 왔다. 허투로 하다가 큰코 떼지 말구… 그리고 여보, 기술자선생! 도면일랑 그렇게 둘러메고 다니지 말구 가끔 저 사람들한테 펼쳐보이면서 단단히 감독을 하우다.》 하였다. 기술자도 권연을 한모금 삼키며 웃었다.

이 언제를 막는 공사는 잠관공사의 류가 아니였다. 사람들은 갑절기운을 내였다. 개밖에 나가서 모래와 자갈을 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붕긋한 언제등을 타고 연방 작시미로 발옆에 출렁대는 물을 건드리며 장난을 했다. 고두치는 발목을 휘적셔서 귀치 않다고 신발까지 뽑아버리고 맨발로 자갈짐을 지고다닌다.

며칠동안 계속하고나니 제일 념려했던 가운데 마지막토막까지 막아 이제 아주 절강을 시켜놓았다. 한옆에 들여놓은 배수문통으로 넓은 강물이 온통 뽑혀나가노라고 무서운 힘으로 폭포같이 쏟아져내렸다.

일은 예정보다 빠르게 죄여들어 단축기간에서도 훨씬 이르게 끝마칠것이 예견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한참씩 눈을 붙이지만 막동이는 요사이 거의 밤과 낮을 잊은 사람이 되였다.

《너무 그러다가 고장이 나지 말구 슬금슬금 해서 오래 견디는게 장사네.》

고두치가 이러면《난 아저씨가 맘이 안 놔우다. 눈굽이 자꾸 내끼는걸 보니 정말 무슨 고장이 날것 같애요.》하면서 도리여 고두치를 걱정하는것이였다.

어느날 저녁때였다.

쉽참에 고두치가 언덕에 올라앉아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니 자갈더미곁에 뻗쳐놓았던 지게가 간데 없다.

《아, 내 지게 누가 개갔나, 엉?》

두루 소리쳐보아야 지게는 누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철판우에서는 자갈을 져올리라는 소리가 뻗닿게 건너온다.

《지게 누가 개갔느냐? 어느 녀석이 이따위짓을 했나? 지게 개오너라! 지게 개와!》

고두치는 뒤가 마려운 사람처럼 훌훌 뛰였다. 그러다가 미심결에 자갈더미 저쪽으로 돌아가보니 막동이가 지게를 세워놓고 비스듬히 기대누워 코를 드렁드렁 구르지 않는가!

《흐흐흐 으흐흐흐… 아무렴 제가 으흐흐흐…》

고두치는 수염을 쥐고서서 한바탕 웃었다. 어느 놈이 그랬는지 한바탕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차마 이렇게 된 일인줄은 몰랐다. 고두치는 살금살금 나와서 빈 가마니짝 한잎을 들고가서 지게곁 판판한데다가 깔아주었다.

《이 사람, 여기 편안히 눠서 한잠 자게.》

그제야 막동이는 노루처럼 벌떡 일어섰다.

《아차, 조금 눈 붙였다가 깨난다는게… 벌써 일들을 시작했군. …》

막동이는 얼굴을 와락 비비고 줄끔줄끔 팔운동까지 한다.

《이 사람, 여기 눠서 한잠 자게.》

《허허, 아저씨두 실성했군. 일은 안하구 자요?》

막동이는 법석 고아올리는 일판으로 휘파람을 불며 들어간다.

10

봄 잡혀서 처음으로 비가 부슬거리며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터에는 누구 한사람 쉬는 사람은 없었다.

《위원장동무! 준공날자를 나흘 더 앞당겨옵시다. 이만하면 일들이 눈에 뻔히 뵈우니까요.》

《…》

지금 비내리는 뚝우에서 막동이와 농맹위원장이 언쟁을 하고섰다.

《왜 안될것 같단 말이요? 그래서 이건 뭐 호소문을 뗄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아래 일터들을 삥 돌아오겠수다. 수문목공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여기에 발을 맞춰서 전체적인 공사를 나흘 더 앞당겨 준공하자구 또 한번 불을 질러야 하겠단 말이요.》

막동이가 이렇게 부리나케 우겨도 짐작이 많은 농맹위원장은 자꾸 주저거리였다.

《글쎄, 그것두 좋은 일이지만 수문목공사가 그전으로 틀림없이 준공이 돼야 말이지 괜히 확실성없는 일을 소문만 내는것두 좋을것 같지 않네.》

《아니, 위원장동무는 그거 어떻게 하는 소린지 모르겠소. 지금 농민들의 열성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구있다는걸 알구있소? 지금 이 고비에서 이 열성을 바로 끌고 바로 못 끌구에 큰 관계가 있단 말이요. 가만히 내버려둬두 별일은 없지요. 그러나 한마디만 섬겨보아요, 효과가 어떤가!》

막동이는 농맹위원장의 의견을 굽혀놓지 않고는 못 견딜 마음이다.

《글쎄 일은 그렇게 너무 덤빌 필요는 없네. 실수없이 지도해나가는게 옳은 일이네.》

《여보, 위원장동무! 그렇게 장님소리만 하지 말구 정세를 좀 똑히 파악하우다. 지금 농민들은 그 이상 힘든 일이라도 뚫고나가요. 위원장동무생각이 벌써 농민들한테 뒤떨어져있수다.》

막동이가 시뻘개서 우기는통에 농맹위원장은 어쩔수없이《그럼 있다가 회의를 가져보세. 이런 문제는 직접 군중들이 해결해야 할테니까. …》하였다.

비가 오거나말거나 점심참엔 뚝우에서 회의가 열렸다. 막동이가 나흘동안 더 단축하자는 보고를 내놓았다. 말이 떨어지자 농민들은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였다.

《흐흐흐, 그렇지. 그걸 못하겠다는 놈이야 있겠나? 이젠 고개턱이 뻔히 올려다뵈는걸…》

고두치는 빙글거리며 새없이 곁사람을 지분거린다. 농맹위원장은 그제야 빙긋이 웃으면서 연장창고에 들어앉아 코끝에 맺힌 비물방울을 손등으로 훔쳐가며 군농맹에 보낼 이에 대한 보고를 쓰고있었다.

막동이는 그길로 다른 동네 현장으로 떠났다. 우산이라고 들고나서긴 했으나 두군데나 찢어진 유지가 너들너들하더니 기어이 바람을 안고 풀떡 뛰였다. 이러고보니 비갈망을 못했다. 새맞게 부는 동풍이 가슴에 안겨와서 얼마 안 가서 옷이 푹 젖었다. 다지우지 않은 뚝길은 흙이 한말씩 일어나 신바닥을 안고 늘어졌다. 그러나 막동이는 오늘안으로 40리 되는 마지막동네까지 다녀올 예정으로 부지런히 걸었다.

첫 동네에 들리자 비를 맞으며 흙을 나르던 사람들이 인사 먼저 수문목공사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앞을 다투어 물었다. 막동이가 공사의 진척정형을 말하고 다시 나흘간 기간을 단축하자는 호소를 가지고 내려왔노라고 하자 그들은 연장을 든채 막동이를 에워쌌다.

수문목공사가 그렇게 빨리 되였다는것은 그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그들은 번거롭게 언제 회의를 열고 토의하겠느냐고 하면서 흙과 비물에 젖은 손을 쳐들면서 보화덩이나 한아름씩 안은 사람들처럼 기뻐 뛰였다.

비물에 젖어 기뻐 뛰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막동이는 무엇인가 심금을 강하게 울려오는것을 느끼였다.

다음동네도 그다음 동네도 한모양으로 막동이를 환영하였다. 중간지역 동네들에서도 그 호소를 다음지역으로 련달아 련락하겠다는것을 막동이는 자기의 책임진 과업이라고 우기면서 떠나군 하였다.

실지 이렇게 공사를 단축해서 완수하려면 혹시 그 사이에 애로가 가로놓이는 동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녕 그러한 구역이 있다고 하면 막동이는 그것을 타개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고 떠나려는 생각인것이다.

이렇게 비오는 40리 뚝길을 뽑아치고 내려온 막동이는 옷이며 신발이 무서운 꼴이 되였다. 튼튼한 막동이로서도 기운이 뽑히여 휘주근히 어깨가 늘어져뵈였다. 어두워서 마지막동네의 용무까지 끝내고야 그 동네 인민위원장의 집에서 김치 한사발을 달래 아침에 들고 나온채 먹지 못하고 꽁무니에 차고 온 밥곽을 점심겸 저녁겸 먹었다.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만류하는것도 듣지 않고 언제의 마지막 콩크리트를 다져넣을것을 생각하면서 불이 나서 돌아섰다.

어둡고 침침한 밤이였다. 코앞에서 쥐여질러도 모르리만큼 하늘만 희끄무레하고 땅우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인제는 비가 아니요 진눈까비가 부실부실 끼얹는다. 평탄하다고 맘놓고 허청 디디면 높은 둔덕이기도 하고 조심을 하느래도 때없이 깊은 웅뎅이에 떨어져들어가고 몇발씩 비탈에 굴러서는 진탕과 씨름을 하면서 간신히 길을 찾아내군 하였다. 등골로는 땀이 후줄근히 내배였다. 담배불이라도 도움이 될가 해서 그때 비로소 담배쌈지를 더듬었으나 쌈지는 부시주머니와 아울러 푹 젖어있었다.

11

그날 밤 갖은 신고를 다해서 닭이 두홰를 칠 때에야 막동이는 마을에 돌아왔다. 그는 그길로 곧추 제방을 걸어 수문목으로 올라갔다. 불현듯 념려되는데가 있었기때문이다. 바삐 걸어온 막동이는 배수문밑에 이르러 희끄무레하게 건너간 언제쪽을 바라보았다. 예상했던것 이상으로 물이 불었다. 아무도 있는것 같지 않고 물소리만 왕왕거리며 높은 소리로 흘렀다. 의례 이런날 밤에는 밤일을 못하더라도 현장에 수직은 세웠어야 할것이다. 그게 념려되여 올라왔는데 정말 수직원이 있는것 같지 않다.

《누가 없소? 거기 누가 없소?》

연거퍼 두마디나 높은 소리로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바람에 막동이는 버쩍 불안스러운 생각이 치달아 언제등에 대놓은 발판을 징겅징겅 디디고 씽하니 뛰여갔다. 꽁무니에 찬 밥곽이 바쁘게 달랑거렸다. 언제등으로 물이 한뽐이나 서서 기여넘어간다. 철버덕거리며 뛰여나가니 언제가운데 이뿔저뿔 험상한것이 우뚝 막힌다.

무시무시한 생각이 휙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래일 콩크리트를 비벼넣을 준비로 동발을 매고 철판을 들여놓은 일자리였다.
막동이는 아직 언제와 언제가 련결되지 않은 이쪽끄트머리에 달려가 얼른 허리를 꾸부렸다. 대뜸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광경이 눈에 채였다. 가마니동을 쌓은 중둥이로 시꺼먼 돼지같은것이 쿨쿨거리며 널판짬으로 기여나온다. 벌써 밑바닥에는 물이 층층 차고 콩크리트를 비벼넣을 틀이 물속에 서있다. 막동이는 아부재기치며 얼른 뛰여내렸다. 물이 배허벅을 지난다. 물이 기여나오는 구멍에 손을 막았다. 그러나 벌써 손으로 막을 구멍이 아니였다. 흙넣은 가마니 한짝이 쑥 밀려나왔다.
막동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며 이것저것 곁을 더듬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것은 없고 꼭뒤에서 철판과 동발이 건드리고 량옆에서 우죽뿌죽 내민 말장그루가 옆을 질렀다. 한참 정신없이 서두르던 막동이는 더욱 놀라운것을 발견했다.
누가 그런 부지런한짓을 했는지 가마니동우에다 세멘트를 그득 들어다 쌓아놓았다. 비를 맞지 않게 가마니짝을 두겹세겹 둘러친것으로 보아 래일준비를 하노라고 한것이 분명하다.
《빌어먹을 놈,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옮겨다쓰겠는데 이건 무슨 지랄루 이렇게 했는가? 둔한 놈…》
거의 울상으로 중얼거리며 허둥지둥 뛰였다.
어느새 물이 가슴노리에까지 올라왔다.
가마니동은 웃짐이 많은 그것이 도리여 흠으로 안턱에서 뽑히는 물발이 점점 굵어질수록 아찔하게 쳐다뵈는것이 흔들흔들 위태로와보인다. 물은 거의 량옆에 가마니동과 가지런히 올라간다. 막동이는 그제야 자기가 망망한 물가운데 위태롭게 들어와섰다는 생각이 문뜩 일어나 얼른 언제등으로 기여올랐다. 마을사람들이라도 불러내여 다른것은 몰라도 세멘트와 철판은 살려내야겠다고 언제등으로 몇걸음 뛰여나간 때였다. 뒤에서 쾅 물러앉는 소리가 나며 철판이 왱강댕강 요란한 소리를 내였다. 막동이는 얼른 뛰여와서 한옆으로 기울어지려는 철판 한쪽귀를 걷잡았다. 일은 너무 순식간이였다. 세멘트포대와 아울러 가마니동이 휘딱 거꾸로 배기며 벌써 산더미같은 물이 그우를 덮었다. 그러자 숨쉴 겨를도 없이 아래쪽동이 물을 안고 무너

져넘어간다. 콩크리트틀과 동발이 우직우직 부러져나가고 육중한 철판이 물에 내려져 휘끈휘끈 막동이의 손아귀에서 흔들리였다. 막동이는 발을 버디디고 한결 단단히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무서운 힘으로 잡아당겨가는것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죽기로 한사코 당기였다. 그러나 막동이의 힘은 그 육중한것이 우쭐우쭐 뛰노는대로 끌려들어갈것만 같았다.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언제 안턱에 발목을 걸고 물바닥에 철석 엎디였다.

하마트면 물에 떨어져 들어갈 위태로운 역사를 해서 철판을 언제우에 당겨올렸다. 일어서니 온몸이 후두두 떨리였다.

막동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물이 좔좔 흐르는 몸으로 그 자리에 잠간 버티고섰다. 언제 가운데토막을 뚝 끊어가지고 달아난것처럼 물이 쓸은듯이 밀고내려간다. 물을 내려다보는 막동이는 새삼스럽게 또 가슴이 울떡하며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막동이가 개밖으로 나왔을 때 동네사람들이 뛰여나왔다.

《아니, 막동이 아닌가? 저길 들어가봤나?》

《…》

막동이는 대답할 경황이 없었다. 동네사람들이 황황히 뛰여건너간다.

《아니, 이걸 어찌나? 이런… 엉?》

먼저 고두치의 목소리가 커다란 울음소리같이 들려온다.

《그런데 고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고새가 뭔가? 고새가 뭐야? 이걸 인제 어떻게 할 작정인구, 응?》

누구인가 기를 내서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사람들은 금방 손끝에 안겨있던 아이의 목숨이라도 물에다 빼앗긴것처럼 황황히 물을 원망하고섰다가 입을 다시며 도로 건너왔다. 사람들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듯 막동이가 서있는 언덕아래로 오더니 모두 털썩털썩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자네 이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나?》

얼마뒤 농맹위원장이 오늘 밤 수직하던 청년에게 하는 소리다.

《글쎄 내가 수직 잘못 본게야 있소? 고두치령감이 새없이 나와서 래일일을 한수 죄여 할라면 세멘트를 미리 옮겨놔야 한다구 그걸 서

른포대나 이편 혼자서 전부 옮겨다 쌓아놨지요. 그래야 웃짐이 무거워서 물이 나두 거뿐히 내밀리지 않는다구 우겼지요. 그런데 웬걸, 정작 물이 불으니까 내밀리진 않어두 밑으로 짬이 나는건 어째요? 그 세멘트포대만 아니래두 가마니를 얻어서 고쳐막아보기라도 하겠는데 그걸 서른포대나 쌓아놓았으니 물가운데서 혼자 그걸 어찌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동네로 뛰여갔댔지요.》

청년은 모두 들어보란듯이 제 발뺌을 하노라고 야단이였다.

《왜 글쎄 그 령감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나? 오늘 저녁에는 물이 위태하다구 내가 밑말까지 두지 않었나?》

좀해 성을 내지 않는 농맹위원장도 버럭 성을 내였다.

《위원장동무는 말은 듣지 않구 자꾸 나만 틀렸다면 어쩌우?》

청년은 자기한테 책임을 씌우는건 억울하다고 한사코 고집이였다. 그러자 막동이가 후닥닥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대뜸 청년의 멱살을 탈아쥐고 씨근댄다.

《뭐야? 이자식, 의당 제가 책임이 있어가지구 그 책임을 늙은이한테 돌려씌워?》

막동이는 멱살을 마구 흔들어놓는다.

《옳지, 넌 왜 이러니?》

《왜 이러다니? 이자식아, 반동이 와서 무슨짓을 해도 그 책임을 반동한테 돌려씌우겠니?》

막동이는 주먹을 불쑥 둘러메였다. 내려갈기진 못하고 후들후들 떨기만 한다.

《이자식, 저 모양을 만들어놨으니 언제 저기다가 콩크리트를 해넣니? 대목에 와서 어떻게 할셈이냐? 엉?》

막동이는 낮에 자기를 둘러싸던 수많은 농민들 얼굴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라 그대로 엉엉 울고싶었다.

《글쎄 놓으란 말야! 너 어쩔셈으로 이러니?》

청년이 이러며 바동거리는것을 막동이는 정말 무슨 일을 내고야말듯이 버쩍 더 멱살을 탈아쥔다.

이러는데 뚝우로 마을사람들이 솔광불을 켜들고 뛰여나왔다. 불앞에서 보는 막동이의 모양은 무서웠다. 머리에서부터 물이 좔좔 흘러내리고 파랗게 질린 얼굴에 광대뼈가 불쑥 삐여져보이고 눈만 무섭게

이글거렸다.
《이 사람, 이렇게 완력으로 할것이 없네.》
농맹위원장이 가운데 나서는것을 막동이가 한팔로 힝 떠밀쳤다. 그는 무슨 일을 낼것 같았다.
《흐흐흐, 이 흐흐흐.》
별안간 웃음소린지 울음소린지 분간할수 없는 소리가 한쪽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누가 달려와 막동이의 정갱이를 담쑥 껴안는다. 고두치였다.
《이 사람, 이 늙은 놈의 죄야. 그 사람은 제발 놔주게, 응?》
고두치는 울음에 젖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자식아, 넌 좀이다, 좀이야. … 물에다 차넣으라니, 어찌라니?》
막동이는 그제야 막혔던 목구멍이 터지듯 한마디 웨치며 청년을 와락 떠밀쳤다.
《엥 이놈, 이놈이 죽을 놈이야. …》
고두치는 제 가슴패기를 쾅쾅 때리며 땅바닥에 벌렁 주저앉는다. 고두치가 그러거나말거나 막동이는 허리춤에 주먹을 짚고 한참 그대로 우뚝 서있다.
《이 새끼 둔하지. 제 동네일은 이렇게 만들어놓구 그래도 남의 동네일을 걱정하느라구 해종일 미친것처럼 돌아다니며 큰소릴 했군. …》
막동이는 목소리를 떨었다. 그러더니 두눈에 불빛을 번쩍 받으며 얼굴을 홱 돌린다.
《다들 다른 동네 사람들만치 열성이 없어요. 왜 오늘 밤 같은 땐 수직을 여러 사람 내면 어떻소?》
막동이의 이 말은 너무도 강하게 여러 사람의 가슴을 두드렸다. 농맹위원장도 가슴이 찔리여 할말이 없었다.

12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막동이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누웠다일어났다 하며 밤을 밝히였다.
막동이는 문살이 희슥할무렵에 먼저 일어나 긴 장대 하나를 들고 언제둥으로 나왔다. 그는 언제둥과 가지런히 흘러가는 물가운데다 장대

를 넣어서 여기저기 짚어보았다. 물은 급한 힘으로 장대를 후들후들 내밀었다. 발뒤꿈치를 들고 여기저기 물바닥을 짚어서는 제 키에 견주어보군 한다. 물은 불었지만 아직 키를 넘는데는 없다.

막동이는 물판을 지켜보고서서 무엇을 한참이나 생각했다. 날은 들었으나 후독이 풀리지 않아 강바람이 쌀쌀하다.

막동이가 이렇게 언제등을 왔다갔다하고있는데 인제 환히 밝은 저편뚝우로 농맹위원장과 고두치가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나타났다. 언제등으로 걸어온 농맹위원장이 막동이에게 물었다.

《어떤가? 막아냄즉 한가?》

막동이는 대답하지 않고 무뚝뚝한 얼굴로 물판만 여기저기 보았다. 뒤이어 마을사람들이 또 한패 밀려나왔다.

언제등에 모여온 사람들은 법석 떠들어올렸다. 그들은 밤새 자지 않고 저마끔 강물 막을 연구들을 하였다. 이 난관에 굴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벌써 몇시간전의 일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새 일을 토의하기에 흥분했다.

결국 막동이가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고 결정되였다.

그날 막동이는 동네사람들을 데리고 우차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 말뚝감을 찍어왔다. 한편 마을에선 섶나무를 두어동 실어냈다.

한낮이 겨워서 물동 막는 공사가 시작되였다. 얼마 길지 않은 구간이지만 언제대목은 암석이 되여 말뚝이 들지 않고 우선 초벌로 막는 것은 멀리서 엇잡아야 했다.

민청원들이 모두 동원되였다. 막동이가 먼저 아래우를 벗고 도끼와 말뚝을 메고 물로 덤벙 들어섰다. 침질하는것 같이 뼈저린 물이 가슴을 지나 턱밑에 왔다. 막동이로서도 두어마디 《으흐흐흐.》하고 소리를 치고야 엉깃엉깃 물가운데로 들어갔다. 뒤를 대여 붉은 몸뚱이가 연방 흐덕흐덕 웃어대며 물속으로 떨어져내린다. 30여명의 불깃불깃한 얼굴이 물가운데 쭉 늘어섰다. 그들은 말뚝키가 꼭뒤를 넘어서 발돋움을 하지 않곤 면바로 갈길수가 없다. 무시로 턱밑에 남실거리는 물판을 갈기고는 머리에 물벼락을 쓰고 흐억흐억 웃어댄다.

막동이도 여러번 물벼락을 맞고 머리가 기름에 잠가낸것 같이 반드르 얼굴에 내려덮였다.

《자아, 한사람이 다섯개씩만 박으면 되는군. … 우선 단단히 박을것. 간격이 고루게 박을것. 헛방을 치지 말것. 그담엔 노래를 부를것.》

막동이는 웃어가며 연방 이런 소리를 섬겼다. 물밖에서는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누구인가 선창을 떼여 노래를 불렀다. 여러 사람이 노래를 합창하자 나무단을 섬기려고 물밖에 대기하고있는 사람들까지 노래를 불렀다. 말뚝박는 소리가 장단인거나 같이 그들은 흥겨웠다.

《흐흐흐 흐흐흐.》

그러나 일이 거의 되였을 때엔 웃는 소리도 같고 흐느낌소리도 같은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자주 들렸다. 그러지 않으려고 이발을 악물면 악물수록 저절로 턱이 덜렁대며 이발이 달강거려진다.

순식간이다. 쌍줄로 말뚝을 박아놓고는 그 말뚝새로 나가며 나무단을 처넣기 시작했다. 물가운데로 나무단이 연방 날아들어온다. 그것을 받아 쌓는 청년들은 새빨간 몸들이 점점 물밖으로 솟으며 찬바람이 스치자 한결 더 으스스하며 속깊은데서 자꾸 흐느낌소리가 솟구쳐오른다. 온몸이 굳어버린것 같고 량팔이 나긋나긋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

점점 갈바를 잃은 강물이 량옆 언제등으로 기여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물동 막는 공사는 끝났다.

얼마뒤 불앞에서 몸을 녹인 청년들은 이번엔 물숨이 약해진 언제대목에 흙가마니를 메여날랐다. 그것도 이번엔 쌍줄로 내쌓고 그 어간에다 진흙까지 운반해다 다지였다.

13

공사는 날마다 엄청난 성과를 올리면서 뛰여갔다. 사람들은 갈수록 기운이 나서 준공 가까운 며칠동안은 일판이라기보다 그냥 감격의 싸움판이다. 바쁘게 부닥드리는 삽장끝에선 불꽃이 튀였다. 언제를 막는것도 마지막콩크리트를 비벼넣었다. 틀만 잡아떼면 우람한 콩크리트뚝이 그렇게 말썽부리던 강물을 한품에 가두고 보란듯이 누

워있을게다. 그런데 아래쪽에선 벌써 두 구역이나 일이 끝났다는 보고가 날아왔다. 군농맹에서는 이 로력을 재빨리 다른 구역의 협조에 돌렸다.

어느날 아침엔 수문목에도 이웃동네 농민들이 흙신발그대로 연장들을 메고 동원되여왔다.

《아저씨, 그 수염 깎아야겠수다.》

막동이가 고두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그게 밥을 달라나?》

《글쎄 내가 깎으라면 깎아야 돼요.》

《흐흐흐, 맹랑한 사람… 그건 뭐 고자처럼 숭없게 깎는단 말인가?》

《글쎄 우기지 말구 깎아요.》

막동이가 한사코 이러며 웃는 바람에 그제야 고두치는 뚝 짚이는데가 있었다.

《흐흐흐흐, 거 뭐 깎지 않으면 어떤가?》

고두치는 제 짐작으로 속부터 울렁거려왔다.

그날 밤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던 막동이는 잔디가 돋아난 언덕우에 고두치와 함께 앉았다. 그들은 담배 한대씩 붙여물었다.

《아저씨, 오늘 샘골에서 기별이 왔수다.》

《흐흐흐흐.》

고두치는 말보다 웃음이 앞선다.

《그래 어떻게 됐나?》

막동이가 잠간 앉아있으니까 고두치는 안타까운듯 막동이를 쳐다보며 묻는다.

막동이는 빙긋이 웃으며 아무말없이 심술궂게 버스럭거리며 담배 한대를 또 말아문다.

《아따 이 사람, 멋만 따놓구 앉았으면 어쩌나? 거 갑갑스럽긴 하네.》

고두치는 그만 화증머리가 날 정도였다.

《허허허, 아저씨가 등이 달았군.》

《흐흐흐, 부끄러운 말이네만 사실인즉 등이 달았네.》

《하하하하.》

막동이도 웃었다.

《저쪽에서 허혼을 했대요. 중매애비가 직접 올라올터인데 공사때문에 올라오지 못한다구 전편에다 글을 써보냈군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젊은 녀자가 장차 살림을 방정히 해줄가? 난 그게 걱정스럽네.》
고두치는 턱을 낮추며 정색한 음성으로 이렇게 묻는다.
《아저씨, 그런건 의심할게 없어요. 웬만한 녀자면야 여태 시집을 안 가구 제 부모 모시구있었겠소?》
《…》
고두치는 담배만 풀썩풀썩 빨고앉았다.
《그래 저편에서 잔치할 날자까지 아여 정해서 보냈습데다. 이 공사를 준공하구 닷새후에 하자구…》
《아따 이 사람, 이거 정말 단불에 나비 잡듯 하는판일세. … 그런다면 뭐 입을 입성두 마련할 틈이 없지 않은가?》
《아저씨 입을것만 마련하면 될텐데 뭘 그러우? 저쪽에선 제 입을걸 다 가지구 온대요.》
《그렇지만 잔치를 어떻게 한심스럽게 할텐가? 거지신세두 아닌것이…》
《아저씨, 별소릴 다 하우. 잔치야 어쨌던 사람을 뽑아오는게 땅수야요.》
《흐흐흐… 온, 사람두…》
고두치는 막동이의 말이 웃음의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손탁에 걸려들면 끌장을 보고야마는 막동이가 고두치의 마음가운데 기둥처럼 튼튼했다.
달무리가 선 밤이다. 하늘은 면사를 가린듯 뿌옇고 안타깝다. 별들이 은은히 눈짓한다. 하늘도 축축히 물기를 썼으려니와 땅도 공기도 부드럽게 젖어 밤이 한없이 깊어간다. 고두치는 아름다운 꿈과 흥분에 휩싸여 언덕우에 앉아있었다.

14

드디여 공사는 준공되였다. 예정날자에서 일주일이나 빨랐다.
아득한 벌판가운데도 새흙으로 쌓아올린 두줄기 제방이 구불구불 누

워나갔다. 말끔하게 부시여올린 개울바닥은 물을 끌어넣는대로 기름처럼 미끄러져내릴것 같이 편안하다.

통수식하는 날은 날씨가 더더구나 맑고 보이는 곳마다 아지랑이가 금실금실 춤을 춘다. 수문목 넓은 잔디밭에는 이웃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발을 디밀 틈이 없었다.

군당위원장과 군인민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 책임일군들이 참석하여 이날의 행사가 더욱 이채스러웠다. 높다란 수문축대를 바라보며 잔디밭에 모여선 군중은 정숙히 식을 진행했다. 금방 물을 쳐서 정갈하게 닦아놓은 입수문 콩크리트축대의 승강단으로 군당위원장과 군인민위원장이 무거운 쇠로 된 손잡이를 하나씩 들고 구두징을 자각자각 울리면서 올라갔다. 두사람은 저마끔 둥그런 치차가 달린 기계앞으로 갈라서서 손잡이를 기계에 꽂고 뭇시선앞에 웃음을 보내면서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다. 상투만 하게 끝만 보이던 수문의 심봉대가 량편에서 움씰움씰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시선을 개울바닥으로 몰고 숨을 죽인다.

《야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누구인가 소리치자 어느새 물대가리가 개울바닥을 휘저으며 들여밀린다. 《영원불갈》이라고 크게 새기고 《1947년 4월》이라고 년대까지 쪼아놓은 돌이망밑으로 물발은 연신 굵어온다.

《아니, 위원장께서들 저걸 욕시러워 다 뽑아올리나?》

물대가리가 성차지 않게 야금야금 불어가고있는것이 안타깝다 못해 고두치는 축대우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러는데 어느새 막동이가 축대우로 징경징경 올라가더니 군당위원장의것을 받아쥔다. 그 바람에 고두치도 쥐였던 담배대를 허리춤에 가로지르고 축대로 냉큼냉큼 올라갔다. 갑자기 축대아래 잔디밭에서 와아 하고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그것은 손잡이를 빙빙 돌리며 빙글거리는 고두치의 얼굴이 수염을 빤빤하게 깎고 말쑥하게 젊어졌기때문이였다.

막동이와 고두치는 위원장들앞에서 벙글벙글 웃어가며 씽씽 돌리였다. 얼마 아니하여 물줄기가 굵어져서 새로운 뚝을 철썩철썩 받으며 흐르기 시작했다. 잔디밭에서 손이 수풀처럼 일어서며 만세소리가 터졌다. 막동이와 고두치는 그만 그 소리에 둘러싸이여 눈앞이 황홀해오며 손잡이를 쥔 손이 저절로 빙글빙글 돌아간다. 막동이와 고두치

는 눈아래서 연거퍼 솟아오르는 자욱한 손길에 떠받들려 둥둥 떠오르는감을 느끼며 눈앞이 어찔어찔 현훈이 느껴졌다. 만세소리는 그대로 노래소리로 변하여 넘어온다. 감격과 흥분가운데서 노래소리가 흐른다.

그저 황홀한 마음으로 수문을 다 들어올린 막동이와 고두치는 허리를 폈다. 어느새 대간선을 그득히 흘러가는 물줄기가 번쩍거리며 눈에 안겨온다.

새 도랑으로 접어든 물대가리는 황소처럼 씨근거리며 연신 누런 거품을 내뱉으며 도랑바닥을 삼켜내려간다. 벌써 어떤 사람들은 잠관속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구경을 하겠다고 먼저 뛰여내려가기도 한다.

량편뚝은 계속 사람이 하얗게 덮여내려간다. 여기저기서 농악소리가 일어나고 춤이 벌어진다. 물은 고대 뒤가 맑아오며 푸른빛을 띠고 핑핑 깊어진다.

40리 무연한 벌판우에는 제비조차 희망에 겨워 서로 부르며 쌍지어 높게 낮게 설레인다. 기름진 처녀지의 속가슴으로 굵은 맥관처럼 뚫고내려간 대간선에는 그득해진 물줄기가 긴 몸을 펴며 흐늘흐늘 누워 내려간다. 그것은 마치 이 아득한 농토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려는 혈액과도 같은것이다.

1948.

애 국 자

리 북 명

동지를 막 지나자부터 비료공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축행사준비에 달라붙었다.

금년에도 외상없이 엄습하려니 했던 동지추위는 어디로 방향을 돌렸는지 엄동설한으로서는 근년에 보기 드문 따뜻한 날씨가 날마다 계속되였다. 그것은 마치 날씨조차 다가오는 흥남지구 인민공장의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완수를 경축하기 위한 행사를 4온의 연장으로써 환영해주는듯싶었다. 검푸른 동해를 품에 안고 연연 수키로에 걸쳐 불멸의 성새처럼 솟아있는 비료공장에서는 언제나 지축을 흔드는 기계의 교향곡이 우렁차며 한시각도 생산의 불길이 멎을줄 모른다. 새로운 창조와 의욕으로 들끓는 공장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어이 달성하고야말리라는 벅찬 기백을 보여준다. 굴뚝은 굴뚝마다 시꺼먼 연기를 뿜어 하늘을 덮고 류안직장의 여러 배기통에서는 사뭇 세차게 흰 배기가 솟아오른다. 이것은 류안비료의 목표량 달성을 목전에 두고 생산량이 상승의 일로를 달리고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징조다.

이렇듯 공장의 호흡이 세차면 세찰수록 목표량을 달성할 날자는 예정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되여갔던것이다.

승리를 경축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비료공장본부 지붕우에 높이 띄운 커다란 기구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또한 거리거리를 장식한 《류안비료계획량돌파 승리 만세》라는 구호와 각종 프랑카드가 로동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있었다.

십자로에는 솔포기로 꾸민 경축아치가 서고 군중연예장이 마련되였다. 로동자들의 주택지구도 경축일색으로 단장되여갔다. 창공에서 거룩하게 나붓기고있는 기발은 그대로가 자랑찬 승리의 상징이였다.

이리하여 생산도시 흥남은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투지를 더욱 과시하면서 다가오는 승리의 날을 성대히 맞기 위한 준비를 서

두르고있었다. 류안비료의 년간계획량을 달성하는 그 시각에 모든 싸이렌이 일제히 5분간 승리를 선포하기로 되여있었던것이다.
정말 행복한 세대에 살고있는 우리로구나— 밤교대를 끝내고 코김이 싸늘한 아침공기를 마시면서 공장문을 나선 한덕보는 기분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다. 무사고로 맡은바 책임량을 넘쳐낸 기쁨도 컸지만 명절기분에 들끓는 거리의 풍경이 또한 그의 마음에 장하지 않을수 없었다.
축등, 프랑카드, 벽보, 기발 할것없이 모두가 덕보의 가슴에다 새로운 의욕과 정열을 돋구어주는것들이였다. 덕보는 어느덧 십자로의 경축아치앞에 서있었다. 그는 호화롭게 장식된 십자로의 광경을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다가 새삼스레 자신에게 반문하는것이였다.
이처럼 요란스레 경축행사를 꾸미지 않아도 좋지 않을가, 우리 로동자들은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응당 해야 할 일을 제때에 해냈을뿐인데 이럴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8.15와 5.1절이라면 몰라도 그밖에 이렇듯 성대히 준비하는 행사를 그는 처음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덕보는 얼마후에 자신의 반문을 부정하여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성대한 경축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 비료공장로동자들의 승리일뿐만아니라 조선로동계급의 승리이며 민족적승리인것이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인 인민경제계획의 승리를 성대히 경축함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의 단결된 전투력을 널리 시위하며 남조선동포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한결 북돋아줄것이 아닌가. 참으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이 빛나는 승리를 어찌 소홀히 경축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답하는 덕보는 어느덧 약간 흥분되여있었다.
그러자 그의 머리속에 지난날의 이러저러한 일들과 인간관계가 샘솟아올랐다. 그의 대견한 심정을 훼방하듯 그것은 반갑지 않은 추억들이였다. 그는 그것을 굳이 잊으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돌아섰다.
바로 그때 그의 앞을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지나쳤다. 낡은 신사복에 외투를 어깨에 걸친 그는 거리의 경축풍경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듯 무거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스적스적 걷고있었다. 그것은 방

금 덕보의 머리에 떠올랐던 백인수가 분명했다.

《백기사동무!》

덕보는 별로 할 이야기도 없는데 그를 불러세웠다. 백인수는 류안비료부문에서 일하는 기사였다.

《밤교대였소? 한동무.》

백인수는 반가운듯 얼굴에 웃음을 띠웠지만 그것이 도리여 보기에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별사고는 없었습니다. 암모니아가 약간 딸리기는 했으나 책임량은 달성했습니다.》

덕보는 묻지도 않는 대답을 하였다.

《수고했소. 그럼 어서 돌아가서 푹 쉬시오.》

《그런데 어디가 편찮습니까?》

백인수가 자기를 여전히 경원하고있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덕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기술자를 존경하며 기술을 한가지라도 더 배울것을 원하고있었다.

《뭐 고뿔이 온 모양인데 괜찮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기사동무! 어떻습니까? 이 경축풍경이 말입니다. 나는 기분이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겁니다. 동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아니, 기사동무도 응당 이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 한 일도 없는 나야 그런 자격이 있어야죠. 제 좀 바쁜 걸음인데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

백인수는 아까보다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덕보와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마음에 여간 괴롭지 않았던것이다.

백기사는 여적 내 맘을 몰라주는것이 아닌가. 그럴진대는 차라리 모른체를 할것만 같지 못했어— 덕보는 백인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가라앉은 기분으로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덕보의 머리속에 몇달전에 있은 일이 바로 어제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8.15해방 2주년기념 류안비료 2만톤증산돌격운동(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간이다.)이 시작되기 얼마전의 일이였다.

백인수는 금년초에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수자를 검토할 때에도 그러했지만 류안비료 2만톤을 증산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역시 그 불가능론을 선창해나선 기술자의 한사람이다. 해방전에 일본 어느 대학 공과를 마친 그는 해방전후를 통하여 7년동안 비료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있었다.

당시만 해도 비료공장에는 기술자가 그다지 많지 못하였다. 따라서 백인수의 주장이 날이 서지 않는것이 아니였다. 백인수는 2만톤이라는 기적에 가까운 수자를 기술적으로 상세히 따져보고 반대하여나서기는 했지만 그 주장에는 학술적리론에만 치우친 경향이 다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불가능론을 회의에 내놓고 떳떳이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울밖을 맴돌면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류포시키고있었다. 년초에 자기 주장이 꺾인 후부터 그는 불만을 품고 회의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침묵을 지키려했던것이다.

《2만톤이란 어림두 없어. 일제때라면 또 몰라도 써먹을대로 써먹은 낡은 기계를 가지고 2만톤을 생산해? 망녕두 분수가 있지.》

그는 이렇게 말을 펼치면서 로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속대 약한 친구들새에서는 백인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앙양된 증산의욕을 감퇴시키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뭉친 힘을 분산시킬수 있는 위험한 경향이 아닐수 없었다. 이런 사실외에 또 몇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비료공장에서는 7월 초순에 최종적으로 검토회를 본부회의실에서 가졌던것이다. 이 검토회에는 기술자들외에 20여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덕보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이 검토회석상에서 백인수는 흥분한 나머지 얼굴까지 붉혀가지고 자기의 리론을 30분이상이나 장황히 설명하였다. 그는 힘든 화학술어와 외국어를 라렬해가면서 설명하였기때문에 로동자들은 잘 알아들을수 없었다. 백인수의 리론은 이러하였다.

류안비료 2만톤을 증산하자면 우선 암모니아와 류산을 증산해야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또한 그는 류안직장의 낡아빠진 기계와 미숙한 로동자들의 기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수자라는것과 일제시대에도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더구나 그 당시보다

매우 불리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그의 주장이였다.

백인수의 론조에 동감을 표시하는듯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도 몇몇 있었으나 대부분은 랭랭한 표정들이였다. 덕보 역시 백인수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었다. 백기사의 주장을 기술적으로나 리론적으로 냅다 반박할 지식은 갖지 못했을망정 덕보에게는 오랜 로동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2만톤에 대한 승산이 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덕보라는 일개 로동자의 심중이 아니였다. 불가능론을 박차고 년초부터 년간계획을 일별로, 월별로 대차없이 실행해나가고있는 로동자들의 결의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기술자들이 기술상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한채 회의의 분위기가 식어지려고 할 때 덕보가 일어섰다.

《나는 기술이나 리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두 백기사의 주장에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백기사는 말끝마다 일제, 일제하지만 일제는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놈들이 하지 못하던 일이라구 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백기사의 주장은 기계만 생각했지 사람 즉 우리 로동자들을 바이 잊어버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덕보는 생산돌격대와 진격대운동이 로동자들의 증산의욕을 돋구면서 광범히 전개되고있으며 창의고안운동에 의하여 각 직장의 낡은 기계가 개조되여 성능을 높이고있는 사실을 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한 다음 《우리 로동자들은 어제날의 로동자가 아닙니다. 기능수준에 있어서도 백기사가 생각하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단언할수 있습니다. 열성이나 기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기술자동무들이 더 자주 현장에 내려와서 로동자들과 접촉하며 생산정형을 료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보가 예까지 말하였을 때 백인수는 분연히 말을 가로챘다.

《여보 동무, 그래 당신만 현장실정을 알고 나는 모른다는 말이요? 모르는 소릴 작작하오.》

이렇게 되고보니 실내의 공기는 갑작스레 긴장되여갔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내세우는 리론이 어찌 맞아떨어질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했지만 백기사동

무는 로동자들의 앙양된 기세나 열성을 못 보고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굳이 내려누르면서 덕보는 점잖게 응대하였다.
《여보 동무, 모르면 가만히 앉아나 있소. 일이라는것은 열성이나 기세로만 되는것이 아니요.》
《그건 나두 압니다. 게다가 리론만으로 될수 없다는것도 알구있습니다. 그러나 로동자들이 따져보고 능히 할수 있다는것을 동무는 왜 못한다고 우기는겁니까?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 해낼 재간이 있거든 어서 해보라구.》
백인수의 말에 이번에는 덕보가 참다못해 분개하였다.
《백동무, 그게 기사로서 할말입니까? 나는 옳지 못하다구 생각합니다. 동무는 어저께두 합성직장에 가서 2만톤은 망상이라고 말했지요? 기사의 립장에서 체면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옳지, 당신은 내게 교훈을 주는거요? 여보 동무, 안될 일을 된다고 우기는 사람과 첨부터 안된다고 말한 사람 둘중 어느편이 나쁜가 어디 말해보오.》
《그것은 될일을 안된다구 우기는 백기사동무가 나쁘다구 생각합니다.》
덕보가 이렇게 말하자 《옳소.》 하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오.》
자못 흥분한 백인수는 덕보의 의견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듣고도 자기 주장을 굽히려하지 않았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어디 두구보자구.》
이날 장 다섯시간에 걸쳐 진행된 검토회에서 대부분의 기술자와 기능공들은 2만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덕보와 백인수사이에는 어딘지 풀리지 않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둘사이의 론쟁은 기술자와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것만은 사실이다. 기술자들은 로동자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달리하였고 로동자들은 또한 기술자를 엄정한 립장에서 다시 료해하여보게 되였다. 그 이전까지의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기술자

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간에 어떤 간격이 있었다. 항상 밀접히 결합되여나가야 할 기술과 로동사이에 간격이 있다보니 호흡이 맞지 않는데가 있는가 하면 감정이 덜 통하는데도 있었다.

바꾸어말한다면 기술자와 로동자간에 일상적으로 있어야 할 경험교환이나 기술전수가 적었다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둘의 론쟁은 로동자와 기술자들에게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었다. 그후 로동자와 기술자들은 접촉을 더 자주 가지면서 2만톤 류안비료증산을 위하여 더욱 열성과 지혜를 경주하고있었다.

그러나 승리의 날을 목전에 둔 오늘에 이르도록 백인수와 한덕보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있었던것이다.

승리의 선포전으로 백기사를 한번 조용히 만나야 하겠다, 만나서 툭 털어놓구 이야기하면 그 동무도 속을 풀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보니 덕보의 기분이 한결 명랑해지는것이였다.

×

그날 밤 아홉시가 되나마나하였을 때 덕보는 벌써 출근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벌써 나가셔요?》

종일 품을 들여 만든 꽃다발을 종이에 싸고있던 안해는 의심쩍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느때보다 매우 일렀기때문이다.

《나가야지. 나가잖구는 가슴이 풀풍구질해서 못 견디겠소. 저 종이를 한겹 더 싸오. 눈에 젖겠소.》

덕보는 다리에다 각반을 치면서 말한다. 금시 승리의 고동이 울것만 같은 예감으로 하여 그는 더는 맘놓고 집에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아무리 그래두 낮에 별루 주무시지두 못했는데…》

《그만큼씩 자면 되오. 접때는 몇밤을 뜬눈에 새기두 했을라니…》

낡은 포화기 한대를 개조할 때의 일이였다. 덕보는 몇몇 동무들과 함께 10여일을 포화기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흘밤을 이어 자지 않은적도 있었다. 안해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밥을 이어 날랐는데 이런 일은 그전에도 있었던것이다.

《아부지는 이번에 상을 타게 되나요?》

방바닥에 배를 붙이고 누워서 산수숙제를 하고있던 아들이 머리를 쳐들고 하는 말이다.

《이녀석아, 상을 타자구 하는 일인줄 아니?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생각은 버려라.》

덕보는 부드러운 소리로 아들에게 타일러주었다. 밤교대니까 밤 열한시에 공장에 나가도 넉넉하지만 덕보는 그 시각까지 집에 그대로 있을수가 없었다.

누워서 잠을 청해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하자면 그새에도 집에서 할일이 있었으나 오늘 밤처럼 동무들의 생각이 간절하고 기계를 자식처럼 못 잊어하는 심정을 덕보는 일찌기 가져본적이 드물다. 햇내기들처럼 쉬 마음이 들뜨거나 끓었다식었다 하는 그런 덕보가 아니건만 이밤따라 어쩐지 마음이 뒤설레는것이였다.

그것이 자랑찬 승리를 목전에 두고 샘솟는 기쁨이 분명했으나 조심성이 깊은 덕보는 그런 내색을 굳이 나타내지 않았다. 아직 증산투쟁이 끝나지 않았거늘 미리부터 기뻐하다가 혹시 뜻밖의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랴싶었던것이다.

《오늘 참 장한 일을 했소.》

덕보는 안해가 내주는 종이꾸레미를 받아들고 안해의 어깨를 어루만져주었다. 그것은 덕보가 내심 무척 기쁠 때 안해에게 주는 애정의 표시다.

남편의 그 심정을 모를리 없는 안해는 말없이 빙그레 웃어뵈였다.

《그럼 일찍 자라구. 동주야, 너두.》

덕보는 공장에서 새로 받은 아담한 벽돌주택을 나섰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와 아들이 따라나왔다. 새해의 풍년을 약속하는듯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있었다. 그 눈은 덕보의 기운을 한결 돋구어주었다.

《허, 어서 들어가라는데두…》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해는 동주를 데리고 큰길목까지 나왔다. 이곳 로동자들의 가정에서는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들을 바래고 퇴근시에 역시 반가이 맞는 습성이 보편화되여가고있었다.

《그럼 승리의 고동이 울문 우리두 집에서 만세를 부르리다.》

《아부지, 나두…》

《엉, 내 귀에 들리기시리 높이 불러야 해.》 하고 덕보는 눈속으

로 사라져갔다.

한덕보는 무너지듯 내리는 눈속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안해의 참된 마음씨를 새삼스레 생각하는것이였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가리지 않고 1년 열두달을 하루같이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오고있는 안해다.

당신은 강철시계요— 이것은 언제인가 덕보가 안해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면서 한 말인데 그 말 그대로 안해는 건강하고 부지런하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시계처럼 정확하였다. 사철을 통해 아침에 굴뚝에서 제일먼저 연기가 솟는 집이 동주네 집이라고 동네 아낙네들이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런 관계로 늦잠버릇이 있던 덕보의 출근이 자연 빨라졌고 따라서 동주 역시 한번의 지각도 하지 않았다. 한덕보가 1년간 무지각, 무결근의 영예를 획득한데는 안해의 열성이 안받침되여있었다.

《이 영예의 절반은 당신의것이요.》

덕보는 가끔 안해에게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무슨 고장은 없었어요?》

《오늘은 생산이 얼마나 돼요?》

《앞으로 목표량이 얼마나 남았어요?》

날마다 남편이 공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류안비료의 생산실적부터 묻는 안해였다. 그럴 때마다 덕보는 세밀한 수자는 피하고 대충 진행과정을 이야기해주었다. 사랑하는 안해지만 공장의 비밀까지 가르쳐줄수는 없었던것이다.

《당신두 승리의 날을 펴그나 기다리고있구만.》

덕보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내 맘의 절반은 언제나 당신을 따라 공장에 가있어요. 조선사람치구 누가 그날을 안 기다리겠어요.》안해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렇듯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공장과 통하여있었던것이다.

안해의 정성은 알뜰한 살림살이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덕보는 금년 1년동안에 밥에서 모래알 하나 씹어본 일이 없다. 명랑한 기분으로 공장에 출근해야 할 남편의 밥에 돌이 섞이면 어쩌랴싶어서 안해는 밥을 지을 때마다 세번네번 조심해서 쌀을 일었다. 또한 남편의 출근시간에는 아무리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꾹 참고 끄물도 그

런 내색을 나타낸 일이 없었다.
한덕보에게는 또 한가지 잊을수 없는 안해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
그것은 5월 하순의 일이였다.
하루저녁 덕보는 닭장을 만들다가 그만 못을 밟았다. 당장에 마치로 상처를 두들겨 피를 빼기는 했으나 듣지 않고 그날 밤부터 독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날 밤을 뜬눈에 샌 덕보는 그 이튿날 아침에는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출근할수가 없었다.
《여보, 이 일을 어떡하오. 한창 바쁜 대목에…》
덕보는 정녕 울고라도싶은 심정이였다. 2.4분기의 류안비료의 목표량을 넘쳐 달성해야 할 중대한 고비에 다달아 결근을 하게 된다는것은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였다.
《나가서 앉은 일은 할수 있겠어요?》
안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렇게 물었다.
《나가면야 할수는 있지만 글쎄 나갈 재간이 있는가 말이요.》
《가만 계셔요. 나가게 되겠지요.》
안해는 그길로 리사무소에 가서 사유를 이야기하고 손수레를 빌려왔다.
이리하여 안해는 아흐레동안을 아침 일찌기 남편을 공장에 실어가고 저녁이면 실어오고 하였다. 그뿐아니라 그 아흐레동안을 안해는 류안비료하조장에서 무보수애국로동을 하면서 남편의 시중을 들었던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까지도 비료공장의 미담으로 전해지고있다.
한덕보는 안해에 대한 감사의 념을 가슴에 품고 눈내리는 공장의 밤거리를 뚜벅뚜벅 걸으면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참말로 안해의 협조는 컸다.
만약 안해의 협조가 없었다면 혹시 내게두 지각이 있었고 결근이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이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안해와 절반씩 나눠야 한다. 이렇게 중얼거리고난 덕보는 이번에는 기계에 생각을 돌린다. 큰 고장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줄곧 세차게 회전하면서 류안비료의 년간목표량을 기한을 앞당겨 완수하는데 이바지한 송풍기, 원심분리기, 벨트콘베아 그리고 포화기까지도 모두가 믿음성있는 동무처럼 느껴졌다.

실로 이해처럼 사람과 기계가 일체가 되여 생산에 달라붙은 례는 일찌기 없었던것이다.

덕보는 살그머니 가슴에다 손을 찔러보았다. 종이에 싼 꽃다발이 꾸겨지지나 않았나 하고 만져본것이다. 원심분리기야, 이것이 너에게 줄 선물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입술에 한송이의 함박눈이 떨어져 녹았다.

류안비료의 목표량을 달성함으로써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에서 흥남지구 인민공장에 부과된 방대한 목표량이 전부 품종별로 완수되는것이다.

한덕보는 낮은 목소리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공장문을 들어섰다.

《벌써 출근이요? 언제든지 동무가 선참이군요.》

정복을 한 자위대원이 덕보에게 건네는 말이였다.

×

한덕보가 갱의실에 들어갔을 때 칠팔명의 교대휴식자들이 방열판곁에 모여앉아 한창 왁자지껄 떠들어대고있었다.

《난 아홉시 10분이네.》

《난 여덟시 40분이야.》

《여덟시 31분 30초야.》

《30초? 흥, 머리속에 천문대의 시계를 가졌나?》

《말 말구 어서 그대루 적기나 해. 그 30초가 큰소리를 치지 않는가 두구보라니.》

수첩에다 적고난 안경을 쓴 황동무가 《동무는?》 하고 작업복을 갈아입고있는 덕보에게 묻는다.

《뭘?》

덕보는 아까 갱의실문을 들어섰을 때 벌써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을 대뜸 알아차렸으나 우정 모르는척 하였다.

《사람두, 들어보문 몰라? 승리의 고동이 몇시 몇분에 울겠는가를 내기하는걸세.》

《무슨 내기야?》

내기라는 말에 덕보는 귀가 솔깃했다.
《공장에서 내주는 술이 있지 않나. 그만하면 알겠지? 어서 말해보게.》
《그런데 지금 운전상태는 어때?》
《좋아.》
《저 친구의 머리가 저렇게 과학적으로 변했나? 암모니아는 걱정말구 어서 말하게.》
《일곱시—》
덕보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가 부른 시간은 기분적으로 말한것이 아니라 암모니아의 다과를 념두에 두고 낮에 벌써 궁리해서 짜낸 시간이였다. 덕보는 아까 공장에 들어오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더욱 자신을 가졌던것이다. 배기통에서 솟는 배기를 보고 류안비료가 제대로 생산되고있음을 알았기때문이다.
《일곱시?》
모여앉은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되물었다.
《엉, 일곱시야, 왜?》
《아니 일곱시라니, 모레 아침 일곱시란 말인가?》
황동무가 눈알을 희번득거리면서 하는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어댔다.
《래일 아침 말이야.》
《일곱시로 땍히 적어두네. 술은 있지?》
《있구말구.》
덕보는 현장으로 나가던 걸음으로 우선 사무실에 들렸다.
그는 제1합성계 기계실 조장 위동무에게 전화로 운전상태를 물어보았다.
위동무의 대답은 덕보를 무척 기쁘게 했다.
가스효률은 87.5프로, 6단압축의 한시간흡인량은 2 850평방메터, 그밖에 운전상태는 대단히 순조롭다는것이였다.
《위동무, 우리 피차 더 솜씨를 내자구. 힘이야 얼마든지 있지 않소. 옳소, 그렇소. 오늘 밤은 합성, 류안, 류산직장은 수시로 련락을 취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래일 아침 일곱시까지에는 승리의 고동을 울리기로 합시다. 예, 예. 알겠소. 그럼 수고하겠소.》
덕보는 또 류산계의 변동무를 불러냈다. 변동무의 대답도 역시 덕보를 만족시켰다. 걱정이 되던 류화철광이 대번에 10여차량이나

들어와서 류산생산은 문제가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래일 아침 일곱시를 약속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한덕보는 들먹거리는 웃음집을 굳이 내려누르면서 생산도표를 들여다보았다. 오늘 아침 여덟시 현재 1년간 총생산목표량에서 미달성수자는 2천톤에 조금 꼬리가 달렸을뿐이다. 그중에서 이 시간까지의 생산량을 제하면 이제 남은 수량은 불과 1천톤내외일것이라고 덕보는 생각하였다.

그것쯤이야 넉넉 잡고 래일 아침 일곱시까지는 문제없을테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현장으로 나갔다.

포화기와 침척조에서 떠오르는 뜨거운 배기때문에 류안직장안은 후끈후끈하였다. 수천촉광의 전등밑에서 로동자들은 두팔에 피줄을 세워가지고 기계를 운전하고있었다. 그들이 서로 경쟁하다싶이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생산한 백설같은 류안비료는 벨트콘베아에 실려 제품창고에 가서 비료산을 이루었다.

한덕보는 기계를 자세히 점검하고나서 전밤교대자와 교대하였다.

원심분리기의 운전대에 앉자 덕보는 모터의 1단스위치를 눌렀다. 모터가 기동하자 따라서 원심분리기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덕보는 발로 개폐발브를 꾹 밟았다. 동시에 침척조에 차있던 모액(류산과 암모니아가 합쳐서 된 젖빛액체)이 원심분리기안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덕보는 발브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이번에는 모터의 2단스위치를 눌렀다.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원심분리기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1분, 2분 점점 더 눈부시게 회전하는 원심분리기안으로 모액이 폭포처럼 흘러들어간다. 강한 원심력에 의하여 모액에서 류산분과 수분만이 말짱 발산되는것이다. 원심분리기가 회전한지 약 8분후에 덕보는 스위치를 빼고 제동기를 꾹 밟았다. 눈부시게 회전하던 원심분리기는 차츰 회전속도를 죽여가다가 멎었다.

원심분리기안에는 눈보다도 흰 가루가 담뿍 있다. 이것이 류안비료다. 쇠가레를 흰 가루에 푹 찔러 번지면 가루는 무너져 분리기의 밑구멍으로부터 벨트콘베아에 떨어진다. 한번에 한 분리기에서 생산되는 류안비료는 열가마니에 해당한 수량이다. 이런 분리기가 이 공

장에는 수십대가 있어 줄창 비료를 생산하고있다. 두팔에 피줄을 세워가지고 류안비료를 떨구고난 덕보는 고무호스에서 내쏘는 물로 원심분리기를 깨끗이 씻는다.

한번 작업이 필할 때마다 물로 씻어주지 않으면 분리기에 뚫린 수천수만개의 구멍이 메여서 다음제조과정에서 능률이 오르지 못하기때문이다.

1호기에서도 3호기에서도 동무들은 덕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고있다. 생산능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암모니아냄새와 류산냄새가 직장안에 풍긴다.

다시 운전대에 올라앉은 덕보는 한숨 돌리면서 직장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백인수를 찾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직접 류안직장을 담당한 기사가 아니니만큼 그는 며칠에 한번씩이나 나타나군 하였다. 덕보는 될수 있으면 승리의 선포전으로 그를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문의해보았으나 백인수의 거처나 동태를 아는 동무는 없었다.

합성직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침식을 잊고 암모니아의 생산제고를 위해 몸과 맘을 바치고있는 젊은 기사가 있었다. 그가 바로 백인수였으나 덕보는 그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일곱시전으로 승리의 고동이 울리리라는 소문이 쫙 퍼지자 로동자들의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철야를 하면서 당과 행정과 직맹의 간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하였고 5분이 멀다고 생산정형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있었다.

아침 여섯시에 잡아들자부터 로동자들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고동소리를 고대하면서 서성거렸다.

한덕보 역시 그 고동을 기다리지 않는것이 아니나 그는 그런 내색을 꼬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도리여 리해하기 어려운 심각한 표정이 아롱져있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표정이라기보다 차라리 그다음에 올 더 크낙한 승리에 대하여 구상하는 심각한 표정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승리에 도취하지 말자. 1948년의 새해가 오지 않느냐. 새해의 승리를 지금부터 마련하자. ─ 이것이 덕보의 생각이였던것이다.

평양.

김일성위원장 앞.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이신 당신의 정확한 지도밑에 흥남인민공장은 금일 오전 6시 37분까지 류안비료 년간계획을 완수하고 흥남인민공장에 부과된 전생산예정량을 초과달성한데 즈음하여 당신에게 삼가 최대의 영예를 드립니다.

1947년 11월 27일.

공업도시 흥남에 있는 전체 고동이 일제히 승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흥남시당과 흥남인민위원회의 명의로 경애하는 수령님께 전보가 발송되였다.

직장은 직장마다 로동자들의 만세소리와 환호성으로 들끓듯 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전투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시위한 해였다.

청사에 길이 빛날 이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책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당과 인민위원회의 일군들과 기타 인사들이 도착하였다는 소문은 로동자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한덕보는 벅차오르는 환희와 감격을 가슴뿌듯이 안고 안해가 정성들여 만든 꽃다발을 원심분리기우에 얹어주었다.

분리기야, 너는 우리와 함께 이 한해를 정말 잘 싸워주었다. 새해를 또 부탁한다. ─ 덕보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원심분리기는 주인의 참된 심정을 알아챈듯 더욱 신바람을 내면서 돌아간다. 분리기뿐아니였다. 이 아침따라 송풍기는 더욱 세차게 용을 쓰면서 돌고 포화기는 증기를 뭉게뭉게 솟구면서 끓어번지고있었다. 한개의 스파나, 한개의 나사못까지도 그것이 오늘의 승리에 이바지하였기에 무심히 보아버릴수 없는 덕보의 심정이였다.

한덕보가 자기와 자기 동무들의 힘과 슬기를 이 아침처럼 자랑찬 마음으로 가슴후덥게 느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은 정말로 크구나. 이 억센 힘을 거역할 어떠한 힘도 세상에 있을수 없다. 덕보는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리면서 오늘의 승리를 쟁취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였다.

우리 당과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승리를 가져다주

셨다. 바로 그렇다. 나는 앞으로도 당과 수령님이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의 모든것을 바치리라— 덕보는 자기의 결의를 심장속깊이 다지고 일근자에게 기대를 넘겨주었다.

해방공원앞 산마루에서는 계속 축포가 터져오르고있었다. 거리는 거리마다 사람으로 들끓었다. 늙은이, 젊은이 할것없이 모두가 기쁨에 넘친 얼굴들이였다.

거리에는 각종 표어와 벽시, 벽소설들이 나붙었다.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완수로써 민주조국 독립의 토대를 마련한 애국적로동자들에게 최대의 영광이 있으라!》

그가운데는 이런 표어도 있었다.

공업도시 흥남에 현지파견된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벽시와 벽소설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악대와 가창대 그리고 합창대를 만재한 수십대의 꽃자동차의 행진은 얼마나 장관인지 몰랐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었다.

한덕보는 이 모든 광경을 류안직장지붕우에서 사뭇 자랑찬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문득 안해를 생각하였다. 간밤에 공장으로 나올 때 고동이 울거든 거리로 구경을 나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것이 여간 후회가 되지 않았다.

오늘의 기쁨을 자기와 더불어 응당 나눠야 할 안해였기에 더욱 그러하였던것이다. 덕보는 한동안 멀리 사택마을쪽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지붕을 내려왔다.

그는 내려오는 길로 비료창고에 들렸다. 비료창고! 그것은 굉장히 크고 넓은 실내경기장을 련상시키는 훌륭한 철근콩크리트건물이다. 이 창고안에서 오늘 저녁에 《1947년도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 국영 흥남지구인민공장 생산예산수자완수승리 경축대회》가 김책부위원장을 모시고 개막되기로 되여있었다.

비료산기슭에 모인 수백명의 남녀로동자들은 경축대회에 내놓을 연예프로를 련습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그런가하면 한편에서는 대회장을 꾸미느라고 숱한 사람들이 욱실거리고있었다.

비료산과 비료산사이에 꾸며진 넓은 무대는 이미 꽃과 5색테프 그리고 전등으로 장식되여있었다. 비료가마니를 쌓아올려 만든 좌석에는 2만명의 인원을 족히 수용할수 있었다.

높은 지붕밑을 돌고있는 벨트콘베아에서는 줄곧 류안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고있다. 비료가마니우에 앉아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덕보는 머리속에 회상의 불길을 솟구는것이였다. 제때제때에 농촌으로 류안비료를 보내주었기때문에 나라의 식량부족을 차츰 해결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딪쳤던가. 그 애로와 난관은 비록 류안직장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합성직장과 류산직장에도 그보다 못지 않은 애로와 난관들이 있었다.

합성직장에서 6단압축기의 활색대를 해결하지 못하여 류안비료의 생산량이 날마다 감소되여가던 그때의 딱한 사정을 덕보는 언제나 잊을수 없었다.

왜놈들이 써먹을대로 써먹은 활색대는 마멸이 심해서 가스를 제대로 압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암모니아의 생산량이 감소되여갔다. 류안비료의 년간책임량을 완수하고 못하는 고리가 합성직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이 중대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당의 지도밑에 로동자들이 진격대를 조직하고 압축기옆에서 침식을 같이하면서 끝내 활색대를 해결하였던것이다. 또한 로라 베아링그가 없어서 로바텔(분리기의 일종)을 운전하지 못하고 애가 타도록 고생하던 끝에 그것을 해결하여 생산에 도입한 사실들이 덕보에게는 마치 어제일처럼 기억에 새로왔다.

이렇듯 오늘의 승리가 결코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얻어진것이 아니기에 덕보는 지난날을 더욱 못 잊어하는것이였다. 이런 애로와 난관은 그 어떤것이나 로동당원을 선두로 하는 생산돌격대와 진격대의 열성적 노력이 없이 해결된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보다 완전하고 성능이 좋은것으로써 개조하였다.

로동자들의 가슴속에서 들끓는 정열과 불붙는 증산의욕 그리고 장성되는 기능과 창의고안앞에서는 불가능이 언제나 가능으로 변하여갔던것이다.

한줌의 류안비료에도 자기들의 애국정열과 창조적로력이 섞여있다고 생각하니 덕보는 감개가 무량하였다. 그는 가마니에서 류안비료를 한줌 꺼내가지고 살금살금 비벼본다. 빛이 백설같고 결정이 굵고 투명하고 잘 건조되였다.

어디 흠잡을데 없는 훌륭한 제품이다. 덕보는 류안비료를 들여다보면서 농민들을 생각하였다. 비료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던 농민들인가. 이 비료가 농촌에 가서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손으로 논밭에 뿌려지면 거기서 오곡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것이 아닌가.

해방된 농촌의 풍경을 눈앞에 그려보고 앉았는 덕보의 입가에 어느덧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인차 사라져버렸다. 백인수의 생각이 불쑥 머리에 떠올랐던것이다. 덕보는 한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었다.

바로 이때 백인수는 비료창고의 남문어귀에서 창고안의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실로 위대한 승리다.

그런데 왜 하필 나만이 이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을가. 이것은 한덕보동무가 옳게 말한대로 내가 기술만 믿고 로동자들의 창조의 힘을 보지 못한데서 오는 잘못이였다.

한덕보라는 로동자는 얼마나 훌륭한 애국자인가. 로동자들의 이 승리는 세계에 자랑할만 하다. 나는 오늘부터라도 로동자들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살면서 새해의 더욱 빛나는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기술자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백인수는 벌써 여러날전부터 해오던 생각을 다시한번 되풀이하는것이였다.

사실인즉 네거리에서 덕보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자기의 개성을 지내 죽이는것만 같아서 좀처럼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승리에 공업도시전체가 들끓으면 끓을수록 사뭇 마음이 괴로왔고 한덕보라는 로동자를 잊을수 없었다.

덕보의 마음을 풀어주는 동시에 그와 손잡고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마음먹고 조용히 만날 기회를 찾고있었으나 합성직장에 달라붙은 백인수는 덕보에 못지 않게 바빴던것이다.

한덕보는 백인수가 남문어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줄도 모르고 자기대로 또 생각에 잠겨있었다.

기술자 한사람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다. 혹

시 나와의 감정문제가 백인수의 사업에 다소나마 지장을 준 때는 없을가. 생산이 바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면목이 없다. 어쨌든 백기사를 만나자. 만나서 가슴을 툭 털어놓구 이야기하구 새해의 새 승리를 약속해야 하겠다.

덕보는 무용써클원들이 새장구와 북에 맞추어 군무를 추는 흥겨운 장면이 벌어지고있었으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가 비료가마니에서 막 일어났을 때였다.

《한동무!》

그의 등뒤에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아, 백기사동무.―덕보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그렇잖아두 지금 찾아가자구 일어난 길입니다.》

덕보는 그를 만난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사실말이지 나는 동무를 진작 만나보고싶었소. 우선 승리를 축하합니다.》

백인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게다가 그 태도까지 겸손하다보니 덕보는 도리여 어떻게 대했으면 좋을는지 몰랐다.

《기사동무! 나의 축하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한동무!》

《기사동무! 지나간 일을 모두 잊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동무에게 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벌써 여러날전부터 동무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기사동무! 나는 정말루 기쁩니다. 나 역시 만나고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부터 피차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립시다. 오늘의 승리가 나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인수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것임을 덕보는 자기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다.

《사실말이지 나는 방금 이 자리에서 지난 일을 또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재두 자꾸 떠오르는것을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것입니다.》

비료산앞에서는 남녀로동자들의 군중무용이 한창이다.

《한동무,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나는 래달부터 류안직장에서 사업하게 됐습니다. 책상까지 가지고갈 작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사동무, 많이 배우겠습니다.》

덕보는 정녕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백인수의 결의를 그의 말가운데서 찾아볼수 있었기때문이다.

《한동무! 우리 피차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부터 더 솜씨를 내봅시다.》

백인수의 얼굴에 비로소 명랑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럽시다. 기사동무, 춤을 춥시다.》

덕보는 춤을 여직 배우지 못했지만 기쁨이 겹쳐 안겨들고보니 춤이 저절로 나오는것만 같았다.

《춥시다. 같은 값이면 우리도 저 무대로 올라갑시다.》

군중속에 뛰여든 한덕보와 백인수는 무대를 돌면서 사뭇 유쾌한 기분으로 춤을 추고있었다.

무대옆에 폭포처럼 떨어지는 류안비료는 비료산의 봉우리를 높이면서 뭉게뭉게 김을 올리고있었다.

1948. 3.

이 앙

윤 시 철

1

남향으로 경사진 언덕배기에 있는 부락의 공동모판에 재질재질 뜨거운 해볕이 쪼여들었다.

아직 5월이였으나 해가 쨍쨍 내리쪼이는 날만이 계속되여서 금방 움을 돋힌 모그루들이 시들어만 갔다. 모포기는 자라지 않고 이앙기(모내는 시기)는 다가왔다. 이른아침을 먹은 후 곧 모판에 올라온 모판관리책임자 삼봉령감의 가슴은 타는듯 안타까왔다.

하늘은 맑기만 하고 비는 올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줘야 하지 않겠나!

삼봉령감은 모판에 올라올 때마다 이 단순한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골몰히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몇번 등에 물초롱을 지고 올라오기까지 하였다. 하면서도 번번히 물을 껴얹지는 못하고 휑하니 물을 딴데다 버리고선 빈 물초롱을 도로 지고 내려왔다.

랭상모에 찬물을 끼얹는건 어린 모에 해를 끼친다. 랭상모기술지도원인 김기호는 엄한 지시로서 이 말을 했다. 그러나 될말인가! 모가 시들어만 가는데도 김기호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가?

삼봉령감은 여러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관수를 기어코 모판마다 돌아가며 하기 시작했다. 마치 숨있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아무리 랭상모기루 물을 이렇듯 먹지 않구야 자랄수 있을라구— 하고 혼자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눈부신 해볕을 손으로 가리우고 우물에 휑하니 달려가서 두 초롱에 가득가득 찬물을 길어오고 또 길어다가는 메마른 모판마다 좍좍 물을 퍼붓고 퍼붓고 하였다.

삼봉령감은 물을 주는바치고 매 논판마다 흥건히 잠기도록 주는게 상책일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 모판마다 경사를 이룬때문에 물은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아래기슭으로만 쏠려갔다. 삼봉령감은 더 많

은 물을 날라다가 퍼부으며 아래모판에 잠기는 물을 웃모판에 퍼올리려고 애썼다.

이렇게 하여 그는 거의 전부의 모판에 물이 고이도록 할셈으로 모판마다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뜩 《48호 성명 김기호》 이러한 패말이 꽂혀있는 모판앞에 이르러 구부린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그에게는 기술지도원인 김기호 그의 지시없이는 공동모판 랭상모관리에 있어서나 어린 모에 대한 어떤 작은 일까지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결정한 일이 생각났다. 이 결정을 삼봉령감도 물론 찬동했다. 그러나 모가 이렇게 시들어만 가는데도?— 삼봉령감은 물초롱을 땅바닥에 철썩 놓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 누구도 손발없는 사람처럼 푸른 하늘만 쳐다보며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좇아야 하는가? 자라기는 고사하고 시들어만 가는데도… 부락 전농호가 금년부터 랭상모이앙법을 써야 함을 선참 주장한것도 자기요, 모판을 공동으로 할걸 발의한것도 자기가 아니였던가? 만일 이 공동모판에서 랭상모가 실패하는 때엔 부락의 새 계획이 부서지는것이다.

삼봉령감은 다시 더 생각하고 주저함이 없이 기술지도원 기호의 모판에도 그의 랭상모와 공동모판을 끝까지 반대해나서던 49호 강준구의 모판에도 꼭 한가지로 찬물을 좍좍 퍼부어나갔다.

이날 해저물녘에서 땅거미 거뭇거뭇 어두워올무렵까지 또 이튿날 새벽과 저녁, 그 이튿날 새벽에도 삼봉령감은 남몰래 하는 이 일을 계속하였다. 부락 5천평의 공동모판에 집집이 서로 다른 성명을 쓴 패말로 사이를 지른 랭상모판마다 찬물을 좍좍 퍼부어나가는 일을…

삼봉령감은 련 사흘동안 공동모판마다에 찬물퍼붓는 일을 계속했다. 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공동모판에는 부락농민 거의 전부가 모여섰다. 모판마다 물이 질벅이 괴여있음에 놀랜 그들은

《이 며칠밤새에 여게만 비가 내렸나, 원—》

《껴얹었으문 누구래 한짓인가?》

하고 서로 놀라운 기색으로 얼굴을 쳐다보며 숭얼숭얼 떠들었다.

기술지도원 기호는 모판마다 돌아가며 모그루를 뽑아본다. 진창이 된 흙덩이를 바수어본다. 할수 있는 실험과 연구를 시작했다.

부락에는 흔치 않은 수심이 서리여돌았다.

공동모판 랭상모가 썩기 시작한다느니, 랭상모는 쓰게 못되고 공동모판은 파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서로 모여서기만 하면 수군거리는 이야기거리로 떠돌아갔다. 이렇듯 의외로운 결과에 놀랜것은 삼봉령감이다.

부락농민들의 수군거림속에서 외톨로 남게 된 삼봉령감은 머리를 흔들며 곰곰히 생각하는것이다. 무럭무럭 잘 크라고 퍼부은 물이 화를 부르다니… 알듯 하면서도 모를 일이였다.

랭상모판의 모는 삼봉령감의 정성은 알은체 않고 분명 한포기, 두포기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불볕이 쨍쨍 내려쪼이는 한낮 부락농민들은 다시 공동모판으로 모여왔다.

서로 얼굴을 찡그리고 모판마다 모여서 그들은

《랭상모가 썩어가다니 정말인가?》

《정말이구말구, 보는대루지… 랭상모는 이젠 없네!》

《그럼 뭐 또 작년대루 하게?》

《별수 있다디, 괜스리 랭상모구 공동모판이구 해가지구 수선만 피웠지.》

하고 서로 누구에게라 없는 불평을 말하는것이였다.

《이 사람들 작년대루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삼봉령감은 듣고만 있을수 없는 귀가려움에 버럭 어성을 높이여 《자네덜두 랭상모레 리로운건 뻔연히 아는 일이 아닌가? 그걸 그만두다니…》 하고 여러 농민들앞에 밀고나섰다.

《삼봉이 이 사람아, 뭐라구 지껄이는게야! 뉘기레 랭상모를 마다는겐가. 모가 온통 썩어가는데도 그래 랭상모구 공동모구 있간? 어디 자네 그 큰 눈이 아직 바루 백혔으문 논판을 바루 보게나. 자네 눈엔 이 썩어가는 모가 뵈질 않는?》

이전 자작농이였던 강준구가 큰 몸집을 흔들며 비죽거리며 쏘는 말이였다.

《썩어가다니, 어디 썩기야 하라디. 준구, 임자레 누굴 잡으려고 그런 헙군가, 헙구?》

삼봉령감은 예나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개기름이 번지르르 도는 준

구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만이 예나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삼봉이, 이 사람.》으로만 부르는것이다. 삼봉령감은 징그럽게도 널직한 그의 낯상판에 아직 푸르고 싱싱한 모그루를 진흙뿌리채 문질러 주고싶은 충동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말대로 썩어가는 모도 있는것이다.

삼봉령감은 다시금 그것이 만일 자기가 찬물을 끼얹은때문이라면 하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근심에 어린 눈길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부락농민동맹분회장 지창순은 싸우듯 떠드는 농민들의 이야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모판마다 돌아가며 살피는 기호의 뒤를 휘청휘청 따라갔다.

삼봉령감은 50평생을 농사일로 살았고 늙어왔으나 이렇듯 캄캄해지기는 처음이였다.

벼모란 모판에서 자라기마련인것이요, 또 모판이 메마르면 물을 끼여얹는것이 례사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물을 친 그때문에 모가 썩어들다니…

삼봉령감은 이러한 자기의 의견을 여러 농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한 일전부를 떳떳스레 털어놓지 못하는것이 답답하였다.

《기호동무, 원인은 제쳐놓구래두 이앙은 할수 있겠지?》

네평씩 300호단위로 크게 다섯구역을 지은 모판을 다 돌고 오는 기호더러 지창순이 조심스레 묻는 말이였다.

기술지도원 기호는 두손에 흠뻑 빼여쥔 벼모그루를 들여다보며 《글쎄요, 하루만 더 지내봅시다.》하고 굼뜬 대답을 하였다.

2

삼봉령감은 이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밤으로 기호를 찾아갔다.

기호는 삼봉령감을 맞이하여 《웬일이요? 령감이 우야 내 집엘 다 오시구.》하고 흠칫 일어서며 반가이 맞았다.

삼봉령감은 기호가 자기를 부락의 큰어른이나 대하듯 방석까지 내여주며 권하는 자리를 밀치고 들어선 자세 그대로 선채 《…실은 진작 임자를 찾아와서 좋이 말할 곡절이 내게 있었능이…》하고 우선 떼기

어려운 이야기의 서두를 조심조심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삼봉령감은 자기보다 20년도 더 아래인 기호의 앞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랭상모에 생긴 사고의 원인이라고들 하는 자기의 한 일전부를 남김없이 실토하게 되였다.
　《것두 자네레 뻐언히 알 일이지만 별스런 반대를 다 물리치구 부락이 공동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겠나. 잘못되문 어떻게 되나! 나루선 잘못되지나 않나 하고 매일 나가보는중에 한 일이였네. 그게 이 모양으루 됐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떡하문 좋겠나… 기호, 임자레 속씨원히 말해주게. 모그루는 진짜루 몽땅 썩어가구마나?》하고 삼봉령감이 긴 이야기를 하는 사이 기호는 젊은 농사군답지 않게 팔짱을 꾹 끼고 생각에 잠기며《알갔시우, 알갔시우.》하고 머리만 끄덕이였다. 그리고 나서 친어버이에게나 대하듯 조용조용히 말했다.
　《령감! 골을 썩이구 념려할건 없어요. 랭상모만 그대루 하문 되잖아요. 하긴 랭상모에 찬물을 껴얹는 큰 잘못을 범했지만… 딴 도리두 있겠지요.》
　《메라구, 이 사람아, 랭상모는 그대루 하게 된다! 온 부락 집집이 다— 그게 진정으루 하는 말이가?》
　삼봉령감은 기호의 손목을 덥썩 잡아쥐고 흔들며 주름잡힌 얼굴에 희색이 가득차서 한걸음 더 다가나섰다.
　《기호 이 사람아, 그건 무슨 말인가? 딴 도리가 있다니, 랭수를 껴얹은건 진짜 큰 잘못이지? 잉? 벼모가 누렇게 썩어가는건 그때문이지. 그런데도 랭상모는 그대루 하게 되다니, 잉? 이 사람아, 정말이가?》
　《그러문요. 하게 되지요. 념려없다잖었어요.》
　기호는 삼봉령감의 풀죽은 의기를 북돋우듯 두어깨를 으쓱 추켜세우며 몇번이고 확신있는 대답을 한다. 삼봉령감이 그 애타게 묻는 딴 도리라는 리치속은 말하지 않으며 다만 포전에서 태양열만으로 키워야 하는 랭상모에 찬물을 끼여얹어서 안되는 리유는 온상모처럼 인공지열로가 아니라 해별만을 리용하는 즉 자연열로써 키우는때문에 모에다가 갑자기 찬물을 주면 모근과 모줄거리에 충해가 생기여 모가 더시들지 않으면 썩게 된다는 기술적이야기만을 자상히 할뿐이였다.
　삼봉령감은 몇번 다시 《그런데도 괜찮다는건—》하고 캐여물었다.

기호는 처음 그대로 팔짱을 꾹 낀채 《차츰 알게 돼요. 아직 그렇게만 알구계시라요.》하고 두둔해 말하며 또 같은 또래의 친한 동무를 대하듯이 씨무룩이 웃으며 한걸음 물러서서 어디엔가 나갈 차비를 하는것이였다.

《령감님! 저는 회의에 가야 하겠어요.》

삼봉령감은 꼭 가야 할 회의라고 하면서 나가는 기호에 앞서 밖에 나왔다.

머리속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서리였다. 기호는 모두가 념려없이 된다는 《딴 도리》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삼봉령감은 다시 지창순을 찾아가기로 했다. 농맹분회장인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물론 그에게나 가서 좀더 확실한 대답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 지창순은 집에 있지 않았다.

다람쥐처럼, 정말 다람쥐처럼 쪼르르 토방마루에 달려나온 지창순의 어린 딸 이쁜이가《회의에 갔어요.》하고 대답한다.

《회의?》

삼봉령감은 기호에게 반문한것과 같은 물음을 어린 이쁜이에게 던졌다.

《네, 그래요. 회의에 갔어요.》

《그래?》

삼봉령감은 사뭇 맹랑히 생각하며 돌쳐서려다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생각에 잠겨 멈춰섰다.

(내가 모르는 회의가 이 부락에서 열린다?…)

삼봉령감은 해방후 부락에서 열리는 매 회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그러나 기호와 창순이들이 따로 모이는 회의만은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삼봉령감은 벌써 여러번 이 알수 없는 회의에 대해 생각했다. 그 회의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결정하는지는 눈치로 짐작할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삼봉령감에게는 알수 없는 회의에 대한 궁금함이 한층더 간절했다.

《할아반, 아반 간 회의를 몰라서 그래요?》하고 지창순의 막내딸인 어린 이쁜이가 다람쥐같은 걸음으로 쪼르르 달려나와 재롱을 피우며 말을 걸었다. 어두워서 분명치는 않았으나 맑은 눈동자와 토실토실한 두볼이 우련하게 보였다.

《그래 넌 알간?》

삼봉령감은 어린것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알지 않구. 뭘 것두 모르간.》

《어디 말해보지. …》

《세포회의에 갔저! 농촌세포회의에!》

《그래, 너 참 용쿠나.》

삼봉령감은 더 참지 못하고 어린 이쁜이의 가벼운 몸을 겨드랑이밑으로 건듯 안아올려 세번네번 공중마를 띄웠다.

그리고나서야 후련한 마음으로 새로 세운 울바자밖으로 나왔다. 어둡던 머리속이 금시에 선하게 밝아지는듯싶었다.

《고것이 원 기특스럽다구야—》

밤은 어둡고 하늘에는 별빛만이 총총하다.

어두운 밤길을 뚜벅뚜벅 걸어 집으로 향하는 삼봉령감은 머리속에 인백인듯 떠나지 않는 골몰한 생각에 가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섰다.

기호는 언제인가 부락청년들앞에서 지금의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10년이나 20년이후에는 이 부락같은 산협지는 웃부락에 생길 무슨 큰 공장의 부속용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그냥 짓더래도 모두 로동자처럼 공동으로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농민이 돼야 하고 그런 부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락청년들은 기호의 이야기를 밝은 별 쳐다보듯 눈동자를 반짝이며 주의깊게 들었다.

그러나 삼봉령감은 기호의 이 10년, 20년이후의 이야기를 누가 미리 짐작으로 알거냐고 생각했다. 그것은 알수 없는 일인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의 기호도 랭상모에 대한 일도 모두가 모를 일만이였다.

기호는 그저 《그렇게만 알구계시라요.》하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회의에 갔다.

그 《딴 도리》의 그렇게 알고만 있으라는 리치속은 언제 알려지는것인가?

삼봉령감은 이러한 조바심과 모두가 모를 일뿐인 갑갑함에 집에 돌아와서도 온밤을 고스란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3

삼봉령감은 모든것이 모를 일뿐인 갑갑함과 부락의 새 계획이 말끔

무너져가는듯 한 불안에 밤을 고스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웠다.
이른새벽의 부락은 산기슭과 방축, 눈에 보이는 모두가 뿌연 안개에 꽉 덮이였다.
공동모판은 뿌연 안개에 잠겨버리듯 바로 눈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이 짙은 안개속에서도 나타날 모든 사태가 남김없이 드러났다.
모판마다 찬물이 기울어지던 경사진 아래기슭 절반폭으로 누르게 시들어가는 모그루는 어제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그중에도 삼봉령감자신의 손이 더 잦게 간 모판일수록 심했고 분명 자기 이름이 씌여있는 모판은 거의 전부가 시들어드는 모그루만이 눈에 띄였다.
삼봉령감은 눈앞이 어질어질 어지러워옴을 느꼈다.
다른 농가에서는 ―랭상모가 잘못되는 때엔― 하고 따로 수모를 부어넣었으니 랭상모만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구들 할게다. 그리 되면 새계획을 위한 부락회의에서의 결정은? 결정은 처음부터 없는것으로 되고마는것이다.
그런데도 기호는 념려없다고 하였고 괜찮은 일이라고 하였다.
아침기운이 온 대지에 훤히 퍼지며 안개가 서리서리 굽돌아 흩어지기 시작한다. 우련히 희미하게만 보이던 흙빛도 차츰 선명하게 보였다. 해볕을 되도록 고르게 많이 받으라고 진흙판에 두텁게 깔아놓은 모판안의 부드러운 모래흙은 큰 홍수에나 패여내린것처럼 말끔히 흘러내려서, 시뻘겋게 드러난 진흙판이 군데군데 짱짱 터져서 굵은 금이 그어졌다. 이것 역시 자기가 물을 끼얹은탓이거니 생각하면 삼봉령감에게는 모든 일이 끔찍스럽기만 했다.
삼봉령감은 보기에 난감한 사실앞에서 넋잃은 사람처럼 멍청히 섰다.
어려운 처지를 구해줄 사람은 기호뿐이였다. 그가 말하던 딴 도리란 무슨 묘책을 생각해낸것일가? 삼봉령감은 한편 불안스럽고 한편으로 또 안타깝기도 한 심정으로 한모판 한모판 돌아가며 살폈다. 그러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령감님, 일쭉 나왔습니다.》하고 부르는 기호의 시무룩이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또 그뒤에는 《무슨 놈의 안개가 이렇게 짙다구야―》하고 안개를 헤치듯 손을 저으며 경사진 모판

을 내려오는 지창순이가 따라섰다.
기호와 지창순, 그들은 삼봉령감보다도 먼저 모판에 올라왔던것이다.
기호는 줌안에 가뜩 뽑아쥔 모그루를 삼봉령감에게 보이며《자, 령감, 이걸 봤소?》하고 물었다. 그것은 밑끝까지 덤불이나 아무 이름없는 잡초와 같이 시들고 썩은 모그루였다.
《낸들 보지야 않았가디—》
삼봉령감은 이 말을 속으로만 외우고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그럼 또 이건—》하고 기호는 다른 줌에서 다른 모그루를 또 보여주었다. 놀라웁게도 그 모그루들은 눈이 새그럽게 푸르싱싱한것들이였다.
《아니, 그건?》
삼봉령감은 내밀려던 손을 도로 축 떨어뜨렸다. 그건 모판마다 시들어간다고는 하여도 절반폭씩은 남아있는 그 보통모에 지나지 않잖은가? 삼봉령감에게는 이러한 자책지심이 치밀어오르는것이였다.
《그걸 어찌자는건가. 그 절반폭의 모를 가지구 온 부락이 모내기를 할셈인가?》
《령감, 어때요. 이건 좋은 모지요.》
기호는 푸르고 성한 모춤을 재차 내여들고 넌지시 웃는 얼굴로 묻는다.
《이 사람아, 어쩔 작정인가, 성한 모가 있는줄은 나도 아네. … 그게 절반이나 절반이상 될지도 몰라. 해두 그걸루야 온 부락의 모를 낼수야 없지 않은가?》
삼봉령감은 마치 모가 시들은 원인이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일처럼 버럭 큰소리를 쳤다.
《그럼 어쩌자는거요? 모가 절반이상 쓰러졌는데 이젠 어쩌자는게요? 절반 상한것도 아직 부족하단 말이요?》
지창순이가 언제나와 같은 무뚝뚝한 말투로 삼봉령감을 나무라며 앞으로 다가나섰다.
《령감 말마따나 부락에서 첫 시험인 랭상모두 공동작업이 아니였갔소. 그거레 이 모양이 됐으니 어떡할셈이요. 예, 령감?》
지창순은 점점 더 큰소리로 꾸짖고든다.
《이 사람, 임자까지 그러긴가? 임자까지… 낸들 이럴줄이야 알구

했갔나. 잘하느라구 한노릇이지…》
삼봉령감은 치밀어오르는 울화에 슬며시 낯을 돌리여 두사람앞에서 떠날셈으로 두어걸음 물러섰다.
기호는 잊지 않은 버릇인 팔짱을 꾹 끼고 여전히 씨무룩이 웃는 얼굴로 서있다.
그 기호가 《아니 삼봉령감, 가긴 어딜 가우?》 하고 부르며 팔목을 잡아 이끄는것이였다.
《가지 않으문, 이제야 내레 공동모판에나 임자네게나 상관있는 사람이가.》
《원, 령감두. 그러지 말구 이리 오시오. 와서 잘 설명하구 다시 이야길 합세다. 일없이 된다잖었시우.》
《아니, 이 사람들 누굴 노리개루 아는가. 그러지들말구 땍히 말해주렴! 하기야 창순의 말대루 다 망쳐놓았지… 그걸 누가 아니라나. 그렇다 해두 하구 못하는건 전 부락일이 아니가!》
삼봉령감은 아직도 채 풀리지 않은 노여움과 자책, 울화에 볼메인 소리로 반 발명하듯 두덜거리며 되돌아섰다.
《그러게 한번 더 설명하지 않소. 자, 오우다.》
《내레 말하는건 령감잘못을 알라는게요.》 하고 지창순도 슬며시 팔목을 잡아 이끈다.
《그런데 령감! 랭상모의 이앙이 념려없는 리치속을 알겠소?》 하고 지창순은 긴 허리를 쭉 굽히고 묻지 않는 말을 시작한다.
《알았소. 우선 이앙법을 개선한단 말이요. 이앙법을 개선하거던, 령감! 어제 저녁회의에서 기호레 보고루 우린 이앙법을 외대모이앙으로 공동작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론했단 말이요. 그렇게 진짜루 실시만 되문 령감근심은 다 없어지오.》
지창순이 이런 말을 하는 사이 기호는 그냥 아무말없이 모판마다 기웃기웃 오래 서서 살펴간다.
지창순은 말을 계속하여 외대모의 이앙은 마치 자기가 연구해낸듯 자랑스럽게 말한다.
《외대모라니? 그걸 기호레 보고하구 어제 저녁 자네들 회의에서 토의했다?》
삼봉령감은 키큰 지창순의 곁에 한걸음 바싹 다가섰다. 옆으로만 오

돌지게 퍼진 그의 낮은 키는 지창순의 높은 어깨를 겨우 넘을가말가 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상한 모가 앞으로두 더 생기는가— 또 성한 모는 얼마나 있나? 이걸 지금 기호가 조사하는 길이라오.》

《알겠네! 임자에게 내레 미안한 말을 무얼루 다 하나, 이 사람들…》

삼봉령감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멀리 딴 모판으로 간 기호에게로 달려갔다.

기호는 큰 수첩속에 무엇인가 굵은 글씨를 잔뜩 적고있었다.

삼봉령감은《기호, 임자에게 난…》하고 방금 지창순의 앞에서처럼 머리를 푹 떨어뜨리고 같은 말을 되뇌이였다.

그의 굵은 주름이 진 눈망울에서 눈물방울이 쭈르륵 흘러내려 쭈글쭈글 홈이 패인 두볼을 적시였다.

그것은 벌써 두달전인 2월 초순 어느날 일이다.

삼봉령감에게는 그날의 모든 일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기억되였다. 그날 문화회관에서는 부락의 농민전부가 모인 농민대회가 있었다.

회의에서의 보고자였던 지창순은 그 며칠전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에서 제시된 1949년—1950년간 2개년인민경제계획에서 농업부문의 부락책임량과 의무교육준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삼봉령감은 보고가 끝나자 곧 연단으로 나갔다.

《…구경 쌀을 더 많이 내고 우리 부락에다 새로 학교를 세워야겠는데. 그러자문 어드렇게 해야 되갔시우? 우리 부락의 논밭은 정해있고 그 소출은 몇십년을 두고두고 별스리 다르지 않쇠다. 종자를 갈구, 비료를 좋은 놈으로 더 많이 넣고 아직두새 천수답으루 있는 부락논을 관개답으로 맨들어야 한다구 생각합네다. 그러나 더 당장에 필요한건 이자 지창순이레 보고한대루 농사법을 개량한다는 일 즉 온 부락이 랭상모를 실시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됩네다. 신문에 굉장스레 나고 부락에선 기호만 시험해서 곱절나는 수확을 거둔 랭상모말이외다.》하고 삼봉령감은 랭상모실시에서 증수되는 쌀의 2할정도만 기금으로 모두어도 부락의 학교는 번듯하게 세울수 있잖겠느냐 하는 의미의 선참토론을 하였던것이다.

토론에는 다른 여러 농민들이 참가했다.

랭상모를 실시하는데 모두 반대하지 않으나 랭상모기술을 모르니 어

찌느냐? 하고 어정쩡히 토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삼봉령감은 이러한 토론에 대해《기호레 기술지도를 하구, 부락이 한데 어울려 공동으로 모를 키우는게 어떻갔습네까?》하고 제의했었다.

기호는 작년 다른 군에서 랭상모이앙법을 실시했다는 소문을 들은 그 이튿날 그 농민을 찾아갔고 다시 농사시험장까지 찾아가서 랭상모이앙법을 완전하게 체득해가지고온 경험가요 기술자였다.

부락에서는 그를 《농업기사》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고 《랭상모박사》라는 새 별명으로 불렀다.

그만큼 작년 한해에 그가 실시한 랭상모는 온 부락을 놀라게 했던것이다.

그런데도 삼봉령감의 공동모판실시에 대한 제의는 부락농민들을 놀라게 했다.

《모를 공동으로 심다니, 제 손으로 못하문 말디, 까짓 남의 손을 빌구말구…》

《기호레 아무리 농사리치를 잘 안다쳐두 부락 논모를 전부 혼자 담당해기를수야 있겠나—》하고 강준구 외 몇 농민들이 고집을 세우고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기호와 삼봉령감을 따르는 토론도 많았다. 결국 회의는 온 부락이 공동으로 랭상모를 키울 결정을 채택하였고 모판으로 쓸 밭은 삼봉령감의 분여지에 련닿은 5천평의 남향경사전으로 할것까지 결정했다.

삼봉령감은 이날 부락에서 꾸며지는 새 계획이 자기의 피땀이 젖어든 자기의 땅에서 싹트고 자란다는 사실만에도 평생의 소원을 이룬듯 기뻤던것이다.

그렇듯 희망을 걸고 시작한 부락의 새 계획이 지금 자기 손으로 무너지려 하지 않는가?

삼봉령감은 너무도 뜻밖의 사실앞에 가슴이 미여지는듯 쓰려오는것이였다.

짙은 안개가 점점 풀리여 엷디엷은 뽀얀 빛으로 마치 흐린 우유빛과도 같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3천평의 면적을 차지한 140여호의 모판을 다 돌고온 기호는 《이젠 내려갑시다!》하고 별말없이 내려갈 차비를 하였다.

《아니 기호동무, 결과를 말해야지, 결과를!》

삼봉령감보다 앞서 지창순이가 성급스레 물었다.

《념려없겠지요. 부락회의에서 결정한 일인데 하지 않구 견딜수 있나요. 아무튼 회관에 들려서 다시 토론합세다.》

기호는 아직도 미진한 계산은 남은듯 그러나 《념려할것 없쇠다.》하고 몇번이고 씨무룩이 웃어보이던 그 한가지 확신성있는 대답은 잊지 않고 다시 하였다.

기호와 지창순, 삼봉령감일행이 모판을 떠나 내려오려고 할 때에 다른 농민들이 한명, 두명 잔기침을 쿵쿵 하며 올라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랭상모에 대한 근심을 털어놓았다.

정오에 부락농민들은 회관회의실로 급히 모여왔다. 불과 두세시간전에 급작스레 소집한 회의였으나 로인들과 녀성농민들, 민청원인 젊은 농민들 거의 전부가 정오정각전에 들어섰다.

휘영청히 넓은 회관안 강당으로 밀고들어가는 그들은 제가끔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떠들었다.

《또 공동이앙이라는 말이니 무슨 말이가?》

《낸들 알간—》

《쓰지 않으문 되는걸 별스레 고아대긴, 제—길.》

《암, 쓰지 않으문 되지. 그렇지만 기껏 결정하구 애쓴 일이 다 허사가 되지 않나—》

《결정이건 메건 실속있게 해야디, 농사가 어디 노다지 캐듯 되라디?》

《그래두 이 사람아, 다른데서 다 하는걸 우리 부락에서만 못한대서야 되갔나— 물구 뜯어두 해야지 못하면 2개년계획책임량을 못하는거네!》

농민들은 회의전부터 서로 제 주장을 하며 싸우듯 떠들었다.

《2개년인민경제계획완수를 위하여 영농법을 개선하고 랭상모이앙으로 배 이상의 수확을 기하자》하고 쓴 표어가 붙어있고 그옆에 두개의 기발과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회의집행부앞에는 어느새에 새로 써붙인 《××부락농민회의》라는 먹글씨의 프랑카드가 바람에 펄럭거렸다.

농민들은 신이 나서 한참 떠들다가 회의집행부의 엄숙한 자세와 표어에 씌여있는 글을 내려읽고 생각에 잠겼다.

회의에는 동인민위원장인 박상준도 웃부락에서 내려왔다. 박상준은 회

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호와 지창순의 설명을 요구하였다. 삼봉령감은 이 자리에서 처음 외대모이앙법에 대한 기호의 계획을 알게 되였다.

종래의 랭상모이앙법은 석대내지 다섯대까지 박아나갔으나 이것을 외대씩 박아나가는것으로 고치면 수확을 더 많이 낼수 있다는것이 기호가 설명하는 계획의 요지였다.

기호는 이 문제는 어제 저녁에 열린 세포회의에서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였음을 첨가하여 말했다. 외대모이앙법에 대하여는 동인민위원장 박상준도 미리 알고있었는듯 알만 한 일이라고 별말없이 찬동했다. 다만 동인민위원장은 모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과 외대모를 농민들이 찬동해나설지 어쩔지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삼봉령감은 기호의 설명을 듣고 가슴이 확 열리는듯 하였으나 박상준의 말을 듣고보니 또 암담한 근심이 앞을 콱 막는것이였다.

《농민들에게는 찬성하도록 해야지요. 그러구 모는 절반폭은 상했지만 모자라지는 않을겁니다.》

기호는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말했다.

《기호의 의견엔 저두 찬동했쇠다. 아무튼 토론에 붙여봅시다.》

지창순은 기운을 내며 말했다.

로인과 어린 학생패들까지 모여온 강당안은 더 앉을 자리없이 빼곡 조여앉았다.

회의는 시작되였다.

지창순은 회의를 급히 소집하게 된 사정과 앞으로 실시할 외대모공동이앙에 대해 긴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여보! 분회장!》 하고 삼봉령감과 같은 년배인 이전 자작농 강준구가 살찐 몸을 비슬비슬 흔들며 일어서는것이였다.

《우리레 랭상모를 마다는건 아니지만 이자 말대루 모가 절반이상 썩었는데 될수 있겠소? 것두 삼봉이 혼자 잘못을 가지구 온 부락이 무슨 작업방식을 고치느니 마느니 그럴게 무에란 말이우. 비두 내리잖는데 이런 회의 그만 파하는게 어떻갔소?》

《옳쇠다. 아무래두 모주라는걸 가지구 모를 공동으로 내느니 마느니가 있습네까? 지금 당장에 더 급한건 비가 오지 않는거웨다.》

《그렇지요. 큰소리만으루야 일이 되오. 순리를 따라서 순리대루 일해야지요.》

강준구의 앞장을 따라나서는 4~5명의 같은 자작농패들이 회의를 짓눌러버릴셈으로 작당해나섰다.

《여러분, 제가 자세한 이야길 좀 하겠습네다.》

작은 몸집의 기호가 연설대앞에 나섰다.

숭얼숭얼 흔들리기 시작하던 많은 농민들의 시선이 너무도 키작게 보이는 기호에게로 쏠려왔다.

기호는 다시한번 강준구와 여러 농민들의 얼굴을 쭉 살펴가며 《랭상모이앙은 이자 농맹분회장 지창순의 말대루 하게 됩니다. 꼭 해야 합니다.》하고 또박또박 따져가며 어느때나와 같은 그 확신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동모판에서 모가 상한건 절반폭이 못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구두 온 부락이 다 이앙을 마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구계시지만 우리 부락의 논은 전부 515반보(1반보 300평) 즉 15만 4천 5백평입네다.

여기에 필요한 모는 작년표준으로 반당 열평씩 잡아서 5천평이 좀 넘는 모가 필요합니다. 이 회계루 우리는 5천평 조금 넘는 면적의 공동모판을 맨들었던겝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손실당한 모가 절반이라 가정한대두 2천 5백평분의 모가 있는 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십이 이러한 수자는 작년표준으루 낡은 농사법의 표준입네다. 즉 반당 열평의 모가 필요하다는건 세밭모이앙으루서 석대, 넉대씩 심어나갈 표준인겝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상급에서 장려하구 우리가 이제 할려는 이앙법은 외대모이앙법으루 종래에 석대씩 심던것을 한대씩 심는것입네다. 그러문 결국 얼마나한 모가 필요합네까?

5천평의 모가 필요한 5백반보에 2천평미만의 모루두 되는 폭이 아니겠습네까? 그렇다문 우리 공동모판에서 2천평의 모를 솎을수 없겠습네까? 있어두 넉넉히 있습니다.》

기호는 단숨에 여기까지 말하고 잠간 말을 끊었다. 그는 이러한 보고를 전날 밤에 있은 당세포회의에서도 하였다. 토론해야 할것은 모가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외대모의 실시와 공동이앙을 조직하는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랭상모두 처음 하는 일인데 외대모까지 하였다가 실

패하면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기호는 《랭상모나 외대모는 과학적으루 실험하구 정부에서 장려하는 일인데 랑패볼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기호는 전날회의에서 있은 이러한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계속했다.
《… 그런데 우에서 한 계산은 부락논전부의 총면적과 거기에 필요한 모판면적전부를 말한겝니다. 총수로는 이렇게 모주라지 않는 회계지만서두 이것을 각 농호 각각으로 하면 여러분의 말대루 어느 집이나 다 모주라게 됩니다. 그건 첫째 이앙을 외대씩 박아나가는걸 여러분은 반대하구 안할랴구 할겝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이앙까지두 부락전부가 합쳐서 공동으로 하자는겝니다.》
기호의 보고가 끝나자 큰 숨소리 하나없이 쏠려오던 뭇시선이 흐트러지고 숭얼숭얼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호의 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나 한듯 자작농 강준구가 다시 몸을 비꼬며 일어서는것이다.
《공동, 공동이라니 이젠 말만 들어두 입에서 신물이 나우다. 농막이나 작인들끼리 하던 소겨리나 품앗이라문 또 몰라두 온 부락이 와—떠들구나서서 꿕하문 공동이라니 것두 번번이 잘되문 몰라두 떠드는 굿판에 거랭이사태라구 이건 정말 털구 나앉을 판이니 누구레 그 노릇을 하갔쇠까? 난 나대루 하갔쇠다. 랭상모가 모주라면 손모를 쓸뿐이디— 그렇지 않쉐까?》하고 강준구는 기호와 정면하여 맞서서 공동이앙제의를 반박해나섰다.
이를 따라 또 다른 농민들도 《삼봉령감 혼자 잘못을 부락공동으루 메꾸다니 무슨 말이우. 이젠 공동이구 랭상이구… 나두 나대루 하갔쇠다.》하고 걸고들듯이 기를 버럭 쓰고 일어섰다.
이것을 짓누르고 동인민위원장 박상준이가 연단앞에 나섰다.
《농민여러분, 난 이자 기호동무레 말한바가 퍽 좋다고 생각하외다. 본시 랭상모가 유리한 농법인데다가 공동이앙으루 일품을 덜구 공동모판에서 관리가 나쁜 잘못을 되려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대모이앙으루 살리는건 정말 선진적방법이외다. 또 로력을 공동으로 한다는건 선진로동자들의 집단로력을 배우는 첫 길인겝니다.》
《옳소! 공동이앙을 하디 않구선 우리 랭상모이앙을 전 부락에 실시할수 없는게구 2할이나 3할이상 증수해야 하는 금년계획을 달성 못

하는게오. 그리되문 우리가 한 결정은 헛결정이구 학교를 짓는다는것두 어렵게 되딜 않겠소.》하고 기호와 박상준의 토론을 따라 젊은 농민들 여럿이 욱— 일어섰다.

이에 겁을 먹은 강준구의 패거리는 더 기승을 부리지는 못하고 쑤군쑤군 속으로만 게두덜거리며 《어디 일품만이가. 모내기란 새나름, 모나름이 다 있는건데 온 동네가 굿판처럼 한데 어울르다니 될말이가? 게다가 또 외대모라니 잘되면 몰라두 못되면 온 부락이 내해, 네해없이 망할 판이 아닌가! 그때엔 또 어쩌누… 공동으로 굶구 공동으로 비라리를 떠나는가?》하고 고집스레 반대해나섰다.

삼봉령감은 이때까지도 두무릎을 바싹 세우고 몸을 움질거리면서도 꾹 참고 견디였다. 그러나 더 오래 량심속으로 치솟는 뉘우침과 참을수 없는 성미를 억누를수 없었다.

《부락의 여러 젊은이들!》

삼봉령감은 기어코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며 일어섰다.

《…이자 창순이두 말한대루 공동모판 랭상모를 망치게 한건 바루 내우다. 내레 했쇠다. 내레 망발이 나가지구 잘하느라구 한노릇이우다.

…결국 내레 잘못으루 모가 절반폭밖에 남지 않았쇠다. 이런 정상에서 나두 금년계획은 없는게 된다구 혼자 생각하구 정말 그렇게 되문 내레 부락에 남아 무슨 소용있는 사람이갔소. 죽어 없어지거나 어딜 떠나야지…

한게 이자 기호레 랭상모는 그냥 하게 되구 더 훌륭하게 된다구 말했소. 난두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소. 차츰 자세한 이야기를 듣구 리칠 따져간 다음에야 믿게 됐거던요. 이자 기호레 보고에 어디 어긋나는데가 있소? 한데두 여러분중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쇠다.

왜들 반대합네까? 종래 석대, 넉대 줌 자라는대루 박아나가든걸 외대씩 박아나가두 일흔대, 예순대의 아지가 뻗어져나온다는 리치가 믿어지지 않습네까?

혹은 내레 잘못한게 가슴에 맺히는겝니까? 정 그렇다문 내레 한사람은 없는 사람으루 칩세다. 예! 부락을 위하느라 잘할셈으루 한노릇이 잘못했으니까. 부락을 위해선 떠나두 원한은 없갔쇠다.

하지만 난 여러분이 반대하는 리율 땍히 알지 못하겠쇠다. 기호나 창순이, 동인민위원장까지 같은 처지루 우리를 위하구 부락을 위해서

찬성하는걸 여러분은 왜 반대하는지를 난 알지 못하겠쇠다. 여러분네는 부락이 다 잘사는건 싫단 말이요? 준구레 왜 악을 쓰구 반대하오? 임잔 자기 혼자논만 생각하는게 아니요? 가물문 부락논이 다 가무는걸 알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준구!》

삼봉령감은 말을 끊고 비슬비슬 피하는 강준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삼봉령감의 뒤를 이어 또 여러 농민들이 토론에 나섰다.

강준구 외 4～5명의 반대파들은 다시 더 나서서 우기지는 못하고《공동이앙이구 메구 비가 오는 때 일인데 급히 서둘께 무에냐?》 하고 기여들기 시작했다.

한낮이던 강당안에 전등이 켜지고 새까만 밤하늘에 덮인 바깥마당에는 총총히도 밝은 별빛이 빛발처럼 쏟아져내렸다.

회의는 밤중까지 계속되였다.

강준구와 두세 가호는 끝끝내 공동이앙작업을 반대해나섰다.

4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는다. 5월의 불볕만이 계속하여 쨍쨍 내려쪼이는것이다.

부락에는 적지 않은 변동이 일기 시작했다.

공동이앙작업에 대한 회의가 있은 이튿날 회관 강당안에서는 공동이앙작업의 협조를 위한 민청과 녀맹원들의 련락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결정이 있은 후 곧 농맹분회장 지창순은 공동이앙대조직에 착수했다.

부락 전농호 60여 가호에서 나온 113명의 남자로력에 50명의 녀성로력을 보충하여 세 중대로 나누고 한개 중대를 다시 세개의 소대로 나누는 군대식편성이 째여갔다.

이앙작업대전체책임은 지창순이 맡고 기술지도는 김기호, 이앙까지의 모판관리와 이앙모수송책임은 삼봉령감, 이러한 분공으로써 동원과 련락, 전반적인 지도알선은 동인민위원장이 맡기로 하였다.

중대와 소대편성이 끝난 후 각 중대와 소대통솔책임은 전부 민청원간부들로 하고 부락녀맹원들의 자원으로 이앙기간의 점심밥을 공동취사할것까지 결정되였다.

부락 집집은 명절이나 큰 잔치를 맞이하듯 분주히 서둘기 시작했다.

전에없이 굉장하고 큰일을 준비하듯 떠들고 들볶으며 중대와 소대의 회의가 미리 각 집에서 열리고 녀인네들은 공동취사에 쓸 쌀과 나무, 장그릇과 양념단지들을 들고나왔다. 조용키만 하던 부락에 패를 지어다니는 중대와 소대원농민들의 긴 행렬이 오락거리고 민청원들은 토지개혁기념일인 3월 5일이나 5.1절 같은 큰 명절을 맞이하는 전날 밤처럼 회관에 모여와서 각 중대와 소대기발을 만드느라고 수선을 떨었다.

이사이 삼봉령감 또한 전에없이 분주한 매일을 보냈다. 삼봉령감은 아침저녁 밥술을 놓기 바쁘게 부락 집집을 돌아가며《댁은 어떠시우? 별일 없수?》하고 물었다. 또 밤과 새벽엔 공동모판을 살펴가며 지키고서야 했다.

부락사람들은 녀인들까지도 어느 하루이고 불쑥불쑥 앞에 나타나는 그를 만나지 않는 날이 없다싶었다.

이러는 사이 녀인네들은 그가 먼발치에 나타나기만 하여도《삼봉령감! 이리 좀 오우다.》하고 큰소리로 불러대였다.

롱담과 헛웃음을 모르는 험상한 삼봉령감은 《왜들 그러오?》하고 기웃이 끼여든다. 그러면 녀인네들은 천연스럽게《아니, 누구레 불렀소? 만득 어머닌 또 애기설어요?》, 《왜 매맞아 혼날가, 물어뜯을가 두렵소?》하는 등의 희롱조로 따지고들기가 례사였다.

삼봉령감은 어이없이 턱을 만지며 《허, 그야 내레 알 일이요?》하고 곧 물러서려고 하는것이나 녀인네들은 또《그럼 그 일을 누구레 알게?》하고 겹겹이 길을 에워싸고 막았다.

이러한 일이 매일 있게 되여 삼봉령감은 어느 하루 기호와 지창순앞에까지 다불리우게 되였다.

기호는 그 어느때나의 씨무룩이 웃는 얼굴로 《령감, 이런 이야기가 정말이요?》하고 물었다. 이야긴즉 부락녀성동맹에서 삼봉령감이 녀성법령과 부락녀성들의 공동결의를 위반하는 삼봉이라는 이야기였다.

삼봉령감에게는 해방되는 해에야 맞아들여 40평생에 처음 첫아들까지 얻게 된 새 마누라 만득 어머니가 있었다. 삼봉령감은 금년 겨

우 네살난 첫아들 만득이놈 귀여움에 매일 아침 일터에 나올적마다 서른고개를 넘었다고 하나 꽃같이 이뻐만 보이고 애티가 나는 제 마누라에게 《임자는 집에서 만득이나 달래오, 일은 내가 임자몫까지 할테니깐.》하고 어루만지듯 말해왔다.

이번 이앙때 일뿐아니라 평소의 다른 녀성들의 모임에도 삼봉령감은 되도록 자기의 안해가 나가는것을 말리고 달랬다. 이러한 조심성이 녀인네들의 시비를 일으키고 화를 본셈이였다.

기호에게서 이에 대한 말이 있은 후부터 삼봉령감은 녀인네들이 모인 앞을 되도록 피해다녔다.

이를 안 녀인네들은 삼봉령감의 굵은 나무밑둥처럼 뭉톡한 키가 먼발로 나타나기만 하여도 키득키득 배를 싸쥐고 웃으며《삼봉이 령감, 삼봉이 령감.》하고 크게 불렀다.

삼봉령감이 이앙대본부회관을 찾아드는 회수가 매일 잦아지고 삼봉이 령감을 부르는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퍼졌다.

회관앞 넓은 마당에 다섯틀의 큰 가마가 걸리고… 이앙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전날 밤이 다가왔다.

그런데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푸른 하늘에 별빛만이 또록또록 점점 더 빛을 돋궜다. 부락에는 랭상모에 대한 근심보다도 더 검은 수심에 싸이기 시작했다.

이앙작업대는 중대장과 소대장회의를 급히 소집했다.

보통모내기보다는 한달가량 빠른 랭상모이앙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락 한복판을 뚫고 흐르는 개울물을 퍼넘기면서라도 모내기는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토론되였다.

이사이 회의는 계속되였고 회관앞마당에는 이앙대 한 중대가 모여들었다.

개울로 물푸러 나가기 위한 중대였다.

푸른 별빛아래에서 밥함지를 이고나간 취사반녀인들이 운동회때의 학생들처럼 렬을 지어 모여서는 농민들에게 신문지에 둘둘 말아싼 주먹밥 한꾸레미씩을 안겨주었다.

회관안에서의 회의는 계속되고 이앙대원들은 중대기를 앞세우고 젊은 민청원에게 인솔되여 개울을 찾아떠났다.

회의에서는 개울물 퍼넘기는 작업교대와 물이 잡히는대로 이앙을 시

작해가야 할 중대의 복잡한 교대반을 짜나갔다.

또 만일에 모내기작업중에 개울물까지 진하고 끝끝내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엔 부락앞을 가로막은 작은 산을 넘어 달래강물이라도 퍼넘기자는 토론이 나왔다.

그 달래강은 부락에서 5리길이였다.

안주 열두삼천리벌 논판에 물을 대이는 이전의 동인수리조합 물목이 이 부락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수량이 적은 이름없는 개울밖에 갖지 못한 부락에서는 예로부터 가물이 심하면 《달래강물을 퍼오지》 하는것이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느해에도 실상 달래강에까지 물을 푸러 간 사실은 근래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삼봉령감은 일단 집에 돌아왔으나 마당안에서 곧 돌쳐서 개울로 향하여 회관앞마당을 질러나갔다. 삼봉령감은 이날 집에 돌아와야 아무도 없을 사정, 부락의 모든 녀인네들이 공동취사반에 나가서 밤을 새우며 새벽밥을 짓게 된 결정을 깜빡 잊었던것이다.

삼봉령감은 녀인들이 웅성웅성 바쁘게 서두르고있는 큰 가마가 걸린 한켠을 먼발로 힐끗힐끗 바라보며 논두렁있는 개울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했다.

수없이 반짝이는 별빛에 온통 깨여난듯 한 개구리들의 요란한 합창이 울려온다.

이 시끄럽기만 한 울음소리를 짓누르고 은은한 기나리곡조로 들려오는 합창.

헤이궁 데이궁
물장에 밟아라
논물을 퍼넘기자

타령은 점점 높게 느린 곡조로 가슴속을 찌르고 스미듯 울려온다.

삼봉령감은 사뭇 의외의 정황에 《허—허.》 하고 즐거운 때에 버릇처럼 하는 몸자세, 팔뒤짐을 잔뜩 고누어지고 수염없는 턱을 시름시름 문지르며 걸음을 재촉했다.

짧고 밭은 몸집이 구를듯 하며, 에헴 에헴 밭은 기침소리를 연신 내며…

개울가에서 제일 가까운 살찐 논배미는 쭉 길게 내려가며 이전 자작농들인 강준구 외 몇농호에서 차지하고있었다.

이때문에 논물푸기중대 농민들은 이 여러 논배미들을 건너 꽤 먼 거리에까지 두줄로 길게 늘어섰다.

등에 지고나온 물지게는 전부 없어지고 노래소리에 따라 물초롱 몇개만이 쉴새없이 좍좍 논판으로 옮겨가고있다.

두줄로 선 농민들중에는 어느새에 나온 기호와 지창순도 두팔을 불끈 걷고 끼여있었다.

삼봉령감은 이들을 향하여 먼발치부터《임자넨 나만 따돌리간?》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기호와 지창순은《령감은 아니, 래일은 이앙을 시작한다는걸 잊었시우?》하고 놀라운 시선을 돌린다.

《잊다니, 이 사람들! 알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간?》

《알문 쉬여야 하는게요. 하루밤 푹 쉬고 래일은 모를 뜨구 일해야 하는게요.》하고 지창순이가 우락부락 큰소리를 지른다.

《쉬다니? 내레 왜 잔단 말이가. 논물 푸는 소리가 이렇게 좍좍 들리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령감 잠을 못 자게 했소?》

《아니 여보게들, 우리네가 삼봉이령감 잠을 못 자게 했네!》

곁에 선 젊은 농민들모두가 한마디씩은 거들고든다.

《이 사람들 괜한 소리들은…》

《아니, 령감은 아직두 공동규률을 모르오, 예? 조직규률을… 령감은 집에 가서 푹 쉬구있어야 하겠시우.》

《아니, 자네들 정 이러기가. 내레 소시적 일을 자네넨 모르겠지—잉? 자네넨 아직두 총각 삼봉이, 호랑이 삼봉일 모르는구만!》

삼봉령감은 물이 질벅한 진창속에 궁둥방아를 찧고 넘어질번 한 몸을 겨우 가누고 일어서며 고래고래 높은 소리를 웨쳤다.

여럿은 쉬지 않고 나르고있는 물초롱까지 땅우에 내동댕이치고서《하하하하—》하고 개울과 논판이 들썩 흔들리는 큰 웃음을 퍼뜨리였다.

삼봉령감을 지금도 간혹 《호랑이 삼봉이》, 《총각 삼봉이》라고 부르는것은 그의 잔뜩 낮은 키와 좁은 얼굴에 큰 두눈이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가 아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란 삼봉령감이 아직 스무살전후때 지금은 딴 군으로 이주해간 웃부락의 큰 지주놈댁에 머슴으로 있을 때 일이다. 그해 가을 한밤중에 지주놈집뒤울안에는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무 생각없이 뒤문을 열고나간 삼봉이는 어슬어슬 담모퉁이를 걸어나오는 큰 호랑이와 바로 옆에서 마주쳤다. 삼봉이는 돌아설 사이도 없이 겹결에 긴 꼬리를 바싹 쥐려다가 놓치고 넙적 잔등우에 올라탔다. 범은 후닥닥 담을 뛰여넘고 살같이 달렸다. 범의 잔등을 타고 바싹 붙어앉은 삼봉이는 닫는 범잔등에서 들고나온 작은 홰불만을 쉬지 않고 휘둘렀다. 마침 한밤중이라 달빛이 어른거리는 홰불그림자에 범은 더운 똥을 질질 갈기며 곧추 가까운 심산을 향하여 달렸다.

이리하여 이튿날 한낮에야 부락에서 80리길인 구성고을 곽산기슭에서 착 늘어진 범잔등에서 부실부실 일어서는 삼봉이를 지나가던 나무군아이가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다.

이후부터 삼봉이는 《호랑이 삼봉이》라고 불리웠고 또 그후 40이 넘도록 장가들 사이가 없는 머슴군으로 있는대서 다시 《총각 삼봉이》로 불리우기도 했던것이다. 이 두 별명은 해방후 삼봉이령감으로 고쳐졌다.

《하하하…》

배를 싸쥐고 웃기에 여념이 없는 물푸기행렬속에 농민들은 이미 눈확으로 패워들어간 큰 두눈을 무섭게 뜨고 끝내 행렬속에 끼여드는 호랑이 삼봉령감을 다시는 거들지 않았다.

5

헤이궁 데이궁
물장에 밟아라
논물을 퍼넘기자

논물푸기합창은 온밤 계속되였다.

삼봉령감은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왔다.

잠간사이라도 눈을 붙였다가 나갈셈으로 자리에 누웠던것이나 삼봉

령감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여오는 무더움에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앞마당에 나섰다.

습기에 찬 차겁고 랭한 바람이 볼과 목을 때리고 지나간다.

하늘은 새벽그대로 흐뭇하여 아직 새날은 아니였다. 그런데도 달그림자만이 아니라 반드시 떠있을 새벽별조차 어디에 가서 숨기나 한듯 한놈 없었다.

《허허— 이게 어찌된셈인가?》

삼봉령감은 채 깨지 않은 잠에 고실고실한 눈을 두주먹으로 비비며 다시 흐린듯 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확실히 흐렸다. 흐렸을뿐아니라 방금 비방울이 떨어질듯이 선뜩선뜩 차거운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어오는것이다.

삼봉령감은 사뭇 만족스레 《암 그렇겠지.》하고 머리를 끄덕이며 공동모판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첫 1호의 모판부터 삼봉령감은 천천히 살펴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여기에 꿀처럼 단비가 고르게 스며들것이고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솟구어낸다. 이러한 공상을 가슴속에 다지며— 그런데 이상한 일이라구야— 삼봉령감은 두손을 등어리에 잔뜩 고누어올리고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가슴을 꾹 누르고 놀라운 눈으로 살펴가기 시작했다.

한배미, 두배미… 네배미 또 한배미 전부 다섯배미의 모판에 모그루라고는 말끔히 없고 손으로 란장을 치고 갈구리로 파헤친 흙덩이만이 부시시 스산스레도 흩어져있는것이다.

《해괴한 일!》

삼봉령감은 겨우 이렇게 중얼거리며 모판곁으로 다가섰다. —패말은?— 있을리 없고 없는 패말은 보나마나 짐작되는 일이였다.

이런 변은 부락공동의 일은 털끝만치도 머리속에 없는 패당들의짓외에는 있을리 없었다.

삼봉령감은 지나온 첫 두 모판으로 다시 내려왔다. 분명 자기의 패말 있는 모판이였고 또 48호의 김기호모판이였다.

무슨 앙심으로인지 잘못인지는 모르되 반 가까이 뽑아가다가 그냥 남겨두었고 뽑아놓은채 쌓아놓은것도 수북이 있었다.

삼봉령감은 이 내여버리듯 쌓여있는 모더미앞에 멈춰선채 움쭉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 모두 누구핸데 뉘레 마음대루 하긴가—》

더운 피가 돌아가는 살점을 문적 에여 괴로운 부르짖음이 새여나온다. 삼봉령감은 가슴을 누르고 되도록 천천히 걸으려 했다. 그러나 걸음은 빨라만지고 머리와 가슴은 휘청휘청 앞으로만 쏠렸다.

《누구의해를 뉘레 가져간단 말인가?》

삼봉령감이 몇번이고 이러한 부르짖음을 곱씹어 외우며 공동모판을 달려나오는데 이때 기호와 지창순 두사람이 올라왔다.

《령감, 웬일이요?》하고 먼저 지창순의 두터운 손이 앞을 턱 막았다.

삼봉령감은 대중대중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나서 《자, 비켜주게. 내가 휭하니 가서 강준구놈을 붙잡아올라네!》하고 지창순을 밀고나섰다.

지창순은 다시 《가만있소, 어디…》 하고 막아서며 기호와 몇마디의 말을 주고받더니 이번에는 기호가 나서며 《령감 자, 그만 둬두게우. 자기해라구 가져간셈이겠지, 그렇지 않소? 그걸 가지고 싸우면 되려 시끄럽잖겠소.》하고 팔목을 덥석 잡는것이다.

삼봉령감은 《기호, 임자가 그걸 말이라구 하는셈인가. 왜 자기네해뿐인가? 또 그자는 그자 혼자핸가? 온 부락이 모여서 결정하구 임자가 밤낮 애를 쓰구 한게 다 그자네 혼자를 위해서였나, 잉? 그자네들은 해방전세상에두 지주놈들의 등살을 믿고 우쭐대며 자작농이누라 배를 뚱뚱 튕기구 살던자들이 아닌가? 그런걸 그자네들이 배부른 방구를 상기두 붕붕 뀌구 돌아다니라구 우리모두가 애를 쓰는겐가. 임자레 말을 좀 똑똑히 하게.

이 랭상모를 공동으로 할적에 모두 무슨 맘으루 단합했겠나! 하긴 누구나 자기 리익부터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상이야 모두다 부락공동이 잘사는걸 바랬구 문명해지길 바란게 아니였겠나. 부락공동이 잘살구 문명해지는건 구경 메라구 했나. 그건 바루 우리 손으로 세운 인민주권을 튼튼케 하는것이구 새로 세운 나라를 위하는게라구 임자가 말하구 주장하잖았나. 될말이가? 썩은 모 한대라두 몽땅 찾아올라네! 모뿐이겠나. 묻어간 흙덩이까지래도 찾아올라네!》

기호와 지창순은 기어코 떠밀고나가는 삼봉령감의 기세를 더 막지 못했다. 삼봉령감이 달리듯 떠난 다음 기호와 지창순은 47호부터

52호까지의 도난맞은 모판현장으로 올라왔다.

47호와 48호 삼봉령감과 기호의 모판을 비롯하여 여섯 모판이 함께 진흙바닥이 드러난 참상은 차마 보기 어려웠다.

《우리도 가봐야잖겠나?》

《그럼, 가봐야지.》하고 기호와 지창순은 다른 별말없이 준구를 찾아가는 삼봉령감의 뒤를 따라 부락길에 나서는것이였다.

방금 시원스레 쏟아져내릴듯 하던 비방울은 안타깝게도 떨어지지 않았다.

뿌옇게 덮인 하늘이 흐린 그대로 무겁게 내려앉아있을뿐 어슬어슬 불어오던 찬바람도 멎어갔다.

6

뿌옇게 덮인 하늘이 흐린 그대로 무겁게 내려앉아있을뿐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다.

시름시름 찬 비방울이 떨어지는듯마는듯 하다가도 번뜻 개인 하늘이 나타났다.

그리고나선 5월의 불볕이 다시 쨍쨍 내려쪼이고 또 흐려오고 하는 여러날이 계속되였다.

부락에는 《기사년 한재가 다시 오느니.》, 《가물뒤의 장마징조니.》하는 자못 불안에 싸인 새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회관안에 장치된 작은 라지오에서는 매일 중국대륙에서 떠도는 저기압이 우리 나라로 이동중이며 근일 비가 내리게 된다는 예고만을 했다.

비가 내리건말건 부락의 논판엔 물이 꾸역꾸역 쏟아져들어갔다.

논물퍼넘기는 작업이 계속되고 그에 따라 이앙도 예정을 바꾸지 않고 진행되여갔다. 다만 물푸기일품때문에 1주일예정의 기간을 열흘로 미루게만 되였다.

이사이 삼봉령감은 매일 이른새벽 회관앞마당에 나가서 20명안팎의 특별소대농민들을 인솔하여가지고 모판으로 나갔다.

모를 찌고 나르는 책임인 그는 자기의 손으로 절반이상이나 상하게 만든 그 상한 모를 골라낼적마다 참을수 없이 가슴이 저려왔다.

이 뼈저린 뉘우침에 삼봉령감은 간간이 일손을 쉬고 일어서서 이앙

대 젊은 농민들이 하얗게 늘어선 논판을 부러운듯이 내려다보는것이다.

무겁게 덮인 푸른 하늘아래 중대와 소대의 각양각색 기발이 펄럭이는 그곳에서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끄는 이 나라의 은은한 곡조가 하냥 들려온다.

삼봉령감은 이 노래속에 자기가 껴들지 않고 모내기작업에 자기만이 빠져있는것 같은 느낌에 함께 모찌는 젊은 농민더러 《이 사람들, 오늘은 뉘집 모판이든? 외대모가 잘 돼가든?》 하고 은근히 서운한 말투로 물었다.

부락공동의 이앙작업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 이날은 또 흐렸던 하늘이 반짝 개여올랐다. 삼봉령감은 한낮전에 모찌는 일전부를 끝마치고 곧 모판으로 달려나왔다. 벌써 작업 첫날부터 일손모범을 보이리라 잔뜩 마음에 다졌던 속심을 마지막 이날에 풀어보이리라, 이렇게 장한 마음으로 삼봉령감은 달려나왔다.

논판은 한참 분주한 고비였다.

붉은빛, 누른빛, 흰빛 기발이 덤숭덤숭 덮여있는 꽤 넓은 벌판에 팔뚝과 무릎까지 불쑥 걷어올린 이앙대행렬이 습진하듯 쭉 늘어섰다.

논물푸기중대도 이날 돌아와 모내기작업에 합쳤다. 모판마다 필요한 량의 물을 다 채워넣은것이였고 더 흡족히 물을 퍼넘기려 하여도 적은 개울물을 웃부락에서 동을 막고 퍼쓰는통에 밑창이 드러났던것이다.

삼봉령감은 기호와 지창순이가 가지런히 껴들어있는 논판을 찾아 풍덩 뛰여들었다.

이를 안 지창순이 허리를 쭉 펴고 《삼봉이령감, 일이 끝났소? 이제!》 하고 전에없이 순한 말을 건넨다.

《끝났지, 그래 모내기두 오늘루 끝나게 되나?》

《끝나기야 하지.》

《그럼 뭐 또 있나?》

《있기만이우, 비가 와야 하지 않겠소.》

《그래 비가 와야 하지.》

삼봉령감은 지창순을 따라 실없는줄은 알면서도 푸르기만 한 하늘을 힐끗 쳐다보았다.

《도랑물도 이젠 밑바닥이 드러났으니 래일부턴 달래강물이래도 퍼넘길려오.》

지창순은 해별에 검게 탄 얼굴을 반짝이며 그새 기호와 함께 토론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달래강이라니 말이 쉽지 5리두 넘는데 물푸러 떠나다니…》

《그럼 어떻게 하우? 2～3일내루 비가 내린다문 몰라두…》

《그러게 내가 메랬나. 작년 가을이나 봄으루 한번 더 군에 가서 맞서보는게였어!》

《기호두 그 말을 했다우. 백일 제쳐놓구 금년 가을엔 부락 단독으로 관개공사를 시작해야 하겠다구…》

이 부락의 관개공사는 벌써 3년째 미루고 미뤄왔다. 그것은 해방전부터 말이 있은 안주수리조합물이 이곳까지 들어온다는 말때문에 공연히 비용과 로력을 허비하고 따로이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지시때문이였던것이다.

좌우켠옆으로 렬을 지어섰던 이앙대행렬이 어느덧 멀리에 나갔다.

《자 나가게오, 령감.》

《아니, 이 사람!》

따라나섰던 삼봉령감은 흠칫 걸음을 멈추고 지창순을 붙잡았다.

《저거레 누구가? 이 사람.》

삼봉령감은 가물에 대한 수심만이 아니라 깊은 분노에 서린 험상한 눈길로 앞을 노려보며 계속해 물었다.

《아― 준구 말이우?》

지창순은 무슨 대견한 일이냐는듯 히죽이 웃으며 돌아선다.

《준구가 어떻게 나왔나!》

분명 준구임에 틀림없었다. 멀찌감치 떨어져나간 그 한 행렬속에 끼워 뚱기작뚱기작 모를 박아나가는 살찐 몰골을 바라보게 된 삼봉령감은 눈살을 잔뜩 찌프리고 외면해 돌아섰다.

《준구가 글쎄 오늘 아침…》하고 지창순은 그제야 강준구의 네 농호가 공동모판에 뛰여들어 훔치듯 뽑아갔다가 남은 모그루를 전부 가지고나와서 여사모사 잘못한 사연을 길게 늘어놓으며 빌고들던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준구가 빌구들다니? 이 사람아, 그걸 넙죽 받아들이는 시렁뱅이

는 누구였나?》

《받지 않으문 어쩌는가. 진짜 지주두 아니구 이남으로 도망갈 얼간이반역자두 아닌 담에야 되두룩 두둔하구 같이 살아야지. … 그렇잖소?》

《그렇잖소라니… 이 사람아, 이남으루 꼭 가야만인가? 우리와는 따게만 놀려들구 옛날본세루 지주행세만 뻑뻑 내는걸 어떻게 두둔한단 말이가?》

《그럴수록 더 두둔하구 가르쳐줘야 한다우. 기호가 그리고 동인민위원장은 신신부탁까지 했다오. 교양을 좀 푹 주구…》

《가르쳐줘? 이 사람, 그자네들이 이런 도랑물이 강목이 나구 제리속이 틀리니낀 껴들자는거지. 우리 모내기는 오늘루 끝나는게 아니라 그자네들 논판으로 옮겨가야 하네, 이런 리속을 따지고 그자들이 달래강까지 물푸러 가자는 공론을 한거지! 이 사람들, 잉— 임자네들부터 정신을 채려야겠네!》

《…》

지창순은 말없이 앞서나간 행렬을 따라나가며《그렇기야 하지만 되두룩 손을 맞잡구 뭉쳐야지. 서루 딴갈래루 달아나서야 부락일이 되겠나.》하고 생각깊은 말을 던졌다.

그러나 삼봉령감의 마음은 종시 풀리지 않았다. 도리여 그날 아침 기호야 말리든 말든 그자네들의 남은 모전부를 빼아오지 못한것이 체한 음식처럼 가슴에 얹혀 내리지 않는것이였다.

삼봉령감은 기어코 지창순과 기호와도 따로 떨어져 되도록 준구네가 보이지 않는 행렬끝으로 자리를 옮겨가기까지 했다.

이튿날 강준구의 네 농호가 새로 껴들어온때문에 공동이앙대모내기 작업은 하루 더 계속케 되였다.

삼봉령감의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기호와 지창순이가 마다하고 말리는것을 무릅쓰고 달래강으로 물푸기를 떠나는 중대에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

한것이 하루밤동안에 작업예정이 바뀌여졌다. 도랑물에 동을 막고 사이를 끊어놓았던 웃부락과의 교섭이 진행되여 하루밤동안과 이튿날 저녁까지 가는 물줄기는 다시 흘러내리게 되였다.

삼봉령감은 사세부득으로 이 하루밤을 준구네와 휩쓸리여 도랑물가

에 남은 준구네 모판에 물을 퍼넘기기 위한 물푸기작업에 꼬박 새게 되였다.

새벽녘에야 교대반중대에게 물초롱을 넘기고 노근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삼봉령감은 늦자식 어린 만득이를 안고나오는 새 마누라에게 《임자 오늘 그 취사반에 나가질 말아야 하네.》하고 퉁명스레 밭은 말을 던졌다.

《왜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나요?》

《그래두 글쎄 그만두라니깐. —》

삼봉령감의 새 마누라 만득 어미는 전에없이 다긎는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받으며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았다.

삼봉령감에게는 이 또한 의외로왔다.

《메라구. 임자까지, 임자까지 그 개기름이 도는 준구네 모판에 점심그릇을 니고 갈테가?》

삼봉령감은 이렇게 큰소리를 빽 지르고 방에 들어와 벌떡 드러누웠다.

새로 지은 집안 안굽을 채 꾸리지 못하여 생솔나무대들보와 연목가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천정에 어른어른 떠오르는것은 강준구의 피둥피둥 살찐 몸집이였고 그의 유들유들 기름기 도는 얼굴이였다.

삼봉령감은 이날 모내기작업만은 눈을 딱 감고 나가지 않기로 곰곰히 마음을 다졌다. 한것이였으나 아침상을 물리고 짧은 잠을 한식경 자고난 뒤의 삼봉령감은 딴 정신이 갈아든 사람처럼 급한 걸음으로 논판을 찾아나갔다.

논판은 마침 점심참이였다.

강준구외 네 농호의 합쳐 5정보가 되나마나한 좁은 논배미에 부락농민전부가 하얗게 덮여있었다.

그들은 지금 논판을 꾸역꾸역 밀고나와서 팔과 종다리의 진흙덩이를 비비고 문질러 씻는 길이였다.

점심밥을 이고나온 취사반녀인들곁에는 소년단기를 보란듯이 쳐들고있는 꼬마학생들의 행렬이 쭉 늘어졌다.

그곁에는 또 꽹과리와 징, 새납, 장구 등 농악기가 놓여있고…

부락에서는 이날 공동이앙대작업 마지막을 경축키 위하여 농악놀이가 계획되였던것이다. 꼬마학생들의 행렬 또한 이를 위하여 나온 이

웃부락 소학교 학생연예대였다.

점심참이 끝나자 곧 벌어진 농악대에 삼봉령감은 선참 꽹과리채를 집고 선두에 나섰다.

징 징— 힘주어 울리는 삼봉령감의 꽹과리에 따라 새납과 징, 장구잡이가 따라나섰다. 공교롭게도 장구를 으쓱 메고 나서는것은 다른 사람 아닌 강준구였다. 강준구 또한 삼봉령감에게 짝지지 않는 농악대의 명수였던것이다.

삼봉령감은 꽹과리를 징 징 울리며 빙글빙글 돌적마다 맞부딪치게 되는 강준구의 기름진 얼굴에 꽹과리고 꽹과리채고 홱 뿌리치고싶은 충동을 겨우 참아나갔다.

농악대의 소리와 장단가락을 먹여야 하는 꽹과리를 치지 않을수는 없었다. 아침 늦게까지도 안개와 검은 구름에 덮였던것이 차츰 흩어져 다시금 빤짝 개인 하늘이 나타났다.

불볕이 쨍쨍 내려쪼이려는 부락 넓은 벌판에 농악대의 류량한 음률이 크게 울린다.

닐니리 닐니리… 떨려나오는 농악소리와 둥당둥당 멋들어진 강준구의 장단에 부끄러운듯이 엷게 붉어지는 얼굴을 모로, 가로 갸웃이 숙이는 교태가 한층 아릿다와지는 녀인들이 뛰여나오고 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는 젊은 농군들이 어깨와 앞가슴을 슬쩍슬쩍 스치고 지나며 덩실덩실 춤을 추어나간다.

농악이 한고패 끝나면 소학교 학생연예대의 노래와 합창, 신식춤이 사이를 이었다.

농악과 춤, 어린 학생들의 노래와 합창, 춤이 여러차례 계속되였다.

이사이 삼봉령감은 몇번이고 강준구와 얼굴을 맞대이고 어깨를 비비고 감돌았다. 하면서도 차츰 범상히 대하게 되였고 노래가락이 한참 시작되는 대목에 가선 서로 안고 돌며 장단을 먹여갔다.

한쉴참시간의 농악소리가 끝나고 이앙대농민들은 다시 논판에 들어갔다.

중대기와 소대기는 마지막 한 논뚝우에 몰아꽂고 습진하듯 쭉 일렬로 늘어서서 강준구네의 남은 논판을 단숨에 밀고나갈 기세로 농군들은 좁은 논판에 쫙 덮여나갔다.

삼봉령감은《할아반, 안녕히 계셔요. 가을에두 래년 봄에두 또 오

갔어요.》하고 깍듯이 머리를 숙이고 떠나려는 어린 학생들, 그속에는 어느새에 달려나온 지창순의 어린 딸 이쁜이가 방긋거리며 서있고 어찌된 셈판인지 자기 첫아들이자 막내아들인 만득이를 등에 업은 강준구의 열네살나는 막내딸 연년이도 함께 나와 끼워있었다.

《그래 또 와야지. … 그렇지만 래년 봄엔 우야 올 필요가 없어, 잉! 알간! 우리 동네두 올가을엔 학교를 세운다.》하고 타이르듯 말해준 다음에야 돌아섰다.

어린이들은 일제히 소리를 합하여 《네.》하고 대답하며 떠난다. 그들은 부락에 들어올 때와 한가지로 《빛나오는 새 조선에》를 노래부르며 작은 발을 가쯘히 콱콱 맞춰나간다.

지창순의 딸 이쁜이는 기세 장한 병사들처럼 몸을 비쭉비쭉 흔들고 팔을 내두르며 행렬의 제일 뒤꽁무니를 따라갔다. 그뒤에는 또 많은 부락아이들이 졸졸 뒤따랐다.

삼봉령감은 《흠, 흠.》하고 오래도록 그들의 뒤를 지키고섰다.

삼봉령감에게는 언제인가 기호가 부락청년들앞에서 하던 이야기가 다시금 우련히 떠올랐다.

《…10년, 20년후의 부락주인들, 지금의 어린이들이 주인으로 자랄 10년, 20년후 부락… 그때엔 말이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건 옛말속에나 있을게고 모두다 기계를 다루고 사람들은 자기 개인리익보다도 부락전체와 크게는 온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싸울게다. …》

기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의 곁에서 강준구가 또한 곰방대를 비스듬히 물고서서 떠나는 어린 학생들의 뒤모습을 생각깊은 표정으로 바라보고있는것이였다.

이를 안 삼봉령감은 슬며시 돌아서서 그의 살진 손목을 덥석 잡아나꿨다.

《준구, 임자나 내나 벌써 나이 50이 아니가. 같은 나이에 서로 엇서구야 한부락에서 살수 있겠나? 그렇지 않나? 이 사람, 이자 어린것들과 저 젊은이들을 보게나. 좀 씩씩한가!

10년이나 20년후라면 몰라두 지금에두 따라 못 간대서야 말이 되겠나, 그렇지 않나? 이 사람! 자, 나가세, 잉!》

삼봉령감은 준구의 줌에 넘치는 손목을 힘주어 잡아이끌었다.

논판에 들어간 이앙대행렬은 어느덧 장바 열길이는 더 되게 먼 거리로 나갔다.

삼봉령감은 강준구를 이끌고 앞서간 행렬을 따르려 논물이 괄랑괄랑 고이여 종다리까지 푹푹 빠지는 검누른 진흙논판을 허우적허우적 바삐 걸어나갔다.

이들 두 로인이 걸어나가는 발빼인 자리, 새로 생겨지는 진흙탕, 물거품에 5월의 개이기만 한 하늘이 축 처져 어른어른 비치였다.

푸른 하늘에 비치는 물거품들은 인차 사라지고 두 로인의 발자국에 밟히여 쓰러졌던 잡초들은 다시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이앙이 끝나고 김매는 때의 제초기까지라도 버티고 살려는듯이—

금시 푸르던 하늘이 다시 흐물흐물 검은 구름장을 몰아가기 시작한다. 습기에 찬 랭한 바람이 볼을 스쳐왔다.

기호와 지창순은 이앙대선두를 걸어가는 중대와 소대기발들을 또 다른 논뚝으로 옮겨가고있었다.

이앙대농민중 어느 누구의 선창으론가 룡강기나리의 긴 곡조가 늘어진 화창으로 울려온다. 화창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군창으로 은은히 들려온다. 이를 받아 아직도 도랑가에서 물을 퍼넘기는 중대가

헤이궁 데이궁
물장에 밟아라
논물을 퍼넘기자

하고 힘차게 새 노래를 불러나갔다.

삼봉령감은 숨차게 헐떡이는 강준구의 팔목을 지그시 이끌고 이 힘찬 군창속에 뛰여들었다.

하늘은 점점 더 직직하게 검어갔다.

땀에 젖은 이마와 목덜미에 찬 비방울이 뚝뚝 떨어져온다.

1949. 5.

격 랑

김 영 석

1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길에 다달았을 때였다.

리운영은 저만치 떨어진 빙판에서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기다가 머리에 인 광주리를 내던지면서 힘없이 쓰러지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아차!》

운영은 힝하니 달려갔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는 팔을 부축해서 어머니를 일으킨 다음 땅바닥에 딩구는 몇알의 사과를 줏고 뀌여진 쌀자루를 광주리에다 넣어 들었다.

《다치지 않았어요?》

잠시 아픔을 참던 어머니는《일없다.》하면서 일어났다.

《노상 굶고 다니시니까 그렇지요.》

광주리를 옆에 끼고 앞서가면서 운영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뿌듯하게 했다.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할 까닭은 하나도 없었다. 얼굴에 꺼멓게 기미가 끼고 주름살이 고랑깊게 잡힌 늙은 어머니, 비록 일시이기는 하지만 과일장사를 해서 자기를 벌어먹이는 어머니가 아니냐!

허기야 전에도 어머니는 과일이랑 떡을 받아 팔았었다.

일본경찰놈들에게 못이겨 소위 근로 보국대에 나갔다가 팔이 상해서 돌아왔을 때도 역시 어머니는 지금처럼 광주리를 이고 염충교랑 남대문쪽으로 나가 앉았었다. 그때는 운영이가 병원에 다니던 두달동안이였다. 날씨도 푸근한 때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경찰들은 물러갔건만 어머니의 고생은 여전하다. 엄동같이 추운 날씨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동안이나 그런 고생이 계속될는지 모르는 일이다.

리운영은 아직도 다리가 허전하고 얻어맞은 팔죽지가 저리기는 했지만 류치장에서 나온지 1주일이 지나자 나다니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동안에 흰쌀밥에다 두부랑 고등어 구운것, 구수한 콩나물국을 먹었고 두어번 떡도 먹었다. 그것들은 음식이 아니라 그대로 어머니의 지성이였다. 그는 끼니상을 받았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뜻해지는것을 누르고 누르고 했다.

《그만 이리 다오.》

좀 기신을 차린 어머니는 뒤따라오면서 말했다. 운영은 잠자코 걸어가기만 했다. 목이 메여 대답할수도 없었다.

떡 벌어진 어깨랑 울퉁불퉁한 얼굴모습이랑 툭 내민 턱서껀 보기에는 퍽 무뚝뚝했으나 그닥 대수롭지 않은 일을 당해도 감정에 휩싸이군 하는 운영이였다. 그래 감정가라는 별명까지 듣고있었다.

동무들의 충고를 받기도 했으나 천성을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번에는 고문을 당했을 때 그는 고함을 치면서 분노를 내색하기도 하고 지내 흥분해서 눈물을 머금기도 했었다. 그래 약점도 잡히기 쉬웠고 매도 더 맞게 되였다. 묵묵하고 무표정하라고 타이르는 동무들의 충고를 운영은 생각했다.

(바위덩어리가 되자! 바위처럼 무감각한것을 보이자!)

하면서도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았던것이다.

대답이 없는 아들의 뒤를 겨우겨우 뒤따르면서 어머니는 또 물었다.

《공장에서 무슨 소식이나 있던?》

《쉬 나가게 되겠지요.》

운영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어머니를 또 속인것이다. 그는 철들어서부터 오늘까지 어머니를 속여온셈이였다. 어려운 때마다 《우리두 잘살게 될것이니 두구보시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늘 이같이 말해왔다. 그러나 해방이 되였어도 그들의 살림은 여전했다. 여전했을뿐아니라 점점 더 곤난해져갔다. 운영은 두번이나 류치장신세를 졌고 이번에는 거의 실직이나 같은 형편에까지 도달했다. 수이 공장문제가 해결될 가망은 없었다.

그의 몸은 몹시 쇠약해졌고 사지가 아직도 아팠으나 집에 붙어있지 않았다. 나가기 시작한 날부터 동무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진종일 40～50리씩이나 되는 걸음을 걷다가 저녁때 돌아와 신을 벗으면

허방 빠진듯 한 발이군 했다.
생각하면 어머니를 속이는것은 자기만이 아니였다. 공장에 나가지 못하는 몇몇 동무들도 부양해야 할 어머니나 처자가 있으며 빈말로밖에는 그들을 위안할 도리가 없었다.
운영보다도 더 딱한 처지에 있는 동무들도 있었다.
이불을 덮어두었던 아래목에는 그래도 숨결같은 온기가 있었다. 어머니를 아래목에다 눕게 하고 운영은 뜰로 나가 풍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불을 피우고 물을 길러 안집으로 들어갔을 때 변덕스러운 안주인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봉서 한장을 내주었다.
《옛수. 어편 색시가 전해달랍디다.》
《고맙습니다.》
《련애하우?》
《련애가 다 무업니까.》
하면서 운영은 봉서를 받았다. 친척이라고 쓴 김인애의 편지였다.
《야미시장에서 본 색시같애?》
안주인이 말했다.
《보았을런지도 모르지요.》
김인애는 제본공이였다. 그 녀자도 홀어머니를 모시고있었으나 그 어머니는 4～5년 계속되는 해소가 요즈음 버썩 더해서 고통중에 있었다. 그런데다 운영과 같이 공장에 나갈수 없는 형편이였다.
어제였다. 정거장근처로 련락을 가게 된 운영은 혹시 형사를 만날가보아 큰길로 가지 않고 남대문뒤 야미시장길로 들어섰었다. 그때 운영은 장마당 한귀퉁이에서 외국담요를 두어개 들고섰는 인애를 발견했다. 그는 알은체 하지 않고 그냥 지나 멀리 가 서서 몇번 인애를 돌아다보았었다.
운영은 인애의 지의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녀자는 타락한것이 아니였다. 살아나가야만 했다.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서있었고 또 자기의 맡은 사업은 사업대로 수행하는것이였다. 편지는 래일 9시까지 정창남의 집에서 모이게 되였다는 사연이였다.
길들은 인쇄기들과 날마다 주무르던 활자들을 남에게 내맡기고 직장을 바꾸어가기란 떳떳한 일도 아니였고 또 갈수도 없었다. 뻔한 업자들의 이목속에서 《빨갱이》로 표가 난 사람들을 걷어들일 공장은

한군데도 없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공장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공장안에는 이미 《대한로청》이 둥지를 틀고 들어앉았다. 《대한로총》과 손을 잡은 관리인 심형선은 이번에 검거되였던 로동자들을 모조리 해고시킬 결심이라는 소식이였고 그 소식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렇다고 해서 검거되였던 십여명의 로동자들은 물러설수도 없었고 물러서서는 안되였다. 먹고 살아야 했으며 북의 로동자들처럼 잘 살아야 했기때문이다.

검거되였던 로동자들은 거의가 숙련공들이였다. 그들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받는 작업의 지장은 컸다. 《대한로총》에서 숙련공들이라고 보낸 사람들은 인쇄기술에 숙련된것이 아니라 사람치기와 술타령하는데 숙련된자들이였다.

관리인 심형선은 사실상 난처했다. 항상 스스로 자기는 《중간》이라고 하면서 신사인체 하는 까닭에 난처한것이 아니라 막대한 지장이 있기때문에 난처했다. 이달에는 전체 로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그것때문에 《대한로총》계통의 새로 들어온 주조공은 심형선의 멱살까지 잡아끌었던것이다. 아쉬운대로 하자면 검거되였던 로동자들에게 하루바삐 일을 시켰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다가는 멱살이 아니라 머리를 끄들리고 이마가 깨지고 할것이 뻔했다.

이튿날 아침 식자공 정창남의 집에서 열린 회의에서 운영과 창남 그리고 인애가 선발되여 검거되였던 사람들의 대표로서 관리인을 찾아가 담판을 할것이 결정되였다. 그들은 그길로 공장으로 갔다.

전에 없던 수위실이 생기고 낯선 사람들이 버티고 앉았는거라든지 감독이나 십장처럼 되지 않은 세도를 부리며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눈에 거슬렸고 서먹서먹했다. 그러리라고 예측하기는 했으나 일반로동자들도 마치 기계의 부속품들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기가 꺾이고 풀이 죽은게 완연했다.

세사람은 수위실의 승낙을 얻어 제본실을 지나 2층에 있는 관리인실로 올라갔다.

심형선은 혼자 있었다. 세사람은 마치 학생들처럼 나란히 서서 일제히 인사를 하고 관리인의 안색을 살폈다.

《이번 일로 너무 페를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운영이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심형선은 운영이들이 없었던 달반동안에 기른 까만 코밑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빙그레 웃은 다음 《그래 몸들은 괜찮은가?》 하고 물었다.
《고맙습니다. 덕택에…》
덕택에라는 말을 꺼냈으니 덕택에 고생을 했대야 좋을것인지 덕택에 몸이 괜찮다고 해야 할것인지 생각하고있을 때 관리인은 얼굴에서 미소를 걷고 랭정한 태도로 변했다.
《자네들을 놓기가 아깝지만 어쩌나! 이미 좌익이란 표가 붙은 사람들을 말야. 표가 붙은 사람들은 쓸수 없게 되였단 말야! 첫째, 우리가 견디는 재간이 없단 말야!》
세사람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관리인은 말을 이었다.
《잘 생각해서 딴 직장을 구해가는게 자네들 신상에도 좋을것이야!》
《말씀하시는건 잘 알겠습니다.》
운영은 우선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같은 답변을 예상하지 않고 찾아온것은 아니였다. 그들은 그냥 되돌아설수는 없었다. 동양인쇄공장은 한개 관리인의 소유도 아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소위 대한로동총련맹 사람들의 소유는 더욱 아니였다. 그 공장은 틀림없이 자기네들의 공장인 까닭이였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인과 언성을 높일수도 없었다. 운영은 되도록 겸손하고 의논성있는 태도를 취하면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심선생께서 잘 생각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한명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봐주십시오! 이제 갑자기 딴 직장을 구하라고 하시지만 지금 수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로 몰려다니고있습니다!》
《글쎄 그런 사정은 말야. 사정은 알지만서두 여기는 딴 조합이 생겼단 말야! 딴 조합!》
하고 관리인은 벌떡 의자등대기에 자빠져버렸다.
《딴 조합이 생겼어도 그렇지요!》
이번에는 인애가 말했다.
《저희가 말하는것은 조합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공장의 로동자로서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러자 창남이도 한마디 했다.
《심선생은 늘 중간이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헌데 이 조합, 저 조합 구별하실게 무업니까?》
이렇게들 공세를 취했으나 심형선은 말을 듣고있는지 어찌는지 책상우에 놓였던 미국제 라이타를 집어 그것을 분해했다. 그리고 용수철이랑 나사못을 닦고 돌도 돌려끼느라고 정신이 팔려있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던 운영은 한걸음 더 이야기를 전진시켰다.
《저희는 해방 이전부터 이 공장에서 로동을 하고있었다는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후에는 누구보다도 성의껏 이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자모랑 주조기랑 종이 할것없이 내다 팔아먹으려는 일본사람들을 단속했고 흩어지려는 종업원들을 모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돌을 돌려 끼우고 두어번 불켜지는것을 시험해본 관리인은 《럭키스트라이크》 한대를 피워물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퍼그나 할일이 없는 사람처럼 손톱을 깎고 줄로 쓸고 했다. 운영은 운영대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한 우리가 이 공장에 있을수 없다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습니다. 추위가 닥쳤습니다. 가족들은 가두에서 헤매고있습니다.》
그제야 관리인은 손톱깎개를 책상에다 내던지더니 벌컥 화를 냈다.
《글쎄 딱한 일 봤나! 내 맘대로 못한다니께. 내 맘대로도 못한단 말야!》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몇발 서성거리다가 좀 누그러진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좌우간 좀 기다리란 말야! 내 독단으로는 못하니께 말야! 이미 내정된 일이긴 하지만 좀 기다릴밖에 없단 말야!》
이같이 연거퍼 말야— 소리를 할 때 관리인실문이 열리더니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알이 새파란 미국사람이 무어라고 지껄이며 들어섰다. 그는 해방 이듬해 쌘프란시스코에서 건너온 실업가였다. 심형선은 미국 켄트지를 사게 된 뒤로부터 그를 알게 되였는데 형선은 그가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것을 감탄하고 교제를 계속하는터였다.
허드슨이 찾아오자 심형선은《수일후에 결과를 알려주겠소!》하

고는 손님과 함께 응접실로 들어가버렸다.

세사람은 일단 관리인실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수일후의 결과가 어떨것인가는 뻔한 일이였다. 8.15직후에는 심형선도 좌익냄새를 피웠으나 차차 미군이 로골적으로 인민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중간이라고 자처했다. 그러나 려운형이 테로에 의하여 피습절명된 뒤부터는 중간이라고 자처하는 말까지도 삼가케 되였다.

바다의 격랑이 륙지를 집어삼킬듯 한 기세로 들이치듯이 정치적격랑이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로 쏠리고있었다. 리운영이랑 그의 로동자들은 한결같이 그 격랑이 제아무리 거세여도 종당에는 꺼꾸러지고말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조합회관은 파괴되였고 씩씩한 동무들은 곤봉과 피스톨을 든 경찰들에게 옮혀갔고 가족들은 거리에 방황하게 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 넘길는지는 난감한 일이였다.

2

동양인쇄는 몇몇 사람이나 관리인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였다. 관리인 심형선은 해방되던 해 겨울에 비로소 나타난 사람이였다. 그는 동양인쇄의 채권자로 되여있는 은행계통을 타고 이 공장에 나타났다. 그때까지 공장로동자들은 자치회를 조직하고 순조롭게 작업을 해왔었다.

공장은 또한 군정청의 소유도 아니였다. 미군정청은 오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림시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면 안되였다.

동양인쇄는 2백여명의 로동자가 모인 그닥 크지는 않아도 오붓한 공장이였다. 활판 다섯대, 오프쎄트 두대 그리고 핸드 오프쎄트 두대가 활기있게 움직이는 소음속에서 종업원들은 우렁차게 《인터나쇼날》을 부르고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그 공장을 자기네들의 공장으로 여기고 사랑해왔다.

그러나 관리인은 차차 일제시대의 공장주가 되여갔고 미군정청은 공장을 지키던 사람들을 내여쫓는 기구가 되였다.

3월 22일 총파업직후 공장관리에 싫증이 난 심형선은 마카오에서 종이를 싣고 들어온 최아무개라는 모리배에게 관리인권리를 넘기려고 한 일이 있었다. 권리금문제가 서로 합의치 않아 그의 계획은 실

패하고말았으나 그런 음모가 발각되였을 때 운영은 얼떨떨했었다. 조합 분회책임자인 김상규에게서 운영은 여러가지를 배웠다.
김상규는 관리인에게 권리금을 받아먹을 권한이 조금도 없다는것을 전체 종업원에게 알렸다. 그리고 전체 종업원이 수시로 관리인의 사업을 조사하여 공장을 모리배의 손에 넘기려고 하거나 원료는 원료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팔아먹지 않는지를 밝혀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인쇄나 그외 적지 않은 공장들이 이미 그러한 처지에 빠졌다는 례까지 들었다. 분회는 다음과 같은 벽보를 내붙였다.

동양인쇄를 모리간상배에게 내맡기지 말라! 동양인쇄는 조선인민의 재산이며 전체 종업원의 공장이다!
우리만이 공장을 지키는것이며 공장없이 우리는 있을수 없다! 전체 종업원들이여, 동양인쇄를 사수하라!

동양인쇄 분회.

리운영이 분회위원회 한사람으로 선거된것은 그후의 일이였다. 어느날 그는 그같은 벽보를 떼려는 반동분자를 하나 적발했는데 그자는 로동자가 아니라 해방후 공장에 잠입한 리승만의 개였다. 이튿날 운영은 류치장으로 끌려가 십여일 싱갱이를 받다가 돌아왔다. 그 십여일동안에 운영은 평소에 상규가 가르쳐주던 투쟁방법이 얼마나 정당했던가를 절실히 느꼈다. 그는 뭇매를 맞고 《비행기》를 타고 했으나 분회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였고 분회일을 보게 되였다.
이번 사건에서도 운영은 잘 싸웠다. 그러나 류치장에서 나와서 곰곰 생각하니 자기는 아직도 김상규와 같은 굳은 의지와 투지가 부족했던것이다. 검거된 일은 열한명이 전체 경찰에 대한 묵살로써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으나 그는 그 방법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너는 분회의 선전책임자라지? 이 새끼 진짜빨갱이로구나!》
곰보형사놈이 이같이 말했다.
《그래 그따위 삐라를 너희가 붙이지 않고 누가 붙였는가? 대봐라, 이 새끼야!》

그리고는 초벌 고문이 시작되였고 옆에 앉았던 형사놈들이 욕지거리를 하고 빈정대기 시작했다.

《이 새끼야! 네깐게 뭘 안다고 미군더러 나가래. 되지 않은 새끼!》

곰보가 이렇게 말하자 운영은 욱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는 버럭 웨쳤다.

《미군이 나가야 살수 있을것만은 안다!》

《이 새끼! 네깐건 로동이나 해먹을거지, 건방지게…》

《제대로 로동을 할수 없으니까 미군이 나가주어야 하겠다!》

《흥, 삐라를 너희가 붙이긴 했지!》하면서 주먹을 쥐고있는 운영에게 본격적고문을 시작했다. 이같이 묵살방법을 깨뜨린 까닭에 분회책임자인 김상규의 소위 죄상을 더 많게 했을것이라면 (운영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의 실수였다.

(좀 더 굵은 신경을 갖자! 그리고 다시금 공장안에서 《인터나쇼날》이 들리게 하자!)

운영은 여러번 이렇게 결심했다.

관리인을 만나고 온지 사흘이 지난 날 저녁 인애는 사지가 솜처럼 녹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인애는 오늘 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정거장뒤 운수회사로 갔던것이다.

다시는 시장으로 나가지 않을 결심이였다. 미군소비품을 파는 피 엑쓰나 무슨무슨 창고로 다니면서 《해브 노》라든지 《오－케－》라든지 《허바 허바》 따위의 말을 반씩 섞는 하등 영어를 배워가지고 요리조리 물건을 얻어내는 반 부랑자들사이에 끼여섰는것은 그대로 치욕이였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다문 얼마씩이라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약도 쓸수 없었고 끼니를 이어갈수도 없었다. 그래 정거장 뒤창고에서 진종일 등짐을 졌던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어머니의 곁에서 몸을 녹이고있을 때 경섭이가 털모자를 뒤집어쓰고 들어섰다. 이번 사건이 있은 이후 그들은 기척없이 동무의 집으로 쑥쑥 들어가는 버릇이 생겼다.

《경섭동무세요! 이리 앉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하면서 경섭은 털모자를 벗었다. 박박 깎은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랐다. 그는 감옥으로 넘어간 분회책임자 김상규의 일을 대신 말아보고있었다.
《무슨 소식이 있어요? 야단인데—》
그는 다소 난감한 기색이였다.
《일이 잘 안됐는데요. 관리인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건데 김상규동무는 물론이고 운영동무, 창남동무 그리고 나 이렇게 네사람은 해고라는군요!》
《해고요?》
《네, 해고시키겠답니다!》
경섭은 그 네사람을 제한 나머지 동무들이 래일부터 나가야 할지 어쩔지 의논해야 하겠고 앞으로의 사업분담도 의논해야 하겠으니 오늘밤으로 모이자고 했다.
《련락하십시오.》
《아홉시까지요?》
《곧 련락해야 합니다.》
경섭에게서 련락을 받으면 인애는 곧 운영에게로, 운영은 다시 다른 동무들에게로 련락을 짓게 되여있었다.
아홉시가 가까와오자 회합장소로 쓰이는 창남의 집에들 모여들기 시작했다. 파수를 보게 하기 위하여 처를 밖으로 나가게 한 창남은 경섭과 운영을 아래목에 앉히고 자기는 문턱으로 갔다. 인애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라고 해도 굳이 웃목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방문이 홱 열리더니《무슨 좋은 소식 있어?》하면서 맹꽁이소리를 내는 최명한이가 썩은 조기젓냄새같은 발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섰다. 잠시후 그중 나이가 적은 갑진이가 들어왔다.
《여드름박사 오십니까.》
명한이가 롱을 걸었다.
《까불지 말아.》
《여드름 없어지는 법 알으켜줄가?》
명한이는 여전히 명랑했다.
《련애를 하란 말야. 진짜련애…》
《난 정말 무슨 방법이 있다구!》
《그 방법밖에 없어.》

모두들 웃었다.

김상규 이외의 분회회원들은 다 모였다. 경섭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장에 나오는것을 거절당한 네사람은 장차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것인가? 그 네사람까지의 복직을 위하여 출근할수 있게 된 일곱동무도 나가지 말고 함께 싸워야 할것인가, 어떤가? 이것이 경섭이 제출한 의안의 골자였다.

네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끝까지 반대투쟁을 해야 했지만 해고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였다. 그 결정된 사실을 어떻게 반대하느냐가 문제일뿐 출근하게 된 일곱사람까지 나가지 않는다는것은 어느 모로 따지든지 옳은 방법이 아니였다. 거의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있었으나 경섭 혼자만이 끝까지 반대하는것이였다.

《글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운영동무나 갑진동무는 확실히 잘못 생각하고있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우리는 투쟁하는것인데, 지금 우리는 가장 곤난한 처지에 처해있는데, 미적지근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것 같습니까?》

갑진이가 다시 대들었다.

《나는 공장에 나가게 된 축이니까 이렇게 말하긴 게면쩍지만서두 옳은 투쟁방법을 찾아야지요. 대체 미적지근하지 않은 방법이란 무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겠소? 투쟁할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 안된단 말이요. 레닌도 이쪽의 힘을 잘 측량해서 대단히 전진하라고 하지 않았소? 동무들은 항상 레닌의 말을 잘 기억해야 하오!》

《경섭동무!》

잠자코 듣고있던 운영이 입을 열었다.

《난 공부가 부족해서 레닌의 말씀을 잘 인용할수는 없소. 그러나 나는 동무가 모든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있다는것은 알겠소! 덮어놓고 적극적이니 전투적이니 하지만 난 도무지 모르겠소.》

《모르겠다! 동무는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요.》

《매우 부족하오.》

《20개조정강을 공부했는가?》

경섭은 이렇게 물었다. 돌연 그같이 묻는것은 리유가 있었다. 최근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 조작된 기구가 서울에 오고 미제의 사촉하에 리승만도당이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감행하려는 책동이 로골화됨에 따라 그것들의 반대투쟁을 위하여 분회위원들은 **김일성**장군의 20개조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문헌을 연구하고 그것을 로동자들에게 침투시키기로 되였었다. 경섭이 묻는것은 그것이였다. 운영은 대답했다.

《했소!》

《충분하오?》

《충분히는 못했소. 그런데 경섭동무—》

언제나 격했을 때 하는 버릇대로 운영은 팔을 내저었다. 팔을 내저으면서 그는 말을 이었다.

《나가게 된 동무들까지 모두들 거리로 헤매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소? 로동자는 공장에서 싸워야 하오. 한사람이라도 더 공장안으로 들어가야 하잖겠소? 경섭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난 공부가 부족하니 어디 들어봅시다!》

경섭은 뻐드렁이를 드러내고 연신 우겨댔으나 아무리 길게 늘어놓아도 별도리가 있는것은 아니였다.

결국 모두들 제의를 지지하지 않았고 일곱동무는 래일부터 공장에 나가기로 했으나 경섭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두시간 가까이 늘어놓았다.

한동안 운영과 의견을 주고받다가 경섭은 운영에게 《동무는 소시민근성이 많아. 이번 류치장에서도 잘 싸우지 못했다는걸 알란 말이요!》이같이 웨쳤다. 운영은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 잠자코 있었다.

일곱사람들은 이튿날 공장으로 나갔다. 나가긴 했으나 모두들 유쾌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수는 없었다. 작업중에도 그러했지만 휴식시간에 동무들이 모여앉는것까지도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오래간만에 제본실로 들어간 인애는 전에 앉았던 자리로 가서 일을 시작했다. 그 녀자의 앞에는 인쇄를 끝내 접어쌓은 인쇄물이 드높았다.

《무슨 서적이요?》

인애가 물었다. 그러자 옆의 동무가 대답했다.

《이북 탈출기요.》

《이북 탈출기?》

《응, 급하대요. 오늘로 천부는 내가야 한다는구만. …》

인애는 인쇄물을 들쳐보았다. 첫페지에 과연 붉은 잉크로 《이북 탈출기》라는 고직체표제가 박혀져있었고 저자의 이름은 명조체였다. 그 저자가 리준석이인것을 안 인애는 기가 막혔다. 전부터 소설을 적지 아니 읽어온 인애는 리준석이가 누구인지 알고있었다. 그는 8.15 이전에 마끼노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조선청년들에게 소위 황국신민이 되라고 하면서 위협공갈을 하던 반동소설가였다. 그는 평양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여 1년 가까이 있다가 도저히 자기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는것을 알자 가만히 38도선을 넘어온자였다.

(이따위 저서를 제본해낼 의무는 나에게 없다!)

인애는 욱한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지한 인쇄물을 내던졌다. 그때《이북 탈출기 빨리 제본해!》하는 음성이 들렸다. 어떤 서투른 남자가 제본실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인애는 다시 인쇄물을 집어들었다.

이제는 그 서적의 내용이 어떠한것이든간에 채자 식자를 해야 했고 정하게 인쇄를 해야 했으며 맵시있게 제본을 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거든 이 공장에서 나가주게!》

그날 아침 관리인은 일곱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던것이다. 그는 지난밤 허드슨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조선료리를 대접했는데 텍사스위스키를 과하게 마신 까닭에 아침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 벌떡 의자에 자빠져서 퉁명스럽게 물었다.

《무슨 불평이 있나?》

별 불평이 없다고 할밖에 없었다. 그러자 관리인은 거듭《쓸데없는 말들 일으키지 말고 잘들 하게—》 하고는 유리컵에다 랭수를 따라 벌컥벌컥 들이키였다.

로동시간을 북반부에서처럼 여덟시간으로 하자든지,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을 정해달라든지, 그같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로동자들이 자기네의 조직을 갖는다든지 하는 일체의 행동을 제지하려는것이였다. 이백여명의 로동자들은 마치 스위치를 돌리고 납만 먹이면 얼마든지 활자를 만들어내는 자동주조기처럼 열시간이고 열두시간이고 시키는대로 일을 하라는것이였다.

과연 공장안에는 노래소리 한마디 들리지 않았다. 덜커덕거리는 인쇄기소리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고있었다.

그날 작업이 필하자 일곱사람들은 아래층 사진실 뒤창고로 불려갔다. 그 창고 한쪽을 치운 곳에 《대한로동총련맹 동양인쇄분회》 사무실이 있었다. 한가운데 넓은 책상을 들여놓고 기다란 나무걸상이 두서넛 책상앞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처음 보는 5～6명의 새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전부였다.)모여앉아서 지껄였다.

일곱사람이 들어서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우락부락한 눈동자를 돌리며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조판부 감독이라는 머리를 상고로 깎고 코날이 선자가 일어서더니《거기들 앉소!》했다.

《님자네들은 별 죄가 없다고 인정해서 오늘부터 나오게 했쉬다! 괜한 짓들 말고 우리 친합시다!》

이같이 말하는 그는 제법 은정적으로 대하는 모양이였으나 실상은 비위가 역할 정도였다. 그래 인애는 맞은쪽담벽만 바라보고있었다. 상고머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 용지를 한통씩 주겠으니까 말요, 모두 대한로총에 가입하는 도장을 찍어 바쳐야 하겠쉬다. 알아들 들으시갔소?》

《가입 않구선 공장에 못 다닙니까?》

맹꽁이음성의 명한이가 물었다. 그러자 상고머리옆에 앉았던 눈딱부리가《이 새끼 봐라!》하면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상고머리는 명한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겜 어떡허갔단 말이가, 의?》이같이 물었다.

《그 새끼 상기두 소식 모르는구만!》

한자가 이렇게 소리쳤다.

명한은 밑천도 못 건진셈이였다. 아예 그런것을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였다.

다른 산업별 로동자들은 혹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출판만은 1945년 말까지도 각 분회가 거의다 독자적이나마 자기네의 조직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한 출판로동자들을 공격하는 첫 시험으로 반동은 우선 그닥 크지 못한 동양인쇄공장에 손을 뻗쳤던것이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모조리 《대한로총》에 가입시키고말았다.

3

그날 저녁 인애를 만난 운영은 하루동안에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들었다. 리준석, 김덕리, 모인숙 등 반동집필가들이 쓴 저서가 계속해나가고있다는것, 자기네들마저 《대한로총》에 가입하는 도장을 찍었다는것, 명한이가 봉변을 당할번 했다는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었다. 그러나 인애는 정작 명한이가 봉변을 당한 사실을 몰랐기때문에 그닥 대단치 않게 말했을뿐이였다.

밤 아홉시쯤해서 명한과 갑진이가 찾아와서야 공장이 필한 후에 일어난 일을 알수 있었다.

《대한로총》의 눈딱부리가 몹시 우악한줄은 알았으나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각각 공장에서들 나왔다. 점심그릇을 두고 나온 명한은 2층으로 올라갔다가 좀 뒤떨어져서 갑진이와 함께 나왔다. 막 수위실앞을 지날 때 《거기 좀 셋소!》하는 투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눈딱부리가 달려나왔다. 그들은 다시 그 창고로 끌려들어가 한시간 가까이 싱갱이를 받았다. 갖은 해괴한 질문을 하고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패장을 부리는가 하면 금시 주먹이 들어올듯 들어올듯 했다. 그 창고는 로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로동조합분회가 아니라 그것을 말살하는 일을 하는 사무실이였다. 눈딱부리와 그 졸개들에게 한창 싱갱이를 받고있을 때 상고머리와 미군용잠바를 입은 낯선 남자가 나란히 들어섰다.

《우리만 한잔 했쉬다!》

상고머리가 말하자 눈딱부리는 가죽잠바를 보고 졸랐다.

《조직부장님, 한잔 안 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 새끼들인가?》

《그렇습니다.》

가죽잠바는 술냄새를 풍기며 이렇게 웨친 다음 순간 날랜 주먹으로 갑진과 명한의 가슴을 한대씩 쳤다.

《진짜빨갱이란 말이디?》

《좀 두고 보야디오.》

상고머리가 대답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운영은 손에 땀이 쥐여졌다. 마치 방금 자기자신이 얻어맞은것 같았다.

분한 마음과 암담한 앞일을 생각하면서 세사람은 연신 잎담배만 말아 피웠다. 방안에 연기가 가득차있었다. 서로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하는 말도 변변히 하지 않고 갑진과 명한은 돌아갔다. 운영은 언제까지나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저희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볼거 있어!)

이렇게 몇번이고 벼르던 명한이의 코맹맹한 소리만이 운영의 귀에 울리고있었다. 운영은 차차 랭정한 생각으로 돌아갔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은 유치하다! 분김에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다.)

그는 자기자신부터 타일렀다.

(우리들속에서 항상 기회주의가 움직이고있듯이 아무리 무지막지한 자들이 규합되였다 하더라도 그속에서도 항상 진리가 고개를 들려고 할것이며 종당에는 진리가 승리하여 그 사이비로동자들을 물러서게 하고야말것이다.)

이같이 생각하자 운영은 한층 랭정해질수 있었다. 제아무리 곤난한 속에서도 투쟁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만이 어둠속의 등불처럼 그의 앞을 비쳐주고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껴입고 모자를 눌러썼다. 투쟁을 포기하는것은 죽는거나 일반이였으며 로동자의 투쟁은 직장안에서 진행되여야 했다. 유휴로동자로서는 충분한 투쟁을 전개할수 없었기때문에 어떠한 조건으로라도 복직할 도리를 강구해야 했다. 그래 운영은 분회책임을 맡아보고있는 경섭을 찾아갔다.

운영이는 경섭이와 전번회합때 말다툼을 한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을 뉘우쳤으려니 했으나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유순한 빛이 얼굴표정에 나타나있었다. 운영이 그날 공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복직문제를 꺼내자 경섭은 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 나머지 동무들의 복직문제는 래일 토의하기로 하겠네. 모레쯤 다시 공장에 나가 절충하기로 될것일세.》

《래일 위원회를 갖겠나?》

《그렇게 될것일세. 그런데 동무를 찾아가려던 참인데, 저— 운영 동무에게 전달할것이 있네.》

《…》

《분회위원을 재조직했는데 동무는 위원에서 빠졌으니 그쯤 알고있으란 말일세.》

운영은 그러냐고 대답해놓고 어쩐 영문을 모르고있다가 다시 물어보았다.

《언제 그렇게 되였나?》

《오늘 아침 결정되였어.》

《오늘 아침?》

《음, 오늘 아침.》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결정했나?》

《지시야—》

경섭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째 나만 제외했나?》

《상규동무도 그렇고.》

《상규동무야 들어가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충해야 하겠지만— 무슨 까닭일가?》

《좌우간 지시니까!》

운영은 다시 덤덤히 앉아있었다. 이번 경찰서에서 한 투쟁이 옳지 않은것으로 비판받게 되는것일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을 주고 조직개편을 해야 옳지 않을가?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그는 경섭이가 소책자 두폐지를 다 읽는 동안 그옆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나의 과오가 지적된게 있나?》

또 이같이 물었으나 경섭은 소책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좌우간 지시를 집행하는것이니까 사유는 나중에 알게 될거라는 같은 대답이였다.

운영은 밖으로 나왔다. 금시 눈보라라도 칠듯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날씨에 매서운 바람만이 인왕산에서 내리쏠렸다. 곤봉을 든 경찰들이 지나가고 미군의 찦차들이 전속력으로 달렸다.

(탈락자! 두서너달씩 벽보나 삐라활동 한번도 하지 않고 위원회에도 나가지 못하게 된 로동자가 과연 탈락자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는 생각했다.

(탈락자! 늙은 어머니에게 된욕을 보이면서도 동지들을 잘 통솔하기는커녕 그 동지들의 신임을 잃은자가 탈락자가 아니란 말이냐!)

마치 여직껏 긴 길을 허덕허덕 뛰여오다가 금시에 갈 필요가 없어진 사람처럼 운영은 맥이 탁 풀렸다. 그는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고싶었다. 그러나 서대문 네거리에서 방향을 돌리는 전차바퀴의 날카로운 음향을 실은 찬바람이 사정없이 그의 얼굴에 들이쳤다. 그는 흑흑 느꼈다. 그리고 아플 정도로 얼은 량쪽볼로 더운 눈물이 흘렀다.

일단 일기 시작한 격랑은 사정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몰려들었다. 운영은 자기자신을 한개 탈락자로 생각했으며 고독에 울었으나 그러한 감정에 오래 사로잡혀있을 여유도 주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나머지 세사람이 다시한번 관리인을 찾아보기로 되였다는 련락을 받았다. 련락온 인애에게 운영은 자기에 대한 돌연한 지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짐짓 쾌활한것처럼 하기로 했고 인애 어머니의 병세를 듣기도 했다. 인애도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삼갔다. 그러나 화로밑바닥에 남은 밤톨만 한 불씨 한개를 화저가락으로 덮었다꺼냈다 하면서 위안도 했고 격려도 해주었다.

다음날 점심시간 운영은 경섭, 창남과 함께 공장으로 갔다. 전날처럼 그들이 수위실앞에 멈춰서게 되였을 때였다. 경섭은 약속대로 자기가 나서서 순조롭게 면회를 청하지 않고 창남을 시켰다. 천성이 그러한 창남은 만만치 않은 말투로《나두 이 공장 사람이외다!》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운영은 아차— 했다. 경섭도 료량이 적었지만 창남도 공장안의 공기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료량해서 되도록 순순히 청해야 했을것이였다.

잘 안된것같이 생각하기는 했으나 운영은 이왕 그렇게 된바 하고는 다시 구구하게 굴기가 싫어서 그냥 공장안으로 들어섰다.

관리인실에는 손님이 있어서 곧 심형선을 만날수 없었다. 그래 세사람은 관리인실옆 주조실에 모여서서 오래간만에 일을 시작한 갑진의 곁에서 담배들을 나누어 피고있었다. 그리고는 어느 사람이 《대한로총》이냐는것을 눈치로 묻고 눈치로 대답하고있었다. 그때였다. 아래층 활판에서 덕대라는 견습공이 급히 올라오더니 옆으로 다가서

서 얄은 목소리로 절박한듯이 말했다.
《얼른들 피하세요.》
그리고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그 견습공이 일러주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쇠뭉치를 들고 손에 쓰바(가시가 돋힌 장갑)를 낀 대여섯명이 구두발소리 요란하게 마치 아귀들처럼 세사람에게로 덤벼들었다.
《빨갱이 잡아!》
《이 쌍간나새끼들!》
《잇!》
《악!》
이러한 고함들속에서 경섭만은 요행 유리창밖으로 해서 변소로 몸을 피할수 있었다.
운영과 창남도 몸을 피하려 했으나 쇠뭉치가 먼저 운영의 어깨로 떨어졌다. 이어 딴 뭉치가 그의 정갱이를 후려갈겼다. 이리하여 운영은 몸을 피할수도 대항할수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버리고말았다.
쓰러지면서 운영은 누구의 어느 뼈가 으스러지는지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정 두지 말아!》
《진짜빨갱이들, 도마도들이다!》
계속 이렇게 웨치는 소리도 들었다. 그리고 마루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기 전의 한순간 운영은 바로 자기옆에 쓰러져서 버둥거리는 창남의 모양을 볼수 있었다. 마치 빨건 인쇄잉크를 엎지른듯 한 피투성이속에서 창남은 신음도 없이 누워있었는데 그의 한쪽관자노리가 깨여졌고 깨여진쪽 안공에서 낙지대가리만 한 눈알이 튀여나왔던것이다. 운영은 잠시 의식을 잃었다.
갑진은 주조기를 멈출 사이도 없이 상반신을 유리창에다 걸친채 얻어맞다가 마루바닥으로 떨어져버렸다. 쇠뭉치와 쓰바로 무장을 한 테로들, 로동자의 명목으로 공장에 들어온 상고머리, 눈딱부리들은
《누구나 또?》
《도마도는 모두 나와!》이같이 을러메며 호통을 치고《한 작자는 도망했다!》하면서 몰려내려갔다.
2층의 직공들이 모여들었다. 아래층에서도 올라왔다. 사무실에

서들도 나와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명한이랑 인애가 창남에게로 덤벼들었다. 정한 수건으로 피를 훔치고 가제를 구해서 그의 눈을 주어 싸매였다. 그러는 한편 몇동무들은 운영과 갑진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우선 아무렇게나 싸매여주기도 했다.
관리인 심형선은《글쎄 그렇다니까, 쓸데없이!》이렇게 두덜대며 속히 업고 병원으로들 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면서 다시《글쎄 그렇다니까, 쓸데없이!》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일들 하소. 의—》
새로 들어온 감독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향해 웨쳤고 주먹을 내흔들면서 딱딱거리기도 했다.
《일해, 일!》
그러나 문선공들도 조판공들도 주조공들도 인쇄공들도 우두머니 서서 숨소리만 높이고있었다. 긴장한 순간순간이 흘러갔다. 그렇다고해서 그 긴장이 다른 행동으로 폭발할수는 없었다. 관리인을 끌어내여 책임을 묻게 되지도 않았고 당장 그 테로단들을 처단해버릴 준비도 되여있지 않았다. 이미 밖에는 리승만의 경찰들이 울타리를 치고있었다.
명한에게 업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운영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 주조실에서 공장밖까지 나가는 동안에 운영은 며칠전 그자들에게 얻어맞았다는 명한이가 자기를 업은게 잘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창남의 눈알이 어떻게 되였을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었다. 그리고 공장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리승만의 경찰이 울타리를 치고있을뿐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는 철갑모를 쓰고 곤봉을 들지 않았으면 카빙총을 멘 미군들이 마치 작은 말뚝을 버티여주는 큰 말뚝들처럼 서있었던것과 때마침 심형선과 허드슨을 태운 미군찦차가 그 울타리사이로 해서 나가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뿐 운영은 다시금 혼수상태에 빠져서 자기 집으로 업혀갔던것이다.
…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운영은 심한 고통이 전신을 엄습하는것을 깨달았다. 다음순간 그저께 밤길에서처럼 제절로 흑흑 느껴졌다. 그러나 그 흐느낌은 이내 멎었다. 그 대신 눈을 감은 그의 머리속에는 철

갑모를 쓴 미군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해방후 세번째 뭇매를 맞았다. 첫번은 지난 7월 25일 남산공원에서 시민대회가 있던 날이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대회가 필하여 남대문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는 비 쏟아지는 소리보다도 크게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려는 음모를 분쇄하자!》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민주개혁을 실시하자!》하는 구호를 거듭 웨쳤을 때 7～8명의 경찰과 기마경찰이 달려와 그를 데려갔었다. 두번째는 지난 섣달 중순 공장과 그 주변에서 《미군 나가라!》하는 삐라를 뿌리고 벽보를 붙인것을 구실로 여러 동무들과 함께 잡혀갔었다.

두번째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있는 동안에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라는것이 서울에 도착했었다. 미국 무기장사군들의 종들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 단원들은 미군정청에서 살면서 군정청의 료리를 얻어먹기에 바빴다.

운영은 생각했다. 자기와 자기 동지들의 사지를 못쓰게 하고 눈알을 빼고 병신을 만드는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루 두끼의 죽거리도 없어서 늙은 어머니들을 바람찬 거리에 방황하게 하며 북반부 같으면 학원에서 공부를 할 어린이들의 손에다 U.S.A. 표를 찍은 물건들을 푼어치씩 들려서 진종일 목이 쉬도록 웨치게 하는 미국상인들과 그자들이였다. 그자들은 수만, 수십만의 로동자들을 몰아내며 대낮에 테로와 살인을 감행하는것을 공공연하게 옹호하고있다.

운영은 공장밖으로 업혀나오는 순간 힐끗 마주친 이리떼의 눈알을 회상했다. 몸서리가 쳐졌다.

증오! 운영은 그날처럼 증오의 감정이 북받쳐본 일이 없었다. 놈들의 간을 꺼내 씹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였다. 별안간 그는 꽥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다. 명한이가 그의 손을 잡고 들여다보고있었다. 운영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싸워야 한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가? 있더라도 싸울 여지는 있을거다! 우리의 배후에는 북반부의 억센 민주력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운영은 그저께 밤길에서 적막과 고독에 사로잡혀 흐느끼던 일이 얼마나 연약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인가를 깨달았다.

4

주조실에 모였던 직공들은 부상을 입은 세사람을 업어내리자 차차 헤여져갔으나 공장안은 물을 끼얹듯이 조용했었다 한다. 그렇게 잠잠한 속에서 어디서인지 무슨 물건을 짓부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아래웃층으로 그리고 모든 종업원의 가슴속까지 울렸다. 채자공 수영이가 상자에다 가득히 채자를 해놓은것을 그대로 힘껏 마루바닥에 내던졌던것이다.

이어서 더욱 소란한 소리가 울렸다. 식자공 박세준이가 마치 축구선수모양으로 억센 발길질을 해서 조판해놓은것을 계속 걷어찼던것이다. 이리하여 모인숙이라는 반동녀류작가의 저서인 《나에게 입맞춰주시오》라는 수필집 20여페지분이 랑자하게 흩어져버렸다.

그런지 채 한시간도 못되여서였다. 공장 아래웃층으로 별안간 구두발소리들이 요란히 들렸다. 그러더니 제모끈을 목에다 걸친 경찰 대여섯이 오르내리고 그중의 하나가 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내들고 큰소리로 리수영, 박세준, 최명한 세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중 두사람은 앞으로 나섰다.

얼마후 운영의 집에서 돌아온 명한이도 수위실앞에서 잡혀 두팔목에 쇠고랑이 채워졌다. 인애는 명한에게 기별을 하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종업원은 누구 한사람 단단히 채워진 공장문을 통과할수 없었던것이다.

리운영은 자리에 누운채 인애랑 갑진이가 와서 알려준 이러한 소식들을 생각하고있었다.

누운채 성한 팔로 상한 어깨를 만져보다가 치켜든 팔에 힘을 주어 주먹을 쥐여보았다. 사흘이 지났으나 성한 팔도 역시 자유롭게 움직일수 없었다. 뜨끔뜨끔 아팠으나 아프거나말거나 주먹과 팔에 힘을 준채 물끄러미 치떠보았다. 가냘픈 팔뚝도 아니였고 약한 주먹도 아니였다.

일제시대에 소위 보국대에 나갔다가 부러졌던 팔뚝이였으며 수색, 릉곡, 금촌으로 다니며 철도공사를 하던 팔뚝이였다. 인쇄로동자가 되기 전까지는 노가다판에서 일본놈 십장을 때려눕힌 팔뚝이였다. 그러

나 투쟁은 팔뚝과 몸행동만으로 해대는것은 아니였다. 지금보다도 무식했던 그때는 그렇게 싸웠으나 그렇게만은 싸울수 없었다. 언제나 어떻게 싸우느냐가 문제였으며 2～3년동안 신문, 잡지, 소책자들을 읽은 속에서도 항상 문제는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그 《어떻게》에 있었던것이다.

그저께 일어난 일들은 그 《어떻게》를 잘 생각한 투쟁이였다고 할수 없었다. 수위실에서 이쪽이 공연히 뻣뻣하게 대할 필요도, 이쪽이 분회간부들이라는 냄새를 풍길 필요도 없었거니와 사건이 일어난 뒤 작업에다 분풀이를 하고 잡혀간 동무들도 잘 싸운것은 아니였다. 지금 운영은 그것을 따져보고 분석해보는것이였다.

황급히 유리창밖으로 내리뛰였던 리경섭은 변소간으로 들어가 천정에 매달렸다가 뒤간 구멍으로 해서 피해버렸다 한다. 어쨌든 용하게 욕을 면했는데 그는 바빠서 그렇겠지만 2～3일이 지나도 운영을 찾아보지 않았다. 제대로 움직일수 있는 위원은 그와 인애 두사람뿐이였다.

들창에 꽉 차게 들었던 석양이 반쪽으로 줄어들고 큰 칼자루만 하게 되였다가 아주 사라져버리자 방안은 갑자기 침침해졌다. 운영은 그맘때면 자연 동무들이 기다려졌다. 어머니는 저녁이 끝나자 또 밖으로 나갔다.

두번이나 잠이 들었다가 가위에 눌려 깨였다. 어머니는 어느 틈에 돌아왔는지 한편에 누워있었으나 그날은 누구 한사람 찾아주지 않았다. 큰길에서 군밤, 군감자, 담배장사들의 처량한 소리가 전화통에서 새나오는 목소리처럼 들려오고 좀 있다가 안집 시계가 열한시를 쳤다. 열한시를 친지 2～3분후였다.

《주무십니까?》하는 인애의 얄고도 맑은 음성이 창문앞에서 들렸다.

《아니요. 들어오시오!》

운영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이 반가왔다. 손으로 짠 목도리로 목과 귀를 싸두른 인애는 찬바람을 몰고 들어섰다. 그리고 한동안 운영의 상처를 돌보았다. 그러다가《방금 비판을 받고 오는 길이예요!》하면서 바로 앉았다. 그리고 여직껏 경섭에게서 듣고온것을 이야기했다. 경섭은 그날 주조실에 모였던 동무들을 추동하여 좀더 이

쪽의 단결력을 보이지 않은 인애를 비판했던것이다. 수영이나 세준이가 그 같은 행동으로 나갔을 때 인애가 좀더 머리를 썼더라면 그런 행동이 공장안 여러군데서 벌어졌을것이고 그렇게 되였더라면 그 세 동무가 체포되지도 않았을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인애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노라 했다. 즉 종업원들은 아직도 그날의 분노가 가시지 않았을것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래일 아침부터 전체 종업원들이 태업을 전개하게 할것과 점심시간을 타서 인쇄기 고무로라에다 모래를 한줌씩 처넣고 스위치를 돌리라는것, 그렇게 되면 태업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것이라는것이였다.

《성공해야겠는데 야단났어요. 위원이라고는 저 하나 안예요!》

인애는 난처해했다.

잠시 묵묵히 누워있던 운영은《성공할것 같습니까?》하고 물었다.

《지시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그 투쟁을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방안에는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얼마동안 잠자코 있다가 운영은 단언하다싶이 말했다.

《그렇게 투쟁해서는 안될겁니다!》

《네?》

인애는 의외의 말을 들은것이다.

《공장동무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는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테로를 받던 기억도 아직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장동무들은 모두 량심적입니다. 그러나 분회지도부가 공장에 없습니다. 핵심들이 축났습니다. 만약 이 이상 더 희생자를 낼 작정이라면…》

운영은 아픈것도 잊은듯이 열렬한 어조로 말했다.

《더 조직을 약하게 맨들 작정이라면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인쇄기를 파괴하는 문제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그 기계로 원쑤와 싸워야 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량심적인 출판물들을 내게 될겁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반대합니다!》

하고는 고통이 스며드는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수염이 밤송이처럼 내솟은 웃입술과 턱이 떨렸다.

《사실 저도…》
이같이 말끝을 못 맺는 인애에게 운영은 다시 움푹 꺼진 눈시울을 치떠올리고 책망하듯이 웨쳤다.
《동무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있습니다!》
인애는 운영과 경섭을 똑같이 존경해왔었다. 운영은 다감한 편이요 경섭은 공사를 막론하고 리해타산이 빨랐다. 사업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운영은 좀 느린 편이였고 경섭은 재치있게 빨리 해치우군 했다. 그러한 성격의 차이가 있으나 인애는 두사람 다 훌륭한 청년으로 존경해왔다. 단지 한가지 부족하게 느끼는 점은 운영에게 경섭과 같은 친절한 맛이 없었다.
전번 류치장에서 나온지 며칠이 지나서였다. 인애는 련락장소로 된 남산공원으로 운영을 만나러 가다가 민애청에서 일하는 소학교동창생을 만났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자기 오라버니가 보냈다는 여러가지 찬란한 건설의 소식들을 이야기했는데 벌써부터 북반부를 그리워했던 인애는 이것저것 캐묻느라고 의외의 시간을 보냈던것이다.
인애는 숨을 헐떡거리며 긴 돌층계를 올랐다.
돌란간옆을 거닐고있는 운영은 량심있는 사람들을 잡아죽이려는 추악한것들이 어둠속에 잠겨가는 서울시가속에서 아직도 그 이마에 노을을 받고있는 부민관의 시계탑이랑 백화점, 은행건물들을 흘겨보고있었다.
《미안합니다. 좀 늦었어요!》
인애는 태연히 거닐고있는 운영의 곁으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주위를 훑어본 다음 전달문건을 전했다.
《오늘은 그뿐입니다!》
그것을 받아 재빨리 모자속에다 넣고난 운영은 역시 덤덤히 걸었다. 인애는 바싹 그를 따르다가《저어 말예요. …》이같이 몇번 망설이던 말을 시작하려 했다.
《저 이북으로 가겠어요. 정말 여기서는 못 견디겠어요!》
그러자 여직껏 한마디도 안하던 운영은 버럭 소리치다싶이 했다.
《련락시간을 15분씩이나 어기는 그런 동무를 누가 받아준답디까!》

인애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두사람은 묵묵히 걸어내려왔다.
아무래도 한번 의논해보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인애는 며칠후 경섭에게 자기의 의사를 말했다. 그러자 경섭은 자기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더 기회를 기다려보아 함께 넘어가기로 하자는것이였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극력 노력해보겠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철원쪽으로 가는 길과 남연백 청단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요즈음은 리승만의 경찰의 감시가 더 심할거라는 이야기도 했다. 인애는 그날부터 생각이 많아졌고 공상도 늘었다. 분회일 이외에는 어머니의 해소가 가라앉은듯 한 날 2～3차 경섭을 찾아가기도 했었다.
운영은 끝까지 경섭이가 말했다는 그런 방식의 태업전술을 반대했다. 반대하는 운영의 리론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아둔한 인애는 아니였다. 사실 인애도 경섭에게 그 지시가 요즈음의 공장실정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는 면에서 의견을 말했으나 접수되지 않아서 고민끝에 운영을 찾아왔던것이였다.
《인애동무!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시는 어디까지나 지시이니까 래일 공장에 나가기 전에 한번 더 만나서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는 속히 분회지도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핵심을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는 차근차근히 말했다. 그리고는 변명하듯이《나를 신경질로 생각지 마십시오.》이렇게 말하고 가쁜숨을 내쉬였다.
《나는 인애동무에게 두번째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접대 남산공원에서 한번 하고— 그런데 인애동무가 북반부로 가시는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나도 해방직후부터 오늘까지 북반부를 나의 고향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는 잠시 무엇인지 생각다가 조용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갈수 있는 고향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믿고 일하고있습니다. 갈수 있다면 가도 좋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견디기 어려워서 간다면 안됩니다. 그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자들은 북반부에서도 진실하게 일하고있지 못할겁니다. 벅찬 민주건설투쟁에서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할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애동무!》
밤이 깊었다. 자정이 넘었을것이였다. 인애는 좋은 의견을 들었다

고 하면서 일어섰다.

《너무 늦어서 일없을가요?》

《일없겠지요. 어머니께서 대단하시니까 늦어도 가봐야겠어요.》

밖으로 나선 인애는 급한 발걸음을 옮겼으나 머리속에서는 역시 적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고있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운영과 경섭이 다른 점도 생각하게 되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못미처 큰길가에서 경찰이 청년 한명을 가게앞 전등밑에다 세워놓고 —이게 무슨 책이냐? 머? 이십개조정강?— 하고 을러대는 소리를 듣고 급히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문득 생각키우는것이 있었다.

며칠전 회의에서 경섭은 운영에게 동무는 20개조정강을 공부했는가 하고 타매했었다. 바로 그날 인애는 경섭을 따라 문건을 가지러 그의 집으로 갔었다. 그런데 그의 방에는 인애자신이 처음으로 위원들에게 한권씩 전달해주었던 그 소책자가 아직 접지한것이 베지지도 않은채로 책상우에 놓여있는것을 보았었다. 그때는 심상히 여겼으나 지금 생각하니 여러가지로 의심스러웠다. 자기는 아직 페지를 들쳐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경섭은 남을 꾸짖었던것이다.

인애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5

이튿날 태업은 실행되지 못했다. 인애는 새벽같이 다시 경섭을 찾아가 자기의 의견을 말했으나 그는 역시 지시이니까 어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할수없이 그냥 공장으로 나갔던 인애는 가만히 아래웃층으로 다니면서 공장형편을 보살폈다. 그리고 태업을 전개하는 일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였다.

최명한이랑 세사람이 재차 검거된 후 공장안의 공기는 전보다도 한층 긴장했었다. 두서너사람만 모여섰어도

《왜들 그래?》

하고 딱딱거리는 판이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는 상고머리와 눈딱부리가 일일이 종업원들의 몸을 수색하고야 작업에 붙게 했다.

인애는 점심그릇밑에다 《인민의 리론》이라는 책을 한권 싸가지고

있었다. 그 서적은 공공연하게 서점에서 판매하고있을뿐아니라 내용도 엄격히 맑스주의에 관철된것은 아니였다.
《무어, 인민의 리론?》
눈딱부리가 웨쳤다.
《빨갱이책이야!》
상고머리가 응답했다.
《아닙니다. 그 책은…》
《김인애라구 하지? 녀성이니까 두구 보자고 했는데 안되겠는걸?》했다.
《아닙니다.》
《무에 아냐— 빨갱이책은 여기 두고 들어가!》
상고머리는 명령하는 말투였다. 인애는 그 책을 빼앗겼다. 그리하여 아침부터 기분을 잡쳤는데 그것은 겨우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아침 휴식시간에는 직장마다 다음과 같은 통고가 나붙게 되였다.

이담부텀은 전체 직공의 임금에서 7부에 분회비를 공제한다. 이에 순응하지 않는자는 비국민으로 인정한다.
오후부텀 회원증을 교부바드러 사무실로 출두할사—
대한로총 분회 백

오자투성이로 개발 게발 그린 이같은 통고문은 인애의 가슴속을 극도로 흥분케 했다. 7부의 분회비를 공제한다는것은 어느 나라 조직의 로동자도 경험할수 없었을 엄청난 부담이였다. 여직껏 그들은 1부의 분회비를 내오고있었다. 그러나 인애는 그 분회비가 높은데만 흥분한것은 아니였다. 그같은 반동들의 처사에 대하여 한마디의 반대의사도 표명할수없이 울분에 사로잡혀만 있는 로동자들을 고무격려하고 적절한 대책을 지시하지 않고있는 상부의 태도에 흥분한것이였다. 전체 로동자들은 자기네의 조합에서 무슨 새로운 방침이 제시되기만 고대하고있었다. 7부가 아니라 그 갑절의 착취를 당하게 되였더라도 뚜렷한 투쟁방법이 제시되여있다면 명랑하게 일할수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꼭 해야 한다고 우겨대며 내려먹이는 경섭의 알수 없는 지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게밖에는 할수 없는 투쟁

방법이였다.

처음은 운영의 의견이 단순한 의견차이인것 같기도 했으나 막상 공장에 나와보니 누구와 의논해서 그 지시를 집행해야 할지 막연했다. 함께 태업을 조직할수 있는 몇사람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한다면 그들마저 잃어버리고말리라는것은 불을 보는듯이 명확했다.

오후부터 《대한로총》회원증을 교부받으러 직장별로 한사람 빠지지 않고 지하실로들 내려갔다. 인애도 회원증을 받았다. 《대한로총》패들은 만약 회원증을 교부받지 않는다면 《비국민》이요《빨갱이》로서 경찰서로 넘기겠노라고들 위협하고 공갈했다.

작업이 필할무렵 관리인 심형선은 전체 종업원들에게서 밤 10시까지 시간외 로동을 할것을 강요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 맡은 두개의 서적은 말이요. 〈리승만박사 연설집〉과 김덕리소설집 〈그날 밤의 비밀〉은 말이요. 앞으로 일주일이내에 나가야 한단 말이요.》

그는 물부리를 문채로 뒤짐을 지고 위신을 세우고저 이같이 말이요소리를 련발했다.

《그런데 당분간 말이요. 모두 12시간씩 일해야겠는데 에— 불평을 한다든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요. 에— 민주주의라는것은 무엇보다도 신사적으로 일하는것인데 말이요. …》하고 잠시 입을 다물었을 때 상고머리 로총대장은《관리인선생님, 우리 분회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같이 장담했다.

《나는 말이요. 대한로총을 믿고 일한다는걸 알란 말이요.》

이리하여 전체 종업원은 밤 10시까지 로동을 하게 되였다. 그러나 인애는 그날 일찍 돌아오지 않을수 없는 사정이 생겼던것이다.

《무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였다고? 정말이가?》

눈딱부리가 을러댔다.

《분회장도 없고 관리인도 없으니 난 모르갔소.》

《사정이 급한걸 어떻게 하라십니까. 언제들 돌아오시나요?》

인애가 물었다.

《내 알갔소.》

《모르시면 기냥 돌아가겠어요!》

《분회에 가입한 첫날부터 그라면 되갔는가, 의?》
《당장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였어요. 사람이 달려왔어요.》
《사람? 빨갱이련락원 말이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인애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눈딱부리는
《왜 말이 없는가? 내 말이 틀림없디!》
이같이 으시댔다. 그때 분회장 상고머리가 퀴퀴한 술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섰다. 아니꼬운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어찌되든지 당장 욕이라도 퍼붓고싶었으나 인애는 주리참듯 참았다. 그리고 두사람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인애는 다소 노여운 어조로《멀하거던 함께 가보시자요!》했다. 상고머리와 눈딱부리는 싱갱이를 부리다가 큰 생색이나 내는듯이 인애를 놓아주었다.
인애의 가슴속은 찢어질듯 했다.
운영은 아직도 일어나기 어려웠으나 울화에 뜬 사람처럼 누워배길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조석으로 동무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인애가 밤늦게 다녀간 후로는 다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찾아올리가 없으리라고는 생각되였지만 그래도 경섭이 은근히 기다려졌다. 허나 역시 그는 아주 발을 끊을상싶었다. 인애가 다녀간것은 사흘전이였으나 운영에게는 그 사흘이 마치 석달과도 같이 길게 생각되였던 것이다.
상한 팔죽지를 외투주머니에다 푹 지르고 힘이 빠진 다리를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뒤골목길을 택하여 적십자병원으로 갔다. 식자공 정창남은 좌익의사 리종태의 배려에 의하여 상인 김진수라는 이름으로 중환자실 독방에 입원할수 있었던것이다.
병실문을 두드리자 창남의 안해가 누구시냐고 하면서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는 잠시 문께를 살펴보다가 얕은 음성으로《아이고! 어서 오세요!》하며 그를 맞아들였다. 그리고 운영이 병실안으로 들어서자 너무도 반가왔던지 손을 잡으며 다우쳐물었다.
《어떻게 벌써 나오셨어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운영은 문득 전번 창남이가 집에서 체포되였을 때 형사를 따라가며 무슨 리유로 잡아가느냐고 종주먹을 다졌다는 이 녀성의 팔팔한 성격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에게 시비할수도 없게 되였었다.

환자는 시체처럼 누워있었다. 깊은 잠이 든것도 같았다. 한쪽눈을 도려내기는 했으나 수술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는 정신이 뚜렷하지 않았다. 하루 서너너덧번씩 미음을 떠넣어주면 몇모금 받아 삼키다가는 꽉 입을 다물어버리군 했고 이따금씩 가위에 눌려 고함을 치군 한다는것이였다.

《의사는 념려말라고 하지만서두 믿을수 없어요! 그렇게 되구서야 머리속이 성할리가 있어요?》

《의사가 그짓말 하겠습니까!》

운영은 이같이 위로했으나 그 녀자는 연신 눈물을 씻었다.

병실창밖으로 뽀뿌라나무가지들이 거세인 바람에 시달리는것과 그 자리에 앉았던 까마귀 두어마리가 인왕산쪽으로 날아가버리는것이 보였다. 뽀뿌라나무밑으로 난 병원길로 간호원들이 종종걸음으로 지나갔고 환자들이 걸어들어오군 하는 모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운영은《갑진이 아닌가!》하고 벌떡 일어났다. 뽀뿌라나무밑 길에서 지팽이를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틀림없는 갑진이의 모습이였다. 창남의 안해가 달려가더니 이어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

《좀 어떤가?》

《일없어— 운영동무는?》

《나도 괜찮아!》

그들은 서로 껴안다십이 하면서 이렇게들 물었을뿐 목이 메여 말들을 못했다. 잠시후 갑진이가 말했다.

《도무지 련락이 끊어졌으니 웬일이야?》

《갑진동무에게도 련락이 없었나?》

운영은 의자에 걸터앉으면서 물었다.

《나는 실직되였던 사람이니까 되도록 속히 공장에 나가도록 하라는 말만 전하더군.》

《위원회도 없었고?》

《없었어.》

경섭은 이 병원으로도 찾아오지 않았다 한다. 운영은 무엇인지 생각하다 무심코 물었다.

《인애는 만났었나?》

《아직 모르는군. 인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네.》

《언제?》

운영과 창남이 안해는 동시에 이같이 웨쳤다.

《엊저녁!》

《엊저녁에!》

《음. 지금 인애에게서 기별을 받고 이리로 오는 길인데 잘 만났네.》

그제서야 운영은 며칠동안 인애가 찾아오지 않은 리유를 알았다.

《초종을 치를 일이 막연할텐데 자, 어떻게 한다?》

《야단났어!》

갑진이 혀를 찼다. 침대에 죽은듯이 누워있는 정창남, 지금쯤은 철창속에서 고개를 숙인채 오래오래 생각에 잠겨있을 분회책임자 김상규, 재차 붙들려간 익살군 명한이랑 채자공 리수영, 이 동무들이 모두 모여들수 있었다면 초상집은 쓸쓸하지 않았을것이다. 사고무친(의지할 가까운 사람이 없음.)이 된 인애의 슬픔도 동무들의 도움과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을수 있을것이였다.

두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갑진은 공장으로 련락을 하여 사진실의 덕호를 불러내여 공장측에서 찾을수 있는 돈을 찾게 하고 동무들에게서 조위금도 모으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운영은 그길로 인애에게로 갔다.

거적을 편 손바닥만 한 마루 한가운데 질화로를 놓고 쓸쓸히 앉아있는 나어린 상제를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조객이 드나들리도 없었다. 인애의 외삼촌이라고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인사를 청하는 40 가까운 농사군이 한사람 와있었고. 건넌방에 사는 아낙네가 부엌일을 하고있을뿐이였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다녀서 그랬던지 운영은 신열이 나는것 같아서 오래 초상집에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너덧시간 자고 날이 어두워서야 운영은 다시 인애에게로 갔다. 갑진이랑 사진실의 덕호, 제본의 녀성동무들과 그외 4～5명의 동무들이 모여들어서 낮처럼 쓸쓸하지는 않았다.

화로불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은 동무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운영은 우선 장사비용부터 의논했다.

《얼마나 줍디까?》

《틀렸어.》
갑진이가 대답했다.
《어째서?》
《종업원들의 공동금은 모두 대한로총으로 넘겼다는거예요.》
교섭을 맡았던 덕호의 대답이였다.
《그래서?》
《그래서 상고머리에게 말했더니 그런 조위금 낼 돈은 없어― 하고 딱따거리잖아요!》
《없다?》
운영은 기가 막혔다.
《무법천지로구나. 도적놈들! 그래 경섭동무에게는 련락이 됐소?》
《안 되드라는데―》
또 갑진이 대답했다. 그러자 련락책임을 맡고있는 꼬마, 인쇄 견습의 덕대가 최근 사흘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선, 2선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없어요! 오늘도 세번이나 갔었는데 헛걸음만 했지요!》
《또 무슨 탈이 난 모양이군!》
이같이 걱정하는 운영에게 덕대는《매일 집에 돌아오긴 한다니까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하고 말했다.
인애는 겨우 입관까지를 끝냈으나 령구를 화장장까지 모실 도리도 막연했고 화장비용도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래일 오전중으로는 화장장까지 나가야 했던것이다. 의논끝에 4～5명은 밖으로 나갔다. 취할 도리가 있으면 취하고 비록 넉넉치 않은 살림들이였지만 잡히고 팔수 있는것이 있으면 수단껏 해서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은 해방직후부터 사모은 서적을 거의다 내다팔았다.
이럭저럭 욕은 면하게 되여 이튿날 아침 령구를 내모실수 있었다. 령구는 동무들이 메였다. 막 집을 떠나려 할 때 리경섭이 덜레덜레 나타났다. 전에 못 보던 하이칼라 마후라가 동무들의 주목을 끌었다.
《수고들 하네.》
《어째 그렇게 소식이 없나?》
운영이 물었다. 갑진은 덕대가 매일 련락을 나갔노라 했다.

《시간이 늘 어긋나서 그렇게 되였소.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는 차차 알게들 될걸세.》

경섭은 태연히 말했다.

고개너머 장지(매장지)로들 나가 간단히들 향을 올리고 령구를 화덕으로 모셨다. 두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고 인애의 슬픔을 덜어주기도 할겸 그들은 화덕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인애를 가까스로 끌어내여 근처의 볕바른 언덕으로들 올라갔다. 화덕에는 인애의 외삼촌이 지키고있었다.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인애는 좀처럼 손수건을 눈에서 떼지 않았다. 한번도 편히 해드릴수 없었던 홀어머니였다. 해방후 해소가 버썩 심해진 후부터는 더욱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련락을 다녔고 회합에서 밤늦어서야 돌아오군 했으며 나중에는 한달가까이 류치장에 갇히여서 어머니의 마음을 태우게 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어머니의 기구한 한평생이 측은해서 걷잡을수 없는 울음이 북받쳐 올라오는것이였다.

인애의 외삼촌이 술과 명태꾸레미를 들고 올라왔다. 모두들 그 농사군을 잡아앉히였다. 허나 그는 권하는 술을 두어잔 마시더니 일어섰다.

《야, 그만두라. 자꾸 울어싸문 머 소용 있나베!》

이같이 탁한 음성으로 말하고는 도로 아래로 내려갔다.

한동안 인애를 위로하던 동무들은 차츰 공장이야기들을 하게 되였다. 갑진이가 분회의 활동이 마비된것을 개탄하자 찬 술을 서너사발 들이켜서 얼굴이 불깃해진 경섭은 그 책임이 지시를 받지 않은 위원동무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진실의 덕호가《아니요, 경섭동무!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는걸 알아야 하오!》하며 쏘았다. 모두들 긴장해서 입을 다물었다.

《경섭동무는 그후 공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오? 공장에 남아있는 동무들이 무엇을 기다리고들 있는지 아는가 말이요?》

《동무, 취해서 그러잖아?》

경섭은 이같이 공격을 피하려 했으나 그 말에 도리여 감정을 샀다.

《술 두서너잔에 정신을 잃을 사람이 아니요! 동무는 우리들이 열두시간씩 로동을 하게 되였다는것과 임금에서 7부씩 공제를 당하

게 되였다는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구려.》
경섭은 당황한 표정이였다. 덕호는 공격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공장사정을 알고있다 해도 아마 조합에 보고도 하지 않았을것이요. 어째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그에 대한 아모런 대책도 우리에게 제시해주지 못했으니까 말이요. 그렇잖습니까, 동무들!》
잠시 당황했던 경섭은 금시 엄엄한 표정으로 변했다.
《좋소!》
그러자 갑진이가 말했다.
《여기서 누구 책임, 누구 책임할것 있는가! 난 경섭동무가 제대로 련계도 지어주지 않은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있소!》
《좋소!》
경섭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우리 분회의 활동이 마비된 책임이 위원동무들에게 있다잖았소. 특히 운영동무와 인애동무에게 있다는걸 말하겠소!》
《동무자신은?》
이같이 항의하는 갑진을 제지하면서 경섭은 말을 이었다.
《동무들은 전체적인 사업은 생각지 않고 공연히 인신공격에만 재미를 들인것 같은데 옳지 않소!》
봄날처럼 따스한 해별이 내려쪼이는 남향언덕에 모인 그들은 오래간만에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이였다. 모두 속에 품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인애도 명태를 뜯어주면서 동무들이 옥신각신하는것을 듣고있었다.
잠자코 앉았던 운영은 피우던 담배를 눌러 끄고 경섭의 말을 받았다.
《경섭동무― 위원들의 활동이 마비되였다는 동무의 말은 옳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신공격을 하려는게 아니라 어떻게 마비되였는가를 캐보고 그것을 타개하려는것이 아니겠소! 전체적인 사업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건 무슨 말이요?》
《전체적인 사업은 말이지―》
경섭은 이같이 되받아놓고 잠시 답변에 궁한듯 하더니 흥분한 어조

로 말을 계속했다.
《동무들은 지금 상부에서 무엇을 계획하고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모르고있소! 모르고있을밖에 없소!》
운영은 굵은 음성으로 차근차근히 따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덕호동무가 사흘이나 동무를 만나러 다녔어도 련락이 닿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덕호가 맞장구를 치자 경섭은 더욱 흥분해서 마후라로 싼 앞가슴을 헤치면서 말했다.
《그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였소! 내가 말하려는것은 테로를 당하던 이튿날 동무들은 어떠한 태도로 나왔던가 말이요! 나는 인애에게 지시를 전달했소! 허나 동무들은 그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소! 운영동무는 공공연하게 지시를 반대했소!》
그러자 여직껏 아래만 보고있던 퉁퉁 부은 인애의 눈이 경섭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침착한 음성으로《반대한것은 운영동무뿐 아니였습니다. 갑진동무도 덕호동무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말했다.
《바루 그 이야기를 하자는것이요!》
운영은 대들었다.
《경섭동무! 우리의 운동은 간부 몇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반드시 종업원전체의 운동이 되여야 하잖겠소! 그렇지, 경섭동무!》
《그래서―》
《그렇다면 간부들의 의도가 일반 종업원들에게 침투되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단행할수 있겠는가 생각해보구려!》
운영은 특히 힘을 주어서 한마디한마디 새기듯이 말을 이어갔다.
《물론 태업을 단행할수 있었지. 허나 단행했더라면 우리의 조직은 다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산되였을것이요. 기계가 파괴되여 다시 작업을 할수도 없게 되였을것이 아니였겠소!》
소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던 갑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옳다고 웨쳤다. 덕호는 면바로《경섭동무의 생각이 옳지 않소!》하고 웨쳤다.

인애는 잠자코 앉아있었으나 그는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것이 있었으니 운영과 경섭 두사람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단지 성격의 차이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실로 사상의 차이였다는 그 점이였다. 제 올릴 시간이 되였다고 부르러 오지 않았다면 인애는 그러한 사상의 차이에 대하여 말했을것이였다.

경섭은 자기도 충분히 일반종업원들의 동향을 알고있으며 그렇게 보고도 했고 그러한 기초우에서 내려온 지시였다고 하면서 운영을 나무라려고 들었다. 운영은 그에는 대꾸도 않고 쭉 동무들을 훑어보면서 단언했다.

《전체 조선인민이 점차 거세여가는 구국투쟁의 불길속에 휩싸여갑니다. 결정적투쟁이 가까와오고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양인쇄가 이 투쟁에서 물러선다면 여직껏 해온 일은 수포로 돌아갈것입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분회를 개건하고 종업원동무들의 의지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갑진이가 무어라고 하려는것을 막고 운영은 말했다.

《경섭동무는 인애의 조위금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금에게 7부씩 공제하는것도 억울한데 또 조위금을 걷겠느냐고 했는데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다만 몇원씩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마음을 한데 묶어세워야 합니다. 곧 단행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들 운영의 말에 동의했다. 경섭만은 종시 불만한 안색으로 앉았다가 엉뎅이를 털고 일어섰다.

오래간만에 모두들 투지들이 북받쳤다. 분회의 개건이 그들앞에 닥친 과업이였는데 그것은 동시에 궤도에서 벗어났던 생활의 재건이였다. 물론 그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투지는 거세인 법이다. 머지않아 최명한이랑 리수영, 박세준들도 류치장에서 나올것이였으니 위원회가 다시 자기의 활동을 하게 될것이다.

6

삼삼오오로 흩어져서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운영과 인애 그리

고 그의 외삼촌 세사람은 한가지 엄청난 사실을 목격했다.
막 서대문형무소앞에 왔을 때였다. 별안간 한 녀성의 고함소리가 들리고 군중들이 눈이 둥그래져서 그 고함소리나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무슨 죄란 말이냐! 무슨 죄야!》
녀인은 이같이 고함을 쳤는데 그는 그렇게 웨치면서 언덕배기로 우르릉우르릉 기여오르는 한대의 트럭을 따라가는것이였다. 트럭우에 동저고리바람으로 손에 수갑을 물린 30～40명의 사상범들이 가득 실려져있었다. 트럭은 자꾸 기여올랐다. 그 녀인은
《저걸 어쩌나! 저런, 글쎄 무슨 죄야, 무슨 죄야!》
하면서 아이를 업은채 고무신이 벗어진것도 내버려두고 맨발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트럭을 따라갔다. 그러나 트럭은 이미 철문으로 들어가고있었다. 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아이는 멋모르고 울어쌌다.
《글쎄 무슨 죄란 말이냐!》
하면서 녀인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 쌀배급을 달라고 한게 무에 나쁘단 말야! 검 굶어죽게 되여도 잠자코 있어야 하니! 이놈들아! 아니, 공장을 들부시고 사람들을 치고 한 놈들은 내버려두고 아니, 그래― 이런 빌어먹을 세상 봤나, 응?》
눈치있는 사람들은 그를 슬그머니 숨기려고 했으나 그 녀자는 참을수 없다는듯이 소리쳤다.
《아니 그래, 월급을 올려달래도 빨갱이, 배가 고프대도 빨갱이니 이놈의 세상이 그래…》
그때 군중들뒤에서 잠시 엿듣던 경찰 둘이 달려들었다. 그중 한자가 달려들면서 구두발길로 내지르는 바람에 그 녀자는 악! 하면서 공중잡이로 나자빠졌다. 기절하는 소리를 내며 울어대는 아이의 얼굴에는 끔찍하게 피가 흐르고있었다.
《무어, 으째― 이년!》
또 하나의 경찰이 이렇게 을러대더니 팔을 잡아끌었다.
《가자!》
녀자는 악에 받쳤다. 끌려가면서 거듭거듭 웨쳤다.
《데려다가 죽여라― 어린애도 함께 죽여라. 어서, 어서!》

이러한 광경을 보고 세사람은 인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녀자의 고함소리랑 어린애의 울음이 언제까지 귀에 지잉했다.
《우리 고향 녀자들두 반동과 싸울라카면 잘 싸우는데유—》
인애 외삼촌이 말했다.
《고향이 어데시던가요?》
《전라도 부안이지유.》
《부안 어디신가요?》
《부안읍이라오.》
《허— 검 부안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
운영이 묻자 방안을 정돈하던 인애가 설명했다.
《직접 투쟁하셨는데요. 그래 고향에서 배기지 못하시지요.》
《그러신가요.》
《우리 고향 녀자들은 말입니다.》
그는 자신있다는듯이 말했다.
《쌀을 달라카고 면사무소로 간 사람들이 학살된 뒤부터 리아모게를 모두 개 아모게라고 부르게 되였지유. 그리고 고초가루봉지를 갖고다니다가 경찰을 만나문 냅다 뿌리군 했지유!》
《얼마나 그렇게들 싸웠습니까?》
《그후부터 놈들은 읍으로 기관총들을 끌어 딜였지유.》
《기관총을요?》
《네, 기관총을! 그러자 이번에는 녀성들이 더 기운을 내서 단지속에다 삐라하고 고초가룰 넣어 갖고다녔지유. 삐라를 붙이다가 경찰놈들을 만나라카면 또 냅다 뿌렸지유!》
《쏠려거던 쏘라는 식이였군요!》
《그렇습니다! 총을 쏘아두 먼 소리유? 하는 얼굴이였시유!》
인애의 외삼촌은 이렇게 시작하여 전라북도의 농민들이 곳곳에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강제공출을 반대했다는 이야기와 기회주의분자들때문에 농민의 피해가 더 많았으나 지금도 계속해 싸우고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운영은 몹시 피로했다. 아무데서나 눕고싶었으나 간신히 참고있다가 외삼촌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하였다.

사흘후 공장에서 또 이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인애는 장사날 다음날부터 공장에 나갔었는데 두어번 관리인실로 올라갔으나 쇠가 채워지군 해서 인사를 못했다. 그러던 참인데 그날 아침 막 작업이 시작되였을 때 돌연 정문밖에서 찝차소리가 나더니 엠피 둘과 캡을 쓴 형사 하나가 제본실로 들어왔다.

《관리인실이 어디야?》하고 형사가 인애에게 물었다.

《2층? 지금 있어? 모른다?! 그것도 몰라!》하더니 엠피에게 무어라고 씨부렁거리면서 2층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구두발소리를 내면서 도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이 끝날무렵 다시 찝차 한대가 나타났다. 그 찝차에서는 다른 엠피가 둘하고 신사복을 입은 미국인과 통역 하나가 내렸다. 그러더니 통역이 공장 정문에다 무슨 나무쪼각을 대고 탕탕 못질을 했다.

미군정청관리공장
제1301호

우에는 영어로 쓰고 아래에는 한자로 쓴 이같은 널쪼각을 본 인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다 그러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인애도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묵묵히 오후작업을 시작할밖에 없었다.

정문에다 패를 붙이고난 그들은 관리인실로 올라가 쇠를 뜯고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경리부장과 공장감독을 불러들였다. 한시간 가까이 관리인실에서 쑹얼거리며 서류들을 뒤적였고 기계가 정지한 사이에는 영어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관리인이 무얼 잘못했나?》

《잘못했기루 저런 법이 있을라고?》

이렇게들 쑤군거렸다. 그날 파할무렵이였다. 공장 벽보판에는

로동자들에게 고함

부채 정리에 의하여 본 공장은 금일부터 미군정청이 관리하게 되였음.

1948년 1월 26일

이같은 밑도 끝도 없는 공시문이 나붙었다. 상고머리와 눈딱부리는 자기네도 역시 무슨 영문인지 모를것인데 공연히 아래웃층, 이 공장, 저 공장으로 부산스레 싸다녔다. 그리고는 이따금씩 두덜댔다.

그러나 관리인 심형선을 수색하러 왔었고 관리인의 변경을 통고하게 된 리유는 그가 《빨갱이》기때문은 아니였다. 그는 중간파로부터 전향하여 앞으로 대통령이 될 리승만박사를 《존경》하고 지지하게 된지 이미 오래전이다.

심형선은 호화로운 집에서 잘 먹고 지내자는 사상을 (그의 리론에 의하면 그것이 사상으로 된다.) 가지고있었다. 더우기 미국인들과 수치스럽지 않게 교제하려면 우리 생활양식에서 김치라든지 전골이라든지 또는 녀성의 치마, 버선 같은 조선특유의 풍습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특히 미국식양식을 많이 본따야하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매달 자기 수입에서 4백～5백원씩이나 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있었는데 그 돈을 끌어들이는 원천은 미국서 마카오를 통하여 사들여온 켄트지값이였다. 허드슨은 그 종이대금을 곧 받지 않아도 좋았기때문에 아니, 그보다는 딴 야심이 있었기때문에 수형기일을 두번이나 연기하여도《좋습니다. 리자만 잘 내십시오, 미스터 심!》이같이 말했고《우리 미국사람 모두 신사입니다.》이렇게 껄껄대기만 했었다.

그러던차에 열이틀전 심형선이 대한상공인협회 연회에서 늦게 돌아오던 날 밤 그는 허드슨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아울러 자기의 안해를 겁탈했다는 사실을 알아낼수 있었던것이다. 안해의 자백까지 듣고난 그는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다고 생각되는 그 허드슨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허드슨은 이튿날 강경한 통첩을 보냈다.

그 통첩에는 켄트지 대금 170만원과 리자 51만원을 이틀이내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채권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사연과 그의 처와의 관계는 문명한 나라의 륜리로 보아 하등 저촉됨이 없다고 생각하니 할대로 해보라는 내용이였다.

인애 어머니의 장사날부터 심형선은 공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도저히 그만한 금액을 조속히 돌릴수가 없었다. 공장 장부에도 그만한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 한영출판사에서 들어올 《나에게 입맞춰주시오》와 《리승만박사연설집》 대금도 월말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달치 임금을 지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합 103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 미국인과 교제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그는 드디여 종적을 감출밖에 없었던것이다. 일본으로 갔다고도 하고 부산에서 월급쟁이노릇을 한다고도 하고 부산서 마카오로 갔다는 말도 있었으나 어느게 정말인지 몰랐다.

닷새를 기다리다가 허드슨은 자기의 채권을 군정청에 넘겼다. 일제가 조선인민을 착취하던 대동맥인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라고 고치고 리승만도당을 끼고 테로와 살인을 해가면서 마음대로 착취를 계속하려는 미제는 큰 공장, 광산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작은 공장들까지 자기네 소유로 하는것이였다. 아무리 헐값으로 처분한다해도 동양 인쇄공장의 기계들, 설비들, 재고품들을 합하면 1천만원이 훨씬 넘을것이였다. 허나 그것이 몽땅 켄트지값으로 되고말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가 극히 비밀에 속하는 일들이였으나 그같이 너저분한 비밀은 하루밤도 가지 않는 법이다. 이튿날 오전중으로 인애는 그 진상을 알아낼수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는 전체 종업원들이 다 아는 비밀로 되고말았다.

종업원들은 심형선에 대하여 일종 모멸의 감정을 갖지 않을수 없었으나 그러나 공장에 찦차가 드나들게 되고 색다른자들이 웃층에다 자리를 잡고있게 된것은 확실히 불유쾌한 일이였다. 그런 불유쾌한 감정은 차차 분노로 변해갔다.

《백주에 도적이 나도 분수가 있지그래, 원 참!》

나이먹은 종업원들은 이같이 두덜대면서 채자를 계속했고 젊은축들은 슬금슬금 웃층과 《대한로총》패들의 눈치만 살폈다. 그런데 《대한로총》패들은 새로 온 관리인 윌리암스를 위하여 선물을 하겠으니 돈을 내라고들 했다. 종업원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26일 현재로 인애에게 전

달될 조위금은 《대한로총》패들을 제외한 전체 종업원들의 지출로 완결했었는데 월리암스의 선물지출금은 단 1원도 모이지 않았던것이다.

《만약 말이디 군정청이 심형선이의 협잡을 전달하디 않았더면 우리는 어떻게 되였을가 생각해보란 말야!》

상고머리는 종업원들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군정청에 감사하고 월리암스씨를 환영해야디! 50원도 도코 백원도 도씨다. 다 내시오!》

종업원들은 역시 묵묵히 듣고있다가 헤여졌다. 월리암스를 환영해야 할 까닭을 도무지 알수 없었던 그들은 사실 가진 돈들도 없었거니와 있었다 해도 내놓지 않았을것이다. 결국 또 테로사건이나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리라고들 예상했다. 그런데 불상사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면에서 점잖게 게시판우에 나타났다.

통 고

1. 본공장은 20일이내에 공문서인쇄공장으로 개편되므로 일체 외부의 주문을 접수치 아니함.

2. 따라서 20일이후부터는 현재 직공수의 3분의 1을 감소한다는것을 통고함.

1948년 1월 31일

관리인 H. 월리암스

이같은것이 나붙게 되자 제아무리 뻔뻔스러운 《대한로총》 심부름군들도 선물지출금을 요구하지 못했다. 그대신 쥐새끼들이 쌀독에 드나들듯이 웃층사무실과 지하실사이를 부리나케들 오르내리군 했다.

종업원들의 안색은 확실히 흥분한것이였다. 그러나 누구 한사람 경솔하게 구는 사람은 없었다. 그같은 통고가 나붙건말건 이 공장은 의연 자기네의 공장이라는 생각과 만약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그냥 죽지는 않겠다는 굳은 결의들이 흥분한 그 안색들속에 깃들어있었다.

7

운영은 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는 쉬지 않고 밀려드는 거세인 파도우에 떠서 힘자라는데까지 헤염을 치고있었다. 파도는 차차 거세여져서 산더미처럼 밀려와서는 그의 얼굴에 부딪치며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흑흑 느끼며 물속에 잠겨가군 했으나 그럴 때마다 운영은 이상히도 용기가 치솟아 다시 떠오르군 했다. 깊이 물에 잠겼을 때도 그는 두손에 움켜쥔 활자들을 놓지 않았다. 몸은 가라앉을망정 그 활자들을 물속에 처넣어서도 안되였다. 그는 계속 헤염을 쳤는데 문득 큰 떼목이 하나 떠오는것을 보고 그우에 올라탔다. 올라타서 량쪽손에 움켜쥐였던 활자들을 조사해보았다. 그는 실망했다. 아무리 맞추어도 두개가 축이 났다.

—로동자들이여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모든 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결하자—

즉 《민》자와 《단》자 두개가 루실되였다.

《야— 손님 오셨다—》하면서 어머니가 흔드는 바람에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음— 없어!》했다.

《저렇게 허해졌으니!》

어머니는 혀를 찼다.

《식은땀을 흘리셨군요!》

인애가 말했다. 운영은 비로소 상반신을 일으키고 어머니가 집어주는 수건으로 땀을 씻었다. 담배를 찾자 인애가 《공작》(담배이름)을 두갑 내놓았다.

《월급 탔어요.》

담배뿐아니라 인애는 과일과 떡을 사왔던것이다.

《떼는 용을 썼군요.》

운영은 비로소 입을 벌렸다. 그는 꿈생각을 하면서《공장의 기계랑 자모들을 내다 팔거나 어디로 가져가지는 않았지요?》하고 물었다.

《자기네도 필요하겠지요. 외래영문자모들을 가지고오는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명한동무랑 수영동무, 세준동무 다 나왔어요.》

《언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만나보셨소?》
《아직 못 만났어요. 다들 건강하대요. 그래 운영동무께서 나가실 수 있으면 함께 가볼가 하고 왔어요.》
《갑시다.》
운영은 반가이 웨쳤다. 그런데 인애는 무엇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덕호동무가 련락갔다 오더니 한가지 소식을 가지고왔습니다. 경섭동무가 조합조직부로 가게 되였답니다.》
《조합으로?》
《출세했지요.》
《그렇게 말할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인애는《운영동무께서 요즈음 꽤 성격이 달라지셨어. 그전 같으면 아니, 그따위가 우리를 지도해— 하고 웨치셨을텐데!》이같이 야유조로 말했다. 운영은 대꾸도 않고 덤덤히 담배를 피우다가《우리 분회는 어쩐답디까?》하고 물었다.
《분책(분회책임)으로 갑진동무가 지시를 받았답니다.》
《잘됐습니다. 갑진동무가 적임입니다.》
《래일모레사이로 위원회를 개편하게 될겁니다.》
《잘됐습니다. 명한동무랑 나오고 어머니, 벌써 잠드셨나? 어머니, 좀 다녀오겠어요!》
어머니는 소스라쳐일어나듯 하면서 거듭 일찍 들어오라고 당부했다.
《늦게 되면 제가 바래다드리겠어요, 어머니. 또 들리겠어요—》
인애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금새 눈이라도 내릴듯 날이 흐렸고 날씨는 매우 누그러져서 거리를 거닐기가 좋았다. 아직 여덟시밖에 안된 시가지는 부산스러웠다. 많은 사람들틈에 섞이여 마치 련애하는 사람들처럼 두사람이 나란히 서서 거닐기는 주야로 냄새를 맡으면서 거리를 싸다니는 경찰들의 주의를 삭갈리게 하는데 십상이였다.
《저… 말예요—》

서대문 네거리를 돌아서서 아현성으로 가는 큰길로 들어서자 인애가 입을 뗴였다.

《저 통일이 되면 말예요. 운영동무께서는 무얼 하시겠어요, 네?》

조합조직부원으로서 여러 분회동무들에게 지시를 주고 보고를 받고 하는 리경섭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던 운영은 인애의 그러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글쎄요—》하고 말았다.

모처럼 간곡하게 물어보려던 인애는 하도 싱거운 대답에 어안이 벙벙했다. 운영은 자기의 생각을 계속했다.

하이칼라마후라를 두르고 로동조합의 간부연하겠지. 하다가는 마음을 돌려서 —그도 상부의 지도를 잘 받아 진정한 볼쉐비크가 될는지도 모른다— 했다. 그러나 종시 그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것은 조합조직부장 고상선이와 경섭이가 마치 두개로 쪼갠 능금 한쪼각처럼 똑같은 점이였다. 고상선은 운영과 함께 6～7년전 일산 선로반 인부노릇을 했었다. 그런데 말끝마다 갈보, 술이고 언제인가 일본놈십장과 싸우게 되였을 때는 비실비실 도망해가버린 주제에 쩍하면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으시댔다. 해방후 몇번 거리에서 만났는데 늘 그는 근사하게 차리고다녔으며 나중에는 출판로조 조직부장이라는것이였다. 바로 그와 경섭이가 맞붙은것을 아무리 공적인것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에 걸리는것이였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해보세요—》

인애가 재촉하듯이 말했다.

《꼭 들어보고싶어요?》

운영은 남자동무들과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별로 없었다. 항차 한 처녀에게 자기 사생활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는것은 수집은지 쑥스러운지 분간 못할 심경에 사로잡히게 되는것 같았다. 허기야 별로 학교공부는 못했을망정 독학으로 책을 읽게 되였고 다감한 성격인 그는 여러가지 공상에 사로잡히군 했었다. 채자공이 되여 늘 글을 읽어서 농민들의 사상을 개변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뒤로는 농촌일군이 되고싶었다. 그러나 8.15후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항상 코앞에 닥친 과업들때문에 어느틈엔지 잊어버렸던것이다.

《인애동무는— 인애동무부터 말해보시오?》
이같이 되묻는 운영은 매우 현명하게 대답을 피한것을 알았다.
《대답해보시오—》
《저는 유치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어디서요?》
《그중 가난한 촌으로 가서요.》
인애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편한 일이 아닐겁니다.》
《누가 편한 일을 찾아가려고 해서 그러는가요. 어려운 일이니까 하겠다는거지요!》
인애는 항의하는 어조였다.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차차 행복하게 될것입니다.》
《그럴가요? 그렇겠지요! 오붓한 유치원을 짓고 저의 집은 그뒤에 있고… —우리는 조선인민입니다. 우리 나라는 근로자들의 나라입니다. 들에 벼가 익고 동산에는 사과가 익어갑니다. 뜰에 국화와 채송화를 심으십시다— 이렇게 글을 가르쳐주겠어요, 어떨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운영은 부러웠다. 그같은 미래를 꿈꾸는 그 머리속이 아름다왔다. 그래 운영은 《나도 농촌으로 갈렵니다.》해버렸다.
그러자 인애는 부르짖다싶이 물었다.
《그러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같이 갈수 없을가요?》
마치 지금 당장 떠나기나 하는것처럼 물었으나 그 묻는 품이 역시 순진하고 솔직했다.
《인애동무도— 그걸 지금 어떻게 말할수 있나요, 글쎄—》
《저것! 떨어져 가세요! 곰보형사예요!》
이같이 말한 인애는 재빨리 그에게서 떨어져서 침침한 길 복판으로 들어섰다. 물건을 사는척 하고 가게앞에서 몸을 굽히고 옆을 흘겨본 운영은 과연 전번류치장에서 받고 채기를 하던 곰보형사가 눈알을 굴리며 지나가는것을 알았다. 곰보는 서대문경찰서쪽으로 가버렸다.
최명한은 오늘 팔을 잘 놀리지 못했으나 건강했고 여전히 맹꽁이소리를 내면서 류치장안에서 겪던 이야기를 하는것이 무척 명랑했다. 리

수영과 박세준도 다 건강하다고 말했고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을 거듭 미안해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장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있을 때 《여기들 있을줄 알았지—》하면서 갑진이가 들어왔다.

그는 이 2～3일동안에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였던것이다. 그는 명한의 손을 놓지 않고 건강이 어떠냐, 나와서 무엇을 좀 먹었느냐고 묻고 이 집이 형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것까지 다짐하자 《동무들과 상의할 일이 생겼소.》하며 바로앉았다.

《이번 일요일, 저놈들이 〈유엔조선위원단〉을 환영하는 데모를 한다는데 우리 공장 동무들도 끌어내려고 할것이요. 여기에 동원되지 않게 할 방도를 강구해야겠는데…》

모두들 긴장해서 듣고있었다.

《일요일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날 우리가 할일과 그후 우리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운영동무랑 의견을 말해주오.》

《다시 앞으로 나가봅시다.》

운영이 말했다.

《〈대한로총〉패들 이외에는 단 한사람도 나가지 않도록 하면 제놈들도 누구에게 트집을 잡을 도리가 없을것이고 만약 희생자가 난대도 한두사람정도일것이요—》

《한사람도 나가지 말아야지!》

명한이가 쇠소리음성을 냈다.

《더러운 데모도 다 있다, 체!》

인애는 한마디했다. 운영은 자기의 의견을 계속해 말했다.

《나는 이런 의견이 있소. 좀 의식수준이 약한 동무들을 우리들이 나눠 말읍시다. 우리 간부 십여명이 두세동무씩 말아서 해설사업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영화구경을 하러 가든지, 한강으로 나가 스케트구경을 하든지— 그외의 백수십명 동무들은 나오래도 안 나올 동무들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하고 갑진이가 말했다.

《명한동무랑 인애동무의 의견은?》

《이의 없어. 나도 두어동무 맡아서 힘 자라는데까지 해설을 하겠소.》

명한이가 말했다. 인애도 동감이였다. 그래 그들은 종업원명단을 꺼내놓고 해설사업을 할 사람과 대상자를 고르기 시작했다.

《십여일동안에 공장 내외정세가 수태 변했군!》

명한은 명단 펼친데다 고개를 들여밀고 이렇게 혼자말로 두덜댔다. 대상자까지 대략 정하자 그것을 미농지쪽지에다 적어 권연갑속에다 넣고난 갑진은《또 한가지 의논해볼 일이 있소.》했다.

《다른게아니라 오늘 조직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덕호동무가 전달하는 말인데, 운영동무!》

그는 운영을 바로본 다음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다.

《동무를 당분간 우리 조직에서 제외하라는 말인데…》

듣고있던 세사람은 덤덤했다. 이내 명한이가 대들다싶이했다.

《리유는 무어야?》

《전번 태업지시를 집행하지 못하게 한 과오로써 책벌을 적용해야 한답디다!》

그러자 인애가 나섰다.

《그건 저의 책임이지요. 책벌을 주려면 직접 지시를 받은 저에게 주는것이 마땅하지 왜 운영동무에게 줍니까, 글쎄— 그건 옳지 않아요! 갑진동무, 안됩니다. 그건 안돼요!》

《인애동무!》

운영이 찬찬히 타일렀다.

《갑진동무를 공격하지만 말고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하시오!》

명한은 아직도 리유를 잘 몰라 벙벙하다가 인애에게서 설명을 듣고《그래 그 지시를 리행해야 하나?》하고 갑진에게 물었다.

《나는 덕호동무에게 의견서를 전했소. 그 책벌은 위원전체가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든지 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전번 태업지시처럼 이번에도 내리먹이는 지시같소. 그래서 동무들에게 대책을 묻는거요.》

《래일이라도 위원회를 가집시다!》

명한이가 웨쳤다.

《그건 무리예요, 무리예요!》
인애는 흥분한 안색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갑진은《무리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운영동무의 립장이 딱한줄 알지만 의견을 말해보구려. 일 있소.》
운영은 잠자코 담배연기만 뿜고있었다. 대여섯모금 계속 빨다가 분을 눌러끈 그는 입을 벌렸다.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건의해주었다니 감사하오. 그러나 지시대로 해야지. 단지 공장의 한사람으로서는 싸워야겠소. 한 로동자에게 주는 과업은 받아야 하겠소!》
명한과 인애는 그것이 필경 경섭이의 처사라는 뜻의 말들을 주고받았다. 갑진은 자기가 분회책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 일하기가 참 어렵게 되였다고 두덜댔다. 더들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자정이 가까왔기때문에 그들은 헤여졌다.
《댁에까지 바래다드리겠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앞에서 인애는 말했다. 그러나 운영은 굳이 반대했다.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혼자 거닐고싶었다. 그는 인애와 헤여졌다. 그러나 인애는 그대로 서서 혼자 걸어가는 운영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는것이였다.
마치 술취한 사람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면서 거닐듯이 운영은 비록 소리를 내지는 않았으나 자문자답을 계속했다.
(조직에서 떨어져있어라?)
과연 두려운 일이였다. 운영은 그이상 괴로운 처지를 겪어본 일이 없었다. 또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을것 같지도 않았다. 벌써 슬프거나 비참하다거나 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숨이 가쁠 정도로 가슴속에 불덩이같은것이 오르내리고있었다.
(지시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했으나 또 한사람의 자기가(옳다고 생각지 않는 지시를 어떻게 지킨단 말이냐!)하고 반박했다. 그것을 여러차 거듭했으나 지시가 떨어진것만은 사실이였다. 좌우간 과오를 저지른자, 락오한 로동자로 락인이 찍힌것이 사실이다.
(경섭이가 찍은것이다! 나는 알고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지 말자!

어쨌든 우리의 조직이 찍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가(어디로 가야 할것인가?)하고 묻자 대번 제3의 자기가 나타나서 꾸짖듯이(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이냐!)이같이 웨쳤다. 그리고 제3의 자기는 강경하게 주장했다.
(싸워라! 싸워야 한다! 싸우면 동무들이 알아줄것이다! 이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아까 말한대로 한 로동자의 자격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그러자 운영은 여직껏 가슴속을 치받던 불덩이같은게 사그라지고 침착해졌다. 자신심이 생겼다. 오도가도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던 일제말기에도 그 환경이 타개될것을 믿었으며 그것은 타개되였다. 리승만도당의 테로경찰들이 자기를 천정에다 거꾸로 매달았을 때도 도로 살아날것을 믿었고 다시 살아났었다. 이번에도 그는 다시 조직속으로 들어갈 자신심이 생겼던것이다.
(좋다! 시간이 해결할것이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언덕길로 올라갔다. 그때였다. 돌연 어둠속에서 목도리로 얼굴을 싸고섰던 어머니가 그에게로 가만가만히 달려와 골목으로 불러들였다.
《왜요?》
운영이 무뚝뚝하게 묻자 어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얘— 집에 못 들어가—》
《왜요?》
《형사가 다녀갔어. 또 올거다!》
어머니는 사지를 사시나무떨듯 했다.
《왔으문 왔지—》
《얘, 왼통 방안을 뒤지더니 무슨 책인지 공책인지 한뭉텡이를 가지고가더라. 그리고…》
잠시 진정하려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온대—》
《일없어요.》
《일없다니! 참, 너도…》
《어서 올라가세요. 마음놓고 주무세요.》

운영은 길바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따라오며 말했다.

《랠 아침에두 들어오지 마—》

《념려마세요!》

어머니는 휘적휘적 다시 언덕을 내려가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운영은 두어번 그렇게 바라보는 어머니를 돌아보다가 큰길로 돌쳐섰다.

《우리두 잘살게 될터이니 두구보시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는 이러한 말로 어머니를 위로할수 없게 되였다. 너무 여러번 되풀이했기때문이였다.

그는 큰길로 나와 인애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그는 외투주머니에 찌른 두손을 불끈 쥐고 부르짖었다.

(그렇다! 나의 의지를 꺾어볼자는 꺾어보라!)

8

리승만도당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신문들은 《유엔조선위원단》 환영데모에 수십만 시민이 참가했다고 보도했으나 그것은 항상 그들이 사용하는 허위보도였다. 시민들은 누구나 그러한 데모를 보지 못했다. 백여명의 테로단들이 모인것만은 사실인데 돼지 목따는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다가 자기네들간에도 멋적었던지 헤여져버렸던것이다.

동양인쇄공장에도 일곱의 《대한로총》패들이 아침부터 종업원들을 기다렸으나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데는 기가 질렸던것이다.

《좌우간 우리끼리 나가디— 그리구 래일 좀 알아봐야 해.》

상고머리는 《유엔조선위원단 만세》라고 쓴 기를 접어들고 앞섰다. 그들 일곱은 데모는커녕 거리에서 어물어물하다가 기를 떼여 허리에 동이고 기대는 길거리에 버렸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자들식으로 머리에 동여매였던 《반공》이라고 쓴 수건도 풀어 주머니에 넣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상고머리는 데모에 나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저 했으나 누구에게 트집을 잡아야 할지 몰랐다. 그래 공연히 눈깔을 희번득거리며 아래웃층으로 오르내리다가 층층대에서 활자상자를 들고 내려오던 견습공이 그의 팔을 쳤다고 해서 주먹질을 할밖에 없었다.

2월 초닷새날 아침 공장벽마다 게시판마다에 붉은 잉크와 퍼런 잉크로 쓴 삐라들이 나붙었다.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하자!》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단선단정〉음모를 분쇄하자!》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자!》

《동양인쇄는 종업원들의 공장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삐라가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히 나붙었다. 그전날 종업원들은 점심밥에서 밥풀 한줌씩을 남겼었다. 그리고 《대한로총》대회가 있어서 그 패들이 먼저 나가버린 시간을 타서 전체 종업원들은 각각 품에 지녔던 두장씩의 삐라를 밥풀로 붙이고 차례로 공장을 나왔던것이였다.

로총패들은 두번째로 기가 질렸다. 한시간쯤 지난 뒤 돌연 미국식 가죽잠바를 입은 례의 두목이 로총패 열댓을 데리고 공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나타나자 상고머리들은 비로소 기운을 얻어 삐라를 뜯기 시작했다.

가죽잠바패들은 오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 그들은 드디여 한가지 트집을 잡게 되였다. 주조의 김학수라는 동무의 외투속에서 북조선로동당기관지 《로동신문》이 나타난것을 기화로 그를 지하실로 불러내렸다. 학수는 작업시간이 필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그는 시체가 되여 공장밖으로 나갔다.

전체 종업원들은 학수가 죽어나간것을 알자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러자 폭풍이 일기 직전같이 공장안은 조용했다.

동양인쇄분회위원회는 눈코뜰사이없이 바빴다. 반동데모(시위)반대에 성공한 위원회는 다시 삐라활동을 전개하여 그 성과를 고착발전시

키는 한편 그동안 흩어졌던 종업원들의 의지의 통일을 꾀할수 있었다.

김갑진은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는 정창남을 제외한 동무들이 건강하고 사기가 왕성했던 까닭에 모든 사업에 자신을 얻게 되였다. 더구나 리운영이 조금도 락심하거나 불평속에서 지내지 않고 묵묵히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것을 본 갑진은 은근히 그를 존경했다. 운영은 공장에 붙인 삐라 4백여매를 하루동안에 썼고 그것을 사고없이 분조책임자들에게까지 전달했던것이다.

그러나 역시 운영은 위원회사업에서 겉돌밖에 없었다. 갑진이가 올려보낸 운영에 대한 건의는 이튿날 각하(청원을 물리침.)당하였기때문에 좌우간 조직밖에 있게 된 그에게 정식으로 사업분공을 줄수 없었다. 그래 운영이 맡아보던 선전을 명한과 인애에게 맡겼다.

운영은 동무들에게로 돌아다니며 며칠밤을 잤다. 주조의 학수가 학살당하던 날은 창남의 병실에서 잤다. 세멘트바닥에다 거적을 깔고 누우니 사지는 피로했으나 정신은 점점 선명해졌다. 인애에게서 빌려온 《무엇을 할것인가?》를 몇페지 읽다가 또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가군 했다. 그래 새로 두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그만 일어나게, 여보게—》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갑진이가 와있었다.

《좀 일어나야 하겠네.》

운영은 벌떡 일어나서 자리밑에 넣었던 《무엇을 할것인가?》를 힝하니 창남의 침대밑에다 지르고 돌아섰다. 창남의 안해는 바깥수도에서 무엇인지 빨고있는 모양이였다.

《학수가 학살당했네!》

《학수가! 무슨 일로?》

운영은 놀랐다.

《외투에서 〈로동신문〉이 나왔다나. 좌우간 삐라활동의 분풀이지!》

《어떻게 하겠나?》

《그보다도 어제 밤 중요한 지시가 떨어졌어! 래일을 기해서 일제히 구국투쟁의 총파업이 전개되게 되였네! 우리의 할일이 많네!》

이같은 말을 듣고있는 운영은 뛰는 가슴을 진정하기 어려웠다. 애오라지 흥분에 사로잡혀서 웨쳤다.

《갑진이! 우리 공장에도 그 투쟁에 호응할 조건이 조성되여있네! 우리의 힘을 보이게 되였네!》

《그러이!》

《갑진이, 나에게도 과업을 주게!》

《자네를 부르러 왔네!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 한시간안으로 명한동무에게로 오게!》

갑진은 이렇게 말하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닫겨진 방문안에서 잠시 운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담배갑을 집어들었으나 도로 놓고 창앞으로 갔다. 준엄하게 솟은 북악산과 유순하게 보이는 남산사이에 널려있는 크고작은 건물들이 병실 창밖으로 바라다보였다. 아담한 서울시가—일제 40여년 동안의 착취와 기점, 8.15후 오늘까지는 미제침략자들의 거치른 발굽들이 어지럽힐대로 어지럽힌 도시—서울은 지금 쌓이고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있었다.—나는 평화를 사랑한다! 미군이여 나가라, 어서 나가라!— 하는 웨침이 마치 화산에서 불이 치솟듯이 금시 폭발할것 같았다.

시가를 바라보던 운영은 급히 돌아섰다. 머리를 쓰다듬고 수건으로 얼굴을 쓱쓱 닦은 다음 창남의 안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외투깃을 치켜올리고서 아현정쪽으로 향했다.

공장에 출근해야 할 인애와 덕호까지 참가한 긴급위원회가 소집되였다. 운영과 련락을 책임진 덕호도 참가한것이였다.

회의에서 다섯종류의 삐라 (《유엔조선위원단》반대, 남반부의 민주개혁실시, 《단선단정》 반대, 동양인쇄의 군정관리 반대 등)의 작성위원으로서 갑진과 명한 그리고 운영이 결정되였다. 삐라원고를 공장에 전달할것과 삐라를 인쇄하기까지의 분공이 조직되였고 파업의 순서가 토의되였다. 련락망과 선전원, 삐라산포원, 구호대가 조직되였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한시간반후에 끝나고 각각 활동하기 시작했다.

인애는 어머니의 삭망(상중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루날과 보름날

에 지내는 제사)을 지냈다는 구실로 늦게나마 곧 공장으로 나갔다. 운영은 갑진, 명한과 함께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 수영과 세준은 기폭과 프랑카드 재료를 구하러 나갔다.

점심시간전에 삐라원고가 완성되였다. 운영은 말끔히 면도를 하고 색안경을 썼다. 그리고 동무들속에서 그중 성한 외투와 모자를 빌려입고 썼다. 그리고 삐라원고를 몸에 넣고 공장으로 달려갔다. 《대한로총》패들에게 그중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운영이였다.

《누구요?》

수위실에서 불러세우려 했다. 운영은 태연히 멈춰서서 퉁명스레 말했다.

《나를 첨 보오? 한영출판사요—》

그리고는 접지를 끝낸 출판물을 내흔들며 역시 고르지 않은 음성으로 《이걸 인쇄라고 했소! 이게 무슨 책인줄 아오, 글쎄! 〈리승만박사연설집〉을 이렇게 인쇄했으니…》이같이 소리치며 수위실을 지났다. 귀는 등뒤에 있었다.

《나더러 그러문 뭘 하갔게— 공장에 빨갱이천지인걸 모르고…》

이같이 두덜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운영은 안으로 들어섰다. 삐라원고는 재빨리 인애에게 전해졌다.

《각 분조에 침투되였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 인애는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운영은 역시 태연히 접지를 끝낸 그 서적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기다리고섰던 사무실 분조책임을 맡은 유도순 경리부원이 그를 안내했다.

《누가 문선 책임자요?》

미안해하는 표정을 하는 경리부원 유도순을 뒤에 세워놓고 운영이 웨쳤다. 그러자《당신은 누군가?》하며 《대한로총》패가 달려들었다. 리운영이 나타난것을 목격한 종업원들의 얼굴에는 누구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지 못하는 표정들이 전기처럼 스쳐가군 했다. 운영의 가슴도 뛰였다. 매일, 매시 함께 일하고 함께 《인터나쇼날》을 부르던 동무들이 거기들 있었다. 그는 눈시울이 뜨끔해지고 무엇인지 웨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아래배에다 힘을 주고 소리쳤다.

《누군지 알것도 없소! 여기 접은 페지를 모두 고쳐서 문선하시오. 이게 무슨 책인데 글쎄…》

《대한로총》패는 책을 받아 뒤적거렸다. 그것이 보통인쇄물이 아닌것을 알자 침먹은 지네가 되였다. 운영은 죽 동무들의 얼굴을 훑어본 다음《부탁하오, 여러분!》그리고 유도순에게《다섯페지밖에 안되니 오늘안으로 해주시오!》했다. 그리고는 급히 허나 걸으로는 매우 느릿느릿 공장을 벗어났다.

갑진과 덕호는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종업원의 집을 투쟁본부로 정하고 벌써 그곳에들 들어가있었다. 공장에서 나온 운영은 갑진에게로 가서 삐라원고를 전하고 문선을 시작케 한것을 보고했다. 운영의 다음과업은 인쇄된 삐라 1만 5천매를 오후 8시 정각 경섭에게 전달하는 일이였다.

문선과 식자가 끝나고 3호기계에 걸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탈없이 인쇄되여간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여섯시에는 제본과에서 삐라를 자르는중이라는 보고도 들어왔다. 상고머리와 눈딱부리가 퇴근했다는 보고까지 듣고 운영은 다시 공장으로 나갔다. 밖은 벌써 어두웠다. 공장 변소뒤를 두어번 오락가락하던 그는 기침으로 신호를 했다. 그러자 가지고들어갔던 포장지로 싼 삐라뭉치와 인애의 손이 나왔다. 뒤이어 또 한개의 뭉치가 나왔다. 그것이 1만 5천매였다.

그것을 받아든 운영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지시를 받은대로 정동 리화녀자중학앞으로 갔다. 미국과자상자에다 꼭꼭 접어넣은 두 묶음의 종이무게는 량쪽팔이 아플 정도였다. 그는 급히 정동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에서부터는 점점 더 태연한 태도로 저쪽에서부터 걸어올 경섭과 마주칠 때까지 되도록 느리게 걸었다. 사람들의 왕래는 드물었으나 그러니만치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했다.

조심조심 그는 걸어갔다. 막 수도 사무소앞까지 왔을 때 그는 리화녀자중학근처에 서있는 경섭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경섭은 혼자 섰는것이 아니였다. 두서너사람의 괴상한자들과 서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확실히 곰보형사가 틀림없었다.

(아차!)하면서 그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열댓발자국쯤 떨어진 곳에서 또한 확실히 《개》같은것이 따르고있었다. 발걸음이 허청 디더졌다.

(어떻게 할것인가?)하고 생각하는 다음순간 그는 전신에 기운이 북받쳐올랐다. 수도국 정문안으로 슬쩍 들어선 그는 어둠속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호각소리가 들렸다. —도적이다, 도적 잡아라— 하는 소리와 발굽소리가 들렸다. 운영은 전력을 다해서 뛰였다. 뛰여가서 담너머로 삐라보따리를 던지고 자기도 재빨리 넘어뛰였다. 담너머 서대문소학교로 달려드는 형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가 생각던 그는 삐라보따리를 눈더미속에 처넣고 손바닥으로 쓸어덮었다. 그리고는 잠시 놈들의 발소리를 듣다가 학교뒤뜰로 해서 또 담밑으로 갔다. 얕은 담우에는 가시철망이였다. 좌우간 뛰여올랐다. 그리고 또 뛰여넘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금융조합련합회 기숙사가 있었다. 운영은 그곳 정문앞으로 가서 펄썩 주저앉았다. 더 걸어갈 기운이 없었다. 두다리가 정신없이 떨리는것을 겨우 붙안고 단내가 나는 목구멍을 추기려고 자꾸 마른침을 삼켰다. 무엇인지 볼로 기여내리는것이 감각되자 손을 대보니 끈적끈적하는 피였다. 철망가시에 관자노리가 찢어진것이였다. 그는 휴지를 꺼내 겨우 그 피를 닦고 상처를 가리고 할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전체 종업원들은 여느날과 같이 출근했다. 극히 필요한 이야기외에는 극히 드물게밖에는 말하지들 않았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들이였으나 되도록 태연한 태도를 취하려고 애썼다.

종업원들을 한층 흥분하게 한것은 어느틈에 들어왔는지 리운영, 최명한 그리고 수영과 세준이 공장안에 나타난 사실이였다. 그러나 로총패들은 그들이 들어와있는것을 모르고있는 사실이였다.

갑진은 그들이 은밀히 공장안에 잠입했다는 덕호의 련락을 받고 덕호와 함께 공장정문밖으로 달려왔다.

여덟시고동이 울렸다. 그러나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

《웬일이야?》

로종패들이 웨쳤다.

《이새끼야, 빨리 스위치 돌려!》

그러나 스위치를 꽂아도 기계는 돌지 않았다. 상고머리와 눈딱부리가 아래웃층으로 오르내리며 고아댄다.

《왜들 일 안해? 의?》

《정전이야?》

《아닌데…》

이같이 고아대는 가운데서 아주 공공연하게 삐라가 분배되였다. 새벽같이 서대문소학교 눈속에서 꺼내온 삐라까지 다 분배되였다.

《스위칠 꽂아라!》

상고머리가 거듭 웨쳤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전동선이 절단된것을 발견했다.

《이게 웬일야!》

《아니, 모타피대도 끊어졌구나!》

《빨갱이들 장난이다!》하며 상고머리는 비로소 종업원들을 훑어보았다. 우뚝우뚝 서있는 종업원들을 보고 웨쳤다.

《누가 장난을 했니?》

그때였다. 누구의 입에서 시작된것인지 《인터나쇼날》이 시작되였다. 노래소리는 전공장안에 퍼졌다. 상고머리는 자기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종업원에게로 달려들려다가《경찰을 불러, 경찰!》하며 아래층으로 뛰여내려갔다. 눈딱부리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잠시후 도로 놓았다.

《전화선도 끊어졌어!》

《뭐야?》

노래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로종패들은 마치 도적개가 쫓기듯이 앞을 다투어 정문으로들 몰켜나갔다. 관리인실로 들어갔던 운영과 명한과 인애는 도로 나왔다. 윌리암스는 전체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제출한 요구를 전부 승인하겠다고 하면서 통역을 데리고 급히 아래로 내려갔던것이다. 찝차 발동거는 소리가 들렸다. 윌리암스도 도망쳐버렸다. 종업원들은 더욱 흥분

해서 노래를 불렀다.
얼굴에 상처가 난 운영이 인쇄기옆에 나타났다. 그는 동무들에게 포위되였다.
《동무들!…》
운영은 이렇게 웨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동무들의 손을 잡았다.
《나갑시다! 동무들!》
공장 뜰에는 이미 종업원들이 모였고 프랑카드가 기운차게 날으고 있었다. 공장 울밖에는 군중이 첩첩으로 둘러싸고있었다. 삐라가 뿌려졌다.
《미군 나가라!》
구호대의 선창으로 이같은 우렁찬 웨침이 주위를 뒤흔들었다. 갑진이가 데모순서를 조직했다.
데모행렬의 선두가 정문을 빠져나갔을 때였다. 트럭 한대와 찦차가 달려들더니 호각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났다. 허나 어떠한 힘도 격랑처럼 밀려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꺾을수는 없었다. 카빙총소리가 났다. 그러나 행렬은 앞으로 앞으로 나갔다. 삐라가 눈날리듯 했다. 구호대들이 웨쳤다.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하자!》
《〈단선단정〉음모를 분쇄하자!》
종업원들은 호응해서 웨쳤다. 군중들도 섞여들어 함께 큰길로 나갔다.
큰길에는 전차들이 열대, 스무대 밀려서있었다. 전차승무원들도 파업을 일으킨것이다. 큰길 처처에서 삐라가 날렸다.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았다. 행렬옆으로 나온 운영은 행렬을 향하여 목청껏 웨쳤다.
《조선사람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합니다!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음모를 분쇄합시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세게 들렸다. 운영은 더욱 크게 웨쳤다.
《저 총소리가 누구를 죽이려는 총소리입니까! 저들은 평화로운 조선사람들의 가슴을 겨누고있습니다!》
그러자 경찰 서넛이 운영에게로 달려들었다. 허나 그와 동시에 행

렬에서 삐여져나온 십여명의 동무들에 의하여 운영은 행렬속으로 휩쓸려들게 되였다.

모자끈을 턱에 걸고 총들을 겨누어든 경찰들은 눈깔을 희번득거리며 행렬옆을 따랐다. 찦차들이 달렸다. 달리는 찦차우에서 엠피들이 총을 란사했다. 군중이 쓰러져갔다. 그러나 행렬은 멎지 않았고 군중은 물러서지 않았다. 로동자들과 시민들의 행렬은 파도처럼 점점 거세게 밀려들었다. 고함소리, 노래소리, 구호 웨치는 소리—

운영은 행렬선두에서 삐라를 살포하는 인애랑 수영을 보았다. 그는 또다시 행렬에서 벗어나와 군중을 향해 삐라를 뿌리며 거듭거듭《미군 나가라!》하고 웨쳤다.

그때였다. 경찰대가 그에게로 몰려와 그를 포위했다. 한자가 몽둥이로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운영은 재빨리 그 몽둥이를 받아 빼앗았다. 그리고는 노한 눈으로 소리쳤다.

《날 잡지 말고 미군을 내몰아라! 미군을!》

행렬이 다시금 운영을 흡수하려 했으나 엠피 대여섯이 총을 쏘며 달려들었다. 인애가 빠져나오라고 고함쳤다. 운영은 경찰들을 박차고 뛰여나오려 했으나 어느덧 포승줄이 허리에 감겨져버렸다. 그리고 한자는 그의 덜미를 잡았다.

다시금 동무들이 웨쳤으나 빠져나갈수가 없는줄 알자 운영은 뚝 멈춰섰다. 그리고 경찰들을 죽 훑어보았다. 지글지글 타던 증오의 표정이 스쳐가고 이번에는 더없이 그 더러운 짐승들을 모멸하는 웃음이 그의 입가에 떠올랐다. 그는 차차 뒤로 끌려갔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웨쳤다.

《조선인민 만세!》

동무들과 군중들이 그에 호응하여 웨쳤다. 다음순간 운영은 보이지 않았다.

×

3월 8일 오후 리운영은 구국투쟁에서 체포된 1 000여명의 청년들

과 함께 서대문감옥으로 이송되였다. 투옥된 이튿날 그는 마침 그 감방에 있었던 경섭의 소식을 들을수 있었다. 경섭은 바로 사흘전 전향성명서를 쓰고 출옥했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을 들은 운영은 서글펐다.

그러나 십여일후 인애가 면회를 왔었다. 인애는 어머니와 함께 지낸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후 이감된 출판로조동무에게서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이 발표되였다는것과 동양인쇄공장의 동무들이 그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파업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을수 있었다. 그같은 소식을 들은 운영은 가슴이 뛰였다. 운영은 그때까지도 일어나앉지 못했으나 이내 건강이 회복될것을 믿었고 언제든지 이 철창밖으로 나갈 날이 있을것을 굳게 믿었다.

1948. 4.

현대조선문학선집 54

소설집 개 선

편 찬	엄 용 찬
편 집	박 대 성
편 성	윤 승 화
교 정	김 정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9월 2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9월 30일

ㄱ－16329 값185원

ISBN 978－9946－22－408－4